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 주관 : 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회, 홍성생태학교 나무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6

1년의 활동을 마치며

양주명(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장)
모영선(이응노마을 총괄감독)
윤후영(이응노의 집 학예연구사)
전상진(이응노마을 신문 편집인)

11

Ⅰ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53

Ⅳ 2017 이응노마을 주민 역량강화 사업

1. 이응노마을 주민 '힐링 반상회'
2. 이응노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수월마을'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미술관'과 서산시 '유기방 가옥'
   · '부여서동연꽃축제장'과 삽교읍 상하1리 초막골마을
3. 이응노마을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일본 키소 후쿠시마 · 도쿄
4. 이응노마을-결성향교 연계 주민 선진지 견학
5.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 농촌 · 농업 · 농민을 위한 마을 활성화

89

Ⅴ 2017 이응노마을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1.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
2.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
3.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
4. 이응노마을 풍물패 운영

133

Ⅶ 2017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 이응노마을 사람들
   · 이응노마을과 함께
2.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3. 농림축산식품부, 시 · 군 창의 사업

155

Ⅷ. 2017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2.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3. 이응노의 집, 행사 이야기
4. 이응노의 집, 방문 이야기
5. 이응노의 집, 시설 이야기
6.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7. 이응노마을과 함께

15

Ⅱ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1. 거버넌스 예비회의 1회 차~3회 차
2. 거버넌스 전체회의 4회 차~19회 차

35

Ⅲ 이응노마을 신문
1.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과정
2.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변화

121

Ⅵ 2017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용
2.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책 읽기
3.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 공간' 조성
4.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5. 이응노마을, 마을지도 완성
6. 이응노마을 예술시장 구축

205

Ⅸ. 이응노마을 향후 발전 위한 연구
1. 마을 자치공동체 만들기
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39

특별부록
1. 이응노마을 '2016 문화예술잔치' 이모저모
2. 이응노마을 '2017 문화예술잔치'
3. 사진과 함께 하는 이응노마을 10대 뉴스





3년의 긴 세월 통과한 마을, 알곡' 처럼 더욱 깊고 넓어지기를

이응노마을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무심코 가을들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베어버려 '고개 숙인 벼' 들의 자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빈 들녘은 고즈넉하기만 합니다. 이제 사라진 벼처럼 끝인가 봅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빈 들녘처럼 휑 하니 바람만 붑니다. 아무리 애써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흔적' 도 없어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3년의 세월은 '운명의 지침' 을 돌려놓고, 세월의 깊이를 더해 덧쌓여 갑니다. 빈 들녘의 황량함 뒤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흔적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일용할 양식' 이 쌓이고 쌓여 빈 곳간은 어느 샌가 곡식이 가득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불을 밝히는 촛불처럼, 탈탈 털리어 알몸으로 남았지만, 그의 알뜰한 알곡은 우리의 소중한 양식으로, 자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빛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그리고 이응노마을. 이 마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웬 궁상이 이리 떠느냐고 힐난 하실지는 모르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마지막 해인 2017년 3년차를 맞아서도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주민들과 지역 예술가, 이응노의 집 관계자들 모두 부지런히 '예술마을' 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애씀은 말로 다 표현할 길 없습니다.

이응노마을 사업은 이제 3년의 긴 시간의 결실을 맺고, 다시 또 다른 4년의 맞아야 합니다, 그 한 복판이 서서, 서성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야겠지요, 한 눈 팔지 않고 닦아놓은 길 위에 푸르른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지요. 3년의 긴 세월을 통과한 마을, '알곡' 처럼 더욱 깊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응노마을 사업은 지난해처럼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을사업 전체를 계획하고 조율하며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을신문도 빠지지 않고 만들어졌고, 마을 영상도 제작되었습니다. 이응노마을 사업은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예술을 직접 체험한 교육프로그램도 이제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홍천마을복지회관도 '이응노마을회관' 이라는 멋진 간판을 달고 아름다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내 삶의 행복도 나의 이웃과 함께 할 때 더 빛나고 소중함을 알기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마을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3년간의 치열함이 마을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응노마을 사업을 위해 3년의 긴 세월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명 (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장 · 홍천마을 이장)

이응노마을의 '미래 비전'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자리 매김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간의 열정이 최종 마무리를 향해 저물어간다. 이제 '2017 문화예술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그 동안 '예술마을 조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유·무형의 소중한 결과물들을 드리는 일만 남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지, 늘 조마조마한 긴장감으로 3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그래도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견뎌냈다. 아니, 견뎌야만 했다.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 만은, 부족하고 아쉬워도 나름 최선을 다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최선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명백한 사실과 진실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맡긴다.

이제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간의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내놓는다. 2015년 첫해 연도인 1년 차에는 주민들과 친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유도해 마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 들으면서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2016년 중간 시기인 2년 차에는 주민들과 친밀감을 강화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더욱 내실을 기한 운영 방안과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성'의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특히, 2016년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을 위한 이응노마을의 첫걸음은,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마을 조성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들어가는 소중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소중한 성과에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의 노력이 더해 '2018 부부 특별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올해 2017년 마지막 해인 3년 차에는 마을 거버넌스 회의 정례화,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창작 공간의 마을 내 구축화, 마을 행사의 차별화, 마을장터를 통한 마을 농·특산물·관광상품 홍보 판매화,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브랜드 가치화, 협동조합의 조직화 가능성 등을 활짝 열어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를 통해 주민들 간 대동단결의 화합을 이뤄내길 바란다. 특히, 마을의 '미래 비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마을에서 3년간 추진한 유·무형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마을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3년 동안 이응노마을 사업을 함께 한 주민들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영선 (이응노마을 총괄감독 · 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

‘이응노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 언제 생겼더라? 마을을 방문한 외지인의 질문에 마을어르신이 정확한 햇수를 대지 못한다. 노인이라서? 아니다. 물리적 건물만 해도 일시까지 고정될 수는 없는 바, 이미 질문자체에 여러 답이 열려있다. 터파기 전부터 또는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보아온 분들은 아주 오래전으로 기억하고 준공 또는 개관 후 행사참여로 들렸던 분들은 그 때쯤부터 기억할 수 있다. 고암 이응노 선양의 의제설정 관계자는 더 오랜 기억의 숫자를 헤아릴 것이다. 우연히 지나다 들렸는데, 인생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하는 분은 그때로부터이고, 관심 없는 이들은 그때나 저때나 글쎄 하고는 자리를 뜰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응노마을’ 에는 언제부터 사셨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리고 ‘이응노마을’ 은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 답을 할까.
홍천마을에 사시는 분은“이응노마을은 읎었어, 여그는 원체 홍천부락이여”하시고 중계리 동막마을과 상 · 하산마을에 계신 분은“저쪽 기념관 쪽 어디여” 하신다. 소문과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이응노기념관이 만들어져서 그 쪽을 일컫는다하고, 문화특화마을사업의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브랜드 명칭으로 일컫는다.
그럼,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홍성에 있는 한 마을? 도청에서 가까운 예술마을? 쯤으로 얘기할까.
다시 질문을 해보자. 이응노마을이 뭐야? 홍천마을이 뭐야, 중계리마을이 뭐야, 홍성이 뭐야, 대한민국이 뭐야.
국가의 개념은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이 기본이다. 지역명은 행정구역별로 정해지고 땅은 지번으로 나뉘어 주인은 등기된 땅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그 땅, 부동산매매 대상이 아닌, 그 땅, 장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땅의 주인은 누구이고, 홍성땅의 주인은, 홍천마을의 주인은. 그래서 이응노마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창하게도 ‘주민의 올바른 인식의 변화와 공동체 회복’ , ‘행복도 제고’ 등을 구호 삼아 문화특화마을 거버넌스를 조직했으나 거버넌스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오히려 주변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몇 해 전, 감히 ‘예술마을’ 을 욕망하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것은 환상이었다. 본래 환상은 아무도 동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의 세계는 소통가능하고 그 소통이 점,선,면이 될 때 상상은 현실로 태어난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징의 세계인 예술이 상상(력)을 완수하지만 그 예술의 상상력을 말하고 움직여 실천하게 되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관념과 관조로만 있지 않는다. 예술마을, 이응노마을은 환상일 때 없는 것이고 세 사람의 주민이 새사람이 되어 함께 상상하면 이응노마을은 있다.

윤후영 (이응노의 집 ·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학예연구사)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벌 받는 심정으로 마을에서의 하루를 보낸다

이게 뭘까? 이게 될까? 로 시작했다. 결이 켜켜이 쌓였는데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렇게 애틋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끝이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누가 받나? 나는 죄인이다. 그리하여 벌은 내가 받는다. 그 천형의 벌,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갇혀 허우적거리다가 정신들만 하면, 끝이 난다. 이런 젠장 하고, 돌아서면 그래도 아쉬워 다시 또 한 번, 지독한 끈을 풀지 못하고 쩔쩔 맨다.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고 했다. 그 말만 믿었다. 그 말에 속은 줄도 모르고, 그 말만 믿고 세월의 결을 뚫고 여기 서 있다. 그 말의 진의도 모른 채….

풍덩풍덩 물속에 빠져 허덕이나 꼬르륵 가라앉는 꿈을 꾼다. 이 또한 죄 지은 나의 '슬픈 자화상' 이다. 결코 난 어리석지 않았고, 우직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 정답인 걸 이제야 깨닫는다. 매우 현명하고,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렇게 약삭빠르게 나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이걸 이제야 깨닫다니, 쓴웃음 짓는다.

마을에서의 3년,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뒤엉킨다. 마을에서 살다보니 끝내 마을 일을 맡고, 마을 일만 나에게 펼쳐진다. 나는 누군가? 를 되풀이해서 묻지 않아도 '나' 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묶여 있다.

죽어라 글만 쓰고, 죽어라 일만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한다. 방법이 잘못되었다. 살아라 살아라 해도 죽을 판인데 어찌 어찌 '죽어라' 만 하는가. 모양도 빠지고, 힘도 빠진다.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 는 말은 지당한 말씀이다. 먼 산 아득히 길이 보인다.

마을에서의 하루가 또 저문다. 이젠 정겨운 아저씨이고, 맘 좋은 아줌마이다. 우리 형이고 동생이다. 낯선 사람에서 낯익은 사람이 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이게 어리석음이고, 우직함이다.

터놓고 말 한 마디 나누기가 어디 쉽더란 말이냐, 비와 눈이 오면, 우산을 함께 쓸 그 사람, 나는 있느냐, 바람이 불면, 함께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더듬더듬 말 이어갈 그 사람, 나는 있느냐, 그 사람 찾는 세월이 꼬박 3년 걸렸다. 이게 어리석음이고, 우직함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사람' 을 알지 못하고, 아는 듯이 떠들어 댄 적이 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말하면,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벌 받는 심정으로 나는 오늘도 마을에서의 하루를 보낸다.

3년을 한결같이 나의 곁을 지켜준 나의 우리의 그 사람에게 인사 건넨다. 사랑한다고!

전상진 (이응노마을 신문 편집인 · 홍주문화연구회 회장)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Ⅰ.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발전 가능성 '긍정' 평가

충남도민평가단 현장방문 통해 "바람직한 방향 추진돼 매우 긍정적" 평가해

이응노마을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2년차 추진사항을 살피고, 지속적인 발전을 제안하기 위해 충남도민평가단 19명이,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마을 내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도민평가단은 먼저,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2년차 사업설명을 양주명 이장과 모영선 총괄기획자로부터 들은 뒤, 별의별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도자기공방, 나무공방 소풍, 창작공방, 마을신문사 등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사항을 파악했다.

현장을 둘러본 도민평가단은 설문작성을 통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도민평가단은 도내 15개 시 · 군 평가단과 도청 문화정책과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도민평가단은 이날 오전에는 홍성군 구항면 거북이마을을 방문, '거북이마당놀이' 재현행사를 평가했고, 오후에는 이응노마을을 방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2년차 추진사항을 평가했다.









거버넌스 정례화 및 마을상징물 · 지도 · 안내판 제작 설치 등 사업 확정

마을 거버넌스, 1~2월까지 3차례 회의 열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 방향 결정
마을 거버너스, 3월 중 2차례 전체회의 열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 최종 확정

이응노마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인 마지막 해를 맞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 정례화를 비롯해 마을상징물 · 지도 · 안내판 제작 설치, 교육 · 행사 · 축제 프로그램 등을 확정, 4월 초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한 마을 관광아트 상품과 농 · 특산물 상품개발 판매를 비롯해 주민리더 일본 선진지 연수와 국내 성공사례 마을 선진지 견학,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의 보완 등을 통해 3년 간 진행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거버넌스에서는 올해 1,2월 두 달 간 3차례의 예비회의를 열어 3년차 사업 실행계획을 논의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했으며, 2월 중순께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과 3월 21일 2차례의 거버넌스 전체회의를 통해 3년차 주민 역량강화 및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마을상징물 · 지도 · 안내판 제작 설치, 홍보 및 문화예술잔치 등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통해 마을 관광아트 상품 및 농 · 특산물 개발, 판로 개척
'별의별 작은 도서관' 독서토론회와 독서교육 프로그램, 영화감상 등으로 활성화 꾀해

이응노마을 3년차 주요 사업은 먼저 '거버넌스의 정례화' 이다. 매월 두 차례(첫째, 셋째 주 화요일)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예술마을 조성에 따른 추진사업과 다양한 행사 · 축제, 교육프로그램 등의 실행계획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예술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 중요하다고 판단, 주민과 지역 전문가의 거버넌스 회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깊이 있는 역량강화는 물론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동 소득창출 상품개발 등의 내실을 기한다.

또한 마을상징물 · 지도 · 안내판 제작 설치를 통해 '이응노마을' 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 간 소통의 기회도 확대한다. 그리고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내 '별의별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어린이 · 성인 대상 매월 2회 이상 독서토론회와 독서교육 프로그램, 영화감상등을 구성, 운영해 활성화를 꾀한다.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년차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 더욱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든다. 도자기공예 · 목공예 · 가죽공예 · 유리공예 등은 상반기 운영 후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유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아트 상품 제작 판매 등으로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 창작공방을 구축 운영한 지난해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의 빈 집을 창작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 마을 풍물패로 조직한 '고암풍물회'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내포지역 홍성 · 예산 공동생활권 선도지역(내포창조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관광아트 상품과 농 ·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공동판매 시설도 갖췄고, 올해 5월께 전국이응노미술대회에서 선보인다. 이후 정기적인 마을 관광아트 상품 및 농 · 특산물 판로를 모색한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통해 예술마을 자원 개발 및 마을 공동소득 창출 가능성 가늠

'힐링 반상회', '마을신문', '문화예술잔치' 등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동

주민리더의 선진지 연수는 올해 6월께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 '키소 후쿠시마'와 도쿄 스튜디오 지브리 · 오타기념미술관, 국립박물관 등에 다녀온다.

특히, 일본 키소 후쿠시마는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을로, 마을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상을 살펴보며 '이응노마을'로의 이식 여부도 살펴본다.

주민 선진지 견학은 올해 4~10월께 3차례 정도 다녀온다. 경상북도 청도군 성수월마을을 비롯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미술관' · 서산시 '유기방 가옥'과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장' · 예산군 삽교읍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등을 다녀온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소득 창출 및 농촌형 관광자원 개발, 예술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힐링 반상회'는 올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주민들 간 교류와 화합을 더욱 더 증진시키고, 마을신문 제작을 비롯해 블로그 · SNS 제작 홍보, 사업 기록책자 발간, 2017 '문화예술마을잔치' 등도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Ⅱ.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1. 거버넌스 예비회의 1회 차~3회 차
2. 거버넌스 전체회의 4회 차~19회 차



[거버넌스 예비회의]

마을 자생력과 미래 비전 구축 위한 '거버넌스 예비회의' 열려

2017년 1월부터 매주 예비회의 통해 3년 차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논의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에서는 2017년 1월 10일부터 매주 1회씩 예비회의를 열어, 올해 예술마을 조성 3년차인 마지막 해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주요 사업 등을 결정했다.

특히, 올해 사업 종료 뒤 이응노마을 복지회관과 별의별 작은 도서관, 도자기 · 목공 · 창작 공방, 한옥형 · 컨테이너형 창작스튜디오, 이응노의 집으로 이어지는 주요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스템 · 자원화로, 마을의 자생력과 미래 비전을 구축한다.

그리고 예술마을 조성을 넘어서,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주식회사, 마을기업 등) 조직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응노마을 3년차 사업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회의 확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마을 농 · 특산물 및 관광아트상품 개발 판매, 주민리더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주민 선진지 견학,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수정 보완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욱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첫 거버넌스 회의, 마을 내 주요 거점공간별 프로그램 내실화 기해

거버넌스 예비회의는 1월 10일 화요일 첫 회의 이후, 1월 17일과 2월 14일 화요일 등 모두 3차례 열렸다.

3차례 열린 거버넌스 예비회의는 양주명 이장을 비롯해 주민리더인 김숙자 부녀회장, 방정일 총무, 이승호 전 이장, 권재완 나무공방 소풍 대표, 신동학씨 등이 참석했다. 또 예술마을 조성 실무책임자인 모영선 총괄기획자와 김



두홍 사무국장, 전상진 마을신문 편집인, 김정숙 작가, 그리고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한진곤 소장과 이응노의 집 이창엽 팀장, 공필재 주무관, 윤후영 학예사, 이기선 · 유기백 교육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년차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의 실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비회의에서는 올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인 마지막 해를 맞아 힐링 반상회는 농번기를 피해 열리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이 운영된다.

특히,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민의 공동소득 창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 이응노의 집 연蓮밭을 활용한 연잎 · 연꽃차, 연잎밥, 연근, 연자 등 제품 개발과 도자기 · 목공 · 가죽 · 유리공예 등을 통한 관광품 개발 등 마을 공동소득 창출 가능성을 실험하고, 마을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그리고 협동조합(주식회사, 마을기업 등)을 조직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 운영 지원을 비롯해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과 시각예술 작가가 힘을 합쳐 '마을상징물' 을 제작한다. 그리고 마을지도 · 마을안내판도 함께 제작한다.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아동 ·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민 명함 제작과 주민 다큐멘터리 등은 '자화상 그리려 명함 만들기', '마을 이야기 다큐멘터리 · 단편영화' 등으로 변화를 꾀한다.



주민리더 및 주민 선진지 견학, 마을재생 성공사례 통해 접목 가능성 확인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선진 사례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본 시가현滋賀県 나가하마시長浜市의 '아트 인 나가사마', 토쿠시마현徳島県 카미야마神山町의 '카미야마 프로젝트', 나가노현長野県 키소마치木曽町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키소 후쿠시마' 가운데 한 곳을 방문, 마을재생 성공사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응노마을의 접목 가능성을 확인한다.

주민 선진지 견학은 마을노인회 · 부녀회 · 청년회 중심으로, 경상북도 청도군 성수월마을과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미술관, 서울시 북촌한옥마을 등을 방문,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마을신문은 매월 두 번씩 열리는 거버넌스 회의에서 편집방향을 결정,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홍성 · 내포지역은 물론 전국 미술관과 박물관, 공공시설, 마을 출향인 등에게 마을신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3차례의 거버넌스 예비회의를 통해 논의된 3년차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은 3월께 거버넌스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이를 토대로 4월 초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모영선 총괄기획자는 "1,2년차 사업은 주민 간 화합과 교류 확대, 주민의 예술 생활화, 마을의 공동소득 창출에 중점을 둬 주민 역량강화와 소득 창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서, "올해 3년차 사업은 마을의 자생력과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공간 구축, 시스템 · 자원화를 통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전체회의]

이응노마을 사업 성공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적극 운영

올해 주민역량강화 생활예술 · 선진지 견학 등 주요 프로그램 확정, 4월부터 본격 운영해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 4,5차 회의가 3월 7일 화요일과 3월 21일 화요일 두 차례 열려, 4월 초께 시작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두 차례의 거버넌스 전체 회의에서는 4월부터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목공예)', '내가 만든 밥그릇(도자기공예)', '함께 만들어요!(유리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가죽공예)', '고암풍물회' 양성과정,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마을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지역 농산물), 협동조합(주식회사, 마을기업 등) 교육 등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개최시기 및 교육과정 등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마을주민뿐 아니라 용봉산권역(상하리 · 중계리) 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에도 문을 활짝 열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을신문 · 마을 다큐 · 마을 상징물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속 스스로의 힘 길러낼 듯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주민리더 선진지 견학은 올해 6월 중순께 주민리더 12명이 일본 나가노현長野県 키소마치木曽町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배우기 위해 출국한다. 주민 선진지 견학은 4월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 5월 경기 양양유원지 · 당진 아미미술관 · 서산 유기방 가옥 등을 다녀올 예정으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또한 올해 5월 13일 열리는 전국이응노미술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치러진다. 마을부녀회 음식부스 및 마을장터가 운영되고, 마을청년회의 교통정리 지원과 마을대표 수상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작가 참여 아트프리마켓과 중고물품 나눔장터도 운영되며, 지속적인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대회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마을 다큐멘터리는 1, 2년차에서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를 주제로, 주민 10명 가족의 일상의 삶과 마을에서의 생활을 그려냈다. 하지만 올해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를 맞아, 마을 전체의 일상생활과 마을자원, 마을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촬영하고, 마을의 이모저모를 기록화 한다.

마을신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두 차례의 거버넌스 회의에서 취재 · 편집회의를 열어 취재 · 편집방향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직접 쓰는 기사' 지면을 늘려나간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매월 정기적인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을상

징물 설치, 마을자원 기록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집중적인 주민자치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일정

번호	프로그램명	일 정	시 간	강 사
1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목공예)	4~7월	2시간	권재완
2	내가 만든 밥그릇(도자기공예)	4~7월	2시간	주남수/김종석
3	손 안의 명품 만들기(가죽공예)	4~7월	2시간	김정숙
4	함께 만들어요(유리공예)	행사 일정 맞춰	행사 시간 맞춰	방정일
5	마을풍물단 '고암풍물회' 운영 활성화	3~12월	2시간	황규현
6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7~8월	2시간	황선만/전상진/김영선
7	협동조합 교육	9~10월	4회/2시간	임영택/임기헌

〈표 1〉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히, 올해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응노마을 주민뿐 아니라 용봉산권역(상하리 · 중계리) 주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 용봉산권역(상하리 · 중계리) 주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가운데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이응노마을 양주명 이장(010-5393-8246), 홍성생태학교 나무 김두홍 사무국장(010-7184-9309), 이응노마을신문 전상진 편집인(010-9266-5721), 이응노의 집(041-630-923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1. 거버넌스 예비회의

거버넌스 회의 (1회 차)

일시 : 2017년 01월 10일(화) 12시 30분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한진곤, 이창엽, 공필재, 윤후영, 이기선, 유기백,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김정숙 外
내용 : 2017 '이응노마을' 사업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계획(안) 마련

▶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민 공동체 의식 제고 (주민 자치력 제고)
⇒ 문화예술 생산과 향유 지속 (소득사업의 가능성 실험)
경관 조성사업(연밭), 공간 운영사업(별의별 작은 도서관과 도자기공방), 마을신문사(소식지 형식의 잡지→인쇄, 출판업으로 확장 필요), 용봉산권역 '용봉산 돌바위마을 한마음센터' (숙박 外)

▶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확대
⇒ 현 거버넌스 운영위원, 이응노마을 주민, 용봉산권역 주민, 홍성지역 · 내포신도시 주민, 기타 외부인
→ 마을단위 각종 협동조합 조직화 기반 마련

▶ 이응노마을 2017년 '문화예술잔치'
⇒ 마을복지회관 '별의별 공간'과 마을 내 '창작 공간' 견학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 도자기공방 · 나무공방 소풍 · 마을신문사 · 창작공방 · 산야초 · 효소내포드림팜 산야초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이응노의 집)

▶ 이응노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고암풍물회' 운영 지원,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주민 희망자 없을 경우, 마을관련 소재 선택 후 단편영화 제작도 가능), 주민 명함 제작(주민 희망자 없을 경우, '자화상 그리기' 강좌 후 명함 제작 고려), 힐링 반상회(이응노마을 사업 경과보고 및 설명회, 강연 · 강좌 개최 통해 주민의식 변화 유도, 영화감상, 연극 · 음악공연 등 진행), 마을지도 · 마을안내판 ·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

▶ 이응노마을 시스템 · 자원화 프로그램
⇒ 거버넌스 회의 정례화(매월 2회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별의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별의별 도자기공방 · 목공방 · 창작공방(가죽, 은, 천연염색) 운영 활성화, 마을신문사 운영 활성화

▶ 이응노마을 주민 · 주민리더 선진지 견학
⇒ 강연 · 강좌, 설명회 후 선진지 견학 (주민 의식 제고 필요)

▶ 이응노마을 공연 프로그램 확대
⇒ 힐링 반상회 또는 별의별 작은 도서관, 마을복지회관 활용 확대 (영화감상, 연극 · 음악공연 확대)

▶ 이응노마을 공동소득 창출 연계 프로그램
⇒ 2018년부터 '전국이응노미술대회', '한여름 밤의 예술마실', '문화예술잔치' 등과 연계, 축제화 필요
⇒ 상설매장 설치 통한 소득 방안 모색 → 지속적인 방안 마련 필요

거버넌스 회의 (2회 차)

일시 : 2017년 01월 17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신동학, 이창엽, 공필재, 윤후영, 이기선,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김정숙 外
내용 : 2017 '이응노마을' 사업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계획(안) 마련
–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문
▶ 거버넌스 회의 – 회의 정례화 (매월 2회 첫째, 셋째 주 화요일)
▶ 힐링 반상회 – 감독과 영화보기, 건강 체조, 미술활동 등 진행 협의
▶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국내외 선진지 선택 (제주, 일본 등)
▶ 주민 선진지 견학 – 마을노인회 · 부녀회 · 청년회 중심으로 3회 차 진행 협의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유리공예 (이응노마을 브랜드 관광상품 제작 시도)
▶ 마을 공동소득 창출 '협동조합' 교육 (거버넌스 회의 통해 교육 진행 예정)
▶ 마을지도 · 마을안내판 · 마을상징물 등 제작 설치 – 주민 참여 여부 협의
▶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 주민 5명 선정 또는 마을 소재 단편영화 제작 협의
▶ 마을 풍물패 '고암풍물회' 운영 지원

거버넌스 회의 (3회 차)

일시 : 2017년 02월 14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방정일, 김숙자, 권재완, 신동학, 이창엽, 공필재, 윤후영, 이기선,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2017 이응노마을 사업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계획(안) 마련
▶ 거버넌스 회의 – 회의 정례화 (매월 2회 첫째, 셋째 주 화요일)
▶ 힐링 반상회 – '3월(안)' 과 '4월(안)' 가운데 3월 6일(1차 마을)과 3월 15일(2차 마을) 개최 확정
▶ 주민리더(12명) 선진지 연수 – 5~6월께 일본 선진지 연수 확정 협의
▶ 주민 선진지 견학 – 마을노인회 · 부녀회 · 청년회 별로, 3회 차 진행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유리공예 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교육과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협의 (주민 수강생 부족 시 용봉산권역 주민 및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참여 여부 협의)
▶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 마을 소재 단편영화 제작 협의

※ 2017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일정

▷ 논의, ▶ 진행, ○ 완료, ● 추진

구 분	내 용	1월				2월				3월				4월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원 완료		▷	▷	▶	▶	▷	▶	▶	▷	▶	▷	○	●	●	●	●
행정	공모		▷	▷	▶	▶	▷	▶	▶	▷	▶	▷	○	●	●	●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완료		▷	▷	▶	▶	▷	▶	▶	▷	▶	▷	○	●	●	●	●

※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예비회의 및 전체회의 체제 구성 완료

구분	소속 (기관/단체명)	성명 (담당자명)	주요역할	주요경력 및 활동실적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윤후영 이수연 이기선 유기백 정승욱	· 컨트롤타워 ·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	· 전시기획 및 학예연구 · 도예가 및 교육담당 · 교육담당 · 교육담당 · 교육담당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리더)	홍천마을 홍천마을 홍천마을 홍천마을 홍천마을(나무공방 소풍) 홍천마을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 주민자치회 (이응노마을추진위원회)	· 이장 · 총무 · 부녀회장 · 전 이장 · 목공장 · 주민리더
행정부서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 사업소(문화시설)	이순화 이창엽 공필재 송병숙 外	· 행정 · 서무 · 행정 · 서무 · 행정 · 서무(예산 · 회계) · 예산 · 회계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 홍성군 공무원
지역문화영역	홍성생태학교 나무 홍성생태학교 나무 홍주문화연구회 내포로하스조형연구소 내포문화미디어센터 생활창작집단 끌 별의별 도자기공방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김정숙 김종석 外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진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 저술 및 공연기획 · 생활공예 및 공공미술 · 영화 · 영상 제작 · 생활공예 · 생활공예

2. 거버넌스 전체회의

거버넌스 회의 (4회 차)

일시 : 2017년 03월 07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 마을부스 참여 여부 협의 (마을부녀회의 먹거리장터 및 마을장터 운영, 마을청년회의 교통안전 및 행사장 안내지원 등)
▶ 3월 힐링 반상회 – 반상회 후 참여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서지명 강사 지도로, 비누 만들기 진행)
▶ 주민리더(12명) 선진지 연수 – 6월 중순께 일본 선진지 연수 진행 협의 (시가현 나가하마시 '아트 인 나가하마', 토쿠시마현 카미야마 '카미야마 프로젝트', 나가노현 키소마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등)
▶ 주민 선진지 견학 – 마을노인회 · 부녀회 · 청년회 중심으로, 3회 차 진행 일정 협의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합덕성당, 대호방조제, 서울 북촌마을, 경기 안양 안양예술공원,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 등)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모집 홍보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 4, 5월 시작 예정,
유리공예 → 어린이날, 전국이응노미술대회, 한여름 밤의 예술마실, 홍성역사인물축제, 문화예술잔치 등 행사 시 운영
▶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 마을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협의
▶ 마을신문 취재 및 편집회의 정례화 – 매월 2회 거버넌스 회의에서 취재 및 편집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5회 차)

일시 : 2017년 03월 21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 5월 13일(토) 대회 개최 결정, 마을부스 참여 여부 협의 (마을부녀회의 먹거리장터 및 마을장터 운영, 마을청년회의 교통안전 및 행사장 안내지원 등)
▶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6월 중순께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 방문 결정 (4월께 사전답사 및 사전교육 4회 실시 예정)
▶ 주민 선진지 견학 – 1회 차는 마을부녀회 · 청년회,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 로 결정 (2회 차는 마을노인회, 3회 차는 마을주민 전체 진행 →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합덕성당, 대호방조제, 서울 북촌마을, 경기 안양 안양예술공원 등)
▶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 마을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확정
▶ 마을신문 편집회의 – 3월 편집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6회 차)

일시 : 2017년 04월 04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노보성, (조창희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 조창희 홍성미술협회 사무국장과 참여단체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협의(1회차), 마을부스 참여 확정 (마을부녀회 먹거리장터 및 마을장터 운영, 마을청년회 교통안전 및 행사장 안내 지원 여부)
- ▶ 4월 힐링 반상회 – 반상회 후 참여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서지명 강사 지도로, 향초 만들기 진행)
- ▶ 주민 선진지 견학 – 1회 차는 4월 2일(일) 마을부녀회 · 청년회,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로 선진지 견학 다녀옴
-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4월 3일(월) '도예-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 시작 (주남수 · 김종석 강사 지도로, 수강생 6명 참석해 수업 진행)
- ▶ 주민인터뷰 다큐멘터리 – '마을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확정'에 따라, '기존 마을의 역사적 스토리를 담느냐, 마을 전체의 일상생활을 담느냐' 두고 협의
- ▶ 마을신문 취재 회의 – 4월 취재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7회 차)

일시 : 2017년 04월 28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노보성, (조창희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 조창희 홍성미술협회 사무국장과 참여단체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협의(2회차)
- ▶ 주민 선진지 견학 – 2회 차는 4월 12일(수) 마을노인회, '경기도 안양 안양예술공원,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서산 유기방 가옥' 등을 다녀옴 (3회 차는 7월께 '부여서동연꽃축제장' 에 다녀올 예정)
-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4월 7일(금) '목공예–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 시작 (권재완 강사 지도로, 수강생 10명 참석해 수업 진행)
- ▶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 독서동아리 구성 필요, 어린이 · 성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협의
- ▶ 마을 상징물 설치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 이를 기념하는 주민 참여 마을상징물 제작 필요에 따라 추진시기와 방법 협의
- ▶ 마을신문 편집 회의 – 4월 편집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8회 차)

일시 : 2017년 05월 02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조창희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 조창희 홍성미술협회 사무국장과 전체행사 일정 협의(3회차)
- ▶ 5월 힐링 반상회 – 반상회 후 참여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서지명 강사 지도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진행)
- ▶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 독서동아리 구성 필요, 어린이 · 성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협의 (7~8월께 여름방학 기간 김영선 방과 후 지도교사 지도로,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 ▶ 마을신문 취재회의 – 5월 취재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9회 차)

일시 : 2017년 05월 16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공필재,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 2017 전국이응노미술대회 평가 – 지난해보다 참여 학생 및 가족 줄어들어, 전체 행사는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 1박2일 캠핑형 축제형식의 대회 만들어야, 대회 규모도 지역단위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치러야 등등



▶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5월 8~12일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 사전답사, 6월 12~16일 4박5일 간 일정 확정 (5월 30일 화요일 10회 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사전교육 실시)

▶ 마을신문 편집회의 – 5월 편집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10회 차)

일시 : 2017년 06월 06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주민리더들의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및 도쿄 주요 미술관, 박물관 방문(6월 21~16일 4박 5일간)에 따라, 일본 견학 선진지 연수 관련 사전교육 진행

거버넌스 회의 (11회 차)

일시 : 2017년 6월 20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 주민리더들의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및 도쿄 주요 미술관, 박물관 방문(6월 12~16일 4박 5일간)에 따라, 일본 견학 선진지 연수 관련 평가회의 개최

∴ 양주명 이장은 "키소 후쿠시마 마을의 주식회사 설립 운영은 우리 마을에서도 한 번 시도할 만하다"며 "마츠리라는 마을축제가 열릴 때, 출향인들이 모두 참여한 것을 보고 부러웠고, 소바 체험도 신선했다.

우리 마을에서도 농 ·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연잎 체험 등을 상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숙자 부녀회장은 "일본 어디를 가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제일 부러웠다"며 "소바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도 연잎을 활용해 칼국수, 수제비 등의 상품화도 가능한 걸 배웠다"고 말했다.

∴ 이승호 전 이장은 "검소함과 옛것을 보존하고, 공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을 보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 방정일 총무는 "쓰마고주쿠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보고 부러웠다"며 "마을 수익구조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권재완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대표는 "키소 후쿠시마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의 경우, 행정당국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수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주민 공동수익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동학 주민리더는 "일본 음식이 맞지 않아 별로였지만, 깔끔한 거리와 옛것을 보존하는 일본인에게선 배울 것이 많았다"며 "이런 점을 마을에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 주남수 홍성미술협회 회장은 "키소 후쿠시마 마을의 자부심은 역량강화를 통해 쌓인 결과"라며 "마을의 특색을 찾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보성 내포문화미디어센터 대표는 "이번 일본 선진지 연수를 통해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더해졌다"며 "행정과 무조건 소통이 절실하다.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두홍 마을 조성사업 사무국장은 "키소마치의 농가레스토랑 운영 방식을 이응노마을에 접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며 "옛 것을 보존하고, 그 옛 것을 상품화하는 능력은 깊이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모영선 마을 조성사업 총괄감독은 "마을단위 주식회사 방식을 이응노마을에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환원된다면, 시도할 만하다"고 말했다.

∴ 전상진 마을신문사 편집인은 "마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키소마치 주민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떤 형식과 방법이라도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참여가 절실함을 느꼈다"며 "이응노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마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회의 (12회 차)

일시 : 2017년 07월 04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 7월 힐링 반상회 – 농번기인 관계로, 7,8월 힐링 반상회는 개최하지 않음.
- ▶ 주민 선진지 견학 – 3회 차는 7월 11일(화) 충남 부여 '부여서동연꽃축제장' 과 예산 삽교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방문 예정
-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상반기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교육프로그램의 완료에 따라,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별의별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친환경 유기농법, 로컬푸드 식당,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내용 및 일정 협의

▶ 마을지도, 상징물 설치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 이를 기념하는 주민 참여 마을지도 및 상징물 제작 필요에 따라 추진시기와 방법 협의 (11월 4일 마을 '문화예술잔치' 전까지 완료 예정)
▶ 마을신문 취재회의 – 7월 취재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13회 차)

일시 : 2017년 07월 20일(목)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주민 선진지 견학 – 3회 차는 7월 11일(화) 충남 부여 '부여서동연꽃축제장' 과 예산 삽교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다녀옴.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상반기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교육프로그램의 완료에 따라,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별의별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친환경 유기농법, 로컬푸드 식당,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내용 및 일정 협의 (네 차례 강좌 개최 확정)
▶ 마을신문 편집회의 – 7월 편집 방향 논의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회의 (14회 차)

일시 : 2017년 08월 22일(화) 11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8월 힐링 반상회 – 농번기인 관계로, 7,8월 힐링 반상회는 개최하지 않음.
▶ 주민 선진지 견학 – 결성향교와 연계, 11월 19일(일) 충북 청주 방문 시 마을 부녀회 · 청년회 참여 여부 협의 (추후 협의 예정)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상반기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교육프로그램, 별의별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완료에 따라,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유기농법, 로컬푸드 식당,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내용 및 일정 협의 (9, 10월께 강좌 진행 예정으로, 현재 강사 섭외 중)
▶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서 심사 – 7월 20일 제안공모 사업공고, 7월 25일 제안공모 사전설명회, 7월 25일부터 제안공모 신청서 접수를 통해 제안공모서 제출한 두 작가 작품 모두 마을 미래 비전 담지 못했다는 결론, 9월께 제안공모 재공모 실시 (11월 4일 마을 '문화예술잔치' 전까지 완료 예정)
▶ 마을지도 제작 설치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 이를 기념하는 주민 참여 마을지도 제작 필요에 따라 마을지도는 윤후영 학예사가 '옛 지도' 형태로 그리기로 결정 (11월 4일 마을 '문화예술잔치' 전까지 완료 예정)
▶ 한여름 밤의 시네마 천국 – 8월 19일(토) '한여름 밤의 예술마실' 을 축소해 영화 '덕혜옹주' 상영 (다음 주 일정 잡아 홍성 CGV 영화 '택시운전사' 관람 예정)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 9월 7~9일 '오픈 스튜디오' 개최됨에 따라, 9월 7일(목) 오픈 스튜디오

Governance

개막식날, 마을주민 적극 참여 요청

▶ 마을신문 편집회의 – 8월 편집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15회 차)

일시 : 2017년 09월 05일(화) 11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9월 힐링 반상회 – 추수철 농번기인 관계로 9,10월 힐링 반상회도 개최하지 않음.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유기농법과 로컬푸드 식당,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9월께 강좌 진행 예정으로, 현재 임영택 강사 섭외 완료, 다른 강사 섭







외 중) / 별의별 도자기공방 운영 활성화 위해 김종석 강사 섭외 완료, '주물주물 도예교실' 로, 밥그릇 · 머그컵 · 다육 화분 · 문인화그리기 등 창의적인 작품 · 성공적인 공방창업 · 소성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 수, 금 운영 예정

▶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서 재공모 심사 – 8월 29일 제안공모 사업 재공고, 9월 18일부터 제안공모 재공모 신청서 접수를 통해, 9월 19일 제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심사 진행할 예정 (10월 31일까지 완료 예정)

▶ 마을지도 제작 설치 – 마을지도는 윤후영 학예사가 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완료 예정

▶ 2017 홍성역사인물축제 주제체험관 '이응노마을' 부스 운영 – 9월 22~24일 사흘간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부스 운영과 관련,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 '영화 간판 그리기', '유리공예–함께 만들어요' 등 프로그램 운영 협의

▶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 9월 7~9일 '오픈 스튜디오' 개최됨에 따라, 9월 7일 목요일 오픈 스튜디오 개막식날, 마을주민 적극 참여 요청

▶ 마을신문 취재회의 – 9월 취재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16회 차)

일시 : 2017년 09월 19일(화) 11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유기농법과 로컬푸드 식당,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현재 임영택 강사 섭외 완료, 임기현 강사 섭외 관련 9월 중 강좌 개최가 어려워 10월로 연기) / 별의별 도자기공방 김종석 강사가 마을 내 빈 집으로 이사 옴. 이에 따른 후속 지원 필요

▶ 마을상징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서 재공모 심사 – 제안공모서 재공모에 따라, 심사진행 결과 주남수 홍성미술협회 회장 '제안공모서' 선정, 추후 작가와 마을상징물 제작 방향과 관련 협의 진행 예정 (10월 31일까지 완료 예정)

▶ 2017 홍성역사인물축제 주제체험관 '이응노마을' 부스 운영 – 9월 22~24일 사흘간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부스 운영과 관련,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 '영화 간판 그리기', '유리공예–함께 만들어요'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주민 적극적인 참여 필요에 따라, 이승호 · 김숙자 · 방정일 · 권재완 · 이상일 · 김남례 · 이춘희 · 노순자 씨 등 섭외 완료

▶ 마을신문 편집회의 – 9월 편집 방향 논의

▶ 한 여름밤의 시네마천국– 8월19일(토) 노보성감독의 영화선정 및 준비요청

거버넌스 회의 (17회 차)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2017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 장소 : 이응노마을(홍천마을)복지회관 및 창작공방, 이응노의 집 일원
- 추진 계획

1. 주차시설 : 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 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2. 음식준비 : 마을부녀회 국수, 수육, 떡, 묵, 전, 김치, 과일, 막걸리 등 준비, 수도 및 가스, 화덕 설치, 테이블 운반, 음식물쓰레기통 비치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생가 앞 무대설치, 마을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홍성예총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섭외
4. 홍보계획 : 초청장 발송 1000통, 지역신문 광고, 홍성군 ·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
5. 자원봉사 :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자원봉사자 지원
6. 기타사항 : 천막 설치

▶ 이응노마을 문화마을 최종 평가용역 1,000만원 예산에 대해 문화마을 최종 평가용역의 금액을 최소화(3,330천원)하고, 이응노마을 도서관 전시대 및 평상설치(소풍공방-4,910천원) 및 도자기 공방 가스 안전설비 교체 및 안전검사(세종-1,760천원)에 사용 변경하기로 함.

▶ 마을신문 취재회의 - 10월 취재 방향 논의

거버넌스 회의 (18회 차)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윤후영,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2017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및 중간 점검
-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 장소 : 이응노마을(홍천마을)복지회관 및 창작공방, 이응노의 집 일원
- 추진 계획

1. 주차시설 : 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 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중간 점검
2. 음식준비 : 마을부녀회 국수, 수육, 떡, 묵, 전, 김치, 과일, 막걸리 등 준비, 11월 2일까지 수도 및 가스, 화덕 설치, 테이블 운반, 음식물쓰레기통 비치 중간 점검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생가 앞 무대설치, 마을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홍성예총 '찾아가는 거리예

술제' 섭외 점검

4. 홍보계획 : 초청장 발송 1000통, 지역신문 광고, 홍성군 ·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 중간 점검
5. 자원봉사 :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자원봉사자 지원 중간 점검
6. 기타사항 : 천막 설치, 마을신문 10월호 배포 중간 점검

※ 문화예술잔치 기간 마을주민 당번 지정 : 11월 4일(토)~12일(일)까지 마을복지회관 전시 및 상영물 관리, 마을투어 진행, 프로그램 향후계획 설명 등 담당

▶ 2017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 예산 변경 결정에 따라 평가용역(3,330천원), 이응노마을 도서관 전시대 및 평상설치(소풍공방-4,910천원), 도자기 공방 가스 안전설비 교체 및 안전검사(세종-1,760천원)를 진행하고자 함.

▶ 마을신문 편집회의 - 10월 편집 방향 논의

○ 거버넌스 회의 (19회 차)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12시

장소 :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2층)

참석 : 양주명, 방정일, 김숙자, 이승호, 권재완, 신동학, 윤후영, 공필재, 모영선, 김두홍, 전상진, 주남수, 노보성 外

내용 : 이응노마을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 2017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세부계획 협의 및 최종점검

-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 장소 : 이응노마을(홍천마을)복지회관 및 창작공방, 이응노의 집 일원
- 추진 계획

1. 주차시설 : 마을복지회관 및 이응노의 집 주차 안내판 비치 (마을 청년회 및 방범대, 교통안전 및 행사안내 담당) 최종 점검
2. 음식준비 : 마을부녀회 국수, 수육, 떡, 묵, 전, 김치, 과일, 막걸리 등 준비, 수도 및 가스, 화덕 설치, 테이블 운반, 음식물쓰레기통 비치 최종 점검
3. 무대준비 : 이응노의 집 생가 앞 무대설치, 마을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홍성예총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섭외 최종 점검
4. 홍보계획 : 초청장 발송 1000통(10월 29일 완료), 지역신문 광고, 밥상뉴스, 홍성군 · 이응노의 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 최종 점검
5. 자원봉사 :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자원봉사자 지원 중간 점검
6. 기타사항 : 천막 설치, 마을신문 10월호 배포 최종 점검

※ 문화예술잔치 기간 마을주민 당번 지정 : 11월 4일(토)~12일(일)까지 마을복지회관 전시 및 상영물 관리, 마을투어 진행, 프로그램 향후계획 설명 등 담당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Ⅲ. 이응노마을 신문

1.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과정
2.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변화

이응노마을 신문 제18호[2016.11]~ 제29호[2017.10]



1.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과정

마을과 주민, 외부와의 소통 위한 '마을신문사' 설치, 운영

컨테이너형 사무실 설치 … 주민과 함께 디자인해 마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듯
질 높고 체계 갖춘 신문제작 발간 가능 … 마을과 주민 간 소통의 연대 위해 최선

이응노마을에 마을과 주민 간 소통의 연대를 위한 '마을신문사' 가 생겼다.

2016년 8월 15일 문을 연 '마을신문사' 는 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옆 공터에 컨테이너형 사무실로 설치됐다. 마을신문은 그동안 2015년 6월 첫 호를 제작 발간한 뒤, 2017년 10월까지 총 29호의 신문을 제작 발간했다.

마을신문사 내부는 '신문 제작 발간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비치하고, 외부는 예술마을을 지향하는 마을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들이 함께 참여, 제안하는 디자인으로 꾸몄다.

이를 통해 예술마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마을과 주민,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마을신문' 제작 발간이 용이해졌고, 예술마을 명소로도 자리 잡게 됐다.

마을신문사가 설치에 따라 마을소식을 비롯해 마을자원 조사, 주민들 간 소통의 연대를 강화하며 질 높고 체계를 갖춘 신문제작 발간이 가능해졌다.

특히 마을신문사는 앞으로 마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기획 출판할 계획이다.

그동안 마을신문은 3년 간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본질과 기본계획,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변화모습 등을 모두 담아내고자 노력했으며,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난 예술적 토대 위에 예술마을 바뀌는 모습과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마을 만들기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웅노마을
신문사


작은 도서
동양의
새 영
"전통의 보
의미 되
이웅노
마을
"누군가, 무언가를 간절히 사랑하도
마음 다하겠습니다"

2. 이응노마을 신문 제작 변화

이응노마을신문, 마을의 변화와 발전 위해 끊임없이 '알찬' 내용 담고자 최선

마을의 변화와 발전 담겼다는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해… '사람과 희망의 연대' 위해 최선

이응노마을신문이 2016년 1월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마을과 주민의 연대, 주민과 주민의 연대, 마을과 마을의 연대를 중요시 여기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알찬' 내용을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인 3년차 2017년에도 그 약속은 유효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하면서, 매달 쫓기는 꿈을 꾸며, 원고를 넘겼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런데도 '그까짓 것' 하면서 원고를 넘겼다.

어디 때부터인가 글을 쓰는 게 천직으로 바뀌고, '글 같지 않은 글' 을 쓰면서 목숨 줄을 이어갔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질긴 천직은 바꾸지 않을까, 조심 반 기대 반 소망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고 몸부림치면서도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을 되뇌면서, 목숨 줄을 이어갔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마을의 사람과 희망 위해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2016년 1월호에 남긴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마을이 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약속은 꼭 지킨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화폭에 담긴 '사람의 연대' 가 볼 때마다 사무친다. 그는 무엇을 희망해서 그렇게 '사람의 연대' 를 열망했나,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연대' 를 꿈꾼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기록하면서, 나와 너, 우리의 연대를 꿈꾼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 은 없다. 이제 결론이다. '사람과 희망의 연대' 라면 아무 상관없다. 그대로 직진이다.

이응노마을 신문은 2015년 6월 첫 호를 발간한 후, 2017년 10월까지 총 29호의 신문을 제작 발간했다. 그동안 마을신문은 3년 간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본질과 기본계획,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변화모습 등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홍성군위생매립장 설치로, 여느 농촌마을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홍천마을이,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



난 예술적 토대 위에 예술적 환경으로 바뀌는 마을과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마을 만들기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마을의 예술적 환경조성 가능성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제 마을신문은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변화모습, 이응노의 집과의 연계성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겠지만, 이보다 앞서 마을과 주민들의 삶과 소소한 일상에 더 천착하고자 했다. 또 마을의 근본적이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응노마을 신문은 2016년 1월호(제8호)부터 2017년 10월호(29호)까지, 더 알찬 내용을 담아내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편집해 마을신문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그리고 그 밖의 독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한 바 있다.

첫째, 이응노마을의 예술적 변화를 생생하게 담도록 하겠다. 마을 곳곳의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홍성지역은 물론 국내외 예술가들이 마을에 정착,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도록 하겠다. 또 마을의 생태 · 환경을 해치는 여러 시설에 대해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대비해 변화를 꾀하도록 '풍경의 회복' 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겠다.

둘째, 이응노마을의 예술마을 만들기를 위해 국내외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겠다. 국내외 성공사례 마을의 독특한 경관 조성을 비롯해 마을 공동 소득창출 사례, 마을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 및 특별한 예술공간 조성, 주민들의 다양한 예술화와 생태 · 환경 회복의 노력 등을 담아내겠다.

셋째, 이응노마을의 생명은 '주민' 이다. 주민이 없는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낳고 자라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라면, 주민 또한 일생이라는 순환을 통해 마을에서 낳고 마을을 지키며, 그리고 마을을 떠난다. 주민들의 생로병사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마을을 위한 주민의 역할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겠다.

넷째, 이응노마을의 희망은 '마을아이들' 이다. 그 희망을 지키고 키워가기 위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싣고자 한다. 아이들이 꿈꾸는 마을과 세상을 아이들의 눈으로 그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마을 주변 학교인 용봉초등학교와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활용교육(NIE) 등을 실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의 희망, 아이들 이야기' 코너를 신설하겠다.

다섯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추진 핵심 목표인 이응노마을의 예술마을의 가능성과 변화를 더욱 밀도 높게 취재해 사업추진의 탄력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 또 사업의 추진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타 지역의 모범 마을 만들기 사례가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여섯째, 이응노마을은 이응노의 집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응노의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 강좌 등은 마을의 예술적 환경조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응노의 집에서 파생되는 인문학적 결과물들이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치도록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가겠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18 호]

2016 년 11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18 | 2016.11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영·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2016 문화예술잔치
마을이야기04-05 이응노마을 소식 2016 문화예술잔치
마을 만들기의 빛과 그늘06-07 둘째 마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산탄아트마인Samtan Art Mine
마을이야기08 이응노마을 소식 이응노마을 소식

표지이야기
COVER STORY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
'대왕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우다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 '대왕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우다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이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나라와 집단을 이끄는 리더(지도자)의 리더십(지도력)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성난 분노가 표출된 광화문의 촛불 민심, 침몰하지 않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힘없는 약자의 힘있는 강자를 향한 외침,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누구나 다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랑과 평화의 행진. 우리가 애써 외면한 채 살아오며 이제야 진실과 부딪치면서, 되뇌이는 마음속의 말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대왕 세종'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한다

'대왕 세종(이도李祹, 1397~1450, 재위 1418~1450)'이 조선을 다스린 약 32년의 기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잘 다스려진 시절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나라는 어지러웠다. 여러모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다. 국가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였던 세종은 가뭄, 태풍 등의 천재지변과 민심이 들끓는 사건사고에 더해 정치적 수완 발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왕 세종'은 암울한 위기 상황을 넘어 나라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안목眼目과 혜안慧眼, 민본民本과 애민愛民이란 바탕 위에 현상보다 본질을 보고 올바른 질문을 통해 국정과제를 계획하고 실천했다. 세종의 보이지 않는 질문과 생각,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소통방식, 음악과 과학 등 문화창달을 실천한 노력과 행동은 오늘 이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왕 세종의 리더십'에서 다시 배워야 한다는 화두話頭를 던진다.

'대왕 세종의 리더십'…백성위주·능력위주, 소통의 리더십 발휘

백기복 국민대학교 교수는 제주경총 노사민정 조찬포럼에서 '대왕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 글은 강연을 요약한 내용이다.

백 교수는 "세종의 리더십은 '근본을 바꾼다.', '끝까지 분석하여 진실을 본다.', '경계 없이 토론한다.', '마음을 얻어 세상을 이끈다.', '인재 없이 국가 없다.',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는 6가지 핵심 명제를 실천함으로써 발휘됐다"며 세종을 '실용적 리더'라고 규정했다.

근본을 바꾸는 리더십의 예로 백 교수는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글로 바꾼 것과 모든 제도를 백성위주, 능력위주로 바꾼 것을 들었다. 한자가 어려워 문맹률이 90%를 넘어 임금의 뜻이 백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우리말을 한자로 받아 적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백성들 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관노에게 부여하던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이고, 장영실과 김문 등 관노를 등용한 것 등이 세종의 '근본을 바꾸는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세종은 풍년이 든 해나 흉년이 든 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징수했던 세금을 백성들 각자의 의견을 직접 묻고,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세금부과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했다"며 이를 '끝까지 분석하여 진실을 본다'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했다.

백 교수는 세종 리더십의 핵심은 '토론'이라고 말하고 "세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토론하고 의논한 후 결정했다. 어정쩡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 수준의 격론을 벌이곤 했으며 토론을 할 때는 위, 아래, 좌와 우가 없이 경계 없는 토론을 함으로써 백성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정치지도자들이 세종의 '소통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백 교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세상을 이끄는 '마음경영'도 세종의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세종의 리더십을 경영인들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기복 국민대학교 교수
〈제주경총 노사민정 10월 조찬포럼〉
'대왕 세종의 리더십' 주제 강연에서

[이응노마을 신문 제 19 호]

2016 년 12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19 | 2016.12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명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주)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 만들기[03] 마을 만들기 — 〈특집〉 마을 자치공동체 만들기

마을 만들기[04·05] 마을 만들기 —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형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1 · 조직

마을 만들기의 빛과 그늘[06·07] 셋째 마을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흥 슬로시티(Slow City)

마을과 함께[08] 이웅노의 집·마을 소식 — 이웅노의 집·마을 소식

표지이야기

COVER STORY

희망과 행복의 마을 이끄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희망과 행복의 마을 이끄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마을 리더십, '앞장서서 끌어가고[迪] 솔선수범하여[率] 성과 거두는 힘[力] 있어야' 성공
하나가 이끌어가는 리더십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필요하다



올해 〈이응노마을신문〉을 마감하면서 지난 호(제18호)에 이어 이번 호(제19호)에도 리더(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지도력)을 말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리더 또는 리더그룹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부재[不在]에서 빚어지거나, 주요 정책과 의제의 오판[誤判]에서 빚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는 전부 다 백성[民]의 몫으로 부담으로 돌아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만 급급하다면, 그 리더십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마을리더의 올바른 리더십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을 위한 리더십, 주민 전체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일, 그 모두가 다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선순환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時代]에 우리는 서 있다.

'대왕 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십,
변화의 첫걸음은 진실 된 마음

다시 '대왕 세종'의 백성을 향해 따듯하고, 자신을 향해 엄정한 리더십에서 배운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끌어가고[迪] 솔선수범하여[率] 성과 거두는 힘[力]이 있어야 한다"는 '대왕 세종'의 적솔력[迪率力].

"리더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왕 세종'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한발 앞서 주도하고[先憂其人], 진실되게 솔선수범하여[誠心迪率], 반드시 실행하라[必求爲民]'는 이 엄청한 대답 속에서 마을리더들도 깊은 고민에 잠겨야 한다.

첫째, 문어농부(問於農夫, 현장에 답이 있다)는 '농부에게 물었다'라는 의미로, 세종 재위 7년(1425년) 극심한 가뭄에 처하자 세종은 현장을 직접 다니며 농부들에게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둘째, 생생지락(生生之樂,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리더의 소명이다)은 '생업을 즐겁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세종이 지방의 수령들에게 농부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당부했다. 세종은 생생지락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국정의 안정과 안정된 직업, 부모와 친척을 자유롭게 만나보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꼽았다. 셋째, 불가부진(不可不盡, 하늘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은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다른 표현이다. 백성들이 일터를 낙원으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려는 비전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지도자의 비상한 각오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노력이 따라주어야 한다. 넷째, 여민해락(與民偕樂, 더불어 즐거워하는 리더가 되라)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기쁨과 슬픔을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의 기본 리더십이다. 다섯째, 여민가의(與民可矣, 더불어 일하는 리더가 성공한다)는 '백성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민해락이 국가경영의 목적이라면 여민가의는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과정 또는 마음가짐을 가리킨다. 여섯째, 지렴지산(知斂知散, 버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둬들이는 방법을 알고, 흩어서 쓰는 법도 안다'는 뜻으로, 세종의 재정운영 원칙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세종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그렇다고 나라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 일곱째, 취민유제(取民有制, 세종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라는 의미로, 세종 재위 9년(1427년) 때 과거시험에 문제로 낸 말이다. 정치를 잘하려면 세금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세종은 17년간의 대토론을 통해 1444년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조선시대 전기의 세제 기틀을 마련했다. 여덟째, 제도명비(制度明備, 시스템으로 경영하라)는 '제도를 밝게 갖추어 놓았다'는 뜻으로, 세종 사후 신하들이 평가한 세종 치세 3대 비결 중 하나다. 세종 치세의 3대 비결은 현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시키는 인재경영,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국사를 기획하는 지식경영, 현능한 인재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일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 즉 시스템 경영이다. 아홉째, 독단위지(獨斷爲之,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할 일도 있다)는 '홀로 판단하여 그것을 했다'라는 의미로, 세종은 절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 '만장일치'라는 방법을 통해 신중을 기하고자 했으며, 구성원들의 지지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결의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회의 참석자의 이해관계로 그 과업이 좌초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묻고 다수의 지혜를 얻되 최종적으로는 왕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추진했다.

- 박현모 〈세종의 적솔력,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십〉 (흐름출판, 2016) 中에서



이응노마을 2년 차 사업 마무리,
마을주민 모두 새해 복[福] 많이 받기를!

이제 이응노마을의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간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힘. 희망과 행복의 마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마을리더의 올바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며, 마을의 미래는 '앞장서서 끌어가고[迪] 솔선수범하여[率] 성과 거두는 힘[力]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겨울. 그리고 저무는 한 해. 다가오는 2017년 주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망과 행복의 마을로 이끌어가겠다는 올바른 리더십이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두의 힘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만이 필요하다. 마을주민 모두 새해 복[福] 많이 받기를 바란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0 호]

2017 년 1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0 | 2017.01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엉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 만들기[04-05]
마을 만들기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 · 교육

마을 만들기의 빛과 그늘[06-07]
넷째 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수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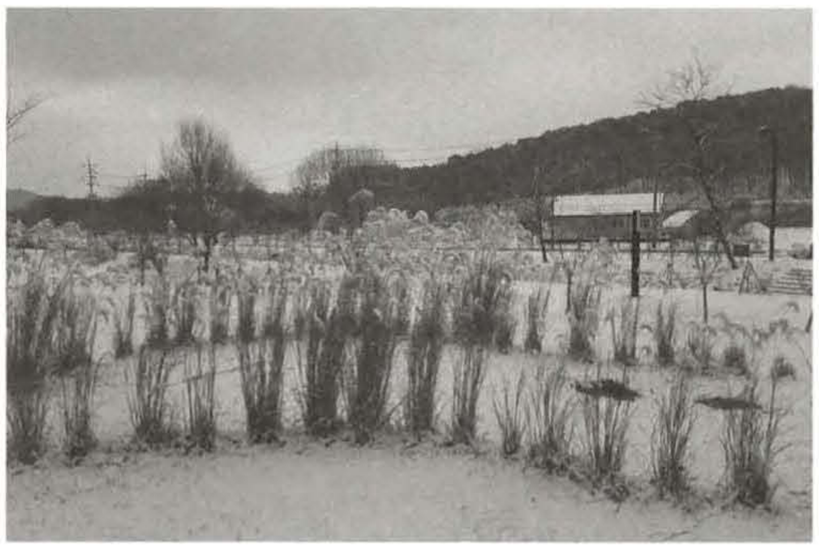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이응노의 집 소식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 다시 한 번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기지개 켜다

이응노마을, 다시 한 번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기지개 켜다

새해 새 아침, 마을과 마을사람들
'빠르게 보다는 바르게' 가는 미래의 사랑 그리는 '새판' 만드는 일 시작해야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백월산白月山과 용봉산龍鳳山의 정기를 받으며, 누구나 다시 한 번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한다는 출발의 각오를 다진다.

백월산과 용봉산의 사이에서 그 어느 곳보다 마을의 상서祥瑞로운 정기가 가득 찬 이응노마을에도 정유년의 새해는 밝았다. 마을사람들 모두의 소망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만해 한용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화두 던져

이응노마을 사업은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위한 3차 연도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 첫해인 2015년 1차 연도 사업이 홍천마을을 익히고 홍천마을 사람들 간 '교류交流와 화합和合'이 우선이었다면, 지난해 2016년 2차 연도 사업은 마을과 마을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희망希望'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올해는 낡고 오래된 '끝판'을 마치고, 미래의 사랑을 그리는 '새판'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네, 가요. 지금 곧 가요.
에그, 등불을 켜러다가 초를 거꾸로 꽂았습니다그려.
저를 어쩌나, 저 사람들이 흉보겠네.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애그,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하시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겠습니까.
다만 님의 거문고줄이 완급緩急을 잃을까 저어합니다.
님이여, 하늘도 없는 바다를 거쳐서, 느릅나무 그늘을 지워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입니다.
해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
마구에 매인 말은 굽을 칩니다.
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
-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사랑의 끝판〉

단 한 줄이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임의 말씀대로 천천히 가자. 그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다. 꽃이 진 자리에 머물다, 문득 이 시를 떠올리고 찾아봤다. 임의 꾸지람 소리가 요즘 천둥소리처럼 울린다. 아…, 슬프고 슬프다.
- 원재훈 시인 (주간동아, 2014)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임'은 '나'에게 꾸지람을 한다.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라"는 말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가르침대로 '낡고 오래된 것과의 이별', '새로운 가치와 신선한 미래와의 만남' 등을 이제야 비로소 실천해야할 새해가 밝았다.

이응노마을의 자생력과 미래는 그 새로운 가치와 끝없는 도전을 통한 신선한 미래와의 만남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마을에서 찾아야 하고, 마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거버넌스 확대·작은 도서관·마을신문사·창작공방 운영 등 예술마을 환경 구축

이응노마을의 '새판' 설계는 거버넌스의 확대에서 찾을 일이다. 1월 한 달 내내 거버넌스 예비회의에 몰두했다. 거버넌스 확대를 비롯해 마을의 중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작은 도서관과 마을신문사, 창작공방 운영 방안은 마을의 지속가능한 예술·인문학적 토대를 굳게 다지는 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중점 논의됐다.

또한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지난해 사업성과를 비교해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주민들의 공동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다.

마을과 마을주민들, 새해 열심히 살며 희망의 발걸음 내딛길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이응노마을의 '새판' 설계는 이제 끝났다.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보다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기지개를 켠다.

모두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응노마을 주민들 모두가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희망의 발걸음이라면 족히 가능하다. 마을의 자생력과 미래 비전은 주민들 각자의 께어남에서 시작된다. 희망은 그렇게 우리 속으로 온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1 호]

2017 년 2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1 | 2017.02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 거버넌스 회의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만들기[04-05] 마을 만들기 —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3 · 공간 1

마을 만들기의 빛과 그늘[06-07] 다섯째 마을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 이응노의 집 소식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에 다시
청춘[青春]의 봄은 찾아오고 있다

이응노마을에 다시 청춘[青春]의 봄은 찾아오고 있다

이응노마을, 마을의 건강한 삶 위한 자생력과 미래 비전 그리는 일 시작해야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화백 널리 알리는 일부터
〈예술가들의 공간〉, 마을 그리고 공공의 예술영역으로 확장해야

"청춘[青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우보[牛步] 민태원[閔泰瑗]의 〈청춘예찬[青春禮讚]〉 중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機關]과 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 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

올해 이응노마을도 여지없이 봄이 온다. 봄은 청춘과 같은 말이다.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에도 새로운 변화가 봄의 계절에 시작된다.

이응노마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차 연도를 맞아 자생력과 미래 비전을 그리는 일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 마을의 소득창출과 예술적 토대를 놓기 위한 그림을 그리며, 자립기반과 건강한 삶이 실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마을주민 모두가 희망이 생기는 일, 꿈을 꿀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



이응노의 집은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가들의 공간'이 마련된다. 그들만의 영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일, 예술가들의 공간은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과 축사가 재생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작한다.

고암 이응노 화백이 꿈꾼 세상, 자유[自由]와 평화[平和],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을 이응노의 집에서 실천한다. 홍성과 예산, 대전, 파리를 잇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사랑과 협력 속에 이응노의 집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오아이스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는 때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零落]과 부패[腐敗]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千紫萬紅]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용[龍]〉 그림, 그는 자신이 태어난 해를 〈용[龍]〉 그림으로 표현해 냈다. 용트림을 하듯 우리는 열정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원한 청춘의 봄을 간직하기 위해 사랑의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용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홍성군과 홍성군의회 등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선 만큼, 우리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 고암 이응노 화백을 위한, 그리고 그의 자유와 평화 메시지를 위한, 마을의 미래를 위한, 주민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청춘의 봄이 이응노마을에도 다시 찾아왔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2 호]

2017 년 3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2 | 2017.03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영·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 거버넌스회의 및 올해 사업 소개
마을만들기[04~06] 마을 만들기 —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3 · 공간 2
마을이야기[07] 특집 — 이응노의 집·마을 소식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 이응노의 집 소식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 새롭게 보고, 시작하는 '새봄'은 다시 찾아와

이응노마을, 새롭게 보고, 시작하는 '새봄'은 다시 찾아와

김지하 시인의 〈새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아름다운 마음 보여줘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군상〉, 자유와 평화, 평등 세상서 마을의 아름다움 보는 계기되길



이응노마을에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봄'은 '보다'의 명사형이다. 그만큼 봄에는 볼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보다'는 '새롭다'의 이음동의어일 것이다. 새롭게 본다는 의미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봄의 계절 4월은 진실이 인양되는 계절이다. 세월호가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인양되었고, 부패정권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제야 비로소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 바야흐로 다가와 기쁘고 감격스럽고, 슬프고 착잡하다.

무엇을 우리는 보고 느끼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가. 백월산과 용봉산의 봄은 등산객들의 잦은 왕래에서도 알 수 있다. 산에서 내려오고 물밑으로 흐르는 봄의 기운. 이렇게 오는 봄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이할 일이요, 온몸으로 느낄 일이다.

이응노마을 사업, 그 끝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 소명처럼 일해야

이응노마을에도 준비할 일이 많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이니 더더욱 그렇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마무리는 언제나 그 결실이 알차게 맺어져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희망과 행복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기에 앞서 든든하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내는 소명이 우리의 좋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이응노마을의 내일은 어제의 밝은 모습을 끄집어내고, 오늘의 열심인 모습을 북돋아주면서,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그려내는 일이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과의 조화로움 아름답게 보여줘야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더욱 좋아

- 김지하 시인의 〈새봄〉

김지하 시인의 〈새봄〉은 '조화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벚꽃은 화려하지만 순간 피었다 지니, 변하지 않고 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가 좋다는 시인이 고백 뒤에 그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깊이를 좋아하니, 소나무와 어울러질 수 있는 벚꽃마저도 좋다는 시인의 마음.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시인의 마음은 모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에 대한 의미심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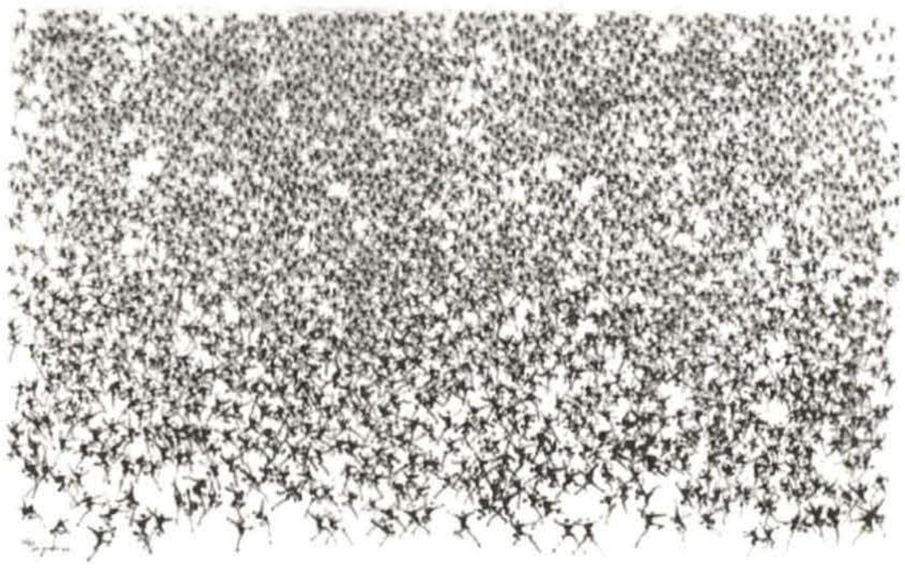
시인의 마음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응노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오는 봄에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조화로운 삶을 실천해야 한다.

고암 이응노 화백과 미망인 박인경 여사 특별전 통해 자유와 평화 꿈꿔야

고암 이응노 화백과 그의 동반자인 미망인 박인경 여사의 '부부 특별전'이 내년 고향 홍성에서 열린다. 고암이 〈군상群像〉 연작을 통해 세상이 보여준 자유와 평화, 평등은 그 동반자인 박인경 여사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닮아 있다.

이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고암과 박인경 여사의 앙상블이 고향 홍성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고암이 꿈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암은 우리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난 세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이제는 '새롭고 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충고가 아닐는지. 누구나 함께 어우러지라는 그리하여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꿈꾸라는 이야기는 아닐는지.



[이응노마을 신문 제 23 호]

2017 년 4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3 | 2017.04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선진지 견학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생활예술 교육 프로그램

마을만들기[04~05]
마을 만들기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4 · 콘텐츠 1

마을 만들기[06]
기고
시군창의사업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연구」 - 이 십(연구원/기획자)

마을과 함께[07~08]
이응노기념관 소식
이응노기념관 이모저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이응노마을, 봄 오는 길목에서
물처럼 낮고 조용히 흐르길

이응노마을, 봄 오는 길목에서 물처럼 낮고 조용히 흐르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다투지 않고 실천하며, 가장 낮은 곳 위치
마을은 낮고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서로 의지하며 '마을과 더 큰 마을' 그리며 살아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됩니다"는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는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선은 현덕玄德(속 깊이 간직해 드러내지 않는 덕, 또는 천지天地의 깊고 묘한 도리道理)이며 도道입니다. 물은 '최고의 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물을 '최고의 선'과 같다고 한 까닭은, 첫째는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둘째는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회피와 도피, 투항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작위作爲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억압받는 곳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속에서 대단히 풍부한 민초民草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낮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큰 강이든 작은 실개천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임으로써 그 큼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 신영복 선생의 『강의』, 돌베개, 2004

낮게 흐르는 물, 생명의 근원·만물의 바탕 위 상생의 기운 느껴야

봄이 오는 이응노마을의 물은 낮게 흐릅니다. 물은 복마른 이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만물의 바탕입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가장 비루한 곳에서 흐르지만 결코 배신하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필요한 만물의 바탕이 되는 물, 흐르듯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마을을 휘감아 돌아 또 다른 마을로 흐릅니다. 여기서 상생相生의 기운을 느낍니다. 서로 흐르는 물줄기 하나로 생명을 얻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암 이응노 화폭의 '평화의 그림'처럼 누구나 모두 행복하기를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는 탁월한 말입니다.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상생의 기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이 듬뿍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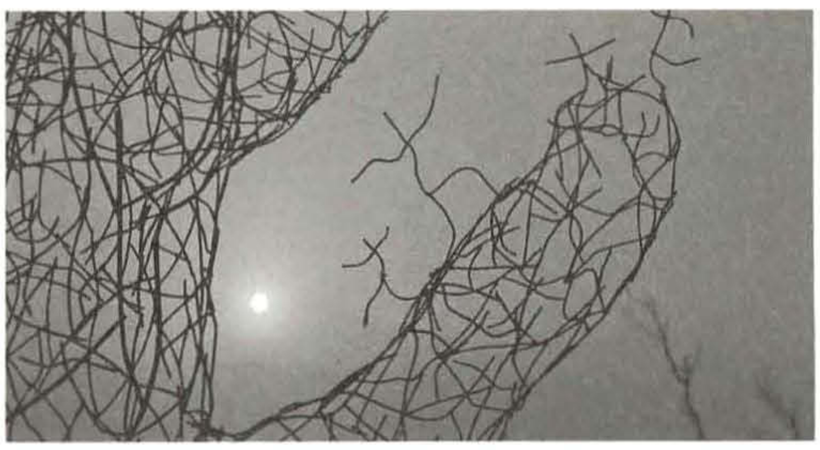
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자强者'와 '약자弱者'라는 징글징글한 울타리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평화와 평등,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은 같은 사람의 삶입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평화의 그림'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군상群像',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응노마을 주민들,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낮게 흐르길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마을'을 그리며 주민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속으로 물은 조용히 낮게 흐릅니다. 용감한 주민들은 강약强弱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물처럼 낮게 조용히 흐르길 바랍니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4 호]

2017 년 5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4 | 2017.05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주민리더 일본 기소마치 선진지 견학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마을사업[04~05] 특집 화보 제16회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
마을 만들기[06~07] 마을 만들기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4 · 콘텐츠 2-3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집 소식 이응노의 집 이모저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오월 봄, 활짝 핀 꽃처럼
새로운 마을의 이야기 피어오르길

오월 봄, 활짝 핀 꽃처럼 새로운 마을의 이야기 피어오르길

봄 가뭄 속 타들어가는 농심農心, 기쁘게 단비 내리고 삶이 촉촉이 젖어 깨어나기를 원해
마을 사람들, 떠들썩한 사람의 소리와 생명의 몸부림으로 마을의 이야기 들려주길 기대

오월 봄, 활짝 핀 꽃처럼 새로운 시대의 물길이 지상地上 위로 흐른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봄길 활짝 핀 꽃처럼 표정도 화사하다.

사람들의 화사한 표정 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희망希望, 조금만 더 지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꿈. 그 행복한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最善을 다해왔다. 그 최선이 새로운 꿈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길 원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자신을 바라보길 소망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용서받길 기도했다.

누구나 그러길 원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다시 날아오르기飛翔 위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서로와 서로의 힘을 모아 자유롭게 오고가길往來 그렇게 바라고 바랐다.

봄 가뭄 속 농심農心, "비는 적당히 내리고, 꽃은 활짝 피어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봄 가뭄에 '농심農心'은 타 들어간다. "꽃만 피면 뭐해, 속만 상하지"라며 한숨이 나온다. 농사일에 허리가 휘어도 그저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거름, 그리고 적당한 비만 내려준다면 바라는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왜 그렇게 시련은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지, 왜 그렇게도 시도 때도 없이 시련을 극복하길 바라는지.

늘 단비가 내리는 꿈을 꾸며 기우제祈雨祭를 올린다. 고마운 비가 왜 이리도 더디 오는지,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소망한다. "비는 내리고, 꽃은 활짝 피어라"라며,





분주한 마을의 오월, 창작스튜디오 건립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진행

다소 분주한 오월을 보냈다. 열여섯 번째 '전국고암이응노미술대회'를 무사히 치렀고,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건립 완료에 따라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5명도 선정했다. 유월이 오면, 5명의 새 식구가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마을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예술행위의 창작활동을 펼친다.

이응노마을복지회관(홍천마을복지회관)도 새롭게 변모한다. 야외 화장실 수리 필요성으로 시작된 변모는 회관 전체를 변모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신 회관 1층은 마을 노인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아늑하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2층은 기존의 마을주민 회의 장소에서 작은 도서관 기능을 더해 개선하는 공사가 지금 한창이다.

이응노마을, 떠들썩하고 재밌고 유쾌한 사람의 소리 들려오길

우리네 인생이 기쁘고 유쾌한 영화의 앤딩일지, 슬프고 참담한 영화의 앤딩일지 아직 모른다. "참 살아가기 힘든 일상"이라고 투덜대다가도, 재밌고 유쾌한 나날을 떠올리고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는 일이 코믹영화처럼 되길 바라고 바란다.

이응노마을에서의 오월 봄, 활짝 핀 꽃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오른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날이 갈수록 더 삶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라고 저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다. "삶이 그대를 속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는 시구詩句처럼 날마다 긍정적이길.

"와!" 아우성이 들린다. 아우성은 사람의 소리, 생명의 몸부림이다. 우리 모두 "와!" 아우성을 치자. 사람의 소리, 생명의 몸부림으로 깨어 있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응노마을의 떠들썩하고 재밌고 유쾌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길.





[이응노마을 신문 제 25 호]

2017 년 6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5 | 2017.06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영·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활짝 반상회
선진지 견학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사업[04~05] 특집기사 및 화보 1
일본 '키소 후쿠시마'
선진지 견학

마을 만들기[06~07] 마을 만들기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4 · 콘텐츠 4·5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집 소식
이응노의 집 이모저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별을 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별을 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짧은 삶 살다간 윤동주 시인, '부끄러움' 안고 하루하루 성실히 주어진 길 걸어가 마을도 '새로운 길' 찾아 어제·오늘·내일 걸어야 할 길이기에 차근차근 나아가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윤동주문학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시〉, 문학사상사, 1995

모두 죄 짓고 살아가는 삶, '부끄러움' 안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야

윤동주 시인의 짧은 삶처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만 29세의 나이로 이국땅 차디찬 감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시인의 삶처럼 우리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없다. 어찌 고고孤高하고 청결淸潔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아주 더러운 구렁팅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천한 생물들과 비교해 다른 점이 뭐에 있겠나.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삶이 늘 죄 짓고 사는 게 전부다.

'별을 노래하고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고 하는데, 별 볼일 없는 세상, 이 또한 우리의 죄일게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속고, 이 모든 것을 더럽힌 죄, 더없이 크다.

인생은 3박4일의 여행과도 같다.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나서 죄 짓고, 죽어가면서 안타까운 존재의 여행. 우리는 그 여행의 어디쯤 와 있는가?

만 29세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일깨운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영혼을 일깨우고,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으로 다가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문을 외우며,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나와 우리, 그리고 마을도 '모든 것 마음먹기 달렸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오랜 가뭄 끝 단비가 내린다. 장맛비 내려 바짝 바짝 마른 용봉천 물줄기에 생기가 흐른다. 농부의 깊은 시름이 오랜만에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어젯밤 와르르 쏟아진 빗줄기가 오늘 낮 언제 그리했느냐 하듯이 맑다. 한쪽은 가뭄이 해갈되어 임을 만나듯 기쁘고, 한쪽은 물난리로 집을 잃고 원수를 만나듯 깊은 시름에 빠진다.

한 어머니 두 아들 이야기가 떠오른다. 큰 아들은 우산장사, 작은 아들은 짚신장사. 비가 내려도 걱정이요, 날이 개어도 걱정이다. 비가 내리면 우산이 잘 팔리고, 날이 개면 짚신이 잘 팔리니 어머니의 걱정은 '언제나'이다.

우리네 삶도 항상 근심걱정이 8할이다. 행복한 하루는 오랜 가뭄 뒤 찾아오는 복권 당첨의 행운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다. 개인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마을의 일이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믿음이 간절하다.

이응노마을의 우여곡절, 굴곡 많은 계곡은 언제나 시원하다. 또 다른 길, 윤동주 시인의 *내를 건너서 숲으로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중략)*, 오늘도… 내일도… 가야할 길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새운 길을 찾아 우리도, 마을도…….

나와 우리, 그리고 마을도 '새로운 길' 찾아 별 헤듯 이 삶의 궤적 그려 나가야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 생각나는 날. *별 하나의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에 별을 다 못 헤고 돌아서서 그리운 이름을 부르고, 부끄러운 삶의 궤적을 별에게 묻는 시인의 아픔처럼 우리네 모두 별 헤는 마음으로 삶의 궤적을 그려야 한다.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윤동주
「윤동주문학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 헤는 밤〉 中에서, 문학사상사, 1995



[이응노마을 신문 제 26 호]

2017 년 7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6 | 2017.07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선진지 견학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사업[04~05] 특집기사 및 화보 2
일본 '키소 후쿠시마'
선진지 견학

마을 만들기[06~07] 마을 만들기
〈특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 · 협동조합 2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집 소식
이응노의 집 이모저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인성人性·인격人格, 사람의 관계
'사랑'으로부터 싹 틔우는 것을

인성人性·인격人格, 사람의 관계 '사랑'으로부터 싹 틔우는 것을

사람의 삶, 마을의 삶, 세상의 삶, 모두 '나'로부터 인성과 인격 비롯함을 알아야

'인성人性'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타고난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행동 특성'을 일컫는 말이다. '인격人格'의 또 다른 말이다. 허니 인성을 키우고, 기르고, 가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월 어느 날, 전국 곳곳에 장맛비 쏟아져 내리던 날, 인성교육을 받고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가 되고자 길을 떠났다. 시야를 가린 빗줄기를 보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원망하는 투정이 인성지도사가 되긴 애시당초 틀렸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수료하고 자격을 따고, 뭐이, 중요하단 말인가. 인성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한 만남은 타고난 성품의 옳고 그름 이전에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인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인성은 시작된다. 그보다 인성과 인격을 넘어선 '사랑'이 그 관계를 이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 아닌가.

율곡 이이의 구용구사九容九思,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성과 인격 필요한 때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준다. 율곡 이이는 "몸가짐에는 아홉 가지 태도(구용九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배움에 나아가고 지혜를 더하는 데에는 아홉 가지 생각(구사九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제 몸의 처신을 밝힌 〈지신장持身章〉 '구용九容(군자君子가 그 몸가짐을 단정히 함에 있어 취해야 할 아홉 가지 자세)'은,

족용중足容重,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 즉, 경거輕擧하지 않는다.
수용공手容恭, 손가짐을 공손히 하라. 단정하여 망동妄動하지 않는다.
목용단目容端, 눈가짐은 단정히 하라. 정면을 바로 보고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
구용지口容止, 입은 조용히 가지라.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문다.
성용정聲容靜,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 목소리를 가다듬고 기침·재채기 등 잡소리를 내지 않는다.
두용직頭容直, 머리 가짐을 항상 곧게 하라. 고개를 똑바로 하여 한편으로 기울지 않도록 한다.
기용숙氣容肅, 숨쉬기를 정숙히 하라. 호흡을 조절하여 엄숙한 태도를 견지한다.
입용덕立容德, 설 때는 덕스럽게 하라. 중립불의中立不倚(중립中立을 취取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하여 점잖은 태도를 갖는다.
색용장色容莊, 얼굴 모습은 장엄하게 하라. 안색을 정제하고 태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제 몸의 처신을 밝힌 〈지신장持身章〉 '구사九思(군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아홉 가지 생각)'는, 『논어論語』의 〈계씨편季氏篇〉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사명視思明,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청사총聽思聰, 말을 들을 때에는 총명할 것을 생각하고
색사온色思溫, 안색은 온순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모사공貌思恭, 모양은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언사충言思忠, 말할 때에는 정성껏 할 것을 생각하고
사사경事思敬, 일할 때에는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사문疑思問, 의심 날 때에는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분사난忿思難, 화를 내면 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이성으로 억제할 것을 생각하고
견득사의見得思義, 재물을 얻을 때에는 의리에 합당한가를 생각할 것

이들 아홉 가지 생각 가운데 앞의 네 개는 일신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뒤의 다섯 개는 사물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시사명視思明과 청사총聽思聰이다. 보는 것이 밝지 않고 듣는 것이 총명하지 못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어 나머지 일곱 가지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경계와 원칙 넘어서 '사랑' 듬뿍 담은 위로와 격려 필요한 때

율곡 이이의 '구용구사九容九思'만이 인성과 인격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나'로부터 달라진다면, 인성과 인격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볼 수 있으리라.

언제나 그리했던 것처럼 마을의 숙제도 '나'로부터 변화하고, '나'로부터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인성과 인격을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한 오늘의 나와 너, 마을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이다. 시절 탓에 질렸다면, 항상 '나'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샘솟고 있음을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7 호]

2017 년 8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7 | 2017.08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힐링 반상회
한여름 밤 시네마 천국
마을 주민 영화관람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도예공방 운영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마을청년회 상견례

마을사업[04~05]
프로그램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이응노의 집 소식

마을과 함께[06~07]
특집 / 창작 스튜디오
한옥동·컨테이너동
레지던시 작가의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활동모음 1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이응노의 집 이모저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독립운동 하듯
우리의 일 최선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독립운동 하듯 우리의 일 최선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늘과 자연의 섭리 거스른 인간 욕망의 끝, 되갚음으로 돌아오는 뜻 헤아려야 나의 일도 마을의 일도 지역의 일도 최선 다하는 것, 독립운동 하듯 살아내는 일

올해 7월 중순께까지는 비 구경을 할 수 없었다. 이응노의 집 앞 하천조차 바짝 말라비린 최악의 가뭄이었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농사 다 망쳤네" 푸념만 늘어가고 한숨만 깊어졌다.

그러던 와중 7월 말에서 8월로 넘어오는 김목에서 비는 하늘을 뚫고 무진장 내렸다. 고마운 비 인줄 알았다가 '수마가 할퀴고 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비는 또 억수 같이 퍼부었다.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모두 다 하늘의 뜻인 걸. 허나 하늘의 뜻만은 아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날로 심해져 '자연의 벌이 비로소 인간에게 미치는 구나' 하소연 한다. 그리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의 기고만장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다 망해버렸듯이,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하는 시야視野를 왜 인간은 구하지 않는가, 속상하고 안타깝다.

민족의 영산靈山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 앞에서, 아픈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태어나 처음으로 백두산白頭山에 올랐다. 운동을 안 한 탓인지,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가쁘다. 그래도 언제 다시 올까 하는 조바심이 백두산 천지에 다다르게 했다. 날씨 탓인지 운무雲霧만 그득 찼다. '내 평생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쉬움이 밀려드는 순간, 천지天池는 서른을 셀 정도로 그 모습을 허락했다. 민족의 영산靈山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고도 먹먹하다.

백두산이라는 가슴 벅찬 이름은 온데간데없고, 장백산長白山만 우리 앞에 그 위용을 자랑한다.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다. 하도 서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뺨 위를 흐르다. 분단의 아픈 역사가 내 앞에 그 악덕惡德을 자랑하는 구나.





압록강을 유람선으로 휘저어도, 끊어진 다리를 이어볼까 맘에 품어도,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은 어디갔을까"을 아무리 헤아려도 분단의 역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단장지통斷腸之痛 읊으며, 오늘의 우리네 일그러진 모습 성찰해야

백야 김좌진 장군은 고향 홍주(지금의 홍성)를 떠나 독립운동의 굳은 뜻을 펼치고자 마음을 다잡고 압록강을 건널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최막한 달밤에 칼머리의 바람은 세찬데
刀頭風動關山月(도두풍동관산월)
칼끝에 찬 서리가 고국 생각을 돋구누나.
劍末霜寒故國心(검말상한고국심)
삼천리三千里 금수강산錦繡江山에 왜놈이 웬말인가,
三千權域倭何事(삼천근역왜하사)
단장斷腸의 아픈 마음 쓰러버릴 길 없구나.
不斷腥塵一掃尋(부단성진일소심)

- 단장지통斷腸之痛(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홍성 백야김좌진장군생가지·천안 독립기념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안고 백야 김좌진 장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벌판의 독립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허나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독립운동 재건을 위해 숨죽이며 살아온 그에게 같은 민족인 청년은 총을 겨누고,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그에게 꽂았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언을 남긴 채 순국한다.

백야뿐이랴.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홍범도, 윤동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순국殉國'이라는 명예를 안고 스러져 갔다. 그 숭고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떳떳한가. 건국절을 가지고 1919년이니, 1948년이니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진다.

8월은 나라도 지역도 의미 되새기며 찾아야, 독립운동 하듯 살아야 해

8·15 광복절을 보내며, 독립운동 하듯 살아야겠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독립운동 하듯 살아내는 것. 나의 일도 마을의 일도 지역의 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하듯 살아야겠다.

8월 29일 만해 한용운 선생 탄신다례에 다녀왔다. 정건한 마음으로 차를 올리고, 만해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 불교개혁의 의지를 표현하면 될 일이지, 목적도 내용도 모르는 행사가 이젠 지겹다.



[이응노마을 신문 제 28 호]

2017 년 9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8 | 2017.09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충남유학교 농촌체험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홍성역사인물축제 부스 운영

마을과 함께04~05 특집 / 창작 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활동 및 개인전

마을과 함께06~07 특집
이응노-박인경 부부전
새롭게 보는 고암 이응노 화백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박은태 '사람들展'

표지이야기
COVER STORY

거목巨木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서다
'나무야, 나무야'

거목巨木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서다 '나무야, 나무야'

이응노의 집 호두나무, 100년을 견디다 큰 나뭇가지 하나 잃다…그래도 살아낸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메시지, 화합과 평화, 자유의 손짓으로 '사람들' 거기 있기를

얼마 전 이응노의 집 북 카페 옆 호두나무의 큰 나뭇가지가 꺾이져 부러졌다. 세찬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그저 힘없이 꺾어져 쓰러졌다. 참으로 눈물겹다. 수령 100여 년은 견딘 것인가. 이 호두나무는 이곳의 역사를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나무일 터인데…….

긴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것은, 살아가는 것은 축복일까 징벌일까? 그 이름을 혀끝에 대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죽음'을 용케 피했다는 점에선 축복이요, 사랑하는 이들이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가는 것을 끝없이 지켜봐야 하는 증인인 점에선 징벌이다.

이응노의 집 호두나무는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었다. 제 속을 세상 모두에게 다 드러낸 채, 얄팍한 줄기를 의지 삼아 서 있는 나무는 그래도 가지를 뻗어내고 잎을 달고 꽃을 피웠다. 아마도 가을이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가 맺는 걸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만큼 충분히 강인해 보였다. 거친 세상을 헤쳐 가는 잡초의 그것처럼.

그래서 큰 나뭇가지 하나를 잃었지만, 괜찮다 괜찮다, 애써 위로해 준다. 정정한 나무들처럼 싱싱한 잎과 꽃을 피워내진 못해도, 오래전부터 열매를 맺지는 못해도,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마음을 담아 위로해 준다.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한 세월을 견디고, 파란만장한 생애의 끈을 놓지 않으며, 아직도 서슬 퍼런 눈 치켜뜨고 세상의 존재들에게 '여기 멀쩡히 버티고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호두나무의 효능…살아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호두나무 한 그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준다. 호두알에는 주로 리놀렌산 글리세리드라는 지방유가 40~50%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양분이 많아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으면 아주 좋다. 그 밖에도 강장제나 변비를 엷애는 데 효험이 있고, 호두기름은 모든 피부병을 고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목재는 단단하고 윤기가 있어 가구나 조각재로 적합하고, 특히 흑호두나무 목재는 주로 고급 장롱을 만든다. 최근에 내한성이 강하면서도 대립 품종의 왕호두가 개발됐는데, 자그마치 재래종보다 호두알이 2.7배나 크고 본당 수확량도 3.6배나 많아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고암 이응노 화백, '사람들'에게 손짓한 그 기쁘고 반가운 메시지 그리워

호두나무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한 한 사내를 그리워한다.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끝없이 그린 사내, 온갖 기호와 문자 속에도 '사람'의 움직임을 애써 표현한 사내, 머나먼 이국땅에서 그리운 고국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묻힌 그 사내, 고암 이응노 화백!



'거목巨木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선다'는 말이 있다. 100년을 버텨온 호두나무가 자기 팔 하나 잃은 걸 개의치 않듯이, 고암 이응노 화백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움을 안고 이국땅에서 눈감았을 때, 개의치 않았을 거다. 살아서는 못가는 곳, 그곳에 사람이 산다면, 죽어서도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곳에 사람이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 그동안 너무 적적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에도 의연한 모습이었다. 그를 추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의연했다. '거목巨木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선다'는 말이 새삼스레 가득 찬다.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우뚝 서 있다.

우리들의 상처 스스로 치유하는 힘 길러야…화합·평화·자유로 나아가는 길 찾아야

호두나무 한 그루의 상처에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상처로 나아가는 저의는 뚜렷하다. 우리 시대의 대가大家, 그 대가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쓰라린 상처를 치유해 주고 있다. 화합과 평화, 자유의 손짓으로 우리 사회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있다.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화합과 평화, 자유 아닌가.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희들은 거목이냐"고,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의 존재들로 "너희들은 쓰러져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느냐"고.

[이응노마을 신문 제 29 호]

2017 년 10 월호

이응노 마을

LEEUNGNO VILLAGE NEWSPAPER

CULTURAL COMMUNICATION

이응노마을신문 vol.29 | 2017.10 | 발행 홍천마을·홍성생태학교 나무 | 발행인 양주명·모영선 | 편집인 전상진 | 디자인 ㈜공감 |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100

마을이야기[02] 이응노마을 소식 — 문화예술잔치 소식

마을이야기[03] 이응노마을 소식 —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박은태 '사람들展'

마을과 함께[04~05] 특집 — 용봉초 마을건학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마을과 함께[06~07] 특집 / 창작 스튜디오 — 컨테이너동 입주작가 개인전

마을과 함께[08] 이응노의 집 소식 — 선진지 견학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표지이야기
COVER STORY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미천한 신분 '바보 온달', 고구려 용맹한 장수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 선택 옳아
마을의 미래 그리기 위해 '뜻 살리는 우직한 어리석음' 실천하는 경쟁력 갖춰야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는 故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돌베개, 1996)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온달산성에 올라 '신데렐라의 꿈'을 꾸며,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불특정한 지인知人에게 엽서를 띄웁니다.

미천한 신분의 '바보 온달'을 고구려의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옳았습니다. 평강공주의 선택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려해 봐도 평강공주의 선택은 죽음을 불사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의 선택은 다시 돌이켜봐도 옳았습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인 바보 온달을 선택하고, 드디어 고구려의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의 결단과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飛躍이 있는 것"이라고 신영복 선생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 바꿔

'신데렐라의 꿈'은 현대사회에서 평가되는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낙오와 좌절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숨겨진 칼처럼 매우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 故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돌베개, 1996)

평강공주의 삶이 남편의 입신立身이라는 가부장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입니다. 살림이란 '뜻의 살림'입니다. 세속적인 성취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삶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시 마을에서의 긴 노정路程, 어리석고 우직한 선택 통해 마을과 주민 살려야

이응노마을에서의 3년, 세속적 성취와는 먼 일입니다. 마을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 길을 천천히 돌아와야 하는 일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는 故 신영복 선생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떠오릅니다. 먼 길 천천히 돌아와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는 실체를 이해하고, 우직함으로 이 일을 또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흥겹게 펼쳐질 마을의 '문화예술잔치'를 끝으로, 3년여 간의 긴 노정路程은 마무리가 됩니다. 항상 머리와 가슴으로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마을과 마을주민 모두는 이렇게 천천히, '뜻의 살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떠올리면서, 마을의 미래는 '우직한 어리석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Ⅳ. 2017 이응노마을 주민 역량강화 사업

1. 이응노마을 주민 '힐링 반상회'

2. 이응노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수월마을' |
경기도 안양시 '안양유원지',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미술관'과 서산시 '유기방 가옥'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장'과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초막골마을|

3. 이응노마을 주민리더 일본 '키소 후쿠시마 · 도쿄' 선진지 연수

4. 이응노마을-결성향교 연계 주민 선진지 견학

5.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농촌 · 농업 · 농민을 위한 마을 활성화|



1. 이응노마을 주민 '힐링 반상회'

2016년 11월 힐링 반상회 (14차)

마을 힐링 반상회, 주민들 직접 참여해 '예술문패' 만들어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1차 마을 11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11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11월 반상회는 각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를 즐겼으며, 주민들 간 화합의 이야기꽃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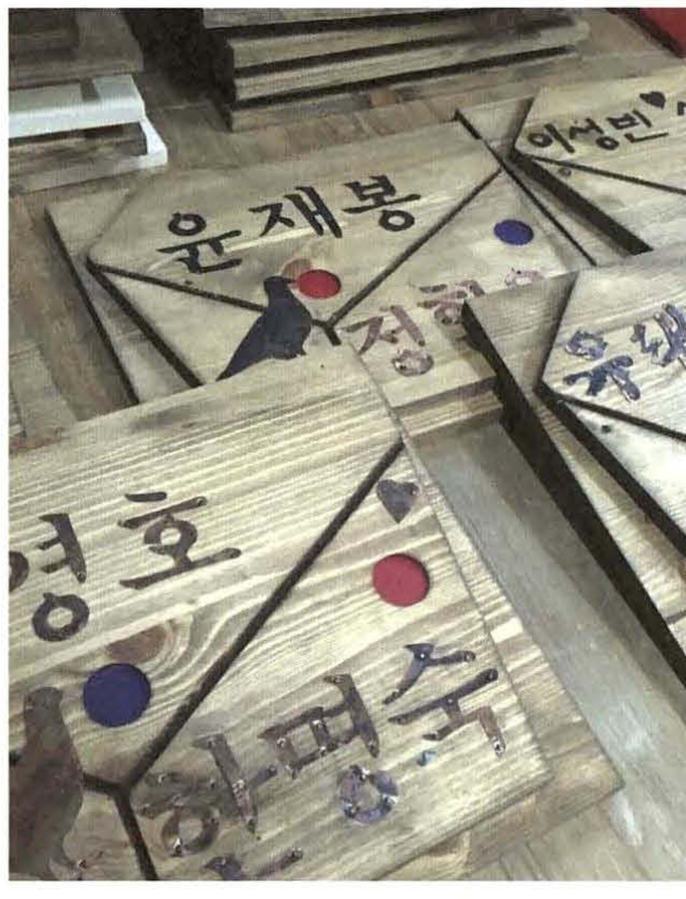
특히, 11월 반상회는 마을 '예술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예술문패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직접 '예술문패'를 만드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예술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풍물패인 '고암풍물회' 구성 활성화로 진행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의 후속지원 사업으로, 충남도와 홍성군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술문패 만들기'는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대표와 별의별 창작공방 끌 김정숙 작가가 강사를 맡아 12월 말까지 1,2차 마을 반상회를 통해 사업설명, 교육 및 실습, 제작 등으로 진행하며, 이렇게 완성한 '예술문패'는 마을 집집마다 문 앞에 부착한다.

한편 12월 반상회는 1차 마을 12월 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12월 힐링 반상회 (15차)

마을 힐링 반상회 통해 만든 '예술문패' 집집마다 문 앞에 걸려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1차 마을 12월 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12월 반상회는 각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를 즐기고 주민들 간 이야기꽃을 피웠다. 12월 마을 반상회는 지난달에 이어 '예술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예술문패 만들기'는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대표와 별의별 창작공방 끌 김정숙 작가가 강사를 맡아 진행됐으며, 교육 및 실습, 제작 등을 완료해 마을 집집마다 문 앞에 부착했다.

한편 내년도 1월 반상회는 1차 마을 1월 2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1월 15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2017년 1월 힐링 반상회 (16차)

주민 화합 위한 힐링 반상회, 2017년 올해 이렇게 '확' 바뀐다

사업 3년 차 마지막 해 맞아 프로그램 공유 및 의견수렴, 주민 화합 · 예술 활동 등 변화 꾀해

이응노마을 2017년 1월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신 1차 마을 2월 6일 월요일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2월 15일 일요일 마을노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상회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 차 마지막 해를 맞아 예술마을 조성 취지에 맞춰 '확' 바뀐다.

다과와 건강체조 등으로만 진행된 지난해와는 달리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설명회 및 경과보고, 예술마을 만들기 강연 · 강좌 등으로 열린다. 그리고 '감독과 영화보기', '건강체

조', '미술활동', '연극 · 음악공연' 등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 주요 사업인 도자기공예, 목공예, 유리 · 가죽공예, 풍물패(고암풍물회) 운영 등의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주민미디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전체 프로그램의 취지를 공유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반상회는 1차 마을 매월 첫 번째 월요일, 2차 마을 매월 15일 각 마을회관에서 열어 마을사업 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 강화, 주민 역량강화 등 3년 차 마지막 해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2월 힐링 반상회 (17차)

마을 '힐링 반상회', 주민화합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로 대신해

마을청년회 · 부녀회 중심되어 마을어르신과 주민 화합 행사로 즐거운 한때 보내

이응노마을에서는 2월 11일 토요일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어르신 및 주민 점심식사 대접과 윷놀이 등으로 주민 화합행사를 가졌다.

2월 6일과 15일 열릴 예정인 '힐링 반상회'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대신하고, 3월 '힐링 반상회'에서 본격적인 주민화합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한다.





2017년 정유년 올 한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빌고, 각 가정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마을청년회(회장 유성진)가 주축이 되어 1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점심식사는 마을부녀회(회장 김숙자) 회원들이 오곡밥과 뼈해장국, 대보름 나물, 부럼 등을 준비해 마을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이날 주요행사는 마을 '고암풍물회'의 풍물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주민들은 4개 반으로 나눠 윷놀이와 경품추첨, 부럼 등을 함께 나누며, 정월대보름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양주명 이장은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행사 취소 등을 고민했으나, 주민화합을 위해 조촐하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중심이 돼 행사를 마련했다"며 "주민이 하나가 되어 잊혀져 가는 옛날 고유의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 행사를 통해 풍년과 주민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반상회는 1차 마을 3월 6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3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3월 힐링 반상회 (18차)

마을 '힐링 반상회', 주민들 다시 예술교육에 빠져들다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마지막 해,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비누 만들기' 등 진행해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1차 마을 3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3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3월 반상회는 각 마을주민 30여 명씩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민역량강화 사업계획 및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설명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 시간으로 진행됐다.

2017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반상회는 각 마을주민들이 치킨 등 다과를 즐기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 차인 마지막 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마지막 해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만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는데 다 같이 공감했다.

특히 2017년 3월 반상회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3월 반상회에서는 서지명 강사의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비누 만들기에 직접 참여해 알찬 시간을 보냈다.





한편 4월 반상회는 1차 마을 4월 3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4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4월 힐링 반상회 (19차)

마을 '힐링 반상회', 주민들 '향초 만들기' 참여 큰 호응

서지명 강사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향초 만들기' 진행해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1차 마을 4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4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4월 반상회는 각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에 이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됐다. 서지명 강사의 진행으로, '비누 만들기'에 이어 '향초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5월 반상회는 1차 마을 5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5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5월 힐링 반상회 (20차)

마을 '힐링 반상회',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 사업 설명회 진행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1차 마을 5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5월 1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5월 반상회는 각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와 함께 서지명 강사의 진행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석고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5월 반상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인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 사업' 연구진으로부터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상 자료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6,7월 반상회와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은 농번기인 관계로, 두 달여 동안 쉴 예정이다.

6,7월 힐링 반상회 (21차)

마을 '힐링 반상회', 바쁜 농번기 맞아 두 달여 동안 쉰다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반상회)'가 바쁜 농번기를 맞아 두 달여(6,7월) 동안 쉰다.

마을 반상회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1차 마을 매월 첫째 주 월요일, 2차 마을 매월 15일 열려 주민들 간 화합을 꾀했다.

또한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3년차 마지막 해를 맞아 알찬 마무리를 위한 주민의견을 담아내고, 올해 시작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 사업' 에 대한 주민 자료조사 및 주민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반상회는 올해 서지명 강사 지도로, 주민들이 직접 '비누 만들기', '향초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반상회는 8월 다시 열리며, 1차 마을 8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8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8월 힐링 반상회 (22차)

마을 '힐링 반상회', 한여름 밤 무더위 날릴 무성영화 상영

주민 화합과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알찬 마무리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 가 8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8월 반상회는 1차 마을 8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8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8월 반상회는 애초 1차 마을 7일 예정이었으나 9일로 옮겼으며, 각 마을주민 30여 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와 함께 주민들 간 화합을 꾀했다.

특히, 8월 반상회에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미국 무성영화를 대표하는 찰리 채플린의 '키드' 와 버스터 키튼의 '셜록 주니어' 를 상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8월 반상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인 '유리공예, 함께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열리지 못했으며, 9,10월 반상회에서 방정일 마을총무의 지도로 진행한다.

한편 9월 반상회는 1차 마을 9월 4일 월요일 저녁 7시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9,10월 힐링 반상회(23차)

마을 '힐링 반상회', 추수철 맞아 두 달 간 열리지 못해

이응노마을 '힐링 반상회(이하 반상회)'가 바쁜 추수철을 맞아, 농사일로 분주한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에 생겨나 9,10월 두 달 동안 열리지 못했다.

대신 9월에는 일부 마을주민(이승호, 김숙자, 방정일, 권재완, 이상일, 김남례, 이춘희, 노순자 씨)이 9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서 열린 '2017 홍성역사인물축제' 주제체험에 참여, 이응노마을 주제체험 부스에서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와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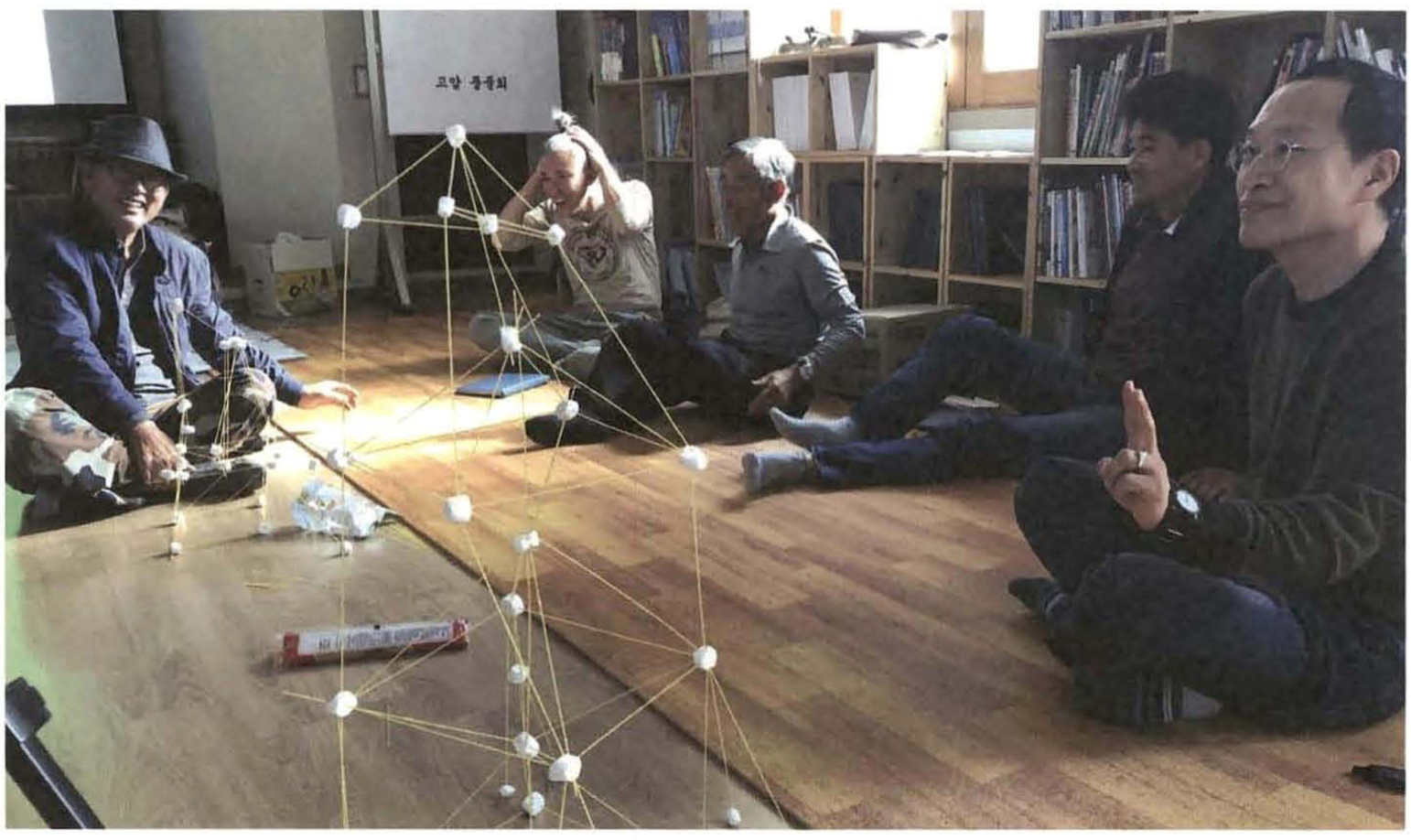


또한 10월에는 '농촌 · 농업 · 농민을 위한 마을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가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 목요일, 20일 금요일, 25일 수요일 네 차례에 걸쳐 열려, '친환경 유기농법'과 '로컬푸드 식당 운영', '마을단위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주식회사 만들기'와 관련, 다양한 사례와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11월 반상회는 1차 마을 11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 11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마을노인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농약 영업의 3대 수칙
1.
2.
3.
농업 지키는 방법으로서의 친환경 농업
이응노 마을


고암 동호회

2. 이응노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수월마을'

마을 청년회 · 부녀회원,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 선진지 견학 다녀와

'얼쑤! 소원 수월하게 술술 풀리는 성수월마을', 마을 곳곳 둘러보며 성공사례 들어

이응노마을에서는 주민 역량강화와 예술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를 보고듣기 위해 4월 2일 일요일 마을청년회와 부녀회 회원, 거버넌스 운영위원 등 35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에 다녀온 선진지 견학 장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수월마을. '성수월마을' 은 6~7년 전부터 연간 10~1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인기마을이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웃음건강센터(철가방코미디극장)', '몰래길' 등 기발한 역발상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마을로 거듭났다.

마을청년회 · 부녀회 회원들은 먼저 '청도소싸움대회' 를 관람했다. 이어 성수월마을에 도착, 박성기 청도성수월마을영농조합법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20여 년간 진행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성수월마을은 청도군 4개 법정리와 6개 자연마을이 하나로 묶은 마을브랜드로, 2017년 4월 현재 청도 성수월마을은 '얼쑤! 소원이 수월하게 술술 풀리는 성수월마을' 이라는 구호를 걸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원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박성기 위원장은 "19년 동안 보수 없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역발상을 통한 차별화가 마을을 살렸다"고 말하면서, "처음에 체험프로그램 등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사업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유원지',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미술관'과 서산시 '유기방 가옥'

마을 노인회원, 안양 · 당진 · 서산 등으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예술마을 가능성 높은 안양 · 당진 등 선진지 둘러보며, 마을 조성 청사진 그려

이응노마을에서는 주민 역량강화와 예술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를 보고듣기 위해 4월 12일 수요일 마을노인회 회원과 거버넌스 운영위원 등 45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에 다녀온 선진지 견학 장소는 경기도 안양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당진 아미미술관, 서산 유기방 가옥 등으로, 마을노인회 회원들은 이날 예술 감상과 체험을 통해 봄날 봄꽃을 한껏 만끽했다.

먼저,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는 관악산 삼성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과 숲은 안양 포도의 주산지로, 자연훼손 시설을 걷어내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새롭게 탄생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예술작품들로 가득한 특별한 장소가 됐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국내외 52명 유명 작가들의 설치예술작







품이 계곡과 산 곳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환경, 순례, 놀이, 정원 등 주제별로 정리된 공원은 음료박스를 이용한 벤치, 상상 속의 동물, 투명전망대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작된 재미있는 작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곳이다.

당진 아미미술관은 서양화가 박기호 씨와 설치미술가 구현숙 씨 부부가 1993년 폐교한 유동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만든 미술관으로, 2011년 6월 4일 개관했다. '아미ami' 는 프랑스어 '친구' 라는 뜻으로, 미술 전시뿐 아니라 음악 · 문화 · 건축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산 유기방 가옥은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전통 가옥으로, 2005년 10월 31일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다. 서산 유기방 가옥은 서산 '아라메길' 제1코스로, 지역적 · 시대적 특징으로 문화적 ·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봄꽃이 활짝 피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장' 과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초막골마을

마을 주민들, '부여서동연꽃축제장' 과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선진지 견학 다녀와

주민들, 이응노의 집 연밭 확대 비롯해 연蓮의 다양한 활용방안 배워 마을의 공동수익 창출 기대
예산 삽교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방문, "마을의 역사와 다양한 자료 한 눈에 볼 수 있길 기대"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7월 11일 화요일 충청남도 부여군 궁남리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펼쳐진 '제15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장' 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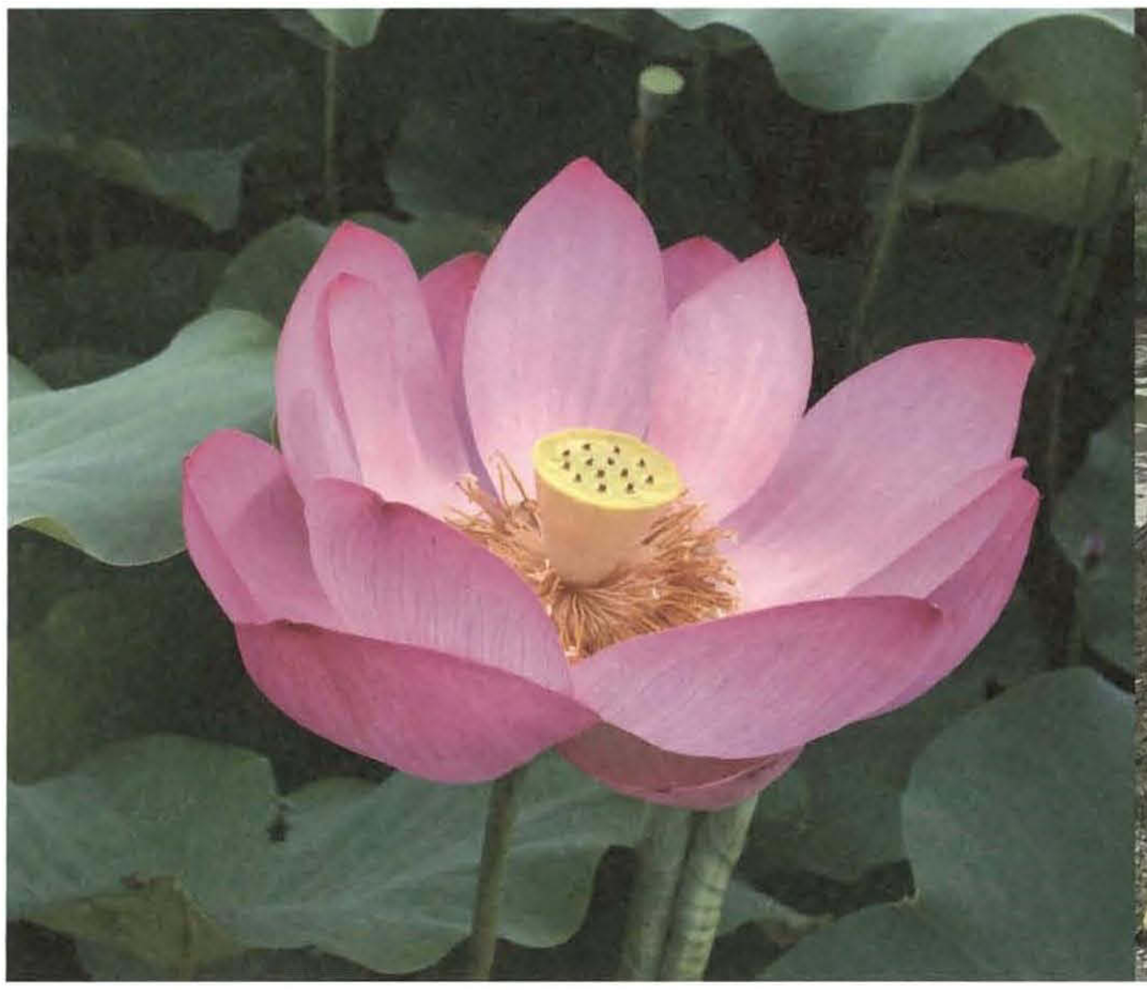
주민들은 이날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부여서동연꽃축제장을 찾아 백제 서동(훗날 백제 제30대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자원과 연蓮을 주제로 한 생태문화자원이 빚어낸 다양한 체험행사를 보고 즐겼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부여서동연꽃축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이응노의 집 연밭을 마을에까지 확대하고, 연꽃과 연잎, 연대, 연근 등 연蓮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배워, 마을 공동수익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7년 3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로 선정된 대표 여름축제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아 '연꽃愛 빛과 향을 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또한 '서동요薯童謠' 로 잘 알려진 부여 궁남지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으로, 매년 7월 부여서동연꽃축제 기간 동안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10만여 평 50여 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부여서동연꽃축제장에 이어,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배우기 위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초막골마을의 '마을박물관' 을 둘러봤다. 마을박물관은 올해 3월 개관했으며, 마을의 역사와 마을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도 '마을박물관'이 생겨,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이 보관해온 다양한 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을고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마을로 돌아왔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카센도中山道 42번째의 역참인 '쓰마고주쿠妻籠塾' 마을의 옛 거리

3. 이응노마을 주민리더 일본 '키소 후쿠시마·도쿄' 선진지 연수

주민리더 선진지 연수

이응노마을 주민리더, 일본 '키소 후쿠시마'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일본 나가노현 키소 후쿠시마木曽福島 방문,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 깊은 관심

이응노마을 주민리더들이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일본 키소 후쿠시마와 도쿄 스튜디오 지브리 · 오타기념미술관, 국립박물관 등으로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마을 주민리더들은 특히, 이번 선진지 연수에서 일본日本 혼슈本州 주부지방中部地方 나가노현長野県 키소마치木曽町(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를 방문,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에 대해, 이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마을 만들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 출자금 지역사회 환원 통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앞장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株式会社まちづくり木曽福島)'는 회사의 자본금이 7500만 엔(한화 약 7억 7600만 원)으로, 그 가운데 53.3%를 마을이 출자하고 있다. 민간 주식은 지역기업, 단체가 114명, 일반주민이 57명으로 합쳐서 171명이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는 전문 직원 한 명도 없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나 그 외 직원은 각자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외 각 부의 국장도 자원봉사자이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의 '귀보다 정보발신팀'은 도시생활정보지 '알면 득보는 키소마을 뉴스知って得する木曽町ニュース'를 발행하고 'SNS키소가 좋아SNS木曽が好き'나,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키소마치관광협회 사무실과 함께 쓰며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마을을 가로지르는 온다케산御嶽山의 맑은 물이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간다.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마을 '마을 노인 관광가이드' 의 안내로, 마을 곳곳 변화와 발전상을 살펴보고 있다.

'빈둥빈둥 소프트개발팀' 은 흙으로 만든 광土蔵, 옛날 집과 옛 길거리宿場의 풍치가 묻어나는 '우에노단上ノ段' 등 중심시가지 관광명소를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빈둥거리며 둘러보는 지도ぶらりぐるり マップ' 를 매해 발행하고 있다.

특히, 매해 3월 하순에는 '키소 히나마츠리木曽 ひな祭り' , 키소 후쿠시마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주고, 마을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후쿠시마 아이, 여름의 고향과 아라모드福島っ子、夏のふるさとアラモード' 등을 기획하고 있다. '꽃 많은 팀' 은 중심시가지의 각 지구에 '꽃 많이 운동花いっぱお運動' 을 하나로 묶어 꽃을 통해 마을을 돌 수 있도록 도선을 만들었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를 방문한 6월 13일 먼저, 마을 관계자들은 키소 후쿠시마에 대해 '느긋한 마을, 걸어보세요!' 를 마을 주민리더들에게 추천했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의 운영방식은 출자금을 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 또 지자체 소유의 주차장 관리운영, 지역 활성화 사업인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관광가이드 육성' , '젊은이들의 특별한 장소 만들기' , '여성들의 마을거리 꽃 심고 가꾸기' , '관광코스 맵 만들기' , '일본식 · 이탈리아식 레스토랑 운영' 등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매력 · 활력을 살린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주민리더들, 일본 예술세계와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 살피며 예술마을 조성에 관심

이어 주민 리더들은 이른 아침 키소마치 온타케산御嶽山를 등산하면서, 중간 중간 거치며 지켜본 유목미림油木美林의 코모레비폭포こもれびの滝, 후에키폭포不易の滝, 레이진히군靈神碑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온타케로프웨이 탑승을 통해 눈 덮인 온타케산과 키소마치 전체를 조망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했다.

키소마치 가이다고원開田高原 키소 말 목장을 거쳐, 키소 후쿠시마의 오래된 초등학교의 소바공장そば工場을 방문, 소바(메밀국수)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는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주민리더들은 도쿄로 이동, 도쿄에서의 첫째 날은 예술마을 조성과 관련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산실 '스튜디오 지브리三鷹の 森ジブリ' 와 에도시대 다수의 풍속화[우키요에浮世繪]를 소장한 '오타기념미술관太田記念美術館', 메이지 시대 일왕이 거주한 메이지 신궁明治神宮, 도쿄 중심가인 롯폰기六本木 힐스 타운 등을 들러봤다.

둘째 날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도쿄東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센소지淺草寺 또는 아사쿠사淺草 관음사觀音寺와 나카미세거리仲見世通り 등을 방문, 일본의 예술세계와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 등을 살펴보았다.

주민리더들, '일본의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 배워 알차고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 노력할 듯

특히, 주민 리더들은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의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방식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이응노마을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식회사' 등 조직 운영 시 접목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또한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가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생태문화자원,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응노마을의 '예술마을化' 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마을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다.

〈특집 / 사진 화보〉

이응노마을 주민리더들이 일정을 보낸, 일본 선진지 견학을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틀간 나고야시 나가센도 쓰마고주쿠 보존거리 견학과 나가노현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 견학을 집중 싣도록 하겠다.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흘간 나가노현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 견학과 주변 관광지 답사, 폐교를 소바 공장으로 개조한 곳에서 소바 체험을 하고, 도쿄의 대표적인 미술관 · 박물관 · 사찰 등을 견학했다.

〈1일차, 6월 12일〉

주민리더들의 일본 선진지 견학 일정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나고야국제공항에 도착, 쓰마고주쿠妻籠宿로 이동했다.

쓰마고주쿠는 나카센도 42번째의 역참으로, 나카센도와 이다가도飯田街道의 분기점에 위치해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번영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전통적인 마을 풍경이 사라지는 가운데 일찍이 지역 전체의 경관을 보존하는데 앞장서 1976년 처음으로 나라의 '중요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로 선정됐다.



'쓰마고주쿠妻籠塾' 마을을 산책하며, 옛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마을 주민리더들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옛것이 그대로 살아난 '쓰마고주쿠妻籠塾' 마을 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다.

전체 길이 약 500m의 마을 풍경은 당시의 면면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에도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2일차,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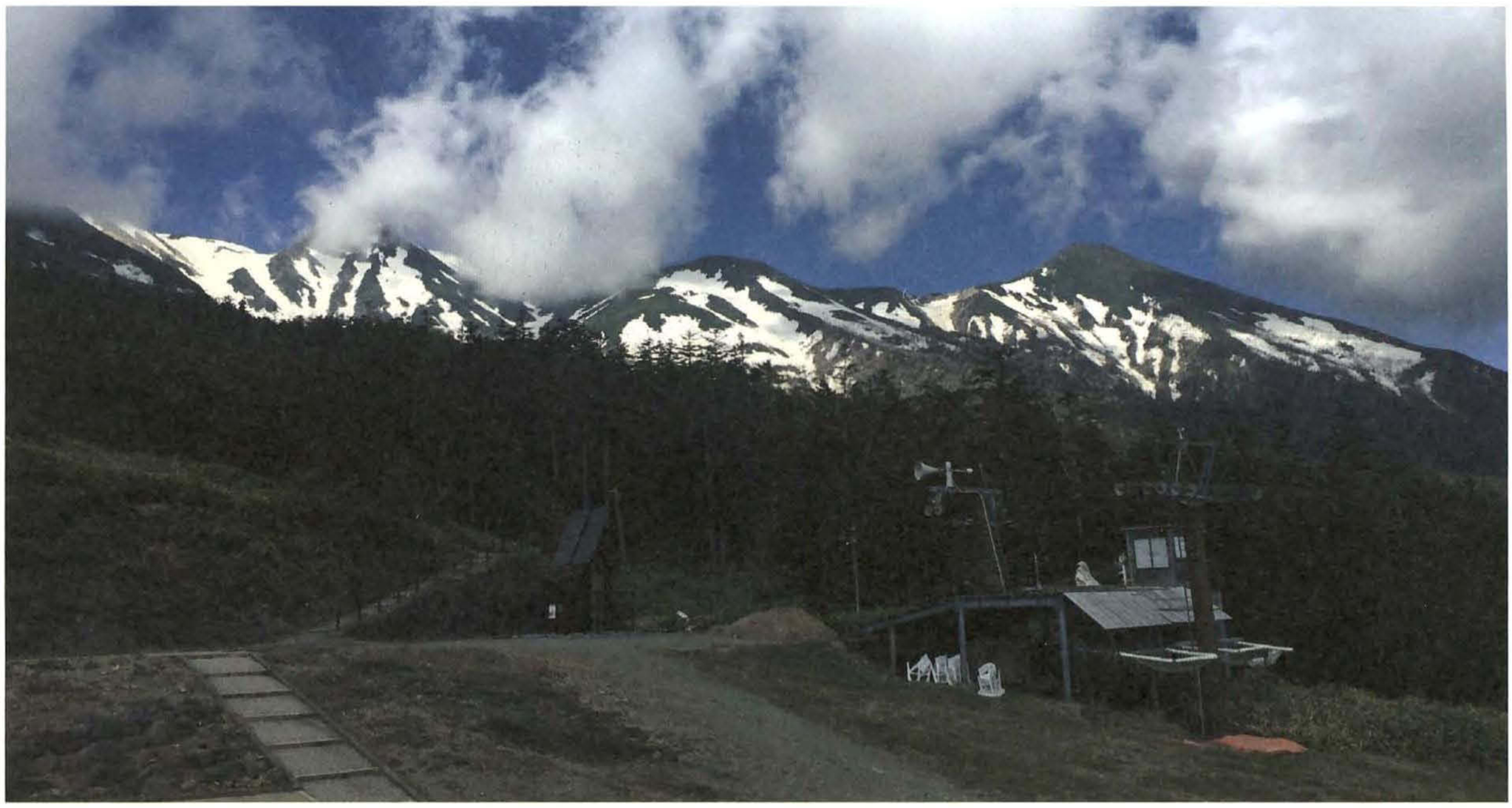
이튿날 일정은 키소마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를 방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듣고 배워, 이응노마을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키소 후쿠시마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운영 및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키소 후쿠시마 노인 관광가이드와 함께 키소 후쿠시마 일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만송산 흥선사를 찾아 독특한 일본의 정원문화를 살폈고, 일본 4대 세키쇼(관문)의 하나이자 에도시대 다이묘(지방영주)나 상인 등이 왕래할 때 거쳐야 했던 후쿠시마관문 자료관을 비롯해 키소 후쿠시마 옛 거리와 마을 곳곳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둘러봤다.

특히, 키소 후쿠시마에서는 옛 황실 임야를 보호 관리한 관사를 찾아 재일 한국인 바이올린 제작자인 진창현(陳昌鉉, 1929~2012) 선생의 자취를 살폈다.

진창현 선생은 조선인 차별을 이겨내고, 폐자재로 바이올린을 제작하다가 일본의 3대 바이올린 연주 거장인 시노자키 히로쓰구에게 바이올린을 팔면서 이름을 알렸고, 1976년 '국제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제작자 콩쿠르'에서 5개 종목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진창현 선생은 1984년 미국바이올린제작자협회로부터 '마스터 메이커Master Maker(명장)'의 칭호를 받았으며, 2008년 10월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해발 3067m의 온다케산御嶽山. 눈 덮인 정상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3일차, 6월 14일〉

3일차 일정은 키소마치木曽町(키소 후쿠시마木曽福島)의 온타케산御嶽山 유목미림油木美林을 찾아 가벼운 등산을 시작했다. 등산 도중에 만난 코모레비폭포こもれびの滝, 후에키폭포不易の滝, 레이진히군靈神碑群 등과 눈 덮인 온타케산 정상은 장관이었다. 온타케로프웨이 탑승 차 이동해 온통 산으로 둘러싼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 전체를 조망했다.

키소마치 가이다고원開田高原 키소 말 목장을 거쳐 오래된 초등학교(현재 폐교는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의 소바공장そば工場을 방문해 직접 소바(메밀국수) 만들기와 시식 체험을 하면서,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어 도쿄東京로 이동하는 JR선에 몸을 실었다.



오래된 초등학교, 폐교 후 마을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특산물인 메밀로 직접 체험을 통해 소바를 만들고 있다.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와 관련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마을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마을에 위치한 만송산 흥선사 기념관



재일 한국인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바이올린 제작자로 '마스터' 의 칭호를 받은 진창현 선생



'이웃집 토토로' 로 유명한 마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

〈4일차, 6월 15일〉

4일차 일정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등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三鷹の森ジブリ美術館' 는 현지 · 외부관광객들로 붐볐고, 긴 줄을 통과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일본답구나' 였다.

주민리더들은 '스튜디오 지브리' 에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우키요에(浮世繪, 일본의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 말기에 서민생활을 기조로 해 제작된 미술양식. 일종의 당대 사회풍속과 인간묘사를 담은 풍속화) 양식으로 관심이 많았던 전문미술관 '오타기념미술관太田記念美術館' 을 방문, 우키요에를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메이지신궁明治神宮에서의 묘한 분노를 뒤로 하고, 도쿄 중심가인 롯폰기六本木 힐스타운에 위치한 '모리미술관森美術館' 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늦은 시간이라 문이 닫혀 롯폰기 전망대에서 도쿄 시내를 전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5일차, 6월 16일〉

5일차 마지막 날 일정은 도쿄東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을 방문하면서 시작했다. 일본색日本色 짙은 '사무라이(侍, 무사) 칼' 이 보는 우리들을 서늘하게 했다. 고대 유물관으로 갈수록 우리의 고대(고구려 · 백제 · 신라) 영향이 짙었고, 특히 백제의 영향이 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관韓國館의 전시된 우리 문화재가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서늘한 분노와 뜨거운 슬픔이 차올랐다.

일본사찰日本寺刹스러운 센소지淺草寺 또는 아사쿠사淺草 관음사觀音寺와 사찰 앞 쇼핑거리인 나카미세거리仲見世通り를 지나,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가 우리를 공항에 묶어놓고 지체하게 만들었다. 1시간 30여 분의 연착, 비행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주민리더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어 마을로, 집으로 향했다.



일본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絵' 전문 미술관인 오타기념 미술관



도쿄의 대표적 사찰인 아사쿠사 관음사의 쇼핑거리





위)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가이다 고원에는 키소후쿠시마 전통 말을 보존하는 목장이 있다.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사와 지역 농산물 판매, 지역 정보제공 등의 기능하는 미치노에끼. 일본 전역에 10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웅노마을 주민리더와 키소후쿠시마木曽福島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며 '사랑'과 '연대'를 표현하고 있다.

마을 주민리더, 일본 선진지 연수 평가 통해 발전 방안 모색

일본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키소 후쿠시마' 성공 사례, 마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일본 성공 사례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특색 찾고, 마을만의 농 · 특산물 활용방안 마련해야"

이응노마을 주민리더들이 6월 12~16일 4박 5일 간의 일본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후, 6월 20일 화요일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에서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평가회의에서 주민리더인 양주명 이장은 "키소 후쿠시마 마을의 주식회사 설립 운영은 우리 마을에서도 한 번 시도할 만하다"며 "마츠리라는 마을축제가 열릴 때, 출향인들이 모두 참여한 것을 보고 부러웠고, 소바 체험도 신선했다. 우리 마을에서도 농 ·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연잎 체험 등을 상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숙자 부녀회장은 "일본 어디를 가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제일 부러웠다"며 "소바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도 연잎을 활용해 칼국수, 수제비 등의 상품화도 가능한 걸 배웠다"고 했고, 이승호 전 이장은 검소함과 옛것을 보존하고, 공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을 보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또한 방정일 총무는 "쓰마고주쿠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보고 부러웠다"며 "마을 수익구조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했고, 권재완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대표는 "키소 후쿠시마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의 경우, 행정당국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수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주민 공동수익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지역전문가인 주남수 홍성미술협회 회장은 "키소 후쿠시마 마을의 자부심은 역량강화를 통해 쌓인 결과"라며 "마을의 특색을 찾아 살려내야 한다"고 했고, 노보성 내포문화미디어센터 대표는 "이번 일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더해졌다"며 "행정과 무조건 소통이 절실하다.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고야 & 동경

4. 이응노마을-결성향교 연계 주민 선진지 견학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도자공원 · 경기도자박물관', 쌍령동 '영은미술관',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 · 만해기념관'

마을 주민들, '도자박물관 · 만해기념관' 등 선진지 견학 다녀와

올해 결성향교 '인문학을 찾아서' 프로그램 연계, 마을주민 30여 명 공감여행 다녀와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12월 2일 월요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도자공원 · 경기도자박물관', 쌍령동 '영은미술관',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 · 만해기념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경기도 광주 선진지 견학은 결성향교 '살아 숨 쉬는 서원 · 향교 활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 in(대표 김현자)의 '인문학을 찾아서' 프로그램과 연계, 참석을 희망한 주민 30여 명이 다녀왔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은 조선시대 왕실에 백자를 제조, 납품하는 관요가 운영되었던 유서 깊은 곳. 곤지암도자공원은 조각공원, 도자쇼핑몰, 복합문화홀, 공연장, 구석기체험마당, 중앙호수광장 등이 조성되어, 누구나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한국도자기의 탄생에서 현재까지 주요 유물 및 작품들을 전시하는 경기도자박물관과 공공아트워크를 통해 조성된 모자이크공원을 중심으로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은 2000년 11월에 개관했으며, 크게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로 구분돼 이 두 기능이 상호 분리, 호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은미술관은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연구 · 소장 · 전시하는 현대 미술관이며, 국내 최초의 창작스튜디오를 겸비한 복합문화시설이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평론가와 기획자, 대중이 '살아있는 미술Living Art'과 함께 만나는 장이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은 남한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1963년 1월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다. 또 남한산성의 역사 · 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돼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되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주장성으로, 군수 물자를 저장하는 특수 창고를 설치한 중요한 거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외성과 옹성을 갖춘 전형적인 산성이면서, 산성의 변화 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45일간 머문 이곳에서 끝내 청군에게 무릎을 꿇어 수치스러운 역사의 주인으로 남았다.

또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에는 홍성 출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유물과 자료로 채워진 '만해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만해기념관은 1998년 4월 개관했으며, 만해사상연구가인 전보삼 신구대학교 교수가 평생을 거쳐 수집한 건국공로최고훈장인 '대한민국장(1962년 추서)'과 만해 생전의 각종 저술과 유물, 3 · 1운동 당시 만해의 옥중투쟁을 보여주는 신문자료, 희귀본인 〈님의 침묵〉 초간본 및 100여 종의 〈님의 침묵〉 이본과 만해관련 연구서 등 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주관한 이현조 문화 in 기획팀장은 "올해 이응노의 집과 인문예술 강좌 '홍주에서 노닐다'를 연계해 진행하면서, 이응노마을에도 남다른 애정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이응노의 집과 결성향교 두 곳이 지역의 역사 · 문화 · 예술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5.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 농촌 · 농업 · 농민을 위한 마을 활성화

마을 '농촌 · 농업 · 농민' 위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 마련

친환경 농법 · 마을 특색 음식개발 ·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만들기 등 네 차례 강좌 열려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에서는 10월 셋째, 넷째 주 '농촌 · 농업 · 농민을 위한 마을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교육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 강좌는 각 강좌별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 목요일과 20일 금요일 오후 7~9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했다. 또 10월 25일 수요일에는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 총 4시간가량 진행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친환경 유기농법' 실천하는 일

첫째 날 교육 강좌는 홍성 금마면에서 세아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영택 농촌체험연구소장이 맡았다. '친환경 농법의 현장 사례를 통한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보다는 함께 농사짓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이날 임 소장의 강의는, 농약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의 어려움 속에서 근본적으로는 '흙' 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은 '예방' 한다는







이유로, 농약 사용을 권장했다.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예찰' 을 통해 충분히 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임 소장은 이밖에도 유기농의 메카인 홍성군 친환경농업 현황과 단체, 판매현황, 미래 비전과 목표 등을 밝히고, 친환경 유기농법에 필요한 유기비료와 녹비작물, 병해충 유인 기피 식물 사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했다.

마을 특색 살린 로컬푸드 농 · 특산물 생산과 식당 운영 시 '농부밥상' 차림 알차게 구성해야

둘째 날 강좌 역시 임 소장이 맡았다. 마을의 농 ·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음식 개발 및 체험, 식당운영' 을 주제로 진행한 이날 강의는, 먼저 마을 농 · 특산물은 주민들 스스로의 입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 농촌관광을 지향한다면, 머물고 싶고 또 놀러오고 싶고 소문내고 싶은 곳으로, 로컬푸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마을에서 로컬푸드 식당운영을 한다면, 농 ·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거리와 농부밥상 등을 마련하고, 이응노마을만의 체험관광 특색을 보여줘야 한다. 농부와 함께 하는 텃밭 체험운영, 토종작물 재배,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밥상차림은 '밥부터 정성껏 다르게', '장맛은 손맛', '로컬푸드 제철음식', '고암 이응노를 추억할 수 있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요즘 퓨전 음식', '토종재료를 활용한 음식', '로컬푸드 음료와 디저트' 로 구성하고, 주변의 식당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 로컬푸드 식당운영 시에는 반드시 로컬푸드 판매장도 설치해야 한다. 임 소장은 다시 한 번 '머물고 싶고 또 놀러오고 싶고 소문내고 싶은 곳' 으로, 로컬푸드 식당과 판매장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

마을단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주식회사 만들기', 설립 및 운영, 운영 상 문제, 장단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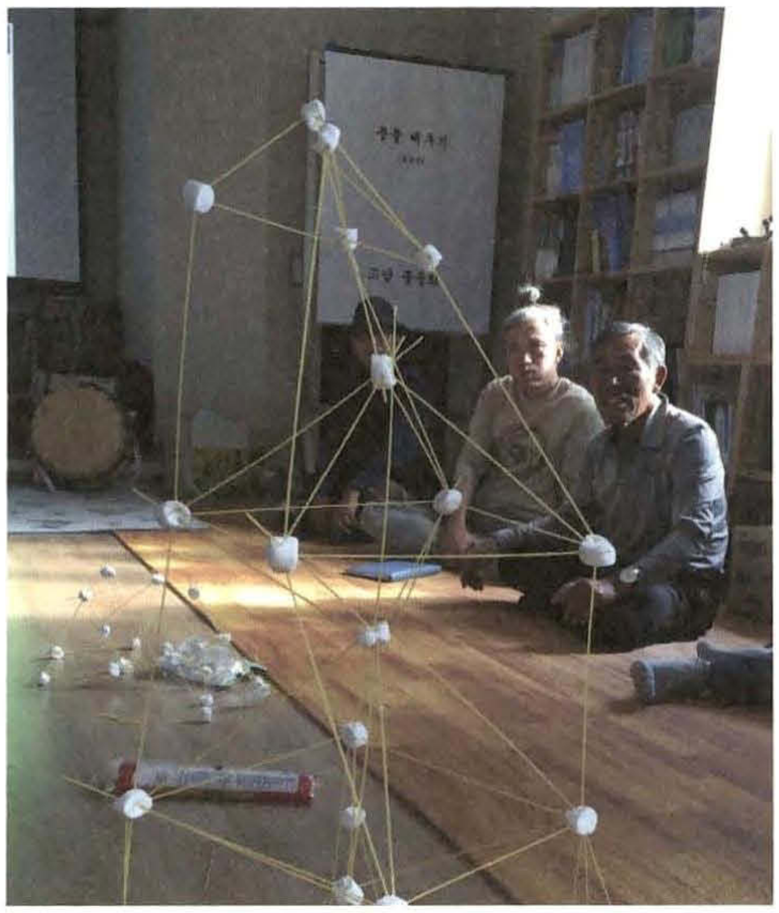
셋째 날 강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피난민촌인 '해돋이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마을활동가이자 문화활동가로 분주한 임기헌 강사를 초청, 마을단위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주식회사 만들기'를 주제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네 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임 강사는 마을단위 법인체인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주식회사 만들기'와 관련, 법인체 설립을 위한 영리 · 비영리 기준, 정관 제정, 법인체 운영과정 및 운영위원 구성, 운영상 문제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임 강사는 각 법인체(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주식회사)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국의 마을단위 영리 · 비영리 법인체 설립 및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기헌 강사는 "마을에서 공동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식회사' 등 법인체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영리와 비영리 기준을 확실히 정해, 마을주민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인체를 설립해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의 마을이 노인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경우이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이제는 마을에서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체를 만드는 일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Ⅴ. 2017 이응노마을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1.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
2.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
3.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
4. 이응노마을 풍물패 운영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3년 차 맞아 깊이 더하기 위해 최선

올해 하반기 창작공방 별도 운영 … 마을주민 外 다른 지역 주민도 누구나 참여 가능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를 맞아 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1~4월, 거버넌스 예비회의 포함)에서는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통해 지난해 프로그램 가운데 인기가 높은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와 관광아트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유리공예, 함께 만들어요' 강좌 등을, 깊이 있는 교육 강좌로 채워간다는 계획이다.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총 12회씩 진행되며,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는 4월 3일(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진행됐다. 그리고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는 4월 7일(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는 5월 2일(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진행돼 각 강좌별 수강생 1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프로그램을 보고 배우며 즐겼다.

또한 '유리공예, 함께 만들어요' 강좌는 5월 13일 토요일 전국이응노미술대회에서 체험행사로 진행됐으며,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에서도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는 운영되지 않으며, 각 창작공방별 개별적으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용봉산권역(상하리 · 중계리) 주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별도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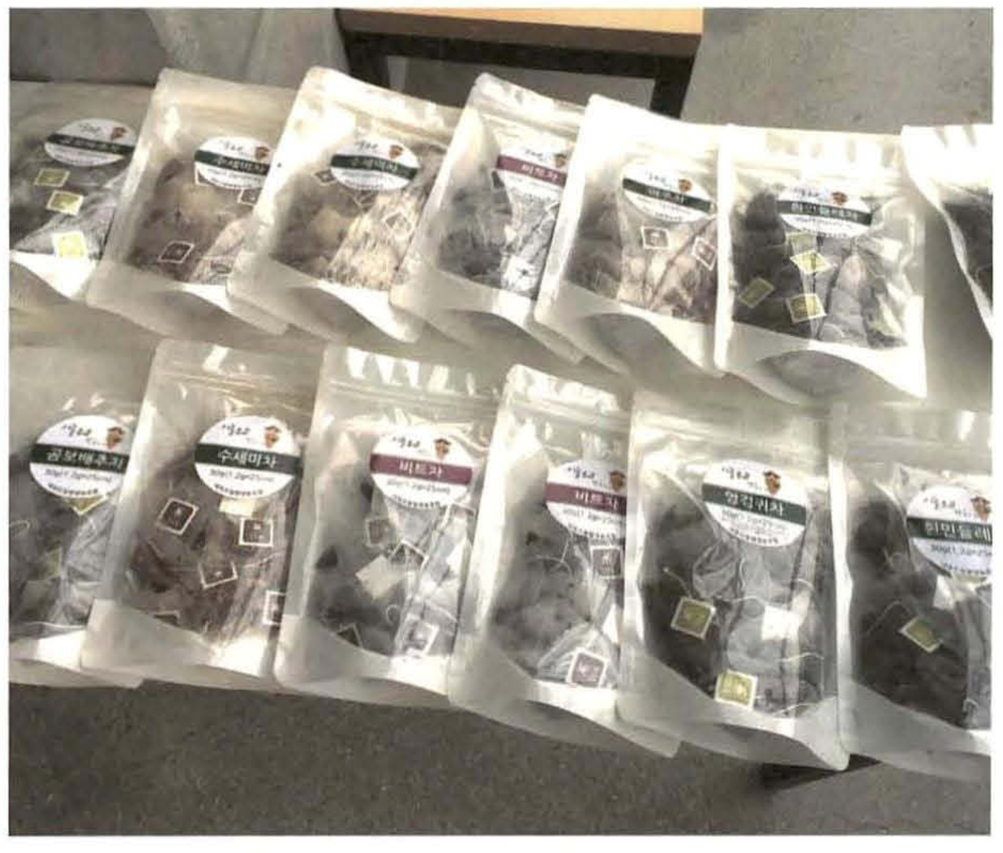











수세미차
비트차
쌍화차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3년차 맞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

1.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

▶ 활동 내용

주민들 즐거운 관심 속, 흙 직접 빚고 '생활도자기' 만들어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1회씩 16회 간 열려
마을주민들, 지난해 이어 흙으로 빚은 '생활도자기' 선보일 예정

이응노마을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가 올해는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1회씩 16회 차로, 별의별 도자기공방에서 진행됐다.

16회 차로 열린 도예강좌는 주남수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장과 김종석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회원이 강사를 맡았다.

올해 도예 강좌는 주민 수강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관심 속에 흙을 직접 빚고 구워 생활도자기인 다육이 화분, 찻잔, 연잎 접시, 장식용 화병 · 저금통 · 인형 · 부조 등을 만들었다.

첫 번째 강좌에서 수강생들은 흙을 고르고 만지며 감각을 익혀 흙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흙덩어리를 꼬집듯이 성형하는 핀칭Pinching 기법을 비롯해, 흙을 마치 국수 가락처럼 길게 균일한 두께로 민 다음 이를 돌돌 겹쳐 쌓아 올라가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코일링Coiling 기법, 흙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평평하게 만든 흙판 위에 자신이 표현하고픈 문양이나 그림을 그리는 판 기법 등을 배우고 익혔다.

한편 이번 도예강좌를 통해 주민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생활도자기는, 올해 11월 4일 토요일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과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열리는 마을 '문화예술잔치'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장 소
공간 1층



▶ 활동 일지

강사 : 주남수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지부장 / 김종석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회원

2017년 04월 03일(월) 첫 번째 개강 시간

올해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는 백자토와 청자토, 옹기토를 이용해 다육이 화분, 찻잔, 연잎 접시, 장식용 화병, 장식용 저금통 · 인형 · 부조 등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 예정이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성형기법'을 설명했다. 성형기법인 '핀칭'은 점토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성형하는 방법이고, '코일링'은 흙을 양손으로 앞뒤로 굴리면서 가래떡 같이 만드는 방법이다. '판'은 흙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평평하게 만든 흙판 위에 자신이 표현하고픈 문양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

처음 도자기를 접한 수강생들은 흙을 밀가루 반죽하듯 하면서 재밌어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예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제법 손가락 놀림이 좋았다.

또한 '성형기법'을 익힌 수강생들은 본격적인 작품으로,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다. 핀칭과 코일링, 판 기법을 통해 수강생 각자 자유롭게 흙을 고르고 만지며,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다. 이곳에다 다육이나 들꽃을 심으면 어떨는지…….

2017년 04월 10일(월) 두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든 '나만의 다육이 화분'을 7~10일 정도 햇빛과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건조한 후,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도자기공방 한쪽에 보관했다.

수강생들이 만든 '나만의 다육이 화분'은 제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외모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2017년 04월 17일(월) 세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든 '다육이 화분' 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찻잔' 을 만들었다.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성형기법을 활용해 찻잔을 만들었다.

수강생들이 만든 '찻잔' 은 다육이 화분과는 달리 정형화된 도자기 기법에 따라 만들었다. '부부가 함께 마실 수 있는 찻잔' 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모양은 되도록 말끔하게 다듬었다. 찻잔은 2개의 잔을 1쌍으로 만들었다.

2017년 04월 24일(월) 네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든 '부부가 함께 마실 수 있는 찻잔' 을 7~10일 정도 햇빛과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건조한 후,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도자기공방 한쪽에 보관했다.

수강생들이 만든 '찻잔' 은 비교적 말끔한 모양을 하고 있어, 수강생들은 보다 정성껏 찻잔 만들기에 열의를 보였다.

2017년 05월 01일(월) 다섯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든 '찻잔' 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연잎 접시' 를 만들었다. 찻잔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성형기법을 활용해 연잎 접시를 만들었다.

수강생들은 '부부가 쓸 수 있는 연잎 접시' 를 연잎 모양에 가깝도록 만들었고, 일부 수강생들은 실제 연잎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정성껏 연잎 접시를 만들었다.

2017년 05월 08일(월) 여섯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든 '부부가 쓸 수 있는 연잎 접시' 를 7~10일 정도 햇빛과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건조한 후,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도자기공방 한쪽에 보관했다.

수강생들이 만든 '연잎 접시' 는 연잎과 똑같아, 수강생들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점을 감안, 예술품을 만든다는 정성으로, 연잎 접시 만들기에 열의를 보였다.

2017년 05월 15일(월) 일곱 번째 시간

2017년 05월 22일(월) 여덟 번째 시간

2017년 05월 29일(월) 아홉 번째 시간

2017년 06월 19일(월) 열 번째 시간

2017년 06월 29일(월) 열한 번째 시간

2017년 07월 03일(월) 열두 번째 시간

2017년 07월 10일(월) 열세 번째 시간

2017년 07월 17일(월) 열네 번째 시간

이번 수업 시간부터 14회 차까지 8주간에 걸쳐, '장식용 화병과 저금통, 인형, 부조 만들기' 에 힘을 쏟았다. 연잎 접시처럼, 수강생들은 제각각 나만의 예술품을 만든다는 기대감으로, 도자기공방을 찾았다.

수강생들은 제각각 화병 · 저금통 · 인형 · 부조 사진 등을 들고 와서, 흙을 고르고 만지면서, 사진 속 화병 · 저금통 · 인형 · 부조 등을 보고 자신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 장식용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제 수강생들이 흙으로 빚은 작품은 모두 완성됐다. 수강생들은 뭔가 아쉬운 듯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손에서 흙을 놓지 못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스펀지 다듬기와 도장 찍기, 초벌 가마에 넣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07월 24일(월) 열다섯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까지 수강생들은 흙으로 빚은 작품을 모두 완성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1,2차 과정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했다.

1차 과정은 완성한 작품을 스펀지로 문질문질 깔끔하게 다듬고, 굽깎기와 도장을 '꾹' 찍으면 끝이 난다.

2차 과정은 초벌 가마재임(구울 물건을 가마 안에 재어 넣는 일) 후 초벌구이는 약 800도 정도에서 대략 12시간을 굽는다. 이제는 불과의 싸움이다.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구워질까' 하는 기대감과 초조함을 안고 수업 시간을 마쳤다.

2017년 07월 31일(월) 열여섯 번째 마무리 시간

무척 더운 날씨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수강생 대부분이 참석했다. 초벌구이로 구워진 자신들의 작품을 보면서. 제대로 구워진 작품은 기쁘고 깨진 작품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작품이 1차 완성됐다며 다들 즐거워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유약을 정성껏 바르고, 또 다시 재벌구이에 들어갔다. 재벌구이는 약 1000도 정도에서 15~18시간을 굽는다. 불을 다 때고 나서도 하루 동안 가마 안에 나뒀다가 꺼내면, 드디어 수강생들의 작품(다육이 화분, 찻잔, 연잎 접시, 장식용 화병 · 저금통 · 인형 · 부조)이 완성됐다.

수강생들은 "처음에 만든 도자기와 나중에 만든 도자기, 손이 많이 간 도자기 등 모든 도자기 작품들이 각양각색을 이루고 있어 재미있다"고 했다.

이번 수업 시간을 끝으로 올해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는 모두 끝났다. 이제 도자기공방은 제대로 된 주인장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 도자기공방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2017문화특화마을
이응노마을
도자기 프로그램
내가 만든 밥그릇
일 시
2017. 4. 3(월) ~ 6. 19(월) 10:00~12:00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도



마을 '별의별 도자기공방' 운영 활성화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돼

김종석 강사, 공방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해 연중무휴 체험프로그램 선보여

이응노마을 '별의별 도자기공방' 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별의별 도자기공방은 2015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을 시작하면서, 마을 내 처음 만들어진 창작공방으로, 3년째 활발하게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주민들이 가장 즐겁고 관심을 가지고 수업한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2017년 올해 마지막 해를 맞으면서, 도자기공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에서는 다각도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러 도예 작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연중무휴 도자기공방 운영을 부탁했으나 여의치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활동하다가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김종석 강사(현재는 마을 빈 집을 구입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와의 접촉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도자기공방을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게 되었다.

도자기공방 운영 활성화는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월 · 수 ·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도자기공방은 또한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도자기공방 강의는 '주물주물 도예교실' 로, 석고틀을 이용한 종지 및 밥그릇 만들기, 코일링과 판성형 머그컵 만들기, 다육화분 만들기,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 만들기, 성공적인 공방창업 안내, 도자기 소성교육(환원 · 산화 · 불보는 법) 등으로 진행한다.

한편 마을 거버넌스에서는 도자기공방을 비롯해 마을 안 각 별의별 창작 공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을 마을로 끌어들여, 예술마을의 건실한 토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

▶ 활동 내용

마을주민들, '목수 양성과정' 통해 스툴 · 우체통 등 가구제작 '구슬땀'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씩 12회 간 열려
주민 수강생들, 전동공구 · 수공구 활용해 스툴(의자)와 우체통 등 제작

이응노마을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가 올해는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12회 차로, '별의별 나무 공방 소풍' 에서 진행됐다.

목공장 권재완 대표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목수 양성과정 강좌는 주민 수강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강생들과 매회 수업시간마다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목수 양성과정 강좌와 마찬가지로,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함께 활용해 수강생들과 함께 스툴(의자), 휴지케이스, 스트레칭 보드를 만들었고, 수강생 개인 작품으로는 선반 장식장과 우체통, 사다리형 콘솔의자, 작은 테이블, 고양이 집 등을 제작했다.

특히, 목수 양성과정 권재완 대표와 수강생들은 '원목 그네의자' 를 공동 제작키로 의견을 모았고, 10월 13일 금요일 제작을 완료, 현재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마당에 설치했다.

한편 이번 목수 양성과정을 통해 제작된 생활가구는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과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열리는 마을 '문화예술잔치' 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 활동 일지

주민강사 : 권재완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대표

2017년 04월 07일(금) 첫 번째 개강 시간

목공 수업에 앞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에 대해 설명했다. 수강생은 모두 10명.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후, 초 · 중급자가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했다.

올해 수업 계획은 스툴Stool(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서양식 의자), 휴지 케이스, 스트레칭 보드Stretching Board 등의 작품을 함께 제작하고 목공기술을 익힌 후, 수강생 각자의 개인 작품 1점과 전체회의를 거쳐 공동작품을 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목공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공구와 전동공구, 각종 기계류의 종류 및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2017년 04월 14일(금) 두 번째 시간

첫 작품은 '원형 스툴'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재료를 미리 준비한 후, 수강생 각자 스스로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스툴의 제작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 진행한 원형 스툴은 상부와 하부에 십十자 구조물을 '반턱 짜맞춤' 하고 4개의 다리를 나사못으로 체결한 후, 원형의 상판을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수업 시간의 중점은, '반턱 짜맞춤'을 위한 정밀한 톱질과 다리를 체결하기 위한 전동드라이버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있다.



톱질 하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줄자와 조합자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톱질 후 끌을 이용해 '반턱 짜맞춤' 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시연을 거쳐 각자 스스로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미 목공 수업을 받은 중급반 수강생들은 톱과 전동드라이버 사용에 익숙한 편이나, 올해 처음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은 익숙지 않아 어려워했다. 하지만 2인 1조로 서로 도우며 제작하니, 수업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2017년 04월 21일(금) 세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 '원형 스툴' 제작을 완료하고, 사포질로 마감했다. 사포질은 나뭇결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무에 스크래치가 생겨 거칠어진다.

그리고 사포질은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나, 거친 사포(100방)로 시작해 고운 사포(220방, 400방)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여러 번 실시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할 '휴지케이스' 에 대해 도면을 설명하고 재료를 나눠준 후, 수업을 마무리했다.





2017년 04월 28일(금) 네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까지 '원형 스툴' 을 완성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휴지케이스' 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 수업 시간의 중점은, 똑같은 치수로 톱질을 여러 번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박스 제작을 위해서는 좌 · 우측판, 그리고 앞 · 뒤판의 크기가 똑같아야 하는 구조이기에, 두 번의 톱질 결과물을 같은 치수로 재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수업 시간에 나눠 준 재료에 톱질할 위치를 표시하고, 각자 톱질을 시작했다. 완성도 면에서는 개인차가 있고 정확한 재단은 아니지만, 조립하기에는 대부분 무난했다.

휴지를 빼내는 위치는 이미 재료 준비과정에서 결정했고, 다양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눈의 위치는 개성에 따라 즉시 가공해줬다.

재단이 일찍 끝난 수강생은 전동드릴과 이중드릴비트로 나사못 박을 위치를 가공한 후, 나사못으로 조립을 시작했고, 손이 빠르지 않은 초급자들은 중급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별로 제작을 진행했다.

2017년 05월 26일(금) 다섯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휴지케이스'를 마무리해 완성하고, 스테인 도색을 했다.

목공제품을 도색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목가구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친환경 수성 스테인'로 도색하기로 하고, 각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도색하도록 했다.

스테인 도색은 주로 붓이나 에어스프레이를 사용하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는 스펀지로 도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스펀지를 사용해 스테인을 도색할 경우, 뭉치지 않고 얇게 펴서 바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스펀지에 스테인을 적당량 묻힌 후 넓게 펴주듯이 바르는 것이 좋다.

도색을 마치고 건조하기 위해 진열한 후,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할 '스트레칭 보드'에 대한 도면을 설명했다.

2017년 06월 02일(금) 여섯 번째 시간

이번 수업은 '스트레칭 보드'이다. 스트레칭 보드는 경사진 나무판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발목, 종아리, 허리까지 저절로 운동이 돼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스트레칭 보드의 구조는 바닥판과 2개의 경사판, 그리고 경사판을 고정시켜주는 3단계의 멈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수업 시간도 지난 시간의 과제물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직선 톱질 연습과 함께 경첩 조립을 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이다. 경첩은 각종 문짝을 문틀에 달 때 주로 사용하는 부품인데, 2개 또는 3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크기의 문에는 2개로, 큰 크기의 문에는 3개를 달아주면 좋다.

먼저, 스트레칭 보드 도면에 그려진 치수로 재단을 하고 경첩을 달아 조립을 실시한 후, 인터넷에서 운동법을 검색, 출력해 수강생들에게 나눠줬다.





2017년 06월 09일(금) 일곱 번째 시간

이번 수업 시간의 과제는 주변에 흔하게 자라는 대나무를 재단, '지압판'을 만들기로 했다. 쟁반 모양의 네모난 박스를 제작, 그 위에 대나무를 반으로 갈라 펼쳐 놓은 후, 그 위에 올라가 밟으면 발바닥 지압이 된다.

먼저, 네모난 박스를 조립하기 위해 목재와 합판을 재단하고, 전동드라이버와 나사못으로 조립한 후, 나무공방 앞 대나무 숲에서 굵은 대나무 여러 그루를 잘라 각자 필요한 만큼 잘라 사용했다. 수강생들은 크고 작은 대나무를 번갈아 깔아 놓으면서, 지압의 효과를 높이는 응용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주위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 유용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의 목적이다.

지난 수업 시간까지는 주어진 과제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주부터 4주간은 각자 직접 디자인한 개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수강생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 사이즈와 제작 방법을 상의하고 도면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06월 23일(토) 여덟 번째 시간
2017년 06월 30일(금) 아홉 번째 시간
2017년 07월 07일(금) 열 번 째 시간
2017년 07월 14일(금) 열한 번째 시간

이번 수업 시간에는 수강생 각자 선반 장식장, 우체통, 사다리형 콘솔, 작은 테이블, 고양이 집 등 개인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이승호 씨는 '선반 장식장'을 제작했다. 크기는 250×900×1818, 재료는 18㎜ 레드파인Red Pine. 이승호 씨는 지난해 목공 수업을 수강한 경험을 바탕으로, 짜맞춤 기법인 사개맞춤과 장부맞춤 기법을 사용해 장식장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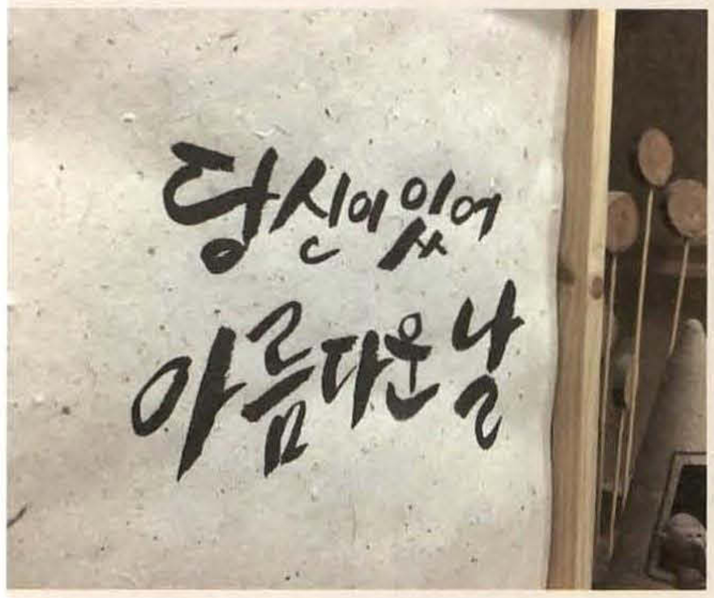
이명자 씨도 '선반 장식장'을 제작했다. 크기는 270×1050×1700, 재료는 18㎜ 레드파인. 올해 처음으로 목공 수업을 수강하는 초보자로서, 이승호 씨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

박복만, 신연숙, 방정일 씨는 '우체통'을 제작했다. 크기는 350×280×350, 재료는 낙엽송 엠보 합판. 낙엽송 엠보 합판은 목질이 단단하고 화려한 무늬가 특징이다. 서로 협동해 조립과 도색까지 즐겁게 활동했다.

김남례 씨는 '사다리형 콘솔'을 제작했다. 크기는 350×420×1400, 재료는 38㎜ 구조목과 12㎜ 레드파인. 경사가 들어간 작품인 만큼 도면과 치수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했으며, 조립과정에서 이승호, 이명자 씨의 도움을 받았고, 마감 사포질과 페인트 도색, 그리고 바니시 마감까지 했다.

신금숙 씨는 손주와 같이 사용할 '작은 테이블'을 제작했다. 크기는 600×800×280, 재료는 28㎜ 레드파인. 테이블 제작은 코너 브라켓이라는 철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보자가 직접 가공하는 수준에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가공하기 용이한 전동드라이버와 나사못 조립 방법으로 직접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

정희섭 씨는 딸이 좋아하는 '고양이의 집'을 제작했다. 크기는 475×546×546, 재료는 18㎜ 레드파인. 기본적으로는 박스형 구조물에 출입문을 달아주고, 측면에 하트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주어 환기와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







2017년 10월 13일(금) 열두 번째 마무리 시간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의 마지막 시간은 마을에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 공동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 동안 수업 과정에서 몇 차례 상의를 거쳐 '3인용 원목 그네의자'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재료와 부속품을 준비했다. 가공과 조립과정을 거쳐 마지막 수업 시간을 활용해 오일 스테인 도색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원목 그네의자' 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므로, 주요 부재는 두꺼운 부재를 사용하고, 필요한 부위는 나사못이 아닌 볼트를 체결했다.

또한 스테인레스 체인(쇠사슬)을 이용해 '원목 그네의자' 를 매달아줬고,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 기둥의 각도를 조절, 안전성을 더욱 기했다.

이번에 제작한 '3인용 원목 그네의자' 는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천막 아래쪽에 설치해 마을주민은 물론 마을을 방문한 외지방문객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로써 2017년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의 모든 수업을 마무리했다.



3.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

▶ 활동 내용

주민들 가죽 생활소품 만들기 흠뻑 빠져 … "명품 부럽지 않아"

5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1회씩 12회 간 열려
마을주민들, 지난해 이어 가죽 생활소품 제작에 땀방울

이응노마을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가 올해는 5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1회씩 12회 차로,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됐다.

가죽공예 강좌는 생활창작집단 끌 작가이자, 마을 창작공방을 운영하는 김정숙 작가가 강사를 맡아 진행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가죽공예 강좌도 주민들의 즐거운 관심 속에 가죽을 활용한 마우스패드, 열쇠고리, 카드케이스, 필통, 현금케이스, 커플 여권케이스, 손가방 등을 만들며 진행됐다.

한편 이번 가죽공예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가죽 생활소품은 올해 11월 4일 토요일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과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열리는 마을 '문화예술잔치'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 활동 일지

강사 : 김정숙 생활창작집단 끌 작가

2017년 05월 02일(화) 첫 번째 개강 시간

올해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는 수강생 5명이 더 늘어 10명으로 진행했다. 지난해는 도안 작업을 인원수에 맞게 재단해 준비했지만, 올해는 기본기법을 확실히 익혀! 탄탄한 기초에서, 응용력을 더하기 위해 모눈종이에 직접 도안하기로 했다.

'가죽공예, 손 안에 명품 만들기' 강좌 12회 프로그램은 마우스패드, 열쇠고리, 카드케이스, 필통, 현금케이스, 커플 여권케이스, 손가방 등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순서대로 정했다.

가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사용할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 크롬 가죽 등 두 가지를 사용한다. 기본 도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처음부터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새에 맞게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기본 도구는 크리져, 송곳, 모눈종이, 칼, 자, 목타, 고무망치, 고무판, 재단판, 다양한 금속판과 몰드, 실, 본드, 사포, 마감제 등이 사용된다.

이어 도구 사용법을 설명했다. 한 번의 설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면서 그때그때 설명하기로 했다.

첫 수업은 돈피를 이용한 '마우스패드'. 돈피를 밑면에 붙여 사용하면, 밀림이 없어 사용하기 편할 뿐더러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정확한 사이즈를 정한 후, 두꺼운 모눈종이 위에 가는 샤프를 이용해 도안을 그려준다. 가죽공예는 정확한 도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눈종이를 사용했다.

처음 하는 도안 작업이라 수강생들이 어려워했다. 더구나 별의별 작은 도서관 조명 밝기가 충분치 않아 더욱 힘들었다. 수강생들 연령대가 50~60대가 대부분이라, 안경 없이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수강생들의 열의는 불빛보다 강하게 빛났다.

2017년 05월 09일(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만들어 놓은 도안을 가죽위에 놓고 움직이지 않게 누른 뒤, 도안을 따라 송곳을 눕히면서 선을 그어 준 후 재단을 했다.

가죽을 재단하기에 앞서, 재단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판이나 커팅매트를 깔아야 한다. 그리고 가죽을



자를 때에는, 칼을 수직으로 세워 힘을 주어 커팅 해야 한 번에 말끔히 재단이 되며, 여러 번 재단 시에는 단면이 매끄럽지 않게 나온다. 수강생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업에 임했다.

재단한 가죽은 밑면에 돈피를 가죽용 본드를 이용해 붙여 준 후, 크리져를 이용해 바느질 보조선을 만들어 준다. 보조선에 따라 바느질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크리져에 나사를 돌려 폭을 조절해 수직으로 세워 선을 만들어 준다. 선을 그어 준 후에는 목타로 구멍을 뚫어 준다. 구멍을 뚫을 때는 고무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목타를 잡는 요령은 수직으로 세워 망치질을 해주고, 구멍의 간격이 어긋나지 않도록 앞 구멍에 반드시 날 하나를 걸쳐 구멍을 뚫어 줘야 선이 반듯하게 나온다.

2017년 05월 16일(화) 세 번째 시간

오늘 수업 시간에는 '바느질법' 을 배워 보기로 했다.

'새들스티치' 는 바늘 두 개를 사용하는 기본 바느질 기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도중에 실이 끊어져도 바늘땀이 쉽게 풀리지 않는 튼튼한 바느질법이다. 양손에 바늘을 하나씩 잡고 꿰매어 나가는 바느질로, 가죽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꿰맬 길이보다 4~5배 길이의 실을 준비해서 사용한다.

수강생들 대부분 여성들이라, 바느질에 익숙해서인지 솜씨가 좋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수강생 대부분 뿌듯해 했다. 어딘가 모난 곳이 있어도, 좀 삐뚤어져도, 바늘땀이 완성되면서 만족도는 더 큰 듯했다.

2017년 05월 23일(화) 네 번째 시간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열쇠고리' 를 만들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가죽을 재단해 고리에 끼워 사용하지만, 오늘 수업 시간에는 가죽을 깎아내 제작을 했다. 작품을 제작할 때 디자인에 따라 가죽을 얇게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과정을 '피할' 또는 '스카이빙' 이라고도 한다.

'피할' 또는 '스카이빙' 은 가죽을 부분적으로 깎아낼 때 쓰는 방법으로, 재단판은 칼날이 잘 박히므로 유리판을 사용하지만, 도구 구입이 부족해 고무 재단판을 사용했다. 용도에 맞게 조금씩 끼워가며 깎아줘 완성하면, 크리져를 이용해 바느질선을 만들어 준 다음 구멍을 뚫어 간단하게 바느질을 했다.

마우스패드 만들 때 사용한 가죽과는 다른 가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면 마감제라는 '토크놀' 을 이용해 정성스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열쇠고리' 를 완성했다.

2017년 05월 30일(화) 다섯 번째 수업

지난 수업 시간에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 만든 '열쇠고리' 가 간단하면서 실용적이었는지,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남은 가죽으로 몇 개 더 만들어 보자고 했다.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열쇠고리' 를 만들기로 했다. 수강생들 각자 다양한 크기에 맞게 '열쇠고리' 를 만들었다.

2017년 06월 06일(화) 여섯 번째 시간

진한 밤색 가죽을 사용해 '필통' 을 만들기로 했다.

다양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필통 가운데서도 골라, 많은 펜이 들어 갈 수 있는 작고 사용감이 편리한 필통을 만들었다. 손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편하다.

도안은 크기에 맞게 모눈종이에 그려 재단을 했으며, 도안한 본으로 가죽에 대고 송곳으로 그려 준 후 재단했다. 오늘 수업에서는 13㎜ 스프링도트 똑딱이를 달아줬다. 똑딱이 단추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장식에 맞는 원형 펀치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주고, 크기에 맞는 몰드를 사용해준다.

2017년 06월 13일(화) 일곱 번째 시간

지난해에는 현금만 넣어 다닐 수 있는 현금케이스를 만들어 사용했다. 올해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현금케이스' 를 만들었다.

카드를 4개 정도 넣을 수 있게 도안을 그렸으며, 난이도가 높은 도안을 한 번 사용하기가 아까운 듯해 두 가지 컬러를 선택해 두 개의 현금지갑을 만들기로 했다. 복습효과를 낼 수 있어 좋았다. 한 번 만들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가 대부분이다.

연두색 · 다홍색 가죽…….

가죽은 오플가죽으로 무늬가 있는 가죽을 선택했으며, 흠집이 나지 않는 가죽으로 선택한 후, 도안 작업에 들어갔다.

자로 반듯하게 자른 뒤 도안대로 재단을 정확하게 해준 후, 꼼꼼히 가죽용 본드를 붙여주면 지갑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구멍을 뚫기 전,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스프링단추가 들어갈 부분에 송곳으로 표시를 해 준 다음 작업을 해야 구멍을 뚫을 때, 단차 차이 없어 반듯하게 구멍을 낼 수 있다.

첫 번째 수업부터 빠진 수강생이 없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수강생 대부분 실력이 훨씬 더 좋아졌으며, 일부 수강생들은 모양도 제법 구상을 해서 각자의 개성을 보여줬다.



2017년 06월 20일(화) 여덟 번째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 '현금케이스'를 만들었다.

도안하고 재단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작업을 정확히 해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수업 시간까지만 해도 '뚝딱뚝딱' 대충 만든 수강생들도, 이제는 기초 작업의 중요성을 느꼈는지 좀 늦고, 좀 서툴고, 눈이 침침해도 최대한 정확도를 고집하며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다.

2017년 06월 27일(화) 아홉 번째 시간

오늘 수업은 '커플 여권케이스'다. 여권을 끼우고 다른 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여권이 들어갈 크기를 정해준 후, 모눈종이에 도안을 그린다. 사실 시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도 모눈종이에 도안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도 수강생들의 열정과 의지는 대단한 듯하다. 중간 중간 보면서, 크기를 정확하게 했는지 검토 한 후 2차로 가죽 선택 후 재단을 했다.

이번 '커플 여권케이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겹쳐지는 3개의 가죽을 피할 없이 겹쳐 본드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재단한 가죽 모서리는 대부분 라운드커터로 절단해줘야 두꺼워지지 않는다.

라운드커터를 사용할 때는, 문진이나 손으로 꼭 눌러 고정 시켜줘야지 깔끔하게 라운드가 잘린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2개의 '커플 여권케이스'를 재단하고 수업을 마쳤다.

2017년 07월 04일(화) 열 번째 시간

오늘 수업 시간에는 재단한 가죽 뒷면에 일어난 잔털을 제거하기 위해, 토크놀로 가죽 뒷면 전체를 바른다. 바르는 요령은 가볍게 헤라를 이용해 펴서 바른 후, 면이나 키친타올로 닦아 말리면 된다.

마감제를 바르는 이유는 잔털을 정리해주고 가죽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면에 묻지 않게 주의하면서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문지른다.

마감제가 어느 정도 마른 상태를 기다려준 후, 작업을 시작했다. 작품을 만들 때에는 정해진 순서를 생각하며 진행해야 한다.

2017년 07월 11일(화) 열한 번째 시간

'커플 여권케이스' 만들기는 3주째 이어졌다.

재단해 마감제까지 완성한 작품들은 '가죽 맞붙이기' 에 들어갔다. 가죽을 꿰매 맞붙일 때는 겹쳐지는 두 장의 양쪽 가죽에 붙여야 시간이 지나도 떨어질 염려가 덜 하다.

접착면이 일어날 정도로 가볍게 사포질이나 칼을 이용해 흠집을 내어 본드를 바른다. 본드가 가죽 표면에 묻으면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닦아 준다. 본드를 과하게 바를 경우, 가죽에 묻어 얼룩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단면 마감제를 처리하고 '엣지코트' 를 작업할 경우, 엣지코트의 발림이 덜하게 때문이다.

가죽끼리 접착해 만들어진 작품은 구멍을 뚫어 준 후, 조용하게 바느질을 한 땀 한 땀씩 실을 잡아당겨 마무리까지 끝내 완성도 있는 '커플 여권케이스' 를 만들었다.

이제는 일부 수강생들은 어느 정도 알아서 도안대로 재단하고 바느질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2017년 7월 18일(화) 열두 번째 마무리 시간

수업이 끝나갈 무렵은 항상 아쉬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뭔가 알아 갈 때쯤이면 수업은 마무리가 된다.

수강생들이 원한 '작은 손가방' 은 비록 만들진 못했지만, 수강생 대부분 어느 정도 간단한 가죽공예 작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마지막 수업인 오늘 수업 시간에는 2시간으로는 '무언가' 를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이라,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했다. 이로써 12회 간 진행된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는 모두 끝이 났다.

4. 이응노마을 풍물패 운영

이응노마을 주민들, '신명神明나는 풍물연습에 구슬땀

매주 월요일 1회씩 마을회관서 풍물 연습 … 마을 화합 · 문화예술잔치 등 참여

이응노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는 올해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2층에 모여 '신명나는' 풍물가락 연습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5월 13일 토요일 열린 제16회 전국이응노미술대회 풍물공연에 대비, 매일 저녁 구슬땀을 흘렸으며, 대회에서는 멋진 풍물공연 선보여 참여 학생 및 가족, 마을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일부 고암풍물회 회원들은 정기연습일 외에도 수시로 마을회관에 모여 풍물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암풍물회는 6~8월 바쁜 농번기를 맞아 잠시 풍물연습을 쉴 예정이며, 농번기가 지나면 다시 모여 마을 화합과 문화예술잔치 등 참여를 목표로 풍물연습을 더욱 '신명' 나게 할 예정이다.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Ⅵ. 2017 이응노마을 '별의별' 공간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용
2.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책 읽기
3.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 공간' 조성
4.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5. 이응노마을, 마을지도 완성
6. 이응노마을 예술시장 구축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용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올해도 도서기증 줄이어

올해 '별의별 작은 도서관', 주민 대상 독서프로그램 진행 예정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기증이 지난해 2000여 권이 이르렀고, 올해도 도서기증이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남문우 변호사가 2월 초순께 마을아이들을 위한 아동도서 100여 권을 기증했다.

남 변호사는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마을아이들이 양서를 통한 독서생활화를 하기 바란다"는 취지를 말하며 도서기증에 선뜻 나섰다.

남 변호사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와 지청장을 지냈고, 2014년 11월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엮어 '나의 삶 이야기'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이수정 학예사는 올해 2월 중순께,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외투 · 코(고골 단편선), 불안, 차별의 기억(아파르트헤이트가 건네는 이야기들), 공예공방–공예가 되기까지' 등 16권의 도서를 기증해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의미를 보탰다.

이 학예사는 2015년 10월께에도 '희망,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등 도서 12권을 보내와 별의별 작은 도서관 설립에 고마운 뜻을 함께 한 바 있다.

한편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올해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아동 · 성인 독서지도 및 독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주민은 물론 홍성지역 및 내포신도시 아동 ·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2. 이응노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책 읽기

마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위해 '어린이와 함께 책을' 프로그램 운영

5~7세 유아 대상, 즐거운 책 읽기 습관 길러줘, 자녀교육 길라잡이도 제공해

이응노마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인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자' 프로그램이 7, 8월 운영됐다.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자'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독서지도 교사인 김영선씨가 맡았으며, 혜전유치원 어린이(5~7세)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총 10회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5~7세 유아에게는 책을 자주 접해 즐거운 책읽기 습관을 길러주고, 참석한 부모에게는 좋은 책 흥미롭게 읽어주기를 통해 자녀교육의 길라잡이를 제공했다.

한편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책과 함께 하는 마을주민들이 되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왜 띄어 써야 돼?
OK



3.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 공간' 조성

마을 곳곳 창작 공간 마련, '예술마을' 조성 첫 걸음 내디뎌

별의별 창작공방 끌, 주민 연계해 문화예술 체험 공간 및 마을 관광아트 상품 개발

이응노마을 내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인 '별의별 창작공방 끌' 이 마련되었다. 생활창작집단 끌 소속 작가들이 마을에 둥지를 튼 것.

아울러 '이응노마을신문사' 도 2016년 8월 별의별 창작공방 끌 옆에 컨테이너형 사무실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께 창작공방 끌과 마을신문사 개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들을 비롯해 홍성군민, 외지방문객, 김석환 홍성군수,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군내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 개소를 축하했다.

'별의별 창작공방 끌' 은 내포창조관광 기반조성사업 체험마을 육성에 선정돼 마을 내 빈 집을 활용, 2016년 9월 초 건물재생을 마쳤고, 지역 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별의별 창작공방 끌' 에는 김정숙(가죽공예), 이주훈(은공예), 임민숙(천연염색) 작가 등 3명의 작가가 정주하면서, 개인 창작활동을 펼쳐나간다.

또한 정주작가들은 각 분야별 작품을 창작하면서, 주민들과 연계해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특히 마을 관광아트 상품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 완성된 작품은 마을 예술시장(아트프리마켓)에서 전시 · 판매할 예정이다.





마을신문사, 마을자원 조사 및 마을 역사, 현재와 미래 비전 제시하는 역할 담당

'이응노마을신문사' 는 전상진 편집인을 비롯해 주민기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마을자원 조사, 마을의 현재와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한다. 특히 마을신문사는 마을 속에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구하는 사랑방 역할을 담당한다.

모영선 이응노마을 총괄기획자은 "이번 마을 내 별의별 창작공방 끌과 마을신문사 설치는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 이응노의 집 창작공간과 연계해 예술마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작품제작을 통해 마을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마을의 미래와 고암 이응노 예술정신 상징하는 '싱징조형물' 제작

'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2차 제안공모 결과, 주남수 홍성미술협회 회장 최종 선정
예술마을 중심인 마을회관 일대 정체성과 마을 미래상 반영한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이 제작된다. 거버넌스 운영위원회(거버넌스)에서는 9월 19일 화요일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제16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을 상징조형물' 제안공모에 응모한 주남수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주남수 작가는 현재 홍성미술협회 회장이자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차 제안공모 결과, 주남수 작가의 제안 공모서를 최종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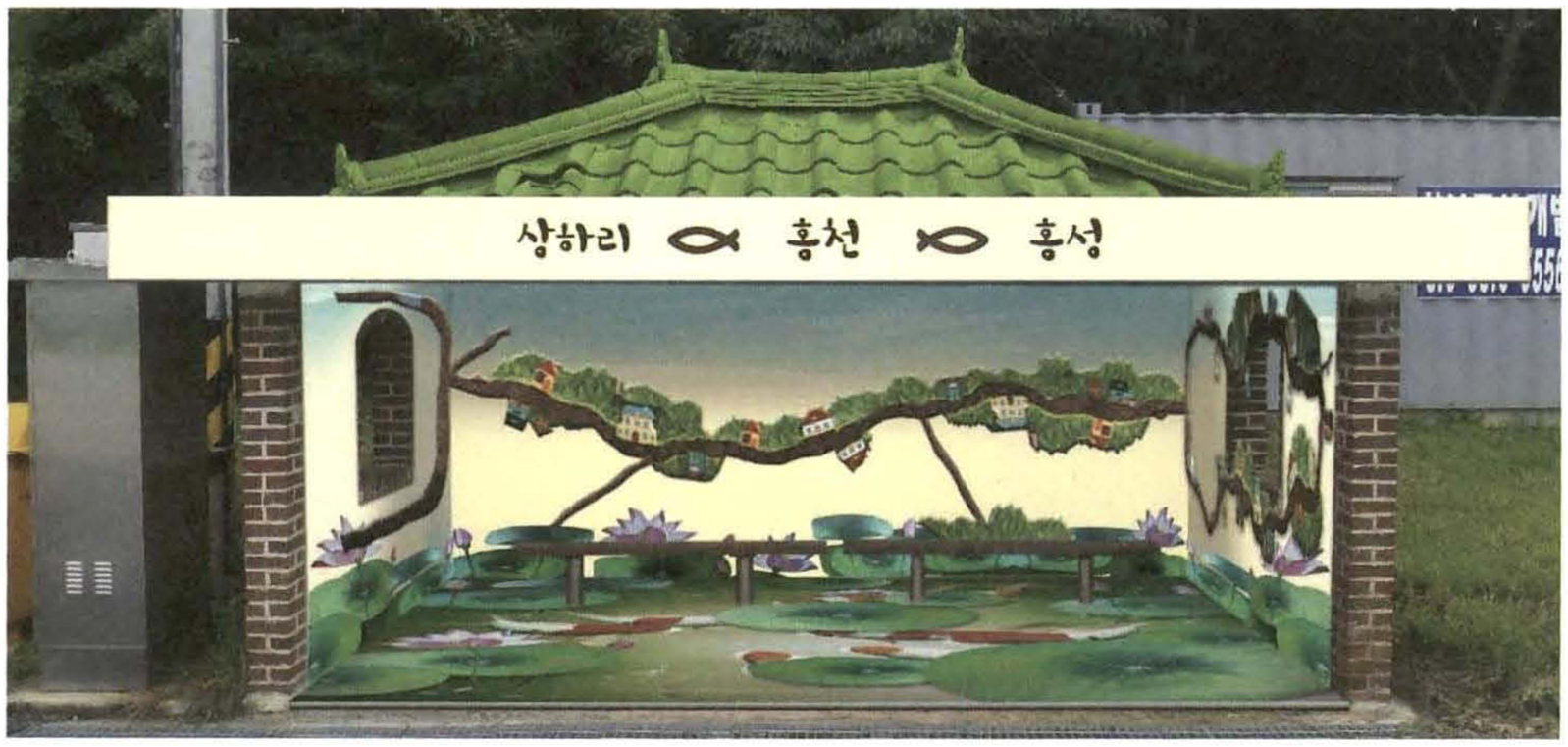
주남수 작가는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 살리고, 예술마을 조성에 걸맞는 예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조형물을 설치, 전국 명소화를 구축하겠다는 제작 방향을 제시했다. 또 마을 상징조형물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다. 마을 예술마을 조성 중심인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별의별 작은 도서관과 도예공방,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한다.

2015년 예술마을 조성에 따라 작은 도서관과 도자기공방이 설치된 마을 복지회관 구 회관 건물 외벽에는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는 푸른 별이 상징조형물로 제작된다. 페트병을 재생해 활용, 페트병 안에 전구를 넣어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는 푸른 별을 표현하고, 이에 따른 포토존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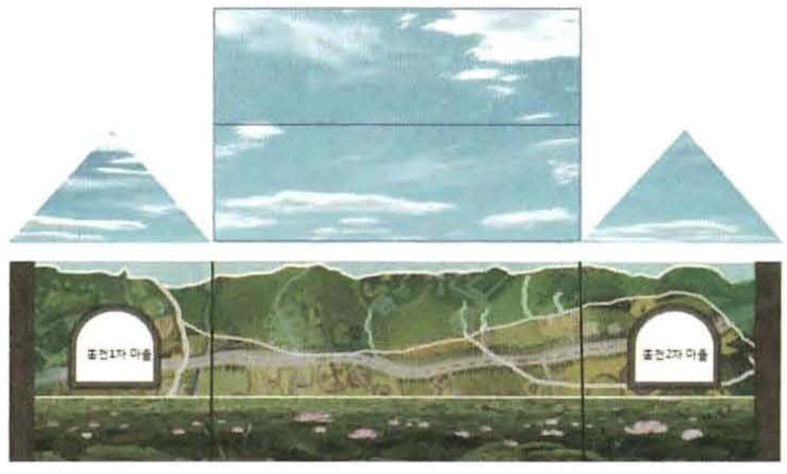
이어 버스정류장은 마을 지도를 그려, 언제나 마을에 있는 듯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을 구성한다. 천장은 마을의 맑고 푸른 하늘, 벽면은 마을 지도, 간판과 바닥은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마을주민과 함께 도자기점토를 제작, 마을회관과 주택, 길 등에 붙이면서, '우리 집 만들기'의 재생 및 공동제작의 의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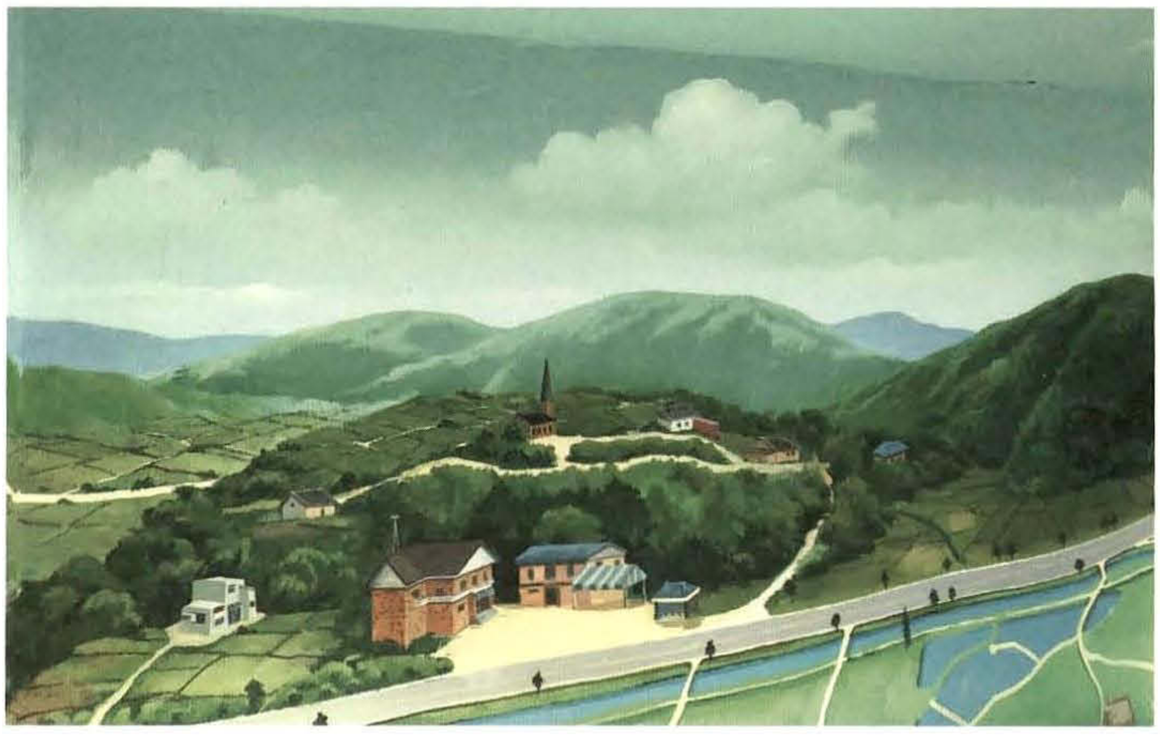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내구성 · 보온성이 강하면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예술마을 이미지에 어울리는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남수 작가의 최종 선정에 따라, 9월 26일 화요일 양주명 이장과 모영선 총괄기획자, 윤후영 학예사, 주남수 작가 등이 만나 '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와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견 가운데 마을의 발전하는 미래를 상징하고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11월초께 제작 설치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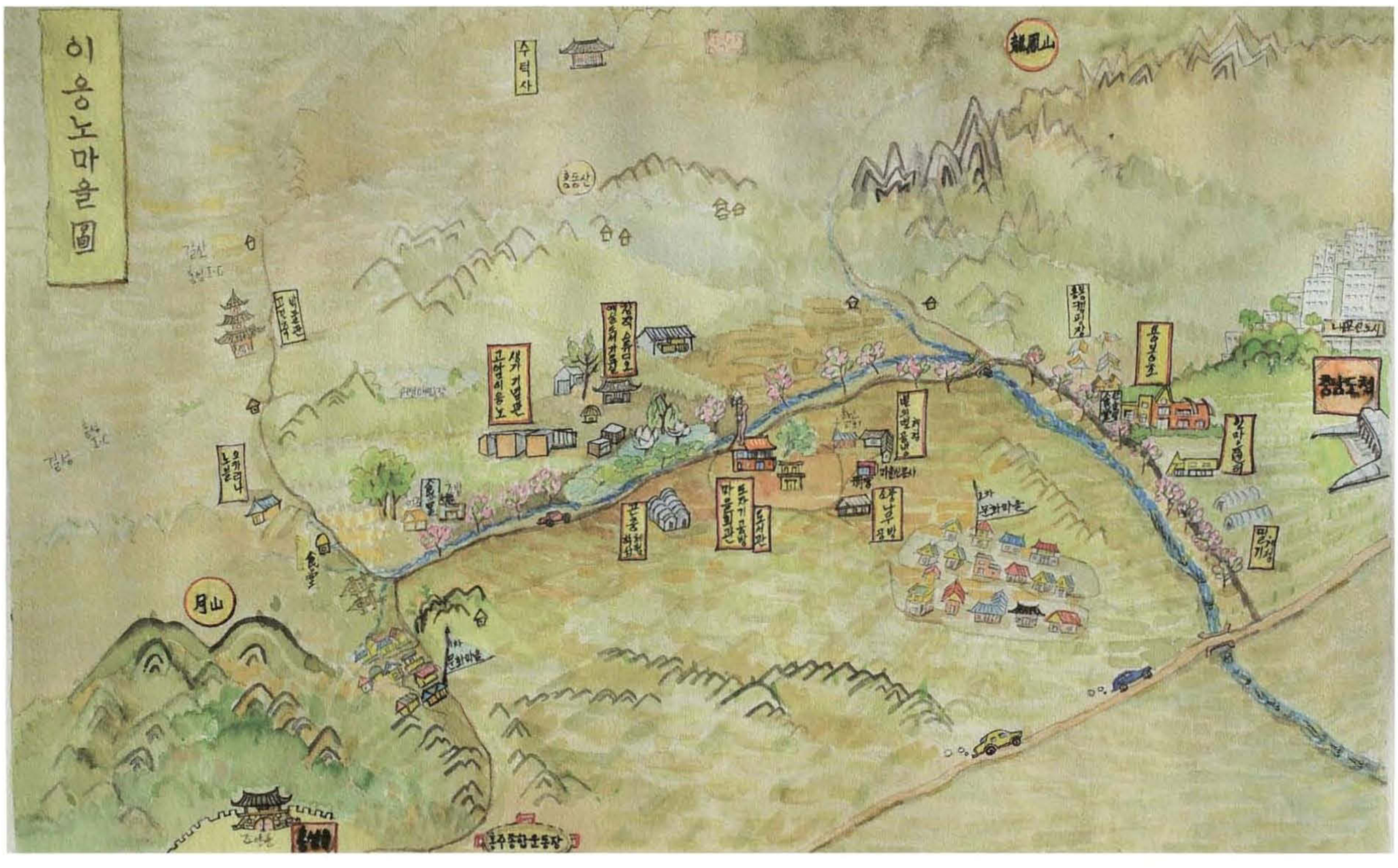
5. 이응노마을, 마을지도 완성

마을 공간 구축 통한 예술마을 조성 및 미래 로드맵 그려

이응노마을과 주변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을지도가 완성됐다.

마을지도는 이응노의 집 윤후영 학예사의 작품. 윤 학예사는 "마을지도를 활용, 이응노 마을의 예술화를 더 확대시키고자 한다"며 이 로드맵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마을지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마을 공간 구축을 통한 예술마을 조성 활성화와 미래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됐다.



6. 이응노마을 예술시장 구축

마을상품 고부가 경쟁력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본격 추진

마을 행사와 주말 예술시장 등에서 '이응노마을' 브랜드 가치 보여줘

이응노마을 상품(농 · 특산품)의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에서 'BI(브랜드 가치)'를 개발, 완료했다. 2017년에도 마을상품 BI는 마을의 각종 행사와 마을 장터에서 활용됐다.

마을 예술시장(아트프리마켓) 조성 일환으로 개발된 마을상품 BI는 '스티커형'으로, BI는 이응노마을 로고와 생산자 및 상품소개 등을 담았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마을상품 BI는 올해 전국고암미술실기대회를 비롯해 한여름 밤 시네마천국,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행사에서 마을상품 BI로 사용됐다. 이후 주말 마을 예술시장 장터에서 마을의 고부가 브랜드 기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Ⅶ. 2017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이응노마을 사람들|
이응노마을과 함께|
2.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3. 농림축산식품부, 시 · 군 창의 사업



1.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이응노마을 사람들

마을서 '목공' 체험,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 방문

이응노마을 '목공' 체험을 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 25명이 11월 19일 토요일 별의별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날 목공 체험프로그램은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대표의 목공예 기본 설명과 그릇받침대 제작 실습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모두 1시간 정도 즐거운 실습으로 그릇받침대를 제작했고, 실습을 통해 만든 그릇받침대를 각자 집으로 가져갔다.

한편 이날 한국청소년연맹 관계자 방문은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 '체험마을'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행복한 여행 나눔(줄임말 행여나)의 내포역사문화투어 홍보분야 팸투어로 진행됐다.





풀무고 풍물동아리 '한마당', 이응노마을서 3년째 풍물연수

홍성 홍동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풀무고) 풍물동아리 '한마당' 학생 30여 명이, 3년째 이응노마을을 찾아 풍물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풀무고 풍물동아리 '한마당' 학생들은 1월 3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열흘간 이응노마을 복지회관에 머물면서 스스로 숙식을 해결했고, 흥겨운 풍물 가락을 익히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풀무고 풍물동아리 '한마당' 학생들은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여러 차례 신명나는 풍물 가락을 흥겹게 즐겼다.

특히, 1월 12일 목요일 마지막 날 연수를 마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물 가락을 울리며, 마을회관에서 이응노의 집 주차장까지 길놀이와 풍물 공연을 펼쳤다.

마을 주민 화합과 풍년 기원한 정월대보름 행사 가져

마을청년회 · 부녀회 중심되어 마을어르신과 주민 화합 행사 치러

이응노마을에서는 2월 11일 토요일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어르신 및 주민들 점심식사 대접과 윷놀이 등으로 주민 화합행사를 가졌다.

2017년 정유년 올 한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빌고, 각 가정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마을청년회(회장 유성진)가 주축이 돼 1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점심식사는 마을부녀회(회장 김숙자) 회원들이 오곡밥과 뼈해장국, 대보름 나물, 부럼 등을 준비해 마을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이날 주요행사는 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의 풍물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주민들은 4개 반으로 나눠 윷놀이와 경품추첨, 부럼 등을 함께 나누며, 정월대보름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양주명 이장은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행사 취소 등을 고민했으나, 주민화합을 위해 조촐하게 청년회, 부녀회 등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주민이 하나가 되어 잊혀져 가는 옛날 고유의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이 행사를 통해 풍년과 주민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을 청년회, 2월 정기총회 통해 유성진 회장 선임

이응노마을 청년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유성진 씨가 취임했다.

마을청년회는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유성진 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으며, 한광재(명진천막공사 대표) 씨가 이임했다.

유 신임회장은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홍성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해 마을 일을 맡아 마을의 각종 행사와 마을 내 대청소 및 제초작업 등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일할 예정이다.

유 신임회장은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응노마을 주민들, 봄맞이 마을 대청소 및 하천정비 나서다

이응노마을에서는 3월 25일 토요일 마을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봄맞이 마을 대청소 및 하천정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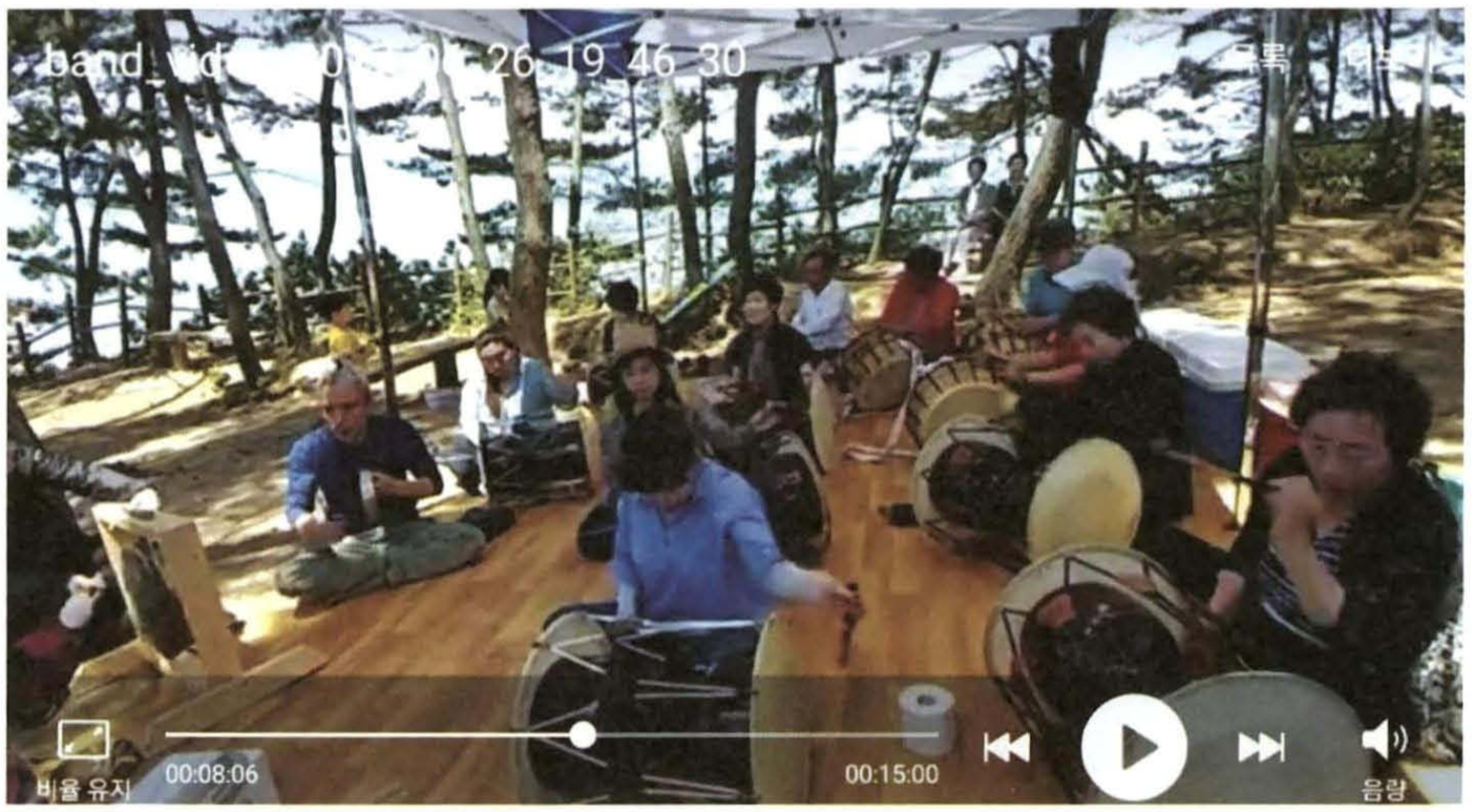
이날 1,2차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고, 주민 모두 힘을 합쳐 하천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수거한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인 폐비닐, 빈병, 폐품 등은 홍북읍 숨은 자원에 보태고, 홍성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도 내놓는다.

양주명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나와 봄맞이 마을 대청소 및 하천 정비에 힘을 보태 우리 마을이 깨끗하고 쾌적해졌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이응노마을 만들기를 위해 수시로 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고암풍물회', 서부 속동전망대로 들놀이 다녀와

이응노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 회원들이 6월 4일 일요일 서부 속동전망대로 들놀이를 다녀왔다.

이날 황규현 강사와 부부동반 회원 등 21명은 고암풍물회 발전과 회원 화합을 목적으로, 홍성군 서부면 궁리 속동전망대 솔밭으로 들놀이를 다녀왔다.

이날 들놀이는 한영재 · 이우정 부부가 각종 해산물(갑오징어 · 광어 · 장어 등)을 후원, 삼겹살 · 목살에 이어 푸짐한 해산물 잔치를 벌였다.

특히, 이날 들놀이에서 고암풍물패 회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사물 앉은반 공연 등 풍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속동전망대를 찾아온 많은 외지방문객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마을 주민과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 간 만남의 시간 가져

이응노마을 주민들과 이응노의 집 한옥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는 6월 28일 수요일 저녁, 첫 인사를 나누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마을에서는 양주명 이장과 방정일 총무, 권재완 · 신동학 · 이상일 씨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작가는 이섭 작가와 공주대학교 연구원 2명, 송재영 작가 등이 참석했다. 또 마을신문 전상진 편집장과 이응노의 집 이창엽 팀장, 공필재 주무관, 윤후영 · 이수연 학예사, 정승욱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의 시간에서 함께 삼겹살 잔치를 벌였고, 마을 주민과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들 간 서로 함께 한다는 생각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마을 주민들, 장마철 맞아 마을대청소 및 제초작업 나서

이응노마을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7월 15일 토요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마을대청소 및 제초작업, 하천정비에 나섰다.

이날 1,2차 주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힘을 합쳐 각각 1~4반 구역별 마을대청소 및 제초작업, 하천정비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또 이날 마을대청소에 앞서 불조심 강조의 의미를 담아 참여가구 전체에 소화기를 전달했다.

양주명 이장은 "장마철을 맞아 마을 곳곳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을대청소 및 제초작업, 하천정비 등이 시급했다"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마을대청소에 힘을 보태 우리 마을이 깨끗하고 쾌적해졌다"고 말했다.

마을청년회, 상견례 겸해 마을발전과 주민화합 다짐해

이응노마을 청년회(회장 유성진)는 7월 25일 화요일 예산 덕산 수덕사 인근 산채정식 전문 식당에서 7월 모임을 열고,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이응노의 집에 새로 인사발령한 공필재 팀장 · 복성진 팀장과의 상견례 겸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시군창의사업' 등 추진 시 마을청년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공필재 팀장은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청년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성진 회장은 "마을청년회가 적극 나서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힘쓰겠다"며 마을청년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마을 한여름 밤 시네마 천국, '역사歷史와 만남의 시간' 가져

8월 19일 이응노의 집 기념관 중앙홀에서 마을과 홍성 · 내포 주민 대상
한여름 밤 시네마 천국 '덕혜옹주' 상영, '온전히 지키는 역사' 써나가야

한여름 밤, 이응노마을 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시원하고 특별하게 '놀러 와'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 시네마천국' 이 눈길을 끌었다.

8월 19일 토요일 이응노의 집 기념관 중앙홀에서 한여름 밤 시네마 천국 행사로 영화 '덕혜옹주' 를 상영했다.

한여름 밤 시네마천국은 지역 문화예술 시설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예술마실' 행사로, 올해는 행사를 다소 축소해 영화 '덕혜옹주' 상영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상영된 영화 '덕혜옹주' 는 권비영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2016년 하반기에 개봉한 허진호 감독, 손예진(덕혜옹주 역) · 박해일(김장한 역) 등이 주연을 맡은 서사 드라마이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와 그녀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고종의 딸, 조선의 마지막 황녀다. 가장 고귀한 신분인 황녀이지만 어린 나이에 고종황제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일본에 볼모로 잡혀 반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그나마 15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다. 일본 백작과의 정략결혼, 딸의 사망, 이혼 등 질곡의 삶을 살다 1962년 고국 땅을 밟았지만 그녀를 반겨주는 이는 없었다. 궁에서 태어나 궁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는 말처럼, 빼앗긴 치욕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역사' 만이 기록된다는 사실. 이 영화의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빼앗긴 역사를 기억하라' 는 말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커피오감에서 마련한 팝콘, 치킨, 맥주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비했고, 마을주민과 방문객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마을주민 함께 홍성CGV 영화관서 영화 '택시운전사' 관람

'5 · 18 민주화운동' 이라는 반드시 밝혀야할 진실과 당위의 역사 보여주는 영화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홍성CGV 영화관에서 단체 영화관람을 했다.

영화는 요즘 가장 핫한 장훈 감독, 송강호(김만섭 역) · 토마스 크레취만(위르겐 힌츠페터(피터) 역) · 유해진(황태술 역) · 류준열(구재식 역) 주연의 '택시운전사' 이다.

한여름 밤 시네마천국 영화 '덕혜옹주' 상영에 이어 영화 상영회 두 번째 행사로, 8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홍성CGV 상영관을 빌려 주민 100여 명이 단체관람을 했다.

'택시운전사' 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넘어서 현재도 계속 상영 중인 영화로, 1980년 5 · 18 광주를 그리고 있다. 5 · 18 광주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 처음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1937~2016)와 택시운전사(송강호 분, 실제 김사복 씨)의 눈으로 목격한 광주 5 · 18민주화운동의 참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당위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故 위르겐 힌츠페터(피터)의 미망인 브람슈테트 여사, 배우 송강호 · 유해진 씨 등이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또 '택시운전사' 는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광주 5 · 18민주화운동과 4 · 16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대전 충남중학교 학생들, 이응노마을서 '농촌체험' 즐기다

보고 배워 즐기는 일석삼조 농촌체험 프로그램, "너무 알차고 재미있었어요"

이응노마을에 반가운 체험방문객들이 찾아왔다.

9월 29일 금요일 대전지역에 소재한 충남중학교 농촌활동 동아리 학생 35명이 마을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배우고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

마을이 속한 용봉산권역(홍북읍 상하리 · 중계리)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날 행사는 마을의 이상일 씨 고구마밭을 찾아 '고구마 캐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용봉산돌바위마을 한마음센터에서 별의별 나무공방 소풍의 권재완 대표를 초청, '연필꽂이 만들기' 목공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은 이응노의 집을 찾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애와 예술세계 · 업적 등을 감동적으로 접했으며, 고암선양을 위해 조성된 한옥동 ·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를 방문, 입주 작가들의 작업과정을 둘러보면서, 작업과 관련해 즐거운 이야기도 나눴다.

이날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홍성이 충남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여기 와서 알았어요"라며 "너무 알차고 재미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홍성역사인물축제장서 '이응노마을 체험' 대박! 터트리다

마을주민들 사흘간 교대로 체험부스 운영,
'문패 만들기',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 진행해 큰 호응 얻어

2017 홍성역사인물축제가 한창인 9월 22일 금요일 홍주읍성 일원, 주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제체험관 한 곳이 지역주민과 외지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요즘 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이응노마을 주제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스의 풍경이다.

9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홍성역사인물축제장에서 주제체험관을 단연 돋보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고암 이응노 화백을 주제로 한 이응노마을 주제체험 축제부스다.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와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나무에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 프로그램이다.

마을에서 직접 축제 주제체험 부스를 운영한 건 '이응노마을'이 유일하다. 무민공 최영 장군, 매죽헌 성삼문 선생, 명고명무 한성준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여섯 인물을 주제로 펼쳐진 축제에서 나머지 인물들의 주제체험 프로그램은 공모에서 선정된 축제 전문업체. 이 업체는 다섯 인물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마을주민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응노마을을 따라올 순 없었다.

마을에서는 이승호, 김숙자, 김남례, 방정일, 권재완, 이상일 씨 등 마을주민들이 사흘 동안 교대로 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아와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나의 꿈, 나의 희망 쓰고 그리기'가 인기가 높았고, 고학년 학생과 가족단위 방문객에게는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가 인기가 높았다.

거기에 더해 고암 이응노 화백이 전주에 있을 당시, '개척사'라는 간판업을 한 것에서 착안해 '영화간판 그리기'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유리공예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도가 높아 자칫 부상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유리공예 체험은 중단했다.

홍주 천년 기념의 해인 내년 홍성역사인물축제장에는 홍북읍 중계리 이응노마을 외에도 최영 장군 · 성삼문 선생이 태어난 홍북읍 노은리 · 대인리, 한성준 선생이 태어난 갈산면 신안리, 한용운 선생이 태어난 결성면 성곡리, 김좌진 장군이 태어난 갈산면 행산리 등에서도 참여해 주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기대하며 이응노마을! 파이팅이다.





이응노마을과 함께

마을서 '용봉초 학생과 교직원' 예술체험 행사 진행한다

별의별 작은 도서관과 마을신문사, 창작공방 등 둘러보고 행사계획 세워

이응노마을 예술체험 행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다. 마을과 인접한 용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가을철을 맞아 마을 예술체험 행사에 참여한다.

이들 가운데 조진순 교감 등 교직원 4명은 6월 29일 목요일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별의별 창작공방, 작은 도서관, 마을신문사 등을 차례로 방문,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먼저 이들은 이응노의 집 윤후영 학예사의 안내로, 현재 기념관에서 전시 중인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 공간~1950년대' 전을 둘러봤다.

이어 전상진 마을신문사 편집장의 안내로, 마을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별의별 창작공방(가죽 · 은 · 천연염색공방, 목공방, 도자기공방)과 작은 도서관, 마을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가을철(10월 중순께) 진행 예정인 마을 예술체험 행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용봉초 학생과 교직원은 여름방학 전인 7월 중순께 마을 예술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장마와 폭염이 교차하는 날씨 상황을 고려, 가을철로 연기했다.



마을서 '용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예술체험 행사 진행

"마을에 살면서, 마을의 변화 발전 알지 못해 … 예술체험 통해 마을에 큰 관심 가져"

이응노마을 예술체험 행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 시작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다.

마을과 인접한 용봉초등학교 전 학생과 교직원 45명이 가을철을 맞아 이틀간 '이응노마을 예술체험 행사' 에 참여했다.

용봉초의 '2017 작은 인문학 마당' 으로 진행된 마을 예술체험 행사는 10월 17일 화요일과 18일 수요일 이틀간 마을복지회관과 주변 별의별 창작 공간과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일원에서 진행됐다.

마을 예술체험 행사는 첫째 날, 1~3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43명이 참여했으며, 둘째 날에는 4~6학년 학생들과 교사 42명이 참여했다.

이틀간 진행된 마을 예술체험 행사는 전상진 이응노마을신문 편집인(용봉산권역 돌바위마을 사무장)이 안내를 맡아 이응노의 집 한옥형 · 컨테이너형 창작스튜디오, 마을 별의별 창작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봤고, 마을의 예술마을 조성 과정과 마을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이어 마을의 별의별 창작공방별 예술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도자기공예 공방에서는 김종석 강사와 함께 '흙으로 빚은 그릇' 을 만들었고, 목공예 공방인 나무공방 소풍에서는 권재완 강사와 함께, '연필꽂이와 냄비받침대' 를 만들었다. 창작공방인 천연염색 공방에서는 임민숙 강사와 함께 '쪽물들인 스카프' 를 만들었다.

마을 예술체험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을에 살면서도 마을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예술체험 행사를 통해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정연 교사는 "이번 이응노마을에서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알차고 좋았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는 체험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었다는 평가를 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내년에도 예술체험 행사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연 교사는 "마을 관련 설명을 야외에서 하면,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내년 체험행사 시에는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 관련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마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소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주민 6명 참가 총 6회 진행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 … 마을 스토리텔링 통해 관광자원화 첫 발

이응노마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이 진행돼 예술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성 · 예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홍북읍 홍천마을(이응노마을)을 포함해 홍성읍 광경동마을 · 간동마을 등 3개 마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6회간 진행됐다.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주민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과 자원, 자연환경 등을 스토리텔링(마을 이야기)을 통해 외지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11월 29일 화요일 3개 마을 참가교육생을 비롯해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소개 및 3개 마을 주민 간 교류 등 오리엔테이션과 김수남 여행작가의 '마을 스토리텔링 잘 하는 법'이라는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김수남 여행작가는 "마을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지식보다는 경험이 더 정감 있게 외지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에 경험을 버무린 마을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는 청소년활동연구소 이광현 소장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활동 만들기 사례', 구항초등학교 김정헌 교장의 '재미있는 홍천마을 이야기 1', 한국문화기획학교 윤성진 교장의 '이야기가 있는 주민주도 마을축제 만들기', 국립민속박물관어린이박물관 이관호 관장의 '재미있는 홍천마을 이야기 2' 등 이론교육이 5회간 진행됐다.

문화연구소 길 최철 소장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역사 · 문화 · 인물 해설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마을별 특성을 잘 살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옛 골목길' 그대로 간직한, 서울 서촌마을로 선진지 견학 다녀와
마을의 소중한 보물,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해설 배워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참가교육생들은 12월 20일 화요일 서울 서촌마을 · 통인시장 · 인사동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서촌西村마을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밖 마을로, 옛 골목길을 그대로 간직한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궁녀, 의관, 중인들의 생활공간이었으며 세종대왕 생가, 권율과 이항복의 집터가 남아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인왕산 자락이 명승지로 유명해 권문세가들이 별장을 지어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옥계시사(백일장)가 열리고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추사 김정희의 명필이 탄생한 곳도 이곳이다.

근대에는 이중섭, 윤동주, 노천명, 이상 등이 거주하며 문화예술의 맥을 이었다. 현재 경복궁 서쪽은 서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660여 채의 한옥과 옛 골목, 재래시장, 근대문화유산이 최근 생겨난 소규모 갤러리, 공방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통인시장通仁市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통인동 10-3번지)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효자동 인근의 일본인들을 위하여 조성된 공설시장을 모태로 하며, 6 · 25전쟁 이후 서촌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옛 공설시장 주변으로 노점과 상점이 들어서면서 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시장認定市場으로 등록된 뒤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고, 2010년 서울시와 종로구가 주관하는 '서울형 문화시장'으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시장상인회가 마을기업으로 (주)통인커뮤니티를 법인 등록해 통합콜센터와 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다. 점포수는 70여 개로 식당 · 반찬가게 등 요식 관련 업소가 가장 많고, 채소 · 과일 · 생선 · 정육 등 1차 생산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그 다음이며, 그밖에 내의 · 신발 등의 공산품, 옷 수선, 가방 및 구두 수선 업소 등이 있다.





2012년 1월부터 '도시락카페 통通'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장 전체 휴일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이고, 도시락카페 이용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셋째 주 일요일 제외)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는 엽전 판매는 오후 4시까지이다.

서울 서촌마을 견학은 〈서촌방향〉의 설재우 작가의 해설로, 경복궁 영추문에서 출발해 서촌마을 골목길, 통의동 백송, 누하동 청전 이상범 화백 가옥, 통인동 이상의 집 등을 들러봤고,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에서 점식식사를 한 뒤 누상동 윤동주 하숙집, 수성동 계곡 등을 들러보았다.

설재우 작가는 "서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얻었고, 역사적 · 문화적 이야기들이 보물처럼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며 "서촌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마을의 소중한 보물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방문객에게 '예술마을' 조성 소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주민 6명 참가해 …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진행될 예정
마을자원 스토리텔링 통해 '아름다운 홍천마을 이야기(가제)' 책자 발간할 예정

이응노마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예술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도 3월께부터 한 달에 한 번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이 진행된다.

홍성 · 예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홍북읍 홍천마을(이응노마을)을 포함해 홍성읍 광경동마을 · 간동마을 등 3개 마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6회간 진행됐다.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은 주민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과 자원, 자연환경 등을 스토리텔링(마을 이야기)을 통해 외지방문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응노마을 신문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한 6명의 마을해설사가 중심이 돼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과 자원, 자연환경 등을 토대로, 홍천마을을 스토리텔링(마을 이야기)한 '아름다운 홍천마을 이야기(가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마을 스토리텔링〉 이응노마을과 백월산 · 용봉산 이야기

용봉산龍鳳山, 용龍과 봉황鳳凰이 살았던 산



우리고장 홍북면 상하리에는 용봉산이 있다. 용봉산은 각종 불교와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고이면서, 기암괴석이 어우러져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주아주 옛날에 저 용봉산은 원래 용龍과 봉황鳳凰이 살았던 산이라는구먼. 그래서 용봉산이라는 이름이 생긴 유래가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어. 용봉산에는 원래 산꼭대기 대나무 숲에 봉황새가 살았었대. 그리고 용봉산 아래 연못에는 커다란 용이 한 마리 살았었고 말여.

하느님은 봉황에게는 육지를 다스리도록 했었대. 그리고 용에게는 물속을 다스리도록 했었고 말여. 땅위에서는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봉황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여. 물론 물속에서도 많은 물고기들이 용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고 말여.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어. 오래도록 가뭄이 들면서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어. 어느 해부턴가 갑자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여. 산천초목이 말라붙고 연못까지도 물이 없어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된 거지.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물론이고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도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게 된 거여. 요즘에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많듯이 말여.

"안되겠다. 내가 비를 몰아와야겠구나."

드디어 용봉산 아래 연못에 사는 용이 용기를 내었어. 내가 비를 몰고 오겠다고 말이지. 용이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하느님께 사정사정해서 비를 몰고 온 거여.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와아. 우리 용왕님이 제일이다."

모두들 용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겠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어. 한 번 내리기 시작한 비

는 몇 달이 되도록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여. 더군다나 육지에 있는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물 때문에 어디 가서 제대로 쉴 수가 없단 말여. 하지만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는 거지. 태평가를 부르며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거여.

육지에 사는 짐승들이 물고기들을 보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거든. 자기들은 물 때문에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날뛰는 모습이 한없이 괘씸하단 말여.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날뛰다니."

짐승들은 용봉산 꼭대기에 있는 봉황에게 괘씸한 얘기를 일러바쳤단 말여. 이 말을 들은 봉황도 괘씸하거든. 물고기들의 소행이 말여.

"에이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다."

봉황이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어.

"여봐라. 지금부터 육지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모아라."

봉황은 힘이 세고 부리가 날카로운 새들을 불러모았단 말여. 그리고는 짐승들을 시켜서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오도록 했어.

육지의 새들이 물고기들을 잡아간다는 소식은 곧바로 연못에 사는 용에게 전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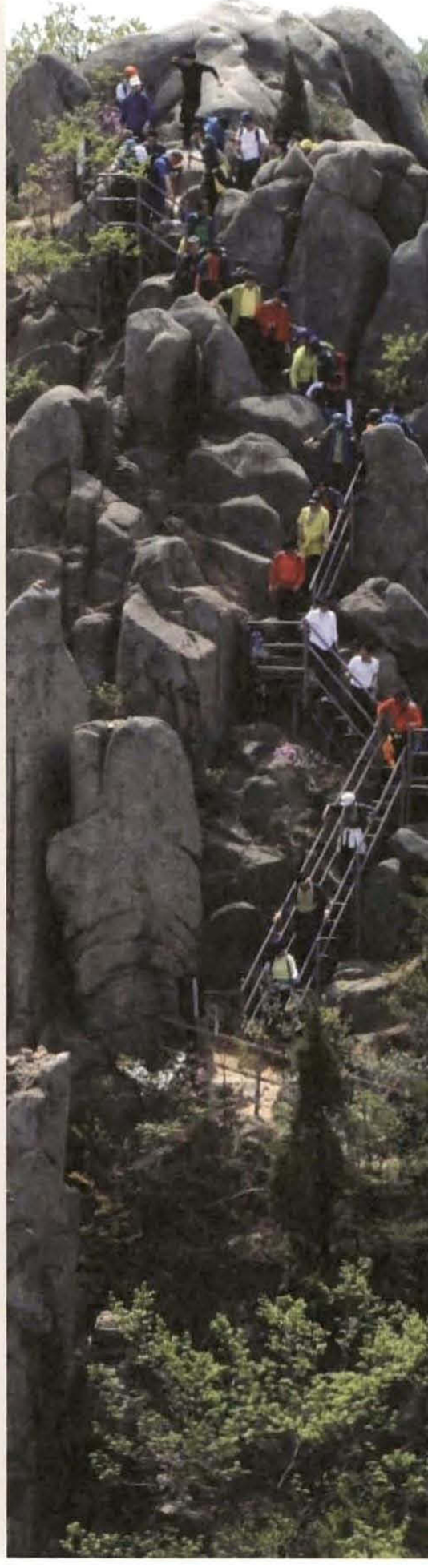
"뭐라고? 새들이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간다고? 봉황이 시킨 일이란 말이지?"

소식을 들은 용이 몸을 부르르 떨었어. 자연히 용과 봉황이 서로 감정이 격해졌단 말여.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이 싸움은 치열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 용봉산 꼭대기와 아래를 오르내리며 싸움을 했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푸르고 아름답던 산은 포탄을 맞은 것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 뾰족뾰족한 돌들만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여. 산 위에서 흘러내린 흙더미로 산 아래 연못도 점점 묻혀갔고 말여.

얼마 후에 하느님은 봉황과 용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 화가 난 하느님은 당장 봉황과 용을 이곳에서 내쫓았다는구먼. 그 뒤로 봉황이 살았다는 용봉산은 대숲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는구먼. 용봉산 아래 하산 마을에 용이 살았다는 연못도 텅 비고 말여. 지금은 조그맣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못이라도 부르고 있어.

– 김정헌 구항초등학교 교장의 〈삶과 상상력이 녹아있는 우리동네〉 中에서



3. 농림축산식품부, 시 · 군 창의 사업

"지속가능한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세부계획 만들어지길"

주민 중심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가져 …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세우길 기대"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 3개월여 간 마을 곳곳 다니며 주민들 다양한 의견 듣고 종합정리

이응노마을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의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이를 토대로 6월 26일 월요일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 운영위원회 보고회를 가졌다.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연구용역을 맡아,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약 3개월여 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종보고에 앞서 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것.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크게 나눴고, 아트프리마켓과 아트스페이스 조성, 마을 조형물과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상징거리 및 광장, 둑방길 산책로, 대나무 숲 조성, 별의별 마을 창작공방 활성화, 마을 농 · 특산물 개발, 주민리더 양성, 마을 문화예술잔치, 시군창의사업 기록화 등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해 나눴다.

연구용역 결과, 2015~2017년 3년 간 추진된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잘된 점은 더 확대하고,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예술상품화를 통한 특산품 패키지 개발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연잎 · 표고버섯 · 고사리 · 농산물 효소 제품 등 농 · 특산물 개발을 통해 마을 공동 판매장을 구성 설치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한결같이 "좀 더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며 "3년 간의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시군창의사업 컨설팅

"마을 재생은 곧 마을의 원래 모습 되찾아 가자는 것"



이섭(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연구원/기획자)

홍성군은 이응노마을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대상지'로 삼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공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매뉴얼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주대학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응노마을을 문화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을 맡은 바 있다. 연구원들은 이미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주민을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주 2~3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총 8주간 진행될 예정인 매뉴얼 제작 과제를 통해 이응노마을이 앞으로 수행할 사업 내용과 단계별 행동들이 정리, 제시될 것이다.

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홍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생 사업은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보자는 큰 밑그림을 가진 국가개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주체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문화 활동은 결국 농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순돼 보이는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생 사업이다. 농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이 이 문화 사업의 속내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또한 주어진 과제이다. 그런데 왜 명칭이 문화재생 사업일까? 그것은 '문화'라는 말의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화란 삶에 어떤 무늬를 새겨 넣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간직되어 가는 전체 과정을 부른다. 이 전체 과정에는 저마다 나의 삶도 있고 여럿이 함께하는 삶도 있기 마련이다. 삶이란 생명활동이 그 근간이다. 이로부터 사회적 활동으로 경제적 활동으로 넓혀지고,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 반대로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을 앞세워 새로운 삶의 형태가 농촌에서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문화 사업은 그 주체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마치 농부가

스스로 논밭에 나가 씨 뿌리고 벌초하고 거두어들여야 한 해 농사가 되듯이, 같은 이치로 문화사업 또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화란 저마다 각자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사는 삶의 모양을 가진 것이기에 그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이라고 하는 과업도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결코 실행될 수 없고,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 중심의 사업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진행방식에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누가 이 멍에를 질 것인가?

홍성군은 모든 과업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필요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문화재생 사업이 마치 농사일과 같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논밭을 가꾼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웃의 일을 거든다. 그리고 그 일의 짬을 이용해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한다. 이곳 홍천마을에서 농사일은 삶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 그 토대는 소출을 통한 경제활동이기도 하고, 삶의 형식을 잡아주는 문화 활동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제 문화사업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전문가들만이 하는 일도 아니고 대학교 연구원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응노마을에서 벌어지는 문화 사업은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일머리를 챙기고 의논하여 결정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력하는 일은 문화 사업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문화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직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의논할 수 있는 협력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의논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우선 홍성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주대학교와 연구원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와 의논해야할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협력 관계를 맺어 일을 함께 해 봤던 경험을 이 마을은 가지고 있다. 몇몇 공방들의 솜씨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있지 않은가?

이응노의 집은 올해 6월이면 축사를 개조한 거주형 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창작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문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거주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인문학 관계자들은 마을의 요청에 참여해야 하는 협력자로서 일정 기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홍성 지역에는 문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 또한 마을의 요청에 부응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은 주위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고 요청해야 한다.

마을주민들에게 이응노마을은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 이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 보면 이응노마을은 생활의 기반이기에 여기서 일하고 생산하고 여기서 이익이 나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은 공장이나 기업에서만 하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터와 생활의 터전이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기를 바란다. 집을 가꾸는 일이 그런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마을의 환경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기왕이면 개선되는 마을 환경에서 일정한 생산성이 담보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령 2차 마을 진입부에 덩그러니 커다란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데 이것을 보기도 좋고 수익도 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둑방길과 논과 밭 사이로 나 있는 길은 트랙터만 다니는 그런 길 이상의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어떨까?

이응노의 집 넓은 잔디밭에서는 지역의 유치원 아이들이 놀러와 뛰어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기념관에 관광버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저 지나쳐 버리는 마을이 되어서 좋을까? 주민들이 의논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을의 외관을 바꾸려고 하는 일은 우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생각지 않았던 외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이제 이응노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거리를 우선 정리하여 연구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 볼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계에 와 있는 농촌마을의 경제적 생산성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보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관광을 이 마을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천히 걷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잠시라도 앉아서 한 숨 돌리는 그런 삶의 쉼터를 이 마을이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을의 환경이 만들어 질 때, 마을과 주민이 얻어 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아울러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마을에서 자고 일어나 읍내로 아니면 인근 도시로 일하러 간다면 마을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드타운(bed town)이라고 부른다. 단지 잠을 자기 위해 되돌아오는 장소같이 마치 하숙집이나 모텔과 같은 것이다.

마을은 일만하는 곳이 아니다. 마을은 잠시 들러 잠만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찾을 수 없다. 마을은 내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의 장소이고, 이웃과 함께 쉴 수 있는 곳이다. 마을을 재생하자는 말은 바로 이런 마을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자는 것이다.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행방식을 찾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다.



Ⅷ. 2017 이응노의 집, '별의별' 이야기

1. 전시 이야기 | 2. 교육 이야기 | 3. 행사 이야기
4. 방문 이야기 | 5. 시설 이야기 | 6.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 7. 이응노마을과 함께



1. 이응노의 집, 전시 이야기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공간~1950년대展' 개막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공간~1950년대展'을 11월 12일 토요일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에 맞춰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이응노, 대나무를 치는 사람展'에 이어 이응노의 집 소장 유물과 작품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회로, 고암 이응노 화백이 해방 공간에서 도불 직전까지의 작업을 통해 성취한 '지필묵/사생'의 탈식민지 근대성을 재구성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암이 '사생寫生'을 주제로 해방공간에서 도불 이전 시기의 작업이며, '조선미술전람회' 시기의 식민지적 근대성을 극복하고 리얼리즘을 통과, '추상抽象'의 현대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이번 전시의 주요 내용은 '사군자四君子/묵죽墨竹'의 문인화를 벗어나 근대적 '미술'의 차원으로 확장한 고암의 작업(1936~1958)을 '사생'이라는 근대적 태도와 이념, 정신을 주제 삼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각 시기별 스케치 · 습작 · 작품 등을 주요 자료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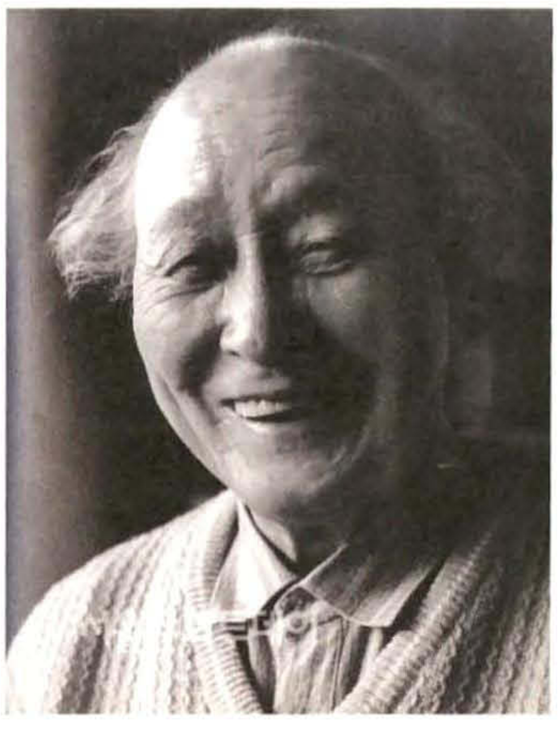
아울러 고암 이응노의 근대적 태도와 이념, 정신을 잇고 있는 현대 수묵화가들의 1980년 이후 작업을 비교함으로써 고암 예술의 위상과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展'은 2017년 8월 31일 목요일까지 열린다.



〈특집 / 고암 이응노의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식민지 이후 이응노가 새로 찾은 길'〉

'사람 그 자체 몰두' 통한 화합과 평화, 자유 기원의 춤 형상화

고암 이응노의 새로운 리얼리즘, '현실과 인간탐구' 에 역점 둬
혼돈 · 비탄의 시대상 아랑곳 않고 '꿋꿋이 땀 흘리며 살아가는 민중民衆' 화폭 담아내
'군상群像' 통해 화합, 평화, 자유의 '모든 사람들 어울려 한 바탕 춤추는 모습' 담아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1904~1989) 화백의 예술가로서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강좌가 열렸다.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응노의 집 김학량 명예관장의 강의였다.

2017 홍주성역사관 박물관대학 프로그램 '홍주 천년을 밝힌 홍성의 역사인물이야기' 를 주제로 열린 강좌는 9월 27일 수요일 여섯 번째 강좌로 개설되어 기존의 고암 이응노의 예술 세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의미 있는 강의로 진행됐다.

고암 이응노의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은 이응노의 집에서 김학량 명예관장 기획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이미 전시된 바 있다. "예술은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말처럼, 고암 이응노 화백은 평생에 걸쳐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작업에 몰두한 화가였다.

식민지 이후 고암 이응노가 새로 찾은 길, '사람 그 자체' 에 대한 예술적 몰두 역점 둬

'식민지 이후 이응노가 새로 찾은 길(1950~1980년대)' 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김학량 명예관장은 고암 이응노의 예술 세계를 한 마디로,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몰두' 라고 정의했다.

고암 이응노는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에서 태어나 해강 김규진으로부터 그림을 사사해 전통 문인화로 출발했고, 20대 시절에는 '조선미술전람회' 에 〈묵죽墨竹〉(서화書畵 가운데 사군자四君子에서 드러나는 사의寫意을 주로 출품해 두각을 나타냈다. 신문명이 점점 짙어지는 현실에서 전통만 고집하면 한계가 분명하리라는 점을 자각하고 3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사생寫生' 을 화두 삼아 풍경화로 작업 주제를 확장했다.

당시 조선미전에 출품된 작품들이 식민지 조선 민중民衆의 우울한 모습만을 보여줬고, 일제는 그 우울함을 강조, 그런 류의 작품 위주로 당선작으로 뽑았다. 고암 이응노의 풍경화도 식민지 공간인 만큼 어딘가 적적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스며 있었다.



해방공간 속 고암 이응노, 일상의 떠들썩한 움직임 담아 그에 걸맞은 붓질 매우 쾌활해

하지만 식민지 공간을 벗어난 고암 이응노의 작품 세계는 한 마디로, 활달함이었다. 조선미전의 관습이 그대로 유지된 채, 해방 후에도 식민지 조선 민중의 우울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들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아이러니 속이었다.

하지만 40~50대의 고암 이응노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보다는, 떠들썩한 도시 풍경과 풍속을 훨씬 즐겨 그렸다. 특히 시정市井 잡사雜事를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감흥 그대로 즉시 그려내는 데 크게 관심을 두었다(사의寫意와 사생寫生이 접목된). 몸에 부대끼는 일상생활의 그 떠들썩한 움직임에 걸맞게 붓질도 매우 쾌활했다.

고암 이응노는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공간, 6 · 25 한국전쟁이라는 혼돈스럽고 비탄에 잠긴 시대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땀 흘리며 살아가는 조선 민중을 화폭에 담았다. 이는 고암 이응노의 '사람' 에 대한 한결 같은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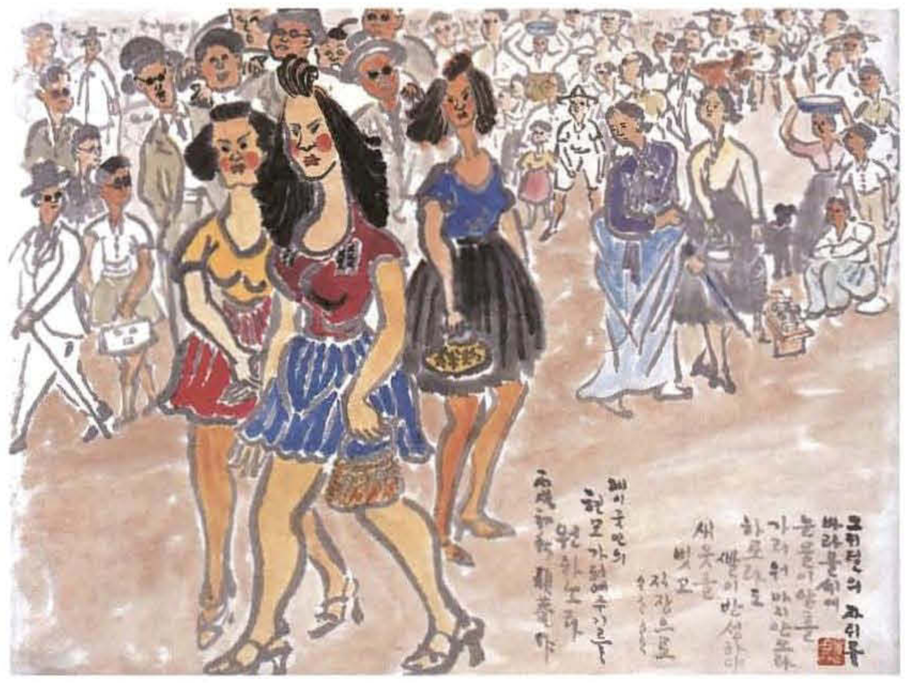
김학량 명예관장은 고암 이응노의 이런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방공간에서 1950년대 6 · 25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고암 이응노는 새로운 리얼리즘을 내세워 현실과 인간탐구에 더욱 몰두한다고 볼 수 있다.

고암 이응노, 고국의 민주화 함성 호응해 '한 바탕 춤추는 사람들(군상群像)' 호탕하게 그려

고암 이응노는 60~80대 독일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면서, 노년기 30여 년을 추상抽象 실험에 몰두했다. 익히 '문자추상文字抽象' 이라고 잘 알려진 고암 이응노의 '사의적寫意的 추상' 은 동 · 서양 원시기호 · 문자에서 한글 · 한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추상화하면서 결국 인간탐구에 몰두한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동베를린(동백림)사건, 백건우 · 윤정희 납치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영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고암 이응노는 말년에 다다라서 더욱 더 '사의적 추상'을 통한 인간탐구에 몰두했다. 급기야 광주 5 · 18 민주화 운동의 함성을 접하고, 이에 호응해 '군상'을 통해 화합과 평화, 자유를 꿈꾸는 마음을 담아 세상 모든 사람이 어울려 한 바탕 춤추는 모습을 호탕하게 그렸다.

김학량 명예관장은 "군상이야말로 한 대가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건네고 간 자기 마음"이라며 "결국 고암 이응노라는 대가는 평생 한결같이 '사람 그 자체'를 그리면서, 화합과 평화, 자유를 노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학량 명예관장은 해방공간 이후 고암 이응노에게 '사람'이라는 주제는, 노동 현장의 생기를 활달하게 포착하는 데서부터 사람의 화합과 평화, 자유를 갈구하는 기원의 춤을 원시적인 드로잉의 방식으로 새기기까지, 궁극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집 / 전문가 24명이 꼽은 대표 한국화가는 '고암 이응노 화백'〉

전문가 24명이 꼽은 대표 한국화가는 '고암 이응노 화백'

고암 이응노, '기법의 독창성과 한국미술의 세계화 부문' 높은 평가받아

20세기 활동한 대표적인 한국화가로 고암 이응노(1904~1989)가 꼽혔다.

이는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20세기 한국사의 역사' 전시를 준비하면서, 윤범모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김백균 중앙대 한국화학과 교수, 오광수 뮤지엄산 관장 등 전문가 24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이다.

이 조사에서 고암 이응노는 기법의 독창성과 한국미술의 세계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명 중 16명의 표를 받았다. 특히, '20세기 한국사의 역사' 展 자료 가운데 고암 이응노의 1949년 개인전 목록과 1960년 제1회 묵림회전 팸플릿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12표로 2위를 기록한 박생광은 소재와 채색, 구성방법에서 기존 관점을 바꾼 세계를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13년 작고한 송수남이 한국화의 정체성과 현대화로의 담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세 번째로 많은 5표를 받았다.

이상범 · 변관식 · 김기창 · 천경자 · 서세옥이 나란히 4표를 득표했고, 박래현 · 권영우 · 황창배가 공동 5위를 점했다.

한국화 역사의 주요 사안과 사건으로는 ▲'한국화' 용어 논쟁(8표) ▲1980년대 수묵화 운동(7표) ▲천경자 위작 논란(7표) ▲일제 잔재 청산(5표) ▲묵림회 창립(5표) 등이 선정됐다.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전시로는 1986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한국화 100년' 전, 1960년 중앙공보관에서 개최된 제1회 묵림회전 등이 지목됐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행본을 발간했다.

※ 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2017. 07. 07) 기사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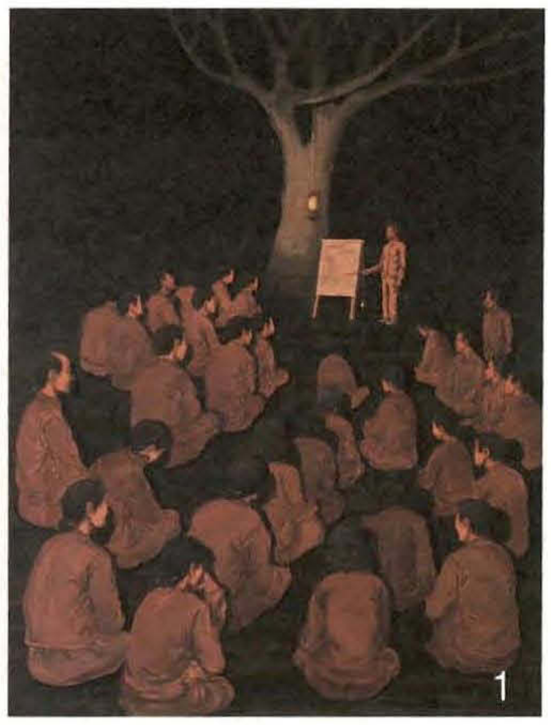
고암 이응노 예술 기리는 제3회 고암미술상 '박은태 작가' 선정 · 시상

제3회 고암미술상 94명의 작가 응모, 최종심사 통해 '박은태 작가' 선정
박은태 작가, '노동자 · 대중의 애환, 그 주변 이야기' 상징적 언어로 다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고, '동 · 서양 융합의 사의적寫意的 추상 완성' 이라는 그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홍성군이 제정한 2016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자로 박은태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제3회 고암미술상 공모에 94명의 신진 · 기성 작가 등이 접수한 가운데, 8월 23일 최종 심사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박 작가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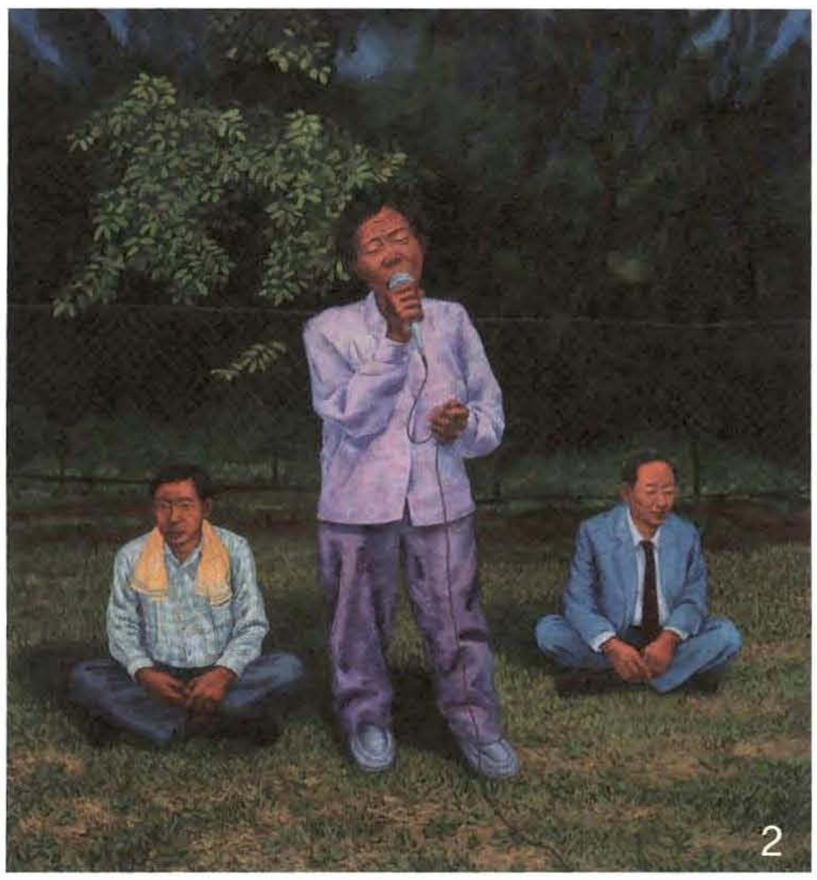

1

박 작가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늦은 나이에 미술을 전공했다. 1992년 서른한 살 나이에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0년과 2005년에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서울역과 혜화역이라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초라한 사람들〉이란 타이틀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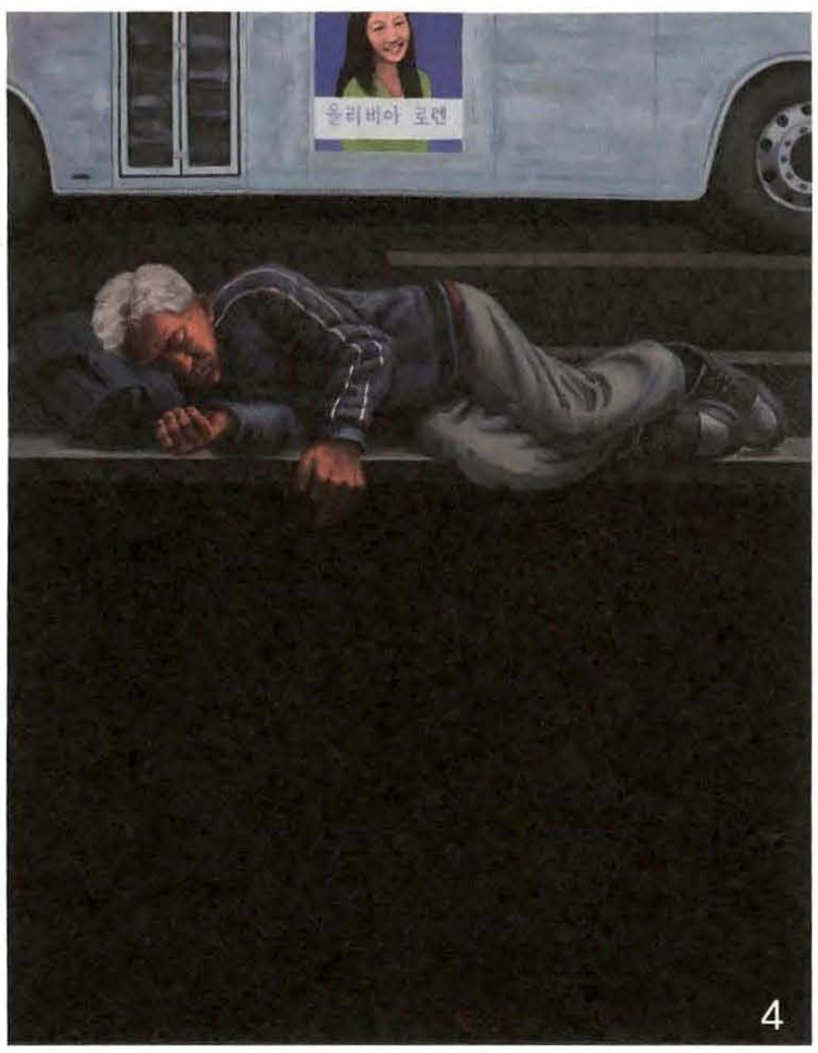
특히, 박 작가는 한국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나 대중의 애환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박 작가는 "미술의 현실 참여적인 활동에 몸담으며, 개인 창작과의 연관성을 고민해 왔다"며 "그 결과물로 첫 개인전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나 대중의 애환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인간은 배제된 채 자본의 욕망과 경쟁만이 지배당하는 현실, 소외되고 더욱 초라해져 가는 대중을 상징적 언어로 드러냈다"며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그 일 년 동안 풀지 못한, 응어리로 남은 세월호 문제와 청년의 일자리 · 노숙자의 한 끼 밥 · 노동자의 휴식 · 노인의 외로움 등 다양한 대중들의 여러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


3



4

고암미술상 위상과 의미 확장 훌륭하게 부합한 '박은태 작가' 선정·시상
2017년 10월 박은태 작가의 작품세계 살필 수 있는 '수상 작가전' 마련

이번 고암미술상 심사는 이응노의 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성완경 인하대 명예교수,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이윤희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초빙교수 등이 맡았고, 심사위원들은 고암미술상의 성격과 훌륭하게 부합되는 작가로서, 박 작가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선정 이후 시상식은 2016년 9월 6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려 박 작가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시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내년도 10월께 박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는 '수상작가전'을 마련한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2012년 고암미술상을 제정한 이래 오윤석(1회 수상), 배종현(2회) 작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1.「당산나무 아래서」 151 × 197 ㎝ , 캔버스에 아크릴 , 2012
2.「연가戀歌」 150 × 138 ㎝ , 장지에 아크릴 , 2010
3.「여보세요 2」 190 × 150 ㎝ , 캔버스에 아크릴 , 2014
4.「나를 잊지 마세요」 152 × 118 ㎝ , 캔버스에 아크릴 , 2013
5.「불꽃」 213 × 151 ㎝ , 장지에 아크릴 , 2013
6.「기다리는 사람들」 187 × 454 ㎝ , 캔버스에 아크릴 , 2015



이응노의 집, 고암미술상 수상작가 박은태 작가의 '사람들' 展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와 함께 개막

'성스러운 사람들, 욕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등
3부로 나눠 삶의 주역이지만 소외된 사람들 동등한 존재로 당당히 세워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인 박은태 작가의 '사람들' 展 개막행사가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와 함께 열린다.

박은태 작가의 '사람들' 展이 이응노의 집 2,3,4 전시실에서, 10월 28일 토요일부터 2018년 4월 27일 금요일까지 전시된다. 개막행사는 마을 '문화예술잔치'가 열리는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께 진행된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박은태 작가를 비롯해 고암미술상 심사위원, 마을주민과 홍성군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홍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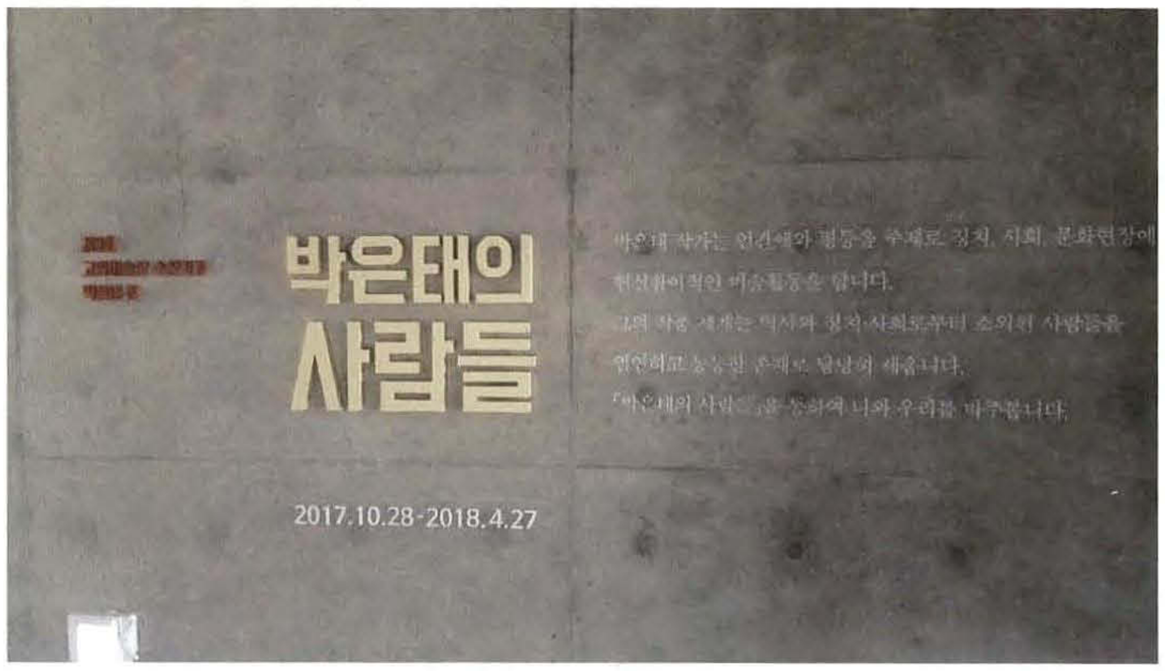
박은태 작가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늦은 나이에 미술을 전공했다. 1992년 서른한 살 나이에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00년과 2005년에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서울역과 혜화역이라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초라한 사람들〉이란 타이틀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작가는 한국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나 대중의 애환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전시회 소개 글처럼 '인간애와 평등을 주제로 정치, 사회, 문화현장에서 현실참여적인 미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박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 역사와 정치 ·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엄연하고 동등한 존재로 당당히 세우고 있다.

박은태 작가는 "미술의 현실 참여적인 활동에 몸담으며, 개인 창작과의 연관성을 고민해 왔다"며 "그 결과물로 첫 개인전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노동자나 대중의 애환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인간은 배제된 채 자본의 욕망과 경쟁만이 지배당하는 현실, 소외되고 더욱 초라해져 가는 대중을 상징적 언어로 드러냈다"며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그 일 년 동안 풀지 못한, 응어리로 남은 세월호 문제와 청년의 일자리 · 노숙자의 한 끼 밥 · 노동자의 휴식 · 노인의 외로움 등 다양한 대중들의 여러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몽상 夢像 | 욕망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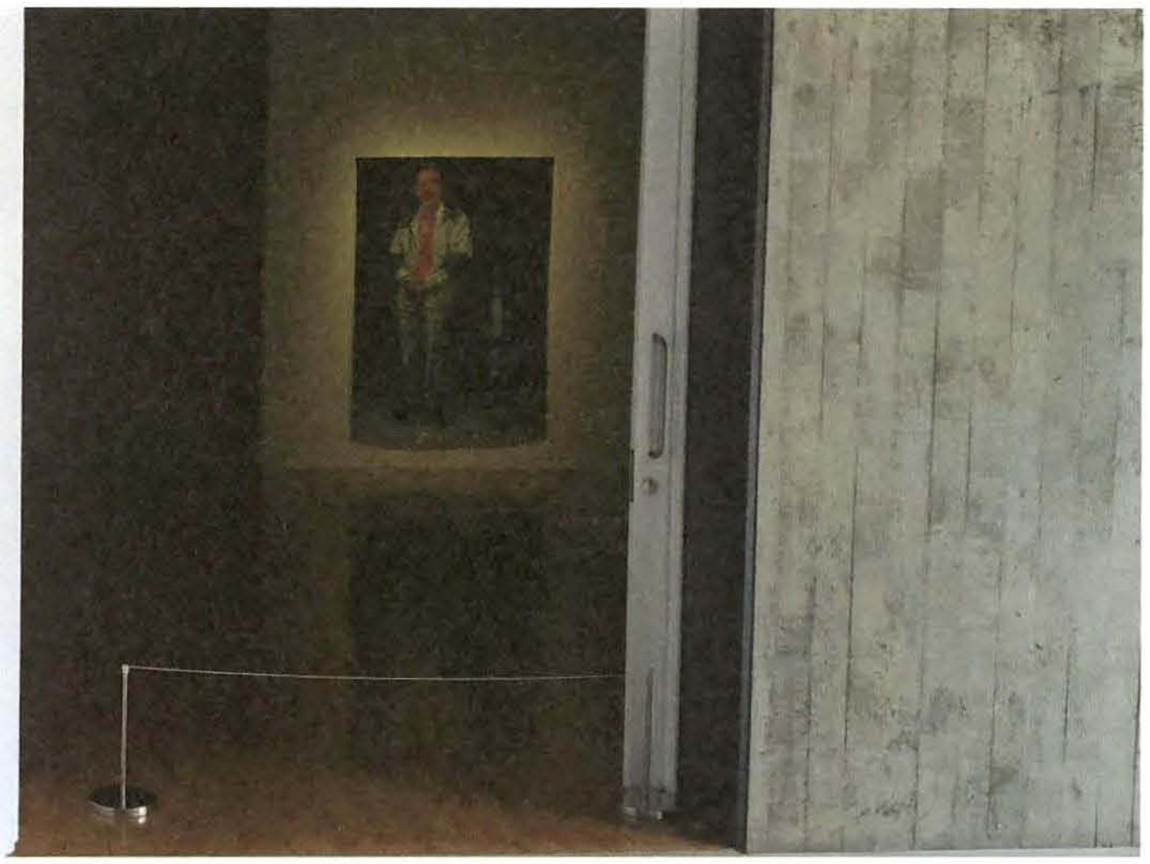
2009-2012

이시기부터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으로 나아갑니다. 현대사의 굵직한 사회문화 현상들을 중첩시키고 시공간 다른 이미지를 골라주하며 이중적인 화면을 구축하며 메세지는 단순하고 호소력이 강합니다. 사회집단의 왜곡된 탐욕과 국가, 자본, 권력이 기획, 작동하는 장치, 사회 문화의 혼잡스러움과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증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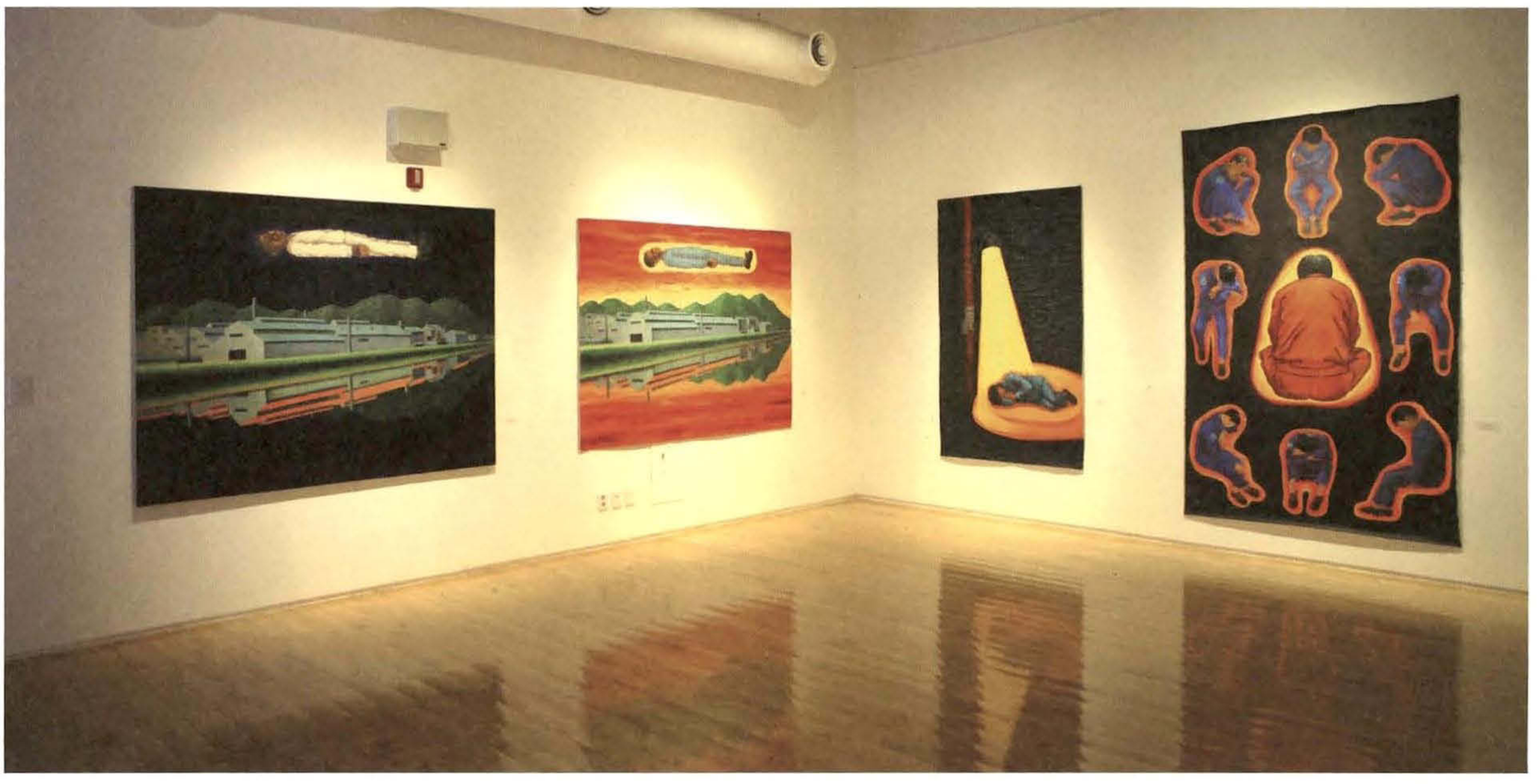
망상 望像 | 희망하는 사람들

2014-2017

2014년 예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생생한 사건부터 2017년까지 최근작을 전시합니다. 소외된 주변을 관찰자 없는 질문의 사람으로 단순한 "그대로" 제시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생생한 지금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전시를 하면서 부끄럽고 참혹하지만, 과거와 사건에서 부러움에서인 그곳에서 희생과 희망을 발견하려는 작업의 강입니다.







〈지상갤러리〉

이번 '사람들' 展 또한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성상聖像: 성스러운 사람들', '몽상夢像: 욕망하는 사람들', '망상望像: 희망하는 사람들' 등으로 나눠, 노동자나 대중의 애환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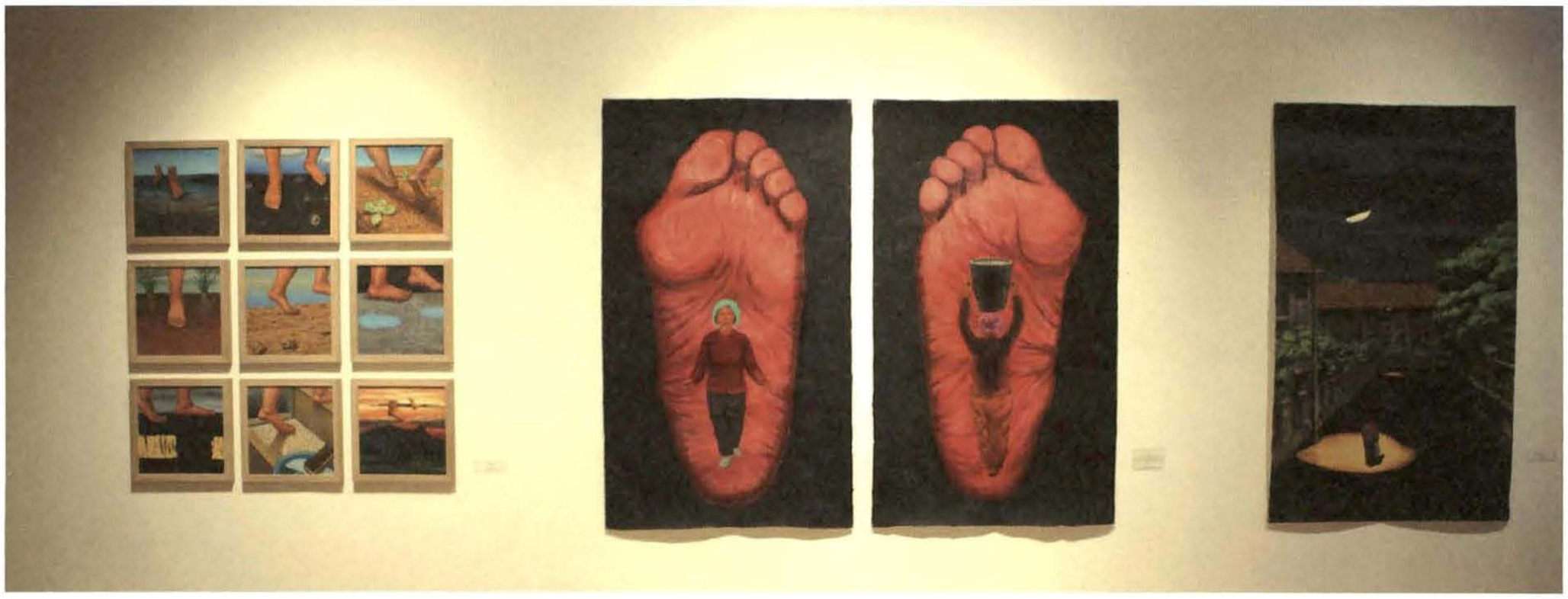
제2전시실 '성스러운 사람들'에서는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화 과정의 주역이면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마치 동·서양 종교화의 도상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엄연한 존재들의 삶과 죽음을 승화시키는 작가의 숙명은 '순례의 길'이라고 칭하고 있다.

제3전시실 '욕망하는 사람들'에서는 사회집단의 왜곡된 탐욕과 국가·자본·권력의 기획, 정치·사회·문화의 혼잡스러움과 이를 통과한 사람들이 온 몸으로 증언한 사실을 과감한 표현기법을 통해 단순하고 호소력 짙은 울림으로 전하고 있다.

제4전시실 '희망하는 사람들'에서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올해까지의 최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국가의 추악한 민낯 속에서 한국사회는 좌표를 잃고,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가는 그 상황을 그려나가며 극복하고 있다.

특히 '희망하는 사람들'에서는 소외된 주역들을 실존의 사람으로 당당이 세워놓고, 늙고 낡아서 소비된 인생이 아니라 생의 진정한 리얼리티를 각성케 하고, 부끄럽고 참혹하지만 그 자체에서 희생과 희망을 일궈내야 한다는 역설을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윤후영 학예사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군상群像'이 박은태의 '사람들'로 바뀌었고, 군상과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이 자리와 공간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며 "그 사람들의 참여와 깊은 공감, 연대의 공간으로 이번 전시회가 다시 제2의, 제3의 고암이 태어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꽉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응노의 집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특별 기획전시 열어

홍주성역사관 기획전시실에 11월 30일까지 '지승, 천년의 만남展' 열리고 있어

이응노의 집에서는 '지승, 천년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홍주성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승공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승, 천년의 만남展' 은 이응노의 집에서 올해 상 · 하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을 운영, 창작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로, 강사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지승제조장 최영준 명인과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수강생 12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개막식은 홍성역사인물축제 첫날인 9월 22일 금요일 홍주성역사관 1층 홀에서 관계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1월 30일까지 홍주성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최영준 명인의 달항아리를 비롯해 수업을 통해 양성한 제자 12명의 작품인 교지통, 중절모, 연필꽂이, 꿀단지, 그릇 등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최영준은 명인은 "지승공예는 멀리서 모셔놓고 보아야 하는 전시용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생활에 사용하는 생활공예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응노의 집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올해 3월과 8월 각 10주 과정으로 총 40강이 운영됐으며, 내년에도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집 / '이응노-박인경 부부展'〉

"고암 태어나 자란 고향 홍성서 '부부 특별전' 열리게 돼 감격스러워"

2018년 홍주 천년의 해 · 도불 60주년 기념 국내 최초 '이응노 화백 부부 특별전' 열려
'고암 부부 특별전' 위해 올해 하반기 박인경 여사 홍성 방문, 개최시기 · 전시계획 협의
홍성군의회 방문단, 프랑스 파리 인근 보쉬르센 고암서방서 박인경 여사와 개최 합의

2018년 홍주 천년의 해를 맞아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거장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1904~1989) 부부의 특별전시회가 국내 최초로 고향 홍성 이응노의 집에서 열린다.

홍성군의회 방문단은 프랑스 파리 인근 보쉬르센 고암서방을 방문, 고암의 미망인 박인경 여사와 홍주 천년 및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 부부 특별전'을 내년 홍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방문단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김덕배 의장, 박만 부의장, 방은희, 윤용관, 황현동 의원을 비롯해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한진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실무진 등 10명이 생전 고암의 예술 활동의 주무대인 프랑스 파리 인근 보쉬르센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방문단은 고암의 삶과 예술혼이 서려있는 고암서방, 고암아뜨리에, 고암아카데미를 찾아 예술세계를 체험하고, 페리 라세즈 공원묘지 묘소를 참배하는 등 홍성이 낳은 위대한 역사인물에 대한 선양활동에 나섰다.

이어 고암의 미망인 박인경 여사를 만나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홍주천년 및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는 '고암 이응노 부부 특별전'를 홍성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홍성군의회의 적극적인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 추진으로 결실을 맺게 된 '이응노 부부 특별전'은, 동양의 신비한 예술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고암 이응노와 그의 예술적 후계자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박인경 여사의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회로 국내외 미술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의회 관계자는 "박인경 여사가 고암 이응노 화백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홍성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제안을 해 준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향후 완벽한 준비로 홍주천년과 도불 6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특별전시회 준비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박인경 여사를 홍성으로 초청해 개최시기와 작품 전시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홍성군의회의 박인경 여사 방문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문화특화마을 조성 및 창작스튜디오 조성, 이응노의 집 주변 문화시설 확충 등 고암 선양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덕배 의장은 "홍성의 위대한 역사문화인물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정신과 삶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홍성군의회의 박인경 여사 방문을 계기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선양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박인경 여사 면담에 앞서 2월 21일 대전 이응노미술관을 방문해 시설의 운영 방법 및 작품 보유현황 등을 살펴봤으며, 홍성과 대전 두 도시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선양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응노의 집서 내년 9월께 '이응노-박인경 부부전' 열린다

김석환 군수 · 김덕배 군의회의장, 프랑스 방문 통해 "세계 놀랄만한 독특하고 색다른 전시 준비"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화백(1904~1989)과 부인 박인경朴仁京 화백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부 특별기획 전시회가 내년 9월 이응노의 집에서 열린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고암이응노화백선양사업 추진방문단'은 9월 10~15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 화백을 방문했다. 방문 결과, 내년 9월께 2018 홍주 천년과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는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열기로 확정했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박인경 화백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기존에 선보인 적 없는 새로운 콘셉트로,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독특하고 색다른 전시회로 열겠다"고 말했다.

내년 9월께 열리는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은 기존에 선보인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회'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이응노의 집 김학량 명예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시회의 주제 · 구성 및 전시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박인경 화백과의 협의를 거쳐 전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10월말께 박 화백을 초청해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선양사업을 위한 유품 · 작품 구입과 기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의 개최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고암의 예술적 후계자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박인경 화백과의 신뢰 관계도 구축할 수 있었다"며 "현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응노의 집에서는 내년 9월께 열릴 예정인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이 고암의 예술적 뿌리가 홍성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에도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집 /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고암 이응노 개인전' 〉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서 '한국의 피카소, 이응노' 다시 보다

세르뉘시 이어 퐁피두센터 직접 기획, 유족으로부터 회화와 조각 등 작품 17점 기증받아 전시

동양적 아름다움을 서양화에 접목해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개인전이 퐁피두센터 내 프랑스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고암 이응노는 1958년 프랑스로 이주 후 1964년 파리 세르뉘시 미술관에 동양미술학교를 세워 3000여 명의 후학을 길러냈다.

동양화와 서양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시도해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기도 한 고암 이응노는 간첩단 조작사건인 동베를린(동백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프랑스에서 망명객처럼 살다가 생을 마쳤다. 요즘 말로 치면 원조 '블랙리스트 작가'다.

그런 고암 이응노를 프랑스 미술계가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올해 6월부터 11월 19일까지 세르뉘시 파리 시립 동양미술관에서 '군상群像의 남자, 이응노'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권위의 퐁피두센터가 9월 20일 수요일 유족으로부터 회화와 조각 등 17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고암 이응노' 전시에 나섰다. 퐁피두센터가 직접 기획한 이례적인 전시다.

전시 개막식에는 고암 이응노의 부인 박인경 화백과 아들 이융세 화백을 비롯해 베르나르 블리스텐 퐁피두센터 관장, 에리크 르페브르 세르뉘시 미술관장, 프랑크 고트로 디종 현대미술관 설립자 등 프랑스 미술계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블리스텐 퐁피두센터 관장은 "왜 퐁피두가 이응노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한국 미술, 특히 이응노는 동양과 서양 문화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응노는 모더니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기 때문에 미술사적 의미가 재평가돼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관람객들은 "동양화 같은데도 프랑스 추상화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직접적 계기는 2년 전 디종 현대미술관이 연 고암 이응노 전시였다. 블리스텐 관장은 고암 이응노의 작품을 이때 처음 보고 푹 빠져들었다. 이후 파리 근교에 사는 유족을 찾아가 직접 전시할 작품을 추렸다. 박인경 화백은 "아무나 기증한다고 받아주지 않는 퐁피두센터가 기증을 받아줘 꿈을 꾸듯 기뻤다"고 말했다.

단독 전시실에서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950년대 수묵 산수화, 1960년대 한지 콜라주, 1970년대 문자 추상, 1980년대 광주 5 · 18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군상 등 고암의 작품들이 연대기로 펼쳐진다.

특히 한지에 먹으로 수천 명까지 그린 군상 시리즈는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이 전시가 끝나면 작품들은 퐁피두센터의 다른 작품들과 섞여 걸리게 된다.



한편 세르뉘시 미술관은 9월 21일부터 박인경 화백과 이융세 화백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박인경 화백의 풍경 수묵화, 이 화백의 한지 추상화에 이응노의 화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암 이응노가 파리에서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다.

※ 동아일보(= 파리 김선미 기자, 2017년 9월 26일) 특집기사에서 발췌

2. 이응노의 집, 교육 이야기

이응노의 집,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응노의 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3월 6일 월요일부터 5월 9일 화요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총 20강이 운영됐으며, 초 · 중급반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모집, 매주 월 · 화요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승공예는 전통 한지를 이용해 접거나 꼬아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로, 조선시대 한지 제조 발달과 함께 발전했으며, 지승공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이응노의 집에서 운영한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기능보유자인 최영준 씨가 진행했으며,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이응노의 집 관람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작품을 제작, 올해 하반기 작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응노의 집, 장인에게 배우는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주성역사관 기획전시실서 '지승, 천년의 만남' 주제로 전시 열려고 있어

이응노의 집에서는 하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수시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8월 29일 화요일부터 11월 13일 월요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총 20강이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월 · 화요일반 각각 10명씩이다. 수강생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지승공예는 전통 한지를 이용해 접거나 꼬아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로, 이번 하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최영준 기능보유자가 직접 진행한다.

이번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며,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이응노의 집 관람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최영준 기능보유자의 작품과 올해 상 · 하반기 지승공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수강생들의 작품은 11월 30일 목요일까지 홍주성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지승, 천년의 만남'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이응노의 집,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와 함께 예술 속으로~

어린이 아카데미, 홍성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2개 강좌 진행

연꽃 활짝 피어 향기 가득한 한여름, 이응노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홍성군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2주간 고암 이응노 화백과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군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아카데미' 강좌를 열면서 배움의 열기가 한창이다.

어린이 아카데미는 이응노의 집이 특별히 마련한 '미술과 다른 예술 장르와의 융 · 복합적 교육 강좌'로, 2012년 첫 강좌 이후 매해 여름방학을 맞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군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디어와 미래어', '요리와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미디어와 미래어'는 총 5강으로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진위원이자 홍성군 SNS 서포터즈로 활동한 신영근 씨가 맡아 진행했으며, 미술의 확장 영역으로 발전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만들기와 직접 촬영하는 실습시간, 영상 시연 발표회 등으로 채워졌다.

또한 '요리와 미술'은 총 2강으로 홍성제과제빵 원장인 한마음 씨가 맡아 진행한다. 풍경화와 자화상을 감상한 후 풍경화에 어울리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자화상에 어울리는 주먹밥도 만들며, '내 몸과 음식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 알아보고, 제철 식재료와 맛깔 나는 요리 실습을 통한 아름다운 미술조형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 아카데미는 8월 7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총 7강으로 진행했으며, 각 강좌별 작은 발표회 시간도 가졌다.

이응노의 집,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이응노의 집에서는 임민숙 천연염색 공예가를 초청, 천연염료를 활용한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주민 가운데 천연염색 체험경험자를 대상으로 15명을 선착순 모집, 10월 19일 목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4주간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주된 내용은, '스카프 천연염색(메리골드, 오베자, 코치닐, 아선약염색) 이론과 실습', '무늬염, 바느질홀치기 도안그리기', '양파 이용해 손수건 염색하기', '무명천에 도안 완성 및 바느질하기', '홀치기한 쿠션용 쪽에 염색하기' 등이다.

이응노의 집 이수연 학예사는 "지난해부터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연염색은 쪽, 잇꽃, 쑥, 치자, 감즙, 홍화, 다목 소방, 숯, 황토 등 자연에서 얻은 염료를 활용해 천연소재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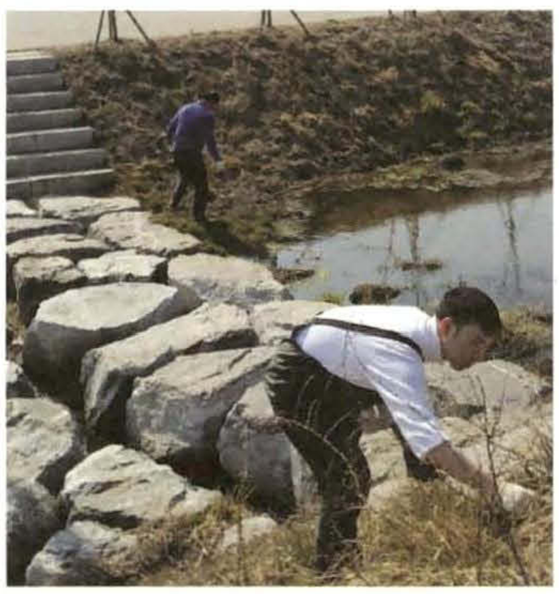
3. 이응노의 집, 행사 이야기

이응노의 집 직원들, 새봄맞이 주변 하천 청소 실시

이응노의 집 직원들이 3월 23일 목요일 주차장 주변을 비롯해 마을 하천에 이르기까지, 새봄맞이 하천 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하천 청소에는 이응노의 집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차장에서 마을 복지회관에 이르는 하천을 따라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윤후영 학예사는 "새로운 봄을 맞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응노의 집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하천 청소를 실시했다"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헤치지 않기 위해 정해진 곳을 쓰레기를 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가 '이 녀석' 들을 모르시나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응노의집과 마을에 '멍멍이와 야옹이' 가 나타났다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에 올해 들어 나타난 '녀석(**사진**)' 들이다. 한 녀석은 멍멍이고, 한 녀석은 야옹이다.

멍멍이는 이응노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안내(?)한다. 졸졸 따라오면서, 말 붙여주길 바라는 눈치다. 말이라도 붙일 양으로 바라보면서, '딴짓' 이다.

이응노의 집 윤후영 학예사가 이 녀석을 '심심이' 라고 이름 지었다. 윤 학예사의 말에 따르면, "이 녀석은 놀아줄 친구가 없어 늘 심심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 붙여주길 바란다"며 "몇 번이나 이 녀석과 마주하다 보니 안 보이면 어쩐지 허전하다"고 말했다.

또 한 녀석은 '야옹이' 다. 이응노의 집 북카페 앞에 잔뜩 움츠리고 앉아 오고가는 방문객들

에게 반가움을 표시한다. "뭐 좀 먹을 걸 달라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이 녀석은 카페 주인장 강영현 씨가 주로 챙긴다.

지난해 언제부턴가 어느 마을 집에서 왔는지, 아닌지, 그래서 집고양이인지, 들고양이인지, 그리고 새끼들을 낳은 것도 같고, 여하튼 알 길 없는 녀석이다.

언제나 이응노의 집 북카페 앞에 있다가 이응노의 집 직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녀석도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앞에서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이 녀석의 이름이 없다. 누구라도 이 글을 보면, 이 녀석의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오늘도 이 두 녀석 때문에 하루가 그래도 행복해지는 걸 느낀다.



이응노의 집 '야옹이', 캣맘 손길 덕분에 '더 없이 행복해져'

장미란 씨, '야옹이' 먹이 사료로 바꿔주고, 'TNR' 통해 사람과 고양이 공존 이어줘

이응노의 집 주변에서 몇 달째 살고 있는 '야옹이'를 위해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야옹이'를 위해 '캣맘'이 나타난 것.

6월 초 어느 날, '사람과 고양이의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장미란 씨가 이응노의 집에 찾아왔다.

장 씨는 '야옹이'를 위해 사람이 먹던 음식에서 사료와 캔 먹이로 바꿔주고, TNR(중성화 수술 후 방생)를 권장해 '야옹이'는 지역 애완동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

장 씨는 "길고양이들은 임신 기간이 2개월 정도, 수유기간도 2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정이 나고, 교미를 해야만 발정기가 끝나는 생리체제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TNR은 매우 중요하고, 저희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도 홍성군과 연합해 지속적인 TNR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는 2015년 10월 결성된 이래 생명권 존중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TNR, 보호소동물 치료 및 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응노의 집, 무럭무럭 자란 보리 베어 보리쌀 수확

이응노의 집 연밭 주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 6월 18일 일요일, 마을 주민리더 신동학 씨가 보리 베는 기계(클래스콤바인)를 동원, 보리쌀을 수확했다.

신동학 씨는 일본 선진지 견학에서 돌아온 이틀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클래스콤바인을 동원, 보리쌀 수확을 했다.

이응노의 집에서는 신동학 씨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제공, 더운 여름 날 즐거운 보리쌀 수확을 도왔다.

이응노의 집 전 직원, 금산 · 고창 등 선진지 견학 다녀와

이응노의 집 전 직원이 10월 16일 월요일 충청남도 금산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축제장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성'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금산 · 고창 선진지 견학은 이응노의 집 직원뿐만 아니라 홍성군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김동원 소장을 비롯해 역사시설, 문화시설, 홍주문화회관 전 직원이 함께 다녀왔다.

선진지 견학 첫 번째 행선지인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32일 간 열렸으며, 직원들은 축제장을 방문해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두 번째 행선지인 '고창읍성'은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으로, 성곽 전체와 성안 일부가 복원돼 있다. 직원들은 고창읍성을 둘러보며, 운영 관리 전반을 살펴보았다.





4. 이응노의 집, 방문 이야기

이응노의 집, 고암과 깊은 인연 있는 사람들 도서기증 이어져

이응노의 집에서는 최근 고암 이응노 화백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서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 김학량 명예관장은 고암 이응노를 비롯해 예술가 이야기를 담은 도서를 기증했으며, 고암 이응노와의 인연이 깊은 조무하 월간 〈미술세계〉 칼럼리스트는 고암 관련 스크랩북과 미술도록 등을 기증했다. 또 고암 이응노의 손자인 이종진 유족대표가 도록 61권을 기증했다.

김 명예관장은 자신이 직접 저술한 '붓으로 평화를 그리다, 화가 이응노'를 비롯해 예술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화가 겸제 정선, 화가 박수근, 건축가 김수근, 사진가 임응식, 음식연구가 황혜성' 등 예술가 이야기를 담은 도서를 기증했다.

조 칼럼리스트는 3월 17일 금요일 이응노의 집을 직접 방문, 고암과 관련된 사진과 편지, 스크랩북을 전달했다. 조 칼럼리스트는 이날 30여 년 전 고암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인인 박인경 여사와의 인연과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특히 조 칼럼리스트는 매해 이응노의 집을 방문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고암 이응노의 손자인 이 유족대표는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이응노의 집에 책을 기증하겠다"고 밝히며 미술도서 61권을 기증했다. 이들 도서는 고암 이응노가 소장했던 도록 2권과 자신이 해외에서 구입한 도서로, 이 유족대표는 "고암의 예술정신과 삶을 알리는 기념관 아카이브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응노의 집 이태호 운영위원장(전 명지대학교 교수)은 1만1000여 권의 인문예술도서와 미술자료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 운영위원장이 기증하기로 한 인문예술도서는 40여 년 간 교수로 재직하며, 구입 · 수집 · 연구한 인문예술 전문도서와 자료들로써 양적 방대함은 물론 인문예술 분야로 특화되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운영위원장은 "기증한 도서를 토대로 미술 분야 쪽으로 도서자료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도서자료실이 만들어지면 지인들의 협조를 얻어 더욱 많은 도서와 자료를 기증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암 이응노의 조카 이강세 씨도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서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뜻있는 분들의 도서기증이 1만여 권이 넘게 이어져 이응노의 집 일원에 도서자료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도서자료실은 또 다른 이응노마을의 명품 건물로 건립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이응노의 집 외의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고 꼭 거쳐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도서기증을 해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응노의 집, 올해 봄 정취 즐기려는 외지방문객 줄이어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운영과 이응노마을 조성사업 깊은 관심 보여

이응노의 집이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예술마을과 관련해 견학을 원하는 외지방문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3월에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와 학생 40여 명이, 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신규 경찰공무원 30여 명이 방문했다.

또한 4월 20일에는 홍성군 홍동지역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마실이학교 학생 15명이 현장실습차 방문했고, 4월 26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안학교 이우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방문했다.

3월에 방문한 두 단체는 이창엽 팀장의 친절한 해설로, 현재 기획 전시 중인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 공간~1950년대' 전과 생가와 연못, 주변 풍경 등을 들러봤으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에 흠뻑 빠졌다.

4월에 방문한 마실이학교 학생과 이우고 학생들은 윤후영 학예사의 친절한 해설과 강의로, 기획전시, 생가와 연못, 주변 풍경 등을 들러봤다. 특히,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설립 운영과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응노의 집은 외지방문객 견학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운영과 이응노마을 조성에 대한 외지방문객들의 깊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응노의 집, 가을 정취 즐기려는 외지방문객 줄이어

이응노의 집 주변이 가을 정취로 물들면서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10월 19일 목요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40여 명이 찾아와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봤고, 윤후영 학예사로부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애와 예술세계, 이응노의 집 조성 및 운영과정,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전 이응노미술관과 홍성 이응노의 집 개관에 있어 고암 이응노 화백의 부인인 박인경 여사의 노력이 컸다는 점, 박인경 여사가 이화여대 1회 졸업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명문 이화여대"라고 하며, 크게 공감했다.

10월 21일 토요일에는 이응노의 집 전 직원이 아침부터 분주했다. 아침 일찍 방문한 정상철 건축가와 건축학교 수강생 12명 때문이다. 이들은 주변 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감탄을 자아냈고, 기념관 건축기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오후 이응노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경향신문 7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명사 70인과 동행' 예순 세 번째 문화탐방 장소인 '이응노의 집', 이태호 이응노의 집 운영위원장과 경향신문 취재기자, 문화탐방객 40명이 찾아온 것.

이들은 이응노의 집 조성 및 운영과정 등을 듣고 깊이 공감했으며, 생가와 기념관,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경향신문 취재기자는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로 박은태 '사람들' 展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 "놀랍고 기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홍성 장곡 오누이권역에서 열리는 '도시청년농업농촌캠프' 참가자 15명이 이응노의 집을 방문,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이응노의 집 조성 및 운영과정 등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천사유치원 어린이와 가족 160명이 이응노의 집을 방문,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에 반해 1시간가량을 푸른 잔디 위에서 뛰놀았다.



5. 이응노의 집, 시설 이야기

이응노의 집, '한옥 · 축사' 건물재생 공사 들어가

기존건물 재생계획에 맞춰 인문학자 · 예술가 정주 창작공간 조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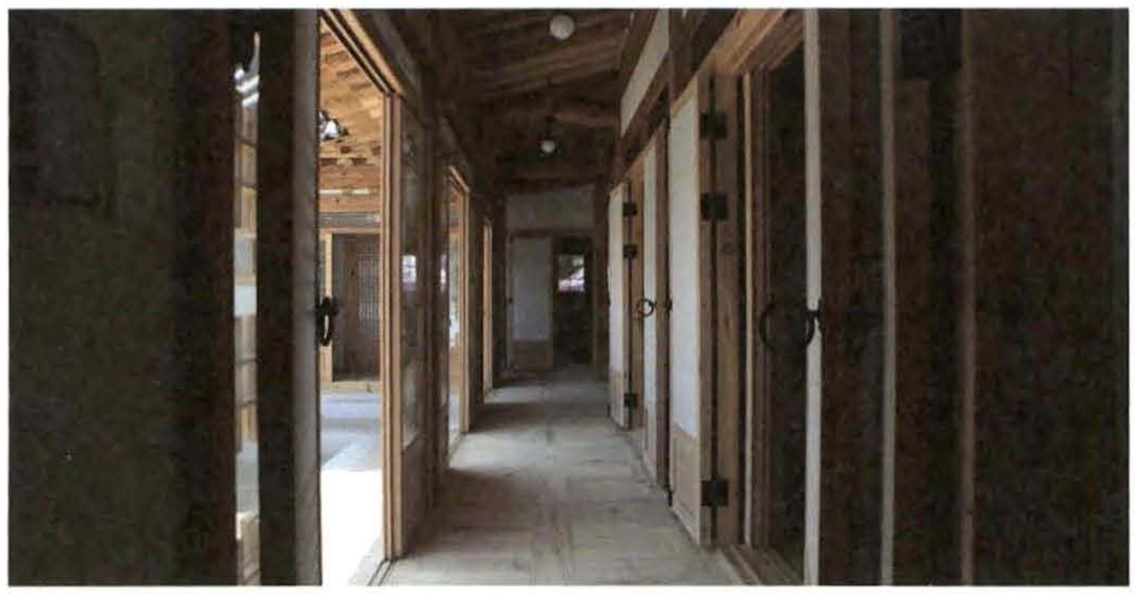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에서는 인문학자와 예술가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한옥과 축사 건물재생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통한옥은 원래 홍성군 홍성읍 사적 제231호인 홍주읍성 홍화문 아래에 위치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철거보다는 건물재생 계획과 맞물려 해체 · 이전 보존 대책을 마련,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뒤편으로 옮겨 복원하게 되었다.

한옥 창작 공간은 5월 중 복원공사와 주변 소나무 식재를 완료했으며, 일명 '철학자의 오두막' 으로 이름 붙여 인문학자와 예술가의 창작 공간으로,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축사를 재생한 컨테이너 창작 공간 역시 건물재생 계획과 맞물려 5월 중 공사를 완료했다. 창작 공간은 창작스튜디오 3곳, 세미나실, 사무실, 휴식공간, 화장실 등을 갖췄다.

앞으로 한옥과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는 예술인문학 분야 전문가 2팀과 현대미술 분야 작가 3팀 등 총 5팀이 6개월여 간 거주하며, 개인 창작을 비롯해 마을과 연계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6.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설립, 첫 입주 작가 모집 선정

5월 중 창작스튜디오 설립 따라 예술인문학 · 현대미술 분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에술인문학 · 현대미술 분야 작가 5명 모집 선정 … 창작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이응노의 집이 올해 한옥과 축사 건물을 재생, 현대미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창작스튜디오를 설립, 운영한다. 이에 따라 창작스튜디오 제1기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5월 중 설립 완료되며, 이에 6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맞춰 예술인문학 전공자와 현대미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제1기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제1기 입주작가 모집인원은 예술인문학 이론 분야 2명과 시각조형예술 분야 3명 등 총 5명으로, 만 25세 이상 국내작가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제1기 입주작가를 희망하는 예술인문학 이론 작가와 시각조형예술 작가는 입주신청서(이론가/작가 구분)와 자기소개서, 작가경력, 입주활동 및 창작계획서, 입주 작가 제안 프로젝트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5월 10일 수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제1기 입주작가 선정은 전문분야 4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하며, 서류심사와 심층심사(필요시 전화 인터뷰 등 진행)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20일 토요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 작가 선정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한옥형과 컨테이너형 등 2곳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옥형은 예술인문 기반의 이론 · 교육 프로그램, 컨테이너형은 시각조형예술 · 공공미술 ·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옥형은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별 · 주제별 맞춤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 살아 움직이는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확대 및 품격 높은 브랜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은 릴레이(연속) 전시를 통한 전시 활성화와 현대미술 감상기회를 확대하고 작가와 주민의 소통확대를 통해 작품체험 · 제작 등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아트프리마켓' 운영, 디자인 활성화와 상징조형물 제작, 쓰레기재활용 등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등 이응노마을 특화를 위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한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 작가 창작활동 시작

한옥형 · 컨테이너형 창작스튜디오 설립…6월 초부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본격 운영해
예술인문학 · 현대미술 분야 작가…지역 문화예술 확대하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진행

이응노의 집이 올해 한옥과 축사 건물을 재생해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고, 6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창작스튜디오(한옥형 · 컨테이너형) 제1기 입주작가를 모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인문학 분야 이섭, 송재영 작가와 현대미술 분야 김도경, 박영임 · 김정민우, 손민광 작가 등 5명을 선정, 제1차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예술인문학 분야 이섭 씨는 공공예술기획 · 미술평론 · 현대철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마을과 주민들 삶 속의 공동체 문화인 공연, 전시 등을 만든다.

송재영 씨는 기록 · 아카이빙 · 문예창작 ·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기억의 중첩을 통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주민들과 함께 음식 요리과정과 인터뷰를 나눈다.

현대미술 분야 김도경 씨는 조각 설치 분야의 작가로, '헤매는 사람(방랑자)'을 주제로 해 행성의 궤도를 통한 나의 모습과 궤도를 반추해 조각적인 작품을 만든다.

박영임 씨는 홍성 장곡에 귀농귀촌한 영화 · 영상 분야 작가로, 남편인 김정민우 씨와 함께 순리필름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 부부는 프로젝트 '들–고독 · 死'를 주제로,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을 조명하고 그것들의 고독과 죽음을 다룬다.

특히, 작가 부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죽음들 –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들과 고독사'라는 단어로 인터넷 단신으로 처리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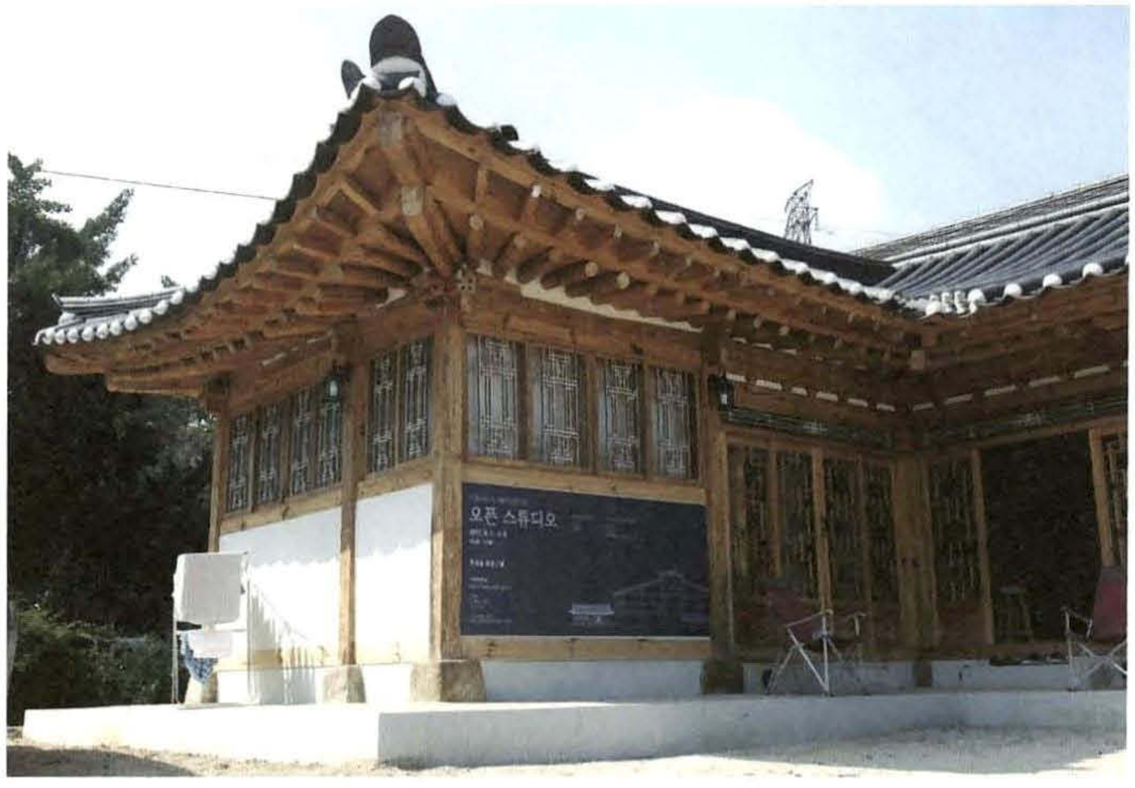
손민광 씨는 서양화 분야로, '다양한 관점Various points of view'을 주제로 해 드로잉, 평면작업, 조형제작 등을 작업해 작품을 만든다. 아울러 마을과 연계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한옥형과 컨테이너형 등 2곳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옥형은 주민뿐 아니라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별 · 주제별 맞춤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살아 움직이는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확대 및 품격 높은 브랜드로 활성화한다.



컨테이너형은 릴레이 전시를 통한 전시 활성화와 현대미술 감상기회를 확대하고, 작가와 주민의 소통확대를 통해 작품체험 · 제작 등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아트프리마켓' 운영, 디자인 활성화와 상징조형물 제작해 쓰레기재활용 등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등 이응노마을 특화를 위한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한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따라 입주작가와 주민들 간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되는 오픈스튜디오는 9월께 열릴 예정이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첫 '오픈 스튜디오' 활짝 열려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 위한 창작스튜디오 올해 6월 초부터 운영, 지역협력형 작업도 진행
한옥동 ·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및 예술작업 소개, 전문가비평 · 자유토론 펼쳐져

이응노의 집 '오픈 스튜디오'가 9월 7~9일 사흘간 한옥동 ·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공간에서 활짝 열렸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지역주민, 내외 방문객 간 소통의 시간의 마련한 것으로, 한옥동 · 컨테이너동 작업실을 개방, 5팀의 입주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오픈 스튜디오는 9월 7일 목요일 먼저, 한옥동으로 이동해 송재영 작가의 기억보관소에서 '당신의 기억을 보관해 드립니다' 방문객 대상 인터뷰 작업을 둘러봤고, 기억보관(아카이빙) 영상물을 시청했다. 이어 연밭을 감상하면서 컨테이너동으로 이동, 개막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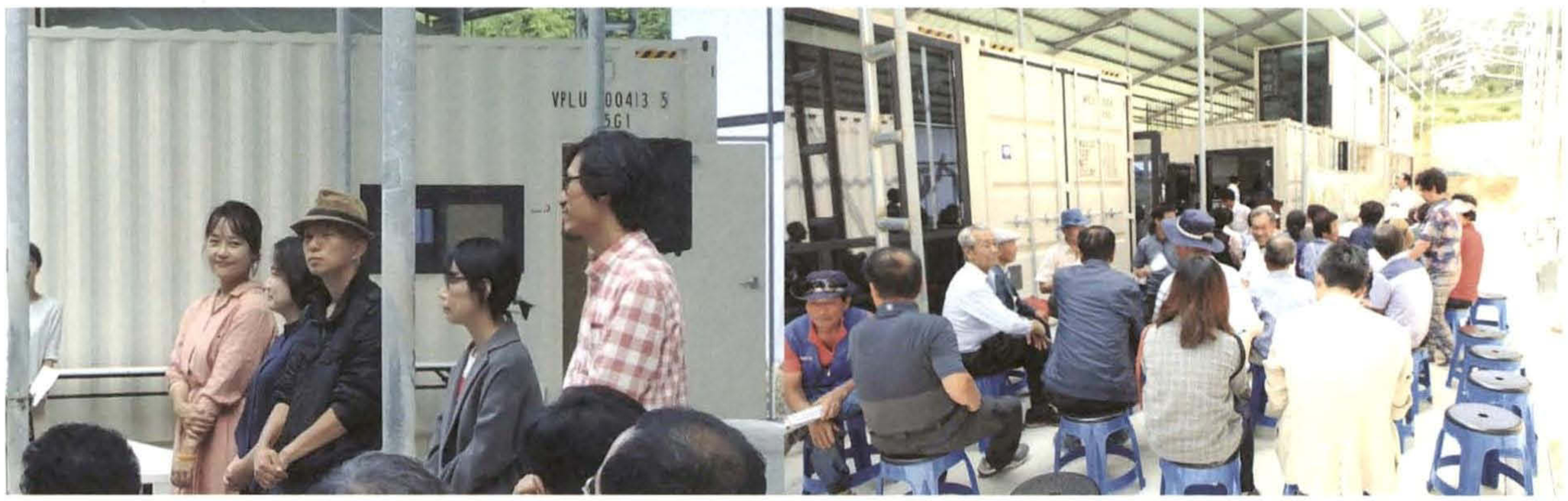
개막식은 마을주민과 지역주민, 외지방문객,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스튜디오 조성 경과보고 및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입주 작가 소개 및 그들의 예술작업 소개, 방문객과의 교류 및 친교의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개막식 후 컨테이너동 순리필름(박영임 · 김정민우)의 '라이브 시네마 퍼포먼스' 가 펼쳐졌다. 순리필름은 자연으로부터 영감 받아 작곡한 음악과 홍성 장곡저수지를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고독을 그린 영상 '우리 모두 혼자인 낯선 사람이다We are all stranger you are alone' 을 상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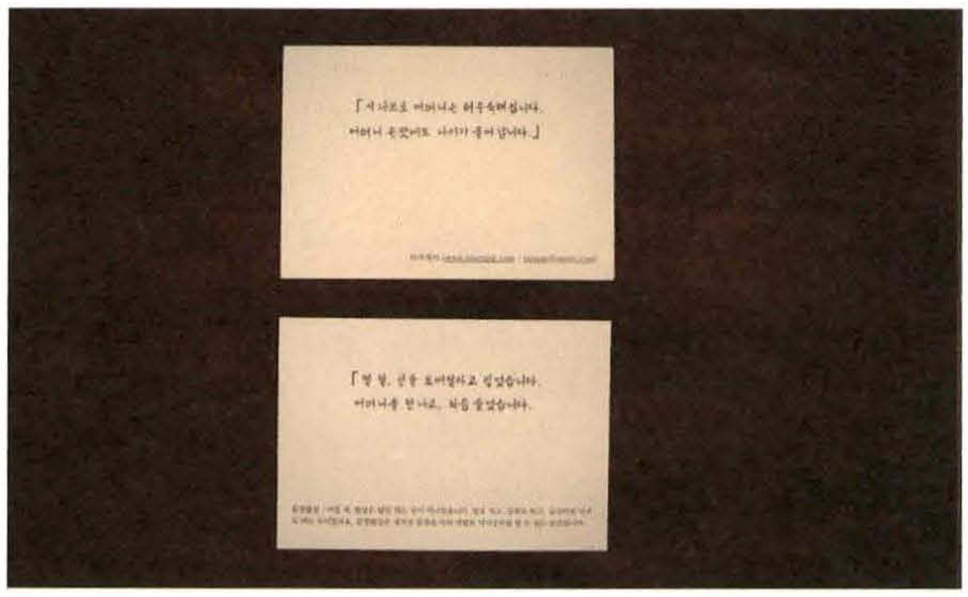
둘째 날인 9월 8일 금요일에는 한옥동을 중심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다. 한옥동 송재영 작가의 기억보관소에서는 방문객 대상 인터뷰와 기억보관(아카이빙) 영상물을 상영했고, 이섭 작가는 컨테이너동 세미나실에서 입주작가와 방문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공성' 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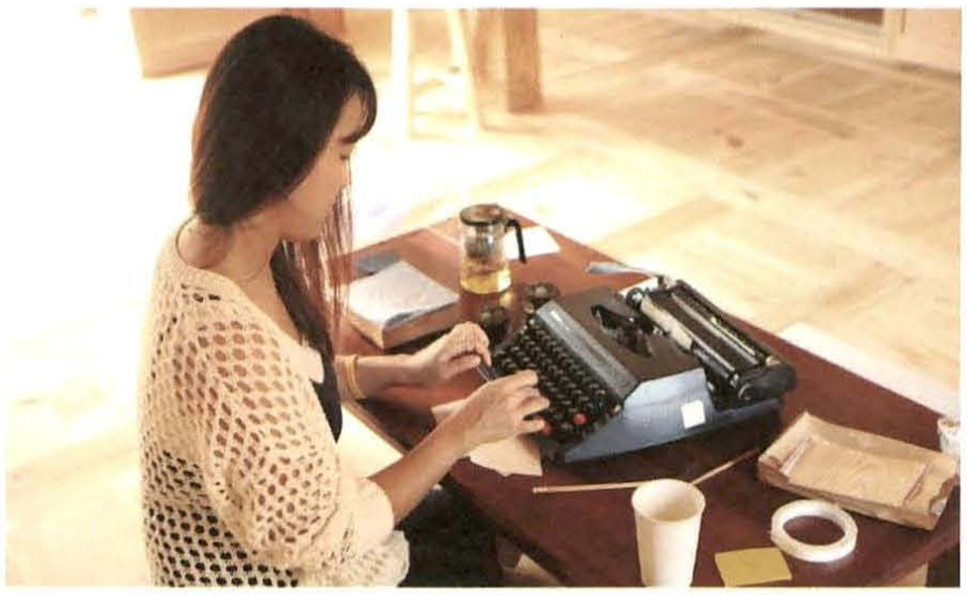
셋째 날인 9월 9일 토요일에는 컨테이너동을 중심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다. 컨테이너동 김도경, 손민광, 순리필름의 예술작업 소개 및 '작업 발표 및 고찰' 이라는 주제로 이선영, 김성호 평론가의 전문가 비평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입주 작가들은 각각 자신의 작품과 작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평론가들은 이들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작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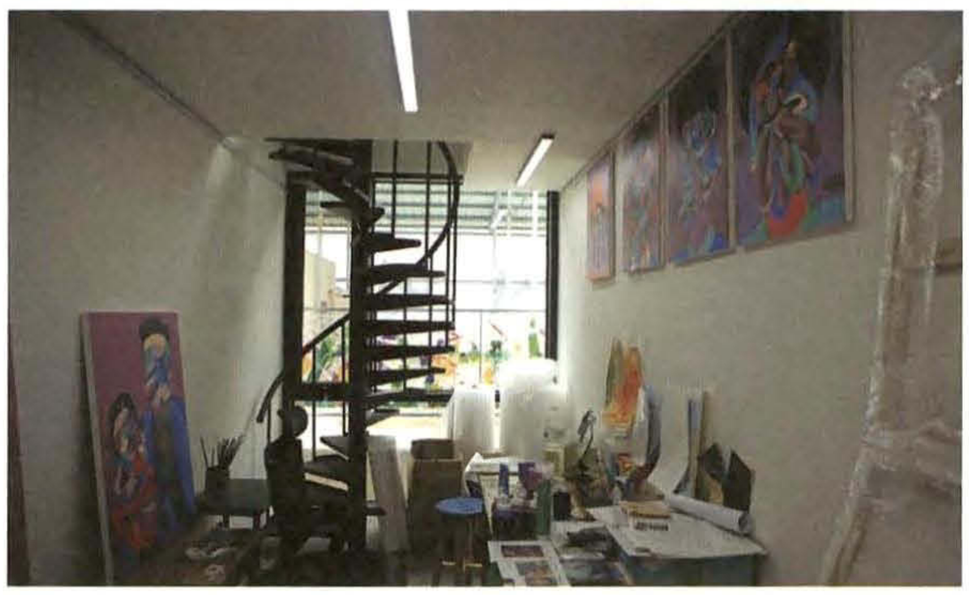
한편 이응노의 집 한옥동 ·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는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을 위해 6월 초 문을 열었으며, 11월 말까지 5팀의 입주 작가들의 개인 작업 및 '이응노마을' 에서의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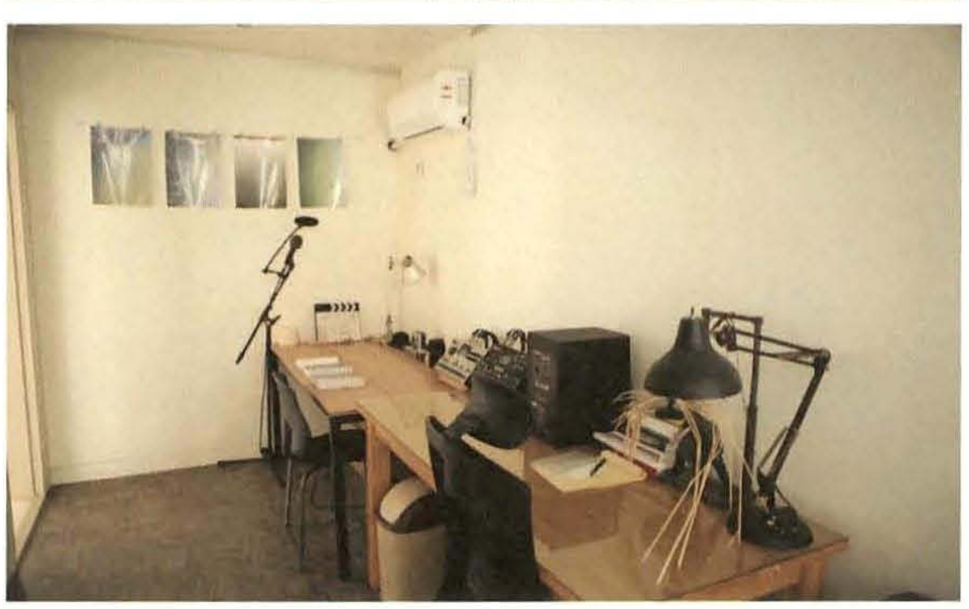





「시나브로 어머니은 허무속에집니다.
어머니 온몸에도 사이가 생어납니다.」
「정 말, 곧을 모비딕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본니로, 보듬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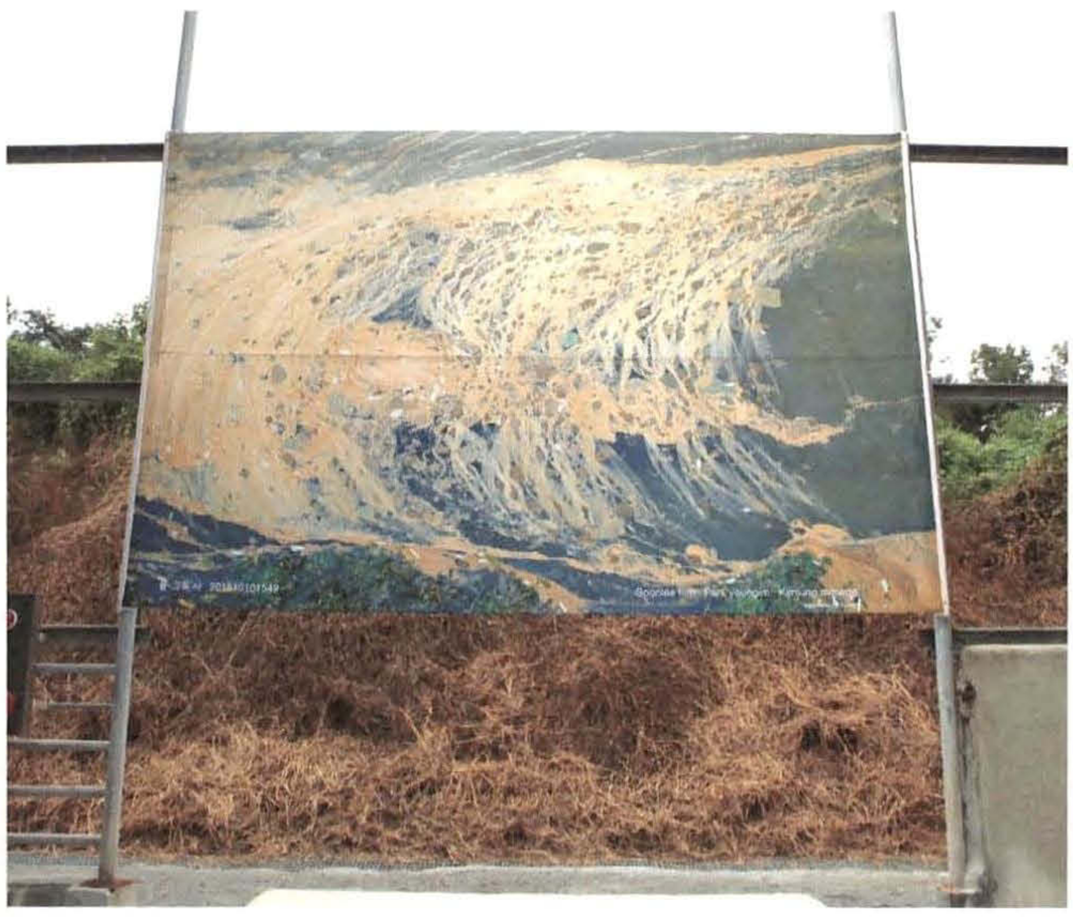







이 선 영
김 성 호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 전북 완주 입주작가와의 교류 가져

완주 VM아트미술관 · 복합문화지구 누에 방문, 레지던시 교류전 및 지역예술 위한 포럼 개최 협의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8월 24일 목요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비쥬얼미디어(VM)아트미술관과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N-01을 방문, 완주 입주작가와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들은 VM아트미술관과 복합문화지구 누에 N-01을 차례로 방문, 이곳에서 활동하는 입주작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교류전 및 포럼행사 개최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한 레지던시 교류전은 가칭 '탈바꿈New-nomad' 으로, 완주(VM아트미술관, 9월 29일 금요일 개막)와 홍성(이응노의 집, 9월 30일 토요일 개막)에서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 열린다.

또한 예술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행정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 27일 금요일 또는 28일 토요일(날짜 미정)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N-01 세미나실에서, 이응노의 집-VM아트미술관 · 복합문화지구 누에 N-01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열린다.

이번 레지던시 교류전은 입주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석 연휴에 집중 진행되어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내외 방문객들에게 예술 선물을 한 아름 안길 예정이다.

한편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는 6월초 5팀의 선정작가들이 입주하면서 개인 창작 및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옥동과 컨테이너동을 중심으로 현재 이응노마을 주민과 홍성군민,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집 / 이응노의 집 [창작 스튜디오]

한옥동 · 컨테이너동 레지던시 작가의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활동모음

이응노 생가 마루에서 '주민과 예술가' 꿈꾸듯 색다른 만남 가져

이섭 작가와 김대현 다큐감독의 '다방의 푸른 꿈' 상영 및 주민과 만남의 시간

이응노의 집 한옥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이섭(공공미술 · 전시기획 부문) 작가가 '이응노마을에서 하루 밤' 프로그램을 운영, 7월 17일 월요일 첫 행사로 다큐영화 '다방의 푸른 꿈'을 선보였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마루에서 열린 이날 다큐영화 '다방의 푸른 꿈' 상영은 마을주민을 비롯해 홍성군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 다큐영화 관람에 이어 조촐한 부침개와 함께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다큐영화 '다방의 푸른 꿈'은 전쟁의 폐허 속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통해 국내 최초의 걸그룹을 결성하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 진출해 월드스타가 된 김시스터즈(김민자 · 김숙자 · 김애자)의 음악 인생을 인터뷰와 당시의 공연영상 등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다방의 푸른 꿈'으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과 '다방의 푸른 꿈', '잘 있거라 단발령', '오빠는 풍각쟁이'로 유명한 작곡가 김해송 부부의 자녀(김민자는 이난영의 오빠 이봉룡의 딸)들로 구성됐다.

'김치깍두기'로 유명한 김시스터즈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리고 가야금, 장구, 기타, 트롬본, 벤조, 클라리넷, 아이리시 백파이프 등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악기들로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까지, 국내는 물론 당대 최고의 스타인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롤링스톤즈와 어깨를 겨누고, 미국의 인기 TV쇼 '에드 설리번 쇼'를 화려하게 장식한 월드스타이다.

이날 '다방의 푸른 꿈' 상영은 김대현 감독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상영 뒤에는 부침개와 함께 막걸리 잔치를 열어 주민과 예술가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옥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이섭 작가는 다큐영화 '다방의 푸른 꿈'에 이어 재즈 공연, 해금 연주와 토크쇼, 찰리채플린과 버스터키튼 영화상영, 인디록 공연과 토크쇼, 일본의 마을 만들기 다큐영상 등을 9월 5일 화요일까지 진행한다.



이응노마을서 날마다 '행복한 하룻밤 예술잔치' 펼쳐져

이섭 작가의 '이응노마을에서의 하룻밤', 다양한 분야 공연 · 상영 행복의 질 높여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한옥동 입주작가인 이섭(공공미술 · 전시기획 · 미술평론 · 현대철학 부문) 작가는 7월부터 '이응노마을에서의 하룻밤' 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는 7월 17일 월요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걸그룹 김시스터즈의 인터뷰와 미국 진출 성공담을 그린 김대현 감독의 다큐영화 '다방의 푸른 꿈' 으로, '홍성-이응노마을에서의 하룻밤' 의 첫 선을 보였다.

7월 21일 금요일에는 김형섭 퀄텟 5인조 재즈밴드의 퓨전재즈공연을, 8월 2일(수)에는 해금 켜는 거리 악사인 은한의 해금 트로트 연주와 수다 토크 등을 진행했다.

이어 작가는 8월 9일 수요일과 8월 15일 화요일 1,2차 마을회관에서 미국 무성영화시대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영화이자 빈민층의 삶, 불우한 아이와의 교감을 그린 작품 '키드' 와 무표정의 코미디 대가 버스터 키튼의 꿈과 현실, 영화 속 현실반영, 모방 · 긴장 등을 보여주는 '셜록 주니어' 을 상영했고, 8월 23일 수요일에는 연영석 인디(독립) 음악가의 시대의 노래와 말을 들려주는 인디록 공연 등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으로 작가는 9월 5일 화요일과 6일 수요일 1,2차 마을회관에서 이안 기획자의 다큐영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기획자의 다큐 관련 이야기' 를 들려줄 예정이다.

작가는 한 마디로 엉뚱하고 장난스럽다. 공연 · 전시 기획자답게 영화 상영, 재즈 공연, 국악(해금) 공연, 인디록 공연, 그리고 마을 만들기 다큐영화 상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요리도 수준급,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에 걸맞은 술과 안주를 내놓고, 곁들여 대화와 여흥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더위에 치명적으로 약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흠이라면 '흠' . 그래도 이응노마을의 여름은 이섭 작가의 엉뚱 발랄한 기획 덕분에 행복해졌다.





이응노마을 여성의 일상과 '밥상' 속 담긴 특별한 사연 풀어내

송재영 작가, '일상日常과 밥상床' 프로그램 통해 음식 속 담긴 여성의 삶 기록 보관

또 다른 한옥동 입주 작가인 송재영(기록 · 아카이빙 · 문예창작 · 국어국문학 부문) 작가는 7~8월 두 달여간 마을의 삶, 특히 마을 여성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기록 보관(아카이빙)하고 있다.

작가는 7월 16일 일요일 김숙자 마을부녀회장을 시작으로, 마을에서 여성(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내)으로의 삶을 인터뷰하고, 그 기록에 일상 속 예술밥상 차리기와 레시피 모으기, 그 여성과의 한 끼 식사를 나누며 오고간 소통의 이야기를 담아 '일상日常과 밥상床' 프로그램을 진행, 현재 영상과 책 속 보관을 시도하고 있다.

작가의 '일상과 밥상' 은 1차 마을 김경순, 김남례 씨와 2차 마을 김숙자, 원경옥, 신연숙, 신동학 씨 등 여섯 차례에 거쳐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을 끝마쳤고,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 속에 스며든 삶의 애환과 질곡을 곱씹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작가는 어떤 이의 딸에서 다시 어떤 이의 아내로, 그리고 어떤 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마을의 여성 5명을 인터뷰 하면서, 그 순탄치 않은 삶의 시간이 어떻게 음식에 담겼는가를 살피고 음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 작가는 자기 자신이 딸로서 어머니를 투영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이 또다시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하는지 묻고 있다. 그 결과물은 영상과 책에 담긴다.

별책부록 같은 신동학 씨의 삶 또한 순탄치 않다. 유일한 남성으로 등장하지만, 두 번의 아픔 뒤에 찾아온 자리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부대찌개 레시피는 잘 모르지만….

작가는 한 마디로 지혜롭지만 맹랑하다. 7~8월 두 달여간 배운 마을 여성들의 음식 레시피를 그대로 배워 다시 그대로 대접한다는 모양새가 미련하지만 무덤덤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이다.

꽤나 잘 쓰는 글 솜씨는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게으른 여우이다. 기억보관소는 결국 자신이 꼭 잊고 싶어 하는 절실한 삶의 기록인 셈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 대표작품 '문자추상 · 군상' 생활용품으로 활용

손민광 작가의 '예술가와 함께 하는 미술교실', 이응노 작품세계 알고 배워 활용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컨테이너동 입주 작가인 손민광(현대미술 · 서양화 부문) 작가는 마을주민과 홍성군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 가족단위 참가자를 모집해 '예술가와 함께 하는 미술교실'을 진행했다.

작가는 8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2차 마을회관에서 주민과 함께 고암 이응노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 '문자추상文字抽象'을 활용한 머그컵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자추상 작품 설명과 감상의 시간에 이어 작품 구상 및 스케치, 머그컵 문자추상 꾸미기, 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작가는 또한 8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일요일 이응노의 집 세미나실에서 마을을 비롯해 홍성군민, 내포신도시 주민 등 6~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참가가족을 대상으로, 이응노의 '군상群像'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에코백 만들기)를 진행했다.

작가는 이번 '군상'을 통해 이응노 작품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창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악 듣고 군상 따라하기' 등 이응노의 군상에서의 내포된 몸짓을 직접 표현하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가는 한 마디로 뜬금없지만, 미워할 수 없을 만큼 붙임성이 있다. 창작스튜디오 컨테이너동에서 날마다 마을을 돌며 산책을 즐기고, 만나는 주민들과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건넨다. 부끄러움도 많이 타지만 아랑곳없이 대화도 술술 풀어놓는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과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적이는 표정이 항상 밝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기' 통해 근원적인 힘 되찾아

김도경 작가의 '의자 다시 만들기', 주민들 개개인의 상상 속 의자만의 역사 부여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컨테이너동 입주 작가인 김도경(현대미술 · 조형 부문) 작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기'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처음 작업했을 때로 돌아가는 것Back to basic'이다.

작가는 과거에 머무르는 발전성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는 근본적인 힘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 속에서 작가는 '동그라미+세모+네모'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시간 속에서 점점 변하는 재료로 작업한다. 거기에 사람이 채워지는 작업을 소망하고 있다.

작가는 처음 볼 때와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독특하다. 푸근하지만 냉정을 잃지 않는 힘, 그 힘이 있다.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의자 다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다.

작가는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대표의 협조를 받아,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의자를 놓고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자에 역사History를 부여, 마을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형태를 재구성해 '나만의' 의자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매우 흡족해 한다. 냅킨아트가 이렇게 생명력을 얻다니, 의자는 '나만의' 시선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가는 그런 조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되풀이한다. 푸근하면서도 냉정하게 재료를 태도를 지녔다.

작가를 더 깊이 알고 싶지만, 어지간해서 시간이 맞지 않는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작가의 품이 무척이나 당당하다.





‘세상 주변부 존재하는’ 삶과 존재에 대한 공감과 성찰 줄기차게 탐구

순리필름 박영임 · 김정민우 두 작가, 영상 · 사진 · 사운드 통해 ‘마을만의 고유성 찾아내’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컨테이너동 입주 작가인 순리필름의 박영임 · 김정민우(현대미술 · 영화, 사진, 사운드 부문) 두 작가는 9월 7~9일 오픈 스튜디오 개막식 후 ‘라이브 시네마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순리필름은 이날, 자연으로부터 영감 받아 작곡한 음악과 홍성 장곡저수지를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고독을 그린 영상 ‘우리 모두 혼자인 낯선 사람이다(We are all stranger you are alone)’ 두 번째 시리즈를 상영했다.

순리필름의 ‘우리 모두 혼자인 낯선 사람이다(We are all stranger you are alone)’ 첫 번째 시리즈는 홍성 장곡면 도산리 오누이권역에서부터이다.

2016년 제작한 이 작품 첫 번째 시리즈에서 두 작가는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자연을 관찰하고, 삶과 존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내면의 고독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개막식 후 상영한 두 번째 시리즈는 영상의 깊이가 더해졌고 사운드의 폭이 넓어졌다.

순리필름의 두 작가는 다양한 영상작업을 하는 작가들로, 영화와 사운드, 사진 작업을 해오면서 세상 주변부의 삶과 존재들에게 공감하고 동요하는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성찰에 다가서고 있다.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서, 순리필름 두 작가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10곳의 장소를 정해 소리를 채집하고, 사진과 짧은 이야기를 소리와 엮어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의 고유성을 찾아내고 있다.

순리필름의 두 작가는 겉으로 보기에 차갑다. 하지만 극히 이성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 속에서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아직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죽어가는 동물을 안타까워하는 시선 속에서 분명 따뜻함은 넘친다.



특집 / 이응노의 집 [창작 스튜디오] 컨테이너동 입주 작가들의 개인전

이응노의 집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자기만의 색깔' 낸다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 개인전 통해 '자기만의 색깔' 드러내

이응노의 집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자기만의 색깔'을 낸 개인전이 10~11월 두 달여 간 차례로 열리고 있다.

순리필름(박영임 · 김정민우), 〈들〉 통해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과 '고독사'로 죽어가는 현대인 사진 · 영상 담아내

먼저, 물꼬를 연 작가는 순리필름의 박영임, 김정민우 두 작가다. 순리필름은 '로드킬'과 '고독사'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들-고독 · 死〉에 대해 10월 14일 토요일 이응노의 집 중앙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마을주민과 외지방문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브 시네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순리필름의 '라이브 시네마 퍼포먼스'는 필드 레코딩으로 채집된 소리로 만들어진 음악과 무성비디오가 어우러진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로, 동물과 인간이 함께 관통하고 있는 '고독사'라는 주제를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내고 있다.

또한 10월 28일 토요일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로드킬'과 관련, 사진 전시를 열고 있다. 두 작가는 시골생활에서 로드킬을 직접 맞닥뜨리면서, 죽은 동물들을 수습해주는 동안 길 위의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겨두게 된다.

그렇게 남겼던 존재들의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감정을 담은 자연풍경의 사진들과 함께 보여준다. 결국 길 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내면을 파고들 물음에 답하기 위함이다.

그 내면을 파고들 물음들, 순리필름의 두 작가는 〈들-고독 · 死〉에서 주변에 존재하는 '들'에 대해 못 보고 거부하고, 애써 외면해 인식조차 하지 않는 존재들 속에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얻는다. 또 거대한 세상에서 동물들과 같은 운명으로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의 고독한 종말을 영상으로 답하고 있다.

이로써 순리필름의 두 작가는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삶인가', '어디로 향해 가나'를 묻고 있다. 〈들-고독 · 死〉의 사운드와 영상, 사진을 통해 우리 모두 삶의 거울을 마주하길 바라고 있다.





김도경 작가, 〈헤매는 사람〉 · 〈우리 다시 만나요〉 통해 '처음으로 나에게 돌아가는' 작업 보여줘

김도경 작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기'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처음 작업했을 때로 돌아가는 것Back to basic' 이다. 과거에 머무르는 발전성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는 근본적인 힘을 찾게 된다는 것.

이런 구상 속에서 김 작가는 '동그라미+세모+네모'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시간 속에서 점점 변하는 재료로 작업한다. 거기에 사람이 채워지는 작업을 소망하고 있다.

김 작가의 개인전 〈헤매는 사람planetai〉는 10월 31일 화요일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개막식을 열고, 11월 14일 화요일까지 전시된다. 〈헤메는 사람〉의 '행성planet' 은 항성 주위에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는 천체를 말하는 것으로, 어원은 그리스어의 '헤매는 사람(떠돌이)', '방랑자' 라는 planetai에서 유래한다.

'행성' 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태양 빛으로 빛이 나는 존재이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행성이 마치 '자리 잡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가', '나는 나만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무런 설명 없어도 나의 작품은 스스로 빛나는가' 라는 물음으로 김 작가는 작업을 시작했다.

또 다른 작품 〈우리 다시 만나요〉는 9월 7일 '오픈 스튜디오' 에서부터 컨테이너동 창작스튜디오 외벽에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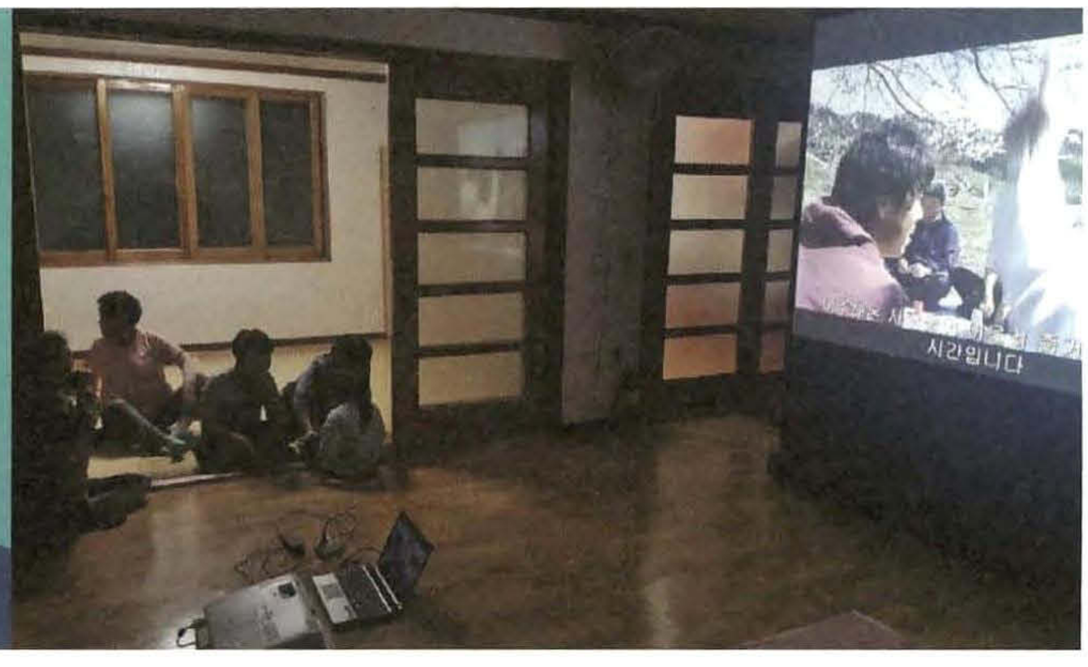
김 작가에게 '우리 다시 만나요' 는 아름답고 정겨운 한 마디에 따뜻함과 기대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말이자, 무덤덤하게 내뱉는 형식적인 말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의 작업이다.

포스트잇 작업에서는 '흔하게 쓰고 쉽게 기억해' 마음 깊숙이 남지 않지만, 큰 글씨로 외벽을 감싸는 작업에서는 '마치 큰소리로 얘기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처럼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작업임 김 작가는 밝히고 있다.

손민광 작가, 개인전 통해 '사람' 이미지, 표현주의적 ·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

손민광 작가는 이미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을 끝내고, 현재 개인전에 몰두하고 있다. 손 작가의 작업은 '사람' 이다. 일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생산하는 과정을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나면서, 배경지식을 모으고 인터뷰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주의적, 기하학적으로 해석한다.

손 작가의 개인전 〈우직한 든든함이 있는 사람〉과 〈뜻하지 않은 역경 후의 재회〉는 11월 16일 목요일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서 개막식을 열고,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전시된다.

프로이드의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이상 심리에서 사랑과 미움, 복종과 반항, 쾌快와 고苦 등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향성兩向性 ; Ambiversion'을 손 작가는 표현주의 형식과 기하학적 추상 등 표현의 다양성 꾀하고 있다.

특히, 손 작가의 개인전에서는 화가 고암 이응노와 이응노의 집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주목할 만하다. 손 작가는 매일 창작스튜디오 주변을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면서, 일상의 인물들을 만나고 직접 촬영한 현실 이미지와 디지털의 가상 이미지를 교차해 하루하루 변하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다.

손 작가는 작품마다 '무제Untitled'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비평에서 나온 '무제'의 애매모호성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제목을 찾을 것인가는 온전히 작가의 몫에 달려 있다.

한옥동 창작스튜디오 이섭 · 송재영 작가 '지역협력형 프로그램',
'일본 마을 만들기' 사례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일상과 밥상' 음식 레시피 활용, 마을주민 초청해 음식대접

한편 한옥동 창작스튜디오 이섭 작가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인 '이응노마을에서의 하룻밤' 마무리로, '일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9월 5일 화요일과 6일 수요일 이틀간 1,2차 마을회관에서 상영했다.

또한 송재영 작가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인 '일상과 밥상床'의 대미를 장식할 음식대접에 나섰다. 마을 어머니(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음식 레시피를 전수받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마을의 어머니(또는 여성)들과 마을주민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7. 이응노마을과 함께

“엄마, 아빠! 이응노마을로 소풍가요”

전국이응노미술대회, 5월 13일 이응노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져
마을 주민들 적극 참여해 ‘먹거리 · 볼거리 · 체험거리’ 펼쳐놓아

‘우리가족은 그림 그리러 이응노마을 간다’를 주제로, 올해 전국이응노미술대회가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16회째를 맞는 전국이응노미술대회는 5월 13일 토요일 홍성군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지부장 주남수)가 주관한 가운데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응노마을에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 미술대회를 직 · 간접 지원한다.

미술대회는 본 행사 외에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이응노마을 장터에서는 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잔치국수, 떡볶이, 어묵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마을풍물패의 신명나는 풍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예술체험의 일환으로 목공예, 지승공예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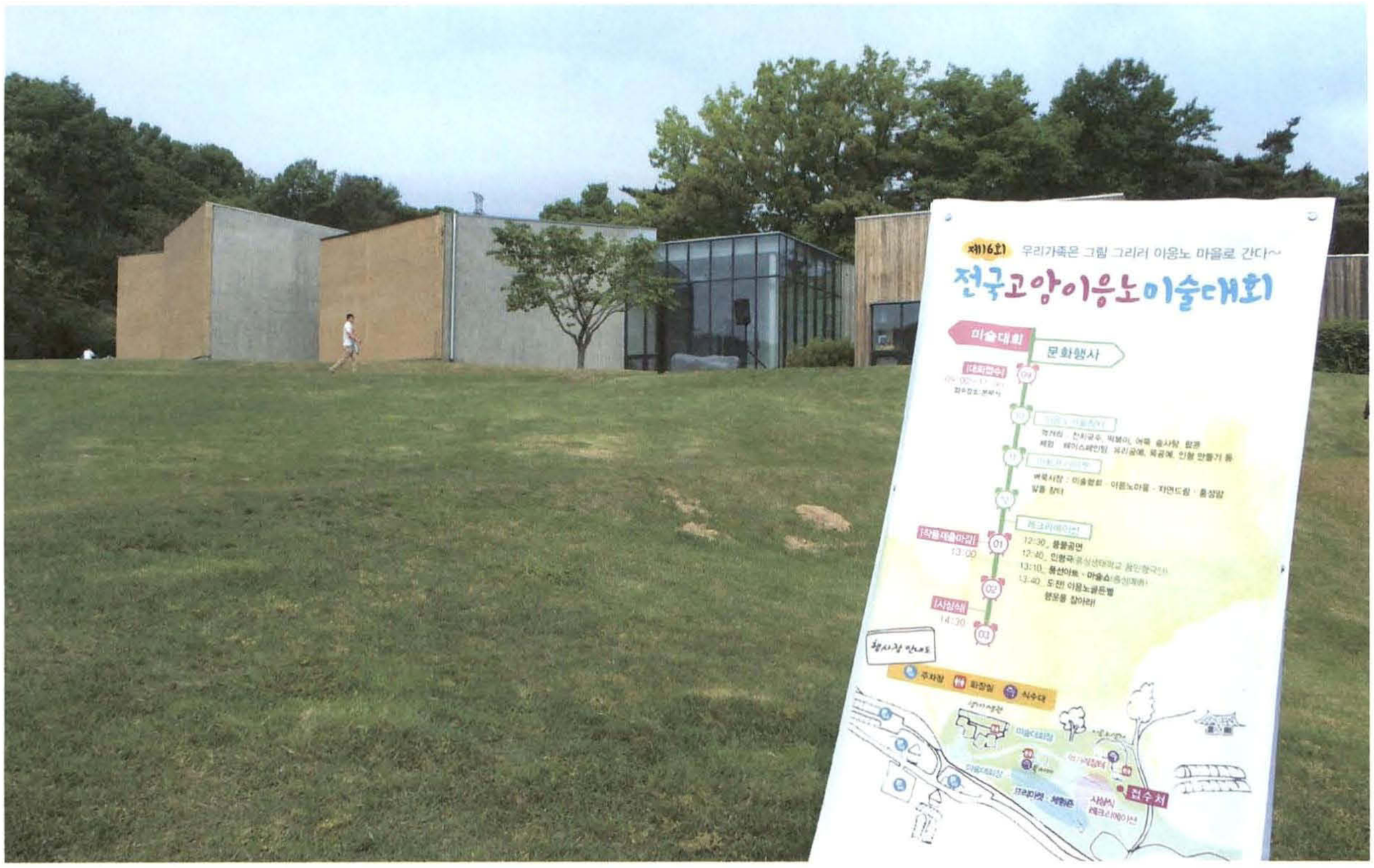
홍성미술협회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향초 만들기, 인형 만들기, 인형극 공연, 솜사탕 등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 단순한 미술대회에서 벗어난 문화예술 행사로 확대해 대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아트프리마켓에서는 대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거나 나눌 수 있는 알뜰장터가 펼쳐진다.

또한 미술대회는 아동,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자리는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분야는 수채화, 만화, 디자인 등 자유롭다.

이번 미술대회에서는 대상 1명을 비롯해 각 부문별 최우수상 등 다수에게 상이 주어지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상인 이응노마을상이 주어지며,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 · 특산물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한편 이번 미술대회 수상작은 6월 10일 토요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 이응노기념관 기획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마을과 연계한 '전국이응노미술대회' 내실 있고 알차게 펼쳐져

〈특집 화보와 함께〉

이응노의 집 · 홍성미술협회 주관주최,
'우리 가족이 함께 이응노마을에서 그림 그리고, 장을 펼치고, 문화로 즐기는 봄소풍! 대회로 치러
이응노마을 주민들 적극 참여 속에 마을장터 · 먹거리장터 선보여…예술시장 · 알뜰시장도 열려

'우리 가족이 함께 이응노마을에서 그림 그리고, 장을 펼치고, 문화로 즐기는 봄소풍!' 을 주제로, 전국이응노미술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 있고 알차게 펼쳐졌다.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가 함께 한 제16회 전국이응노미술대회가 5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참여 학생 500여 명을 비롯해 참여가족, 마을주민, 외지방문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취지로 열린 대회는 가족중심의 미술대회와 '이응노마을장터' 가 동시에 펼쳐졌다.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그동안의 대회는 마을의 참여 없이 이응노의 집과 홍성미술협회에서 주최 주관해 문화예술 행사로만 진행해왔다.



마을상품고유 BI 부착해 마을 농 · 특산물 및 예술상품, 먹거리 등 홍보 판매 … 참석방문객 관심 집중 시켜

2015년부터 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을 진행하면서, 마을 거버넌스(민관협치)에서는 지난해 대회 때부터 마을 참여를 검토, 마을 예술시장(아트프리마켓) 조성에 발맞춰 참여를 결정했고, 올해도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을생산품 및 먹거리장터가 운영되었다.

마을생산품은 마을 고유의 BI(브랜드 가치)를 부착해 대외적으로 홍보 판매했으며, 홍성군내 젊은 주부들의 모임인 홍성맘에서도 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등을 판매하는 장을 열었고, 자연드림 식품시식을 비롯해 목공예, 지승공예 등 아트상품 · 수공예품 판매도 선을 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교환하는 알뜰시장도 열려 대회 참여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따라 마을부녀회에서는 국수와 어묵, 떡볶이 등을 판매했으며, 마을생산품으로는 나무공방 소풍의 냄비받침 · 연필꽂이 등 원목가구와 문화예술상품인 지승공예 제품, 효소제품을 비롯해 표고버섯 · 말린 고사리 · 취나물 · 참깨 · 청현미 딸기 등 마을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 · 특산물을 내놓아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2017 홍성미협 회원전' 이 이응노의 집 기획전시실에 함께 열려 많은 참석 방문객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회원전은 5월 26일까지 이응노의 집 방문객들을 맞았다.





미술대회 4개 부문으로 치러져 … 영예의 대상 내포초 이수빈 양 영예 차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실에서 수상작 전시회 가져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응노의 집과 홍성미협이 주최 주관한 전국이응노미술대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펼쳐졌다.

대회는 유치부 '이응노 그림 일부 활용해 그리기', 초등부 '이응노 그림 일부 활용해 그리기', 중 · 고등부 '이응노 작품과 기념관 풍경', 성인부(엄마 · 아빠) '대회 참여 자녀 그리기' 등을 주제로 치러졌다.

대회 시상은 당일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대상인 홍성군수상은 초등부 이수빈(내포초 4)과 성인부 이문희 씨가 영예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인 홍성군의회의장상은 유치부 유아인(가람유치원) · 초등부 이현수(내포초 2), 중 · 고등부 김지해(홍성여중 2), 성인부 최미선 씨 등 3명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인 홍성교육지원청장은 유치부 이지아 · 최시영(이상 조양유치원), 초등부 한예은(내포초 3) · 이은빈(홍성초 5), 중 · 고등부 박유진(홍성여중 2), 성인부 지혜림 등 6명이 차지했다. 특선 · 입선 수상자도 당일 현장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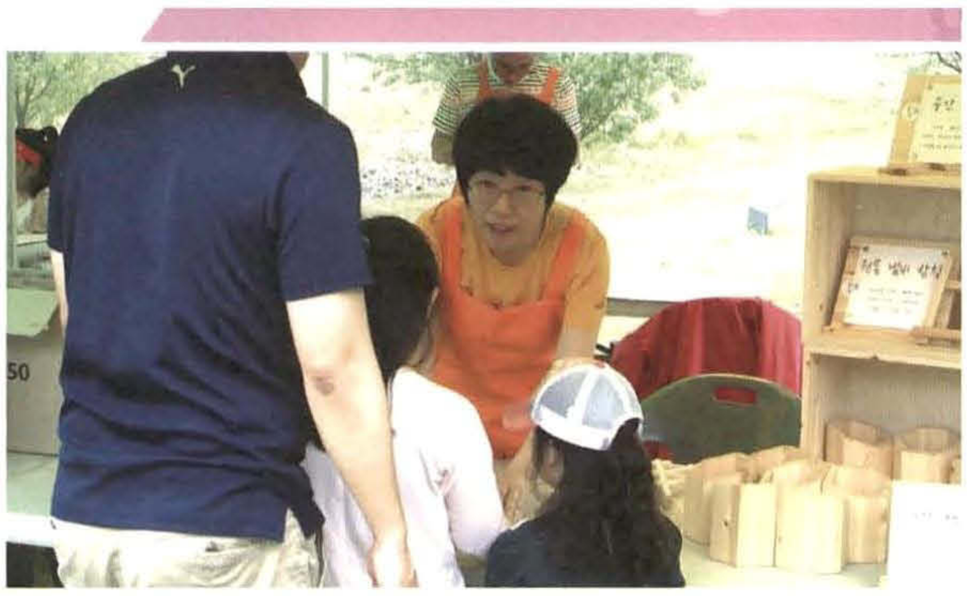
특히 특별상인 이응노마을상은 유치부 임소희(내포유치원), 초등부 김주현(내포초 2) · 최병훈(홍남초 3), 성인부 구희정 · 김명진 · 김민선 · 김연정 · 신연희 · 정은아 · 편미화 씨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마을에서 준비한 농 · 특산물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이날 대회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홍성생태학교 나무 꿈 인형극단의 인형극, 도전! 이응노골든벨, 한국예총 홍성지회의 풍선아트 · 마술쇼, 보물찾기 등 공연 · 오락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한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및 입선, 특별상 등 수상 작품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응노의 집 기획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JBL






전구고양이우노미술대회
이웃노을
먹거리장터
잔치국수 : 3,000원
떡볶이 (1인분) : 2,000원
오뎅 : 500원
국수
3000
떡볶이
2000
어묵
500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Ⅸ. 이응노마을 향후 발전 위한 연구

1. 마을 자치공동체 만들기
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특집 / 마을 만들기

1. 마을 자치공동체 만들기

"마을 재생은 곧 마을의 원래 모습 되찾아 가자는 것"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NGO학회 상임이사)

마을은 '가장 작은 자치단위' 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과 학습이 일어나는 민주주의 현장이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마을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민주주의 학교이다. 마을단위 자치역량 없이 읍 · 면 · 동 단위 자치체自治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나아가서 국가적 단위에서 거버넌스(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마을은 '시장경쟁에 대한 대안 생활체계' 이다. 마을주민들은 공동의 대응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고 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경제활동 공간, 혹은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 협력과 협동을 통해 개인들이 가진 재능과 자원을 공유한다면, 마을이 시장을 넘어서는 출구가 될 수 있다. 마을은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한 대안 생활체계이며 대안 경제활동 공간이다.

마을 자치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함께 사는 이웃 공동체(다양한 주민 결사체의 복원, 이웃에 대한 좋은 감정–신뢰, 배려, 상호호혜주의, 상호협력과 부조 정신 등)의 복원이다.

둘째, 주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치역량(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합의와 협력, 마을조직과 규약의 체계화,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마을회의)의 확보이다.

셋째, 생활 환경문제(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마을 주변 환경의 보호와 관리, 마을 공동생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다.

넷째, 협력과 협동(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노력, 일터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이다.

다섯째, 마을 문화적 정체성(마을역사의 기록 및 스토리텔링, 마을 전통문화의 복원 및 계승, 마을 자연자원 유산 찾기 등) 회복이다.

여섯째, 공익과 개인이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공성 회복(육아, 교육 등 개인이익과 공적이익의 균형감 회복, 개인의 사회적 책임 제고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일곱째, 평생학습(평생학습 기회제공—취미생활, 인문학 등, 학습을 통한 마을의 변화 유도, 학습을 통한 경제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마을의 변화이다.

마을 자치공동체 사업의 내용은?

첫째, 마을에 대한 조사 및 학습
둘째, 주민 자치역량 평가에 기초한 사업 발굴 및 제안
셋째, 소규모 마을과제를 통한 협력, 민주주의, 상호이해의 훈련
넷째, 공동의 마을 사업의 실행
다섯째, 협동의 경제 프로그램
여섯째, 로컬 푸드 산업화 전략 구상
일곱째, 마을 문화정체성 찾기 사업

마을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의 원칙은?

첫째, 주민 자치역량 강화 우선의 원칙
둘째, 지속가능성의 관점 중시 원칙
셋째, 리더십의 형성 우선주의의 원칙
넷째, 사업적 성과를 통한 실질적 주민혜택 원칙
다섯째, 거버넌스의 원칙
여섯째, 단계적 접근 방식의 원칙
일곱째, 주민수요 중심주의의 원칙
여덟째, 지속적인 혁신과 학습의 원칙

마을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의 방식은?

첫째, 마을을 알기 위해 조사 · 학습을 우선시 한다.
둘째, 마을 만들기 핵심 리더십을 형성한다.
셋째,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형성 등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한다.
넷째, 내부동기의 원칙 준수하면서, 개별 마을에 맞는 맞춤식 사업을 발굴한다.
다섯째, 사업의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시 · 군—읍 · 면 · 동—마을단위에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한다.

마을 자치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마을은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이고 휴식공간' 이다. 마을의 문화적 유산과 자연유산을 복원하여 자신들의 스토리를 갖게 함으로서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한다.

마을이 떠나야할 비루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박물관이고 최선의 놀이 공간,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높은 정체성을 가질 때 마을은 새롭게 탄생한다.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복원 운동' 이다. 마을은 주민들의 일터 · 쉼터 · 삶터이다. 주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행복을 구현하는 최소한의 공공단위이다.

주민들의 행복은 이웃과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으로부터 온다. 함께하는 이웃, 우정이 가득한 이웃, 서로 돕는 이웃이 되는 공동체 운동이 마을 만들기이다.

공동체의 복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결핍된 자본인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규범, 상호호혜주의, 배려 등)을 복원시키는 첫걸음이다

마을 만들기는 공익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출발선이다. 마을의 오래된 전통 속에는 개인과 마을 간에 균형이 존재했다. 따라서 한국의 마을은 인간 상호의존성의 최전방이며, 자발적인 공공운동의 기반이며 시작점이었다.

공익과 개인이익의 균형과 이해가 발생하는 시작점이다. 즉 공공성에 대한 이해, 공익문제에 대한 책임, 공익문제에 대한 참여의 출발점이다. 한국사회의 공화주의를 복원하고 실천하는 시작점이고 최소 실천단위이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이응노마을신문에서는 2016년 12월호(제19호)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향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연재한다.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운영위원회와 홍성생태학교 나무에서는 사업의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섭 책임연구원 등 '사람과 세상' 연구진에게 11월 12일까지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했다.

편집자 주

1. 조직

마을 거버넌스, 공동체 유지 및 공동 문제의식 공유로 조직되어야

자발적 조직이 아닌 사업기획 조직인 현재의 상황 대해 문제 인식해야
능동적 · 독립적 마을 의제 다뤄야 …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등 전환해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들은 자치협의회, 마을발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있어 왔다. 그보다 더 익숙한 조직형태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이름으로도 지금까지 각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이 모든 조직들은 마을의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별도의 조직체계가 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항상 기존에 있었던, 익숙한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기구 또는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사업에 기반하는 농산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의 기본방향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또 한 번의 마을발전 및 개선사업의 큰 흐름이 등장하면서 앞선 내용과 가장 다른 점은 정부 주도형 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에 기초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운영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지원되고 운영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이제 주민들의 의사 결정 기구 또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구의 조직은 그래서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내용을 갖춰야 한다.

- **○ 마을사업을 위한 조직은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판단하며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 **○ 마을사업을 위한 조직은 사업추진과 관련해 요구되는 단계별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기존 마을 내 조직인 이장,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 등과 인적교류 및 현안의 공동대응에 합의할 수 있는 기구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 **○ 단, 새로운 의결 기구로써 의제설정과 개발, 사업의 수행능력에 있어 구별되어야하기 때문에 실무적 조직으로 구**

성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인적구성을 위해 적정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0명 이내 구성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에 있어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의사결정 기구이기에 합의 도출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만장일치제를 수용해 빠른 판단과 결의 보다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거버넌스'를 이응노마을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제안하며, 기존 거버넌스 조직에 몇 가지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이응노마을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와 제언

구 분	내 용	평가와 제언
마을개발 위원회	-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마을 의견 수렴과 결정	- 행정단위와 연계되는 사업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 때문에 존치시켜야 함 - 행정부서와 협의 내용을 마을 공동의제로 개방하고 그 의결권을 거버넌스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거버넌스에 위원회 대리자를 선임하여 참가자로 의결권 행사를 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 사업 및 행사의 실행에 따른 역할 분담 - 마을 친목도모 성격의 유지	- 기존 모임 방식을 유지하면서 친목도모 내용으로 성격을 정립하는 것이 좋음 - 마을 행사와 사업은 거버넌스에 각각 대표를 참가자로 보내고, 의결권을 위임하도록 함
거버넌스	- 프로젝트형 진행 - 프로젝트 내용의 의제 관리 - 성실한 모임과 운영	- 상시적인 모임으로 전환이 필요 -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의제설정 방식으로 능동성을 키워나가야 함 - 마을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사업을 다룰 수 있는 조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표) 이응노마을 주민기구

주민이 자발적 주체로 움직이는 마을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거버넌스Governance'란 주민 ·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되어 개인 · 개체의 확산된 의사결정 기구를 지시한다.

옛날 방식의 거버넌스가 중앙정부에 의해 하향식인 탑다운Top-Dowm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 조종되는 제도와 정책을 지시하는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의사결정의 기구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상향식으로 작동하며, 주민 · 시민이 중심이 된 자발적 주체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의제를 선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의 추진과 운영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어떤 방식의 사업이든 스스로 감당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중심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자율 조종Self-Steering'이 있기를 요구한다.

현재 역할과 업무를 중심으로 한 마을 '거버넌스' 에 대한 평가는?

거버넌스는 민주적 절차와 관련된 투입 측면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관련된 산출 측면 모두에 초점을 두고 조직하고 운영해야만 한다.

현재 마을의 거버넌스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거버넌스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 기획 · 조직된 거버넌스이다.

- ○ **원론적인 거버넌스의 조직 구성원리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 ○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운영되는가?**
- ○ **마을의 공동과제가 거버넌스 의제로 투입되고 있는가?**

위의 세 가지 물음에 답해 본다면, 조직구성의 측면에서 마을의 거버넌스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라는 조직 자체가 주민 대다수의 자발적 동기에서부터 추진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의 거버넌스가 가진 의미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의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자발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마을의 중요의제들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실행하려면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거버넌스 조직 구성원들 한명 한명에게 분명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주민대표를 거버넌스의 의장으로 삼아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 · 행정 ·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일이다.

운영절차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면, 현재 마을의 거버넌스는 마을사업을 주관하는 전문가 단체에 의해 의제가 주어지고 거버넌스 조직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들이 토의를 통해 의제를 결정, 확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거버넌스 개념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거버넌스의 의제에 관한 것이다.

먼저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본다면, 현재 마을의 거버넌스가 다루는 의제들은 마을의 공동과제가 맞다. 하지만 다루는 의제의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 비중은 의제결정 과정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비록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조직에서 모든 과정을 주민주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를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주민이 거버넌스 조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의제설정–의제결정–의제실행' 의 모든 단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마을 거버넌스와 기존의 다른 주민기구의 병치 방안

기존 의사결정 기구는 마을마다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마을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과 마을발전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다른 의결기구와 함께 거버넌스가 존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제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서 고유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가 마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조건이다.

마을 거버넌스의 독립적 존치 방안

마을의 거버넌스가 독립적으로 존치하려면 거버넌스 조직 스스로 능동적으로 마을의 의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는 토론과정을 거치며 공식화되어야 한다. 의제를 공식화하는 토론의 과정에서 거버넌스 및 주민들은 공식적인 의제에 대한 실무적 차원, 행동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정내용에 대해 만장일치제를 통해 의결하도록 한다. 또 이렇게 절차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단계별로 구체적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거버넌스 내부에 실무자를 두도록 하고 단계별 진행 과정을 거버넌스 모두가 공유하도록 한다.

마을 거버넌스를 다른 행동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

거버넌스는 향후 주민들의 합의 또는 공동사업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 이나 '사회적 기업' 으로 특화되거나 전환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 때 조직 변환의 양식은 크게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과 비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개별조합의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형태로 특정 사업을 위한 주민조직이 구성될 경우에도 마을 거버넌스를 별도로 존치시켜 독립적인 의사기구로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수행할 마을의 주요 현안(생활, 문화, 복지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의제화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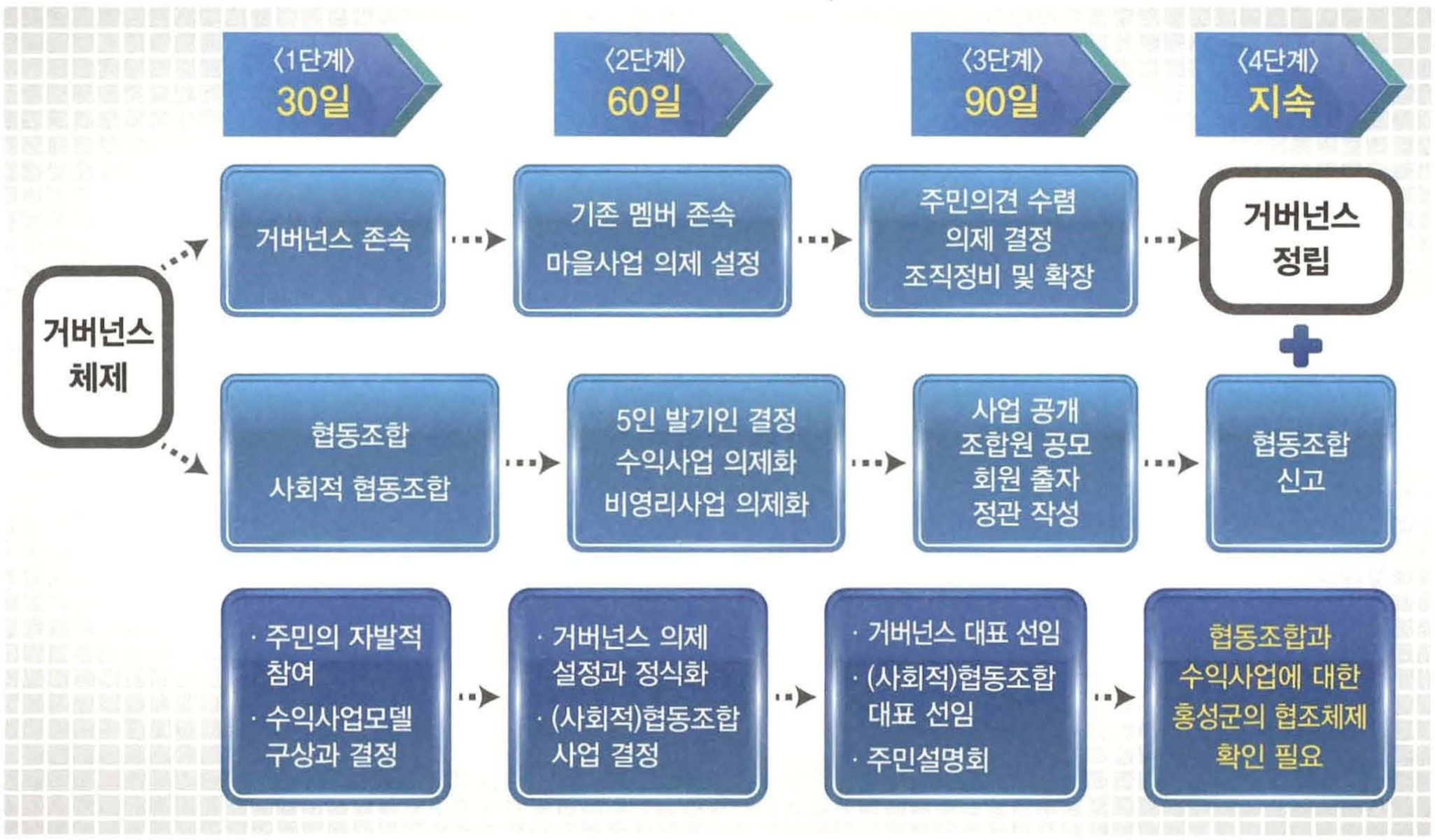


그림) 거버넌스의 협동조합으로의 이행

2. 교육

이응노 예술마을 만들기 … 작은 도서관 적극 활용, 주민 스스로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해 수익모델 창출해야

주민 전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의제 발굴 및 확정 과정 교육
주민 교양강화 프로그램 … '문제 설정' 능력 배양, 다양한 사례 공부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 … 실무적 접근 가능한 능력 배양, 분석능력을 키워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주민 역량강화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의 목표를 갖는다. 이 경우 '자발적 행동' 이란 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구체적인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또 구체적인 실행단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민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이응노마을의 현안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주민 스스로 단계별로 정리해야 한다.**
- **마을 현안 중 마을사업, 행사, 생활편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주민들이 구분해야 한다.**
- **풍부한 사례들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함께 분석하고, 마을의 유사사례 또는 지향적 사례들에 대한 공통 감각을 키워 문제를 주민들이 정리해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 내용과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받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구분	역량강화 교육(실무형)	교양강화 교육(기초/보완용)
현안정리	- 설문과 인터뷰, 마인드 맵핑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는 교육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 모든 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 조사 → 워크숍 → 분과별구성과 원탁회의 → 마을계획 작성 → 공동 검토 → 실천안 집중검토	- 어떻게 자신의 요구-욕구를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 왜 우리는 마을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가? - 능동적 행동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가? - 토론과 회의를 통해 '나'와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문제설정	- 개별적 의견을 모아 마을단위의 문제로 집중하는 과정을 교육내용으로 다룬다. - 사업형태로 진행할지, 행사내용으로 다루어야 할지 등을 가려내고 생활편리를 위해 무엇이 더 시급한 내용인지 선택하는 전 과정이 교육대상이 된다. * 의견수렴 → 문제선별 → 시급성 타진과 원탁회의 → 마을계획 작성 → 공동검토 → 실행안 확정	
사례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례를 통해 우리 마을의 문제 및 의제와 연계성이 있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상지를 선별한다. * 외부강사의 사례 내용 교육 → 주민들의 마을 문제 연계내용 선별 → 유사 사례 대상지에 대한 세부 내용 접근 또는 선진지 견학 대상지로 확정 → 실행안 확정	-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의제 또는 현안에 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받는다. - 사례 분석 시 주민들의 토론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토론에 부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 견학의 필요 시 주민들의 공통관심사와 연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실무적 접근	-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문서작성 방법을 숙지한다. - 기획 전 과정 및 부문별 계획서 작성을 별도의 교육을 통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주민리더 양성교육으로 심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해결한다.	- 다양한 기획서를 윤독하고 계획서의 특성을 주민리더 양성교육 대상자에게 국한시켜 집중하도록 한다.

표)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이응노마을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제언

첫째, 사전단계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주민요구Need를 조사 · 확인 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성은,

1. 주민 전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의제를 발굴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교육한다.
2. 주민 교양강화 프로그램은, 주민들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설정' 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한다.
3.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심화과정은,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적 접근이 가능한 능력을 배양한다.

동시에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의 기본적인 이해를 향상 시킨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은,

1. 교육 프로그램의 부문별 개방을 통해 '이응노마을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가칭) 또는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운동을 통한 생활 이야기의 이해' (가칭)로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홍성군-내포신도시'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수익모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개방형 프로그램은 아래 2,3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외부 전문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강사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대상 강좌는 예술사-사상사-시사문제-농업경제 부문으로 압축하여 실생활에 유익성을 담보한다.) 세부적인 실무를 위해 '철학자의 오두막(가칭)' 제안을 마을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를 제안한다.
3. 개방형 강좌프로그램을 위한 마을 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교육 추진 방식은,

실무형 역량강화 교육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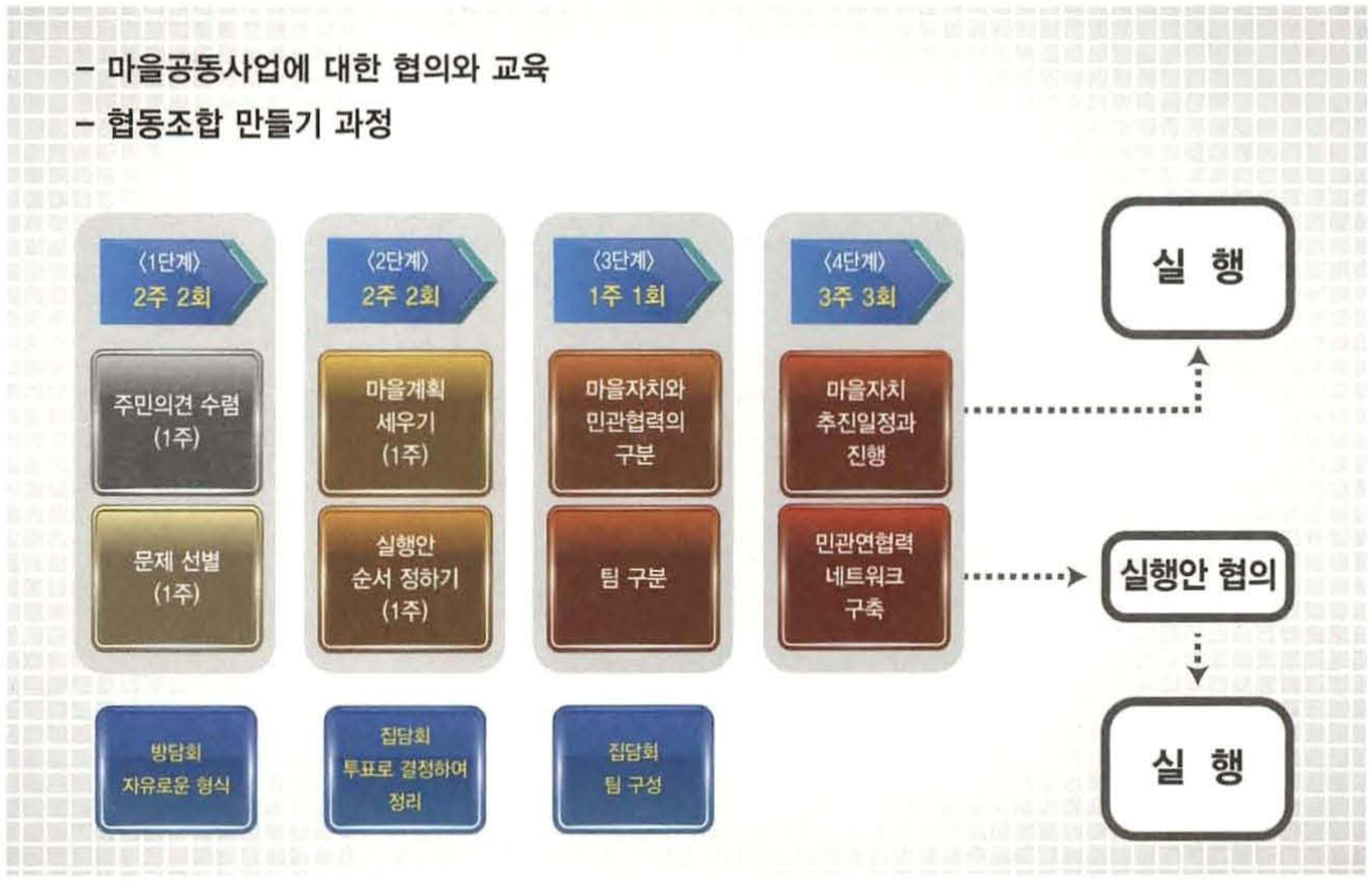


그림) 실무형 역량강화 교육 ①

실무형 역량강화 교육 ②

- 벤치마킹 기법 숙지와 실행준비
- 선진지 견학 대상지 선정과 준비작업
- '우리마을'에 필요한 사례연구

〈1단계〉 4주 4회	〈2단계〉 2주 2회	〈3단계〉 2주 2회	실행 단계
국내사례 설명 국외사례 설명	벤치마킹 대상지 찾기 (1주)	벤치마킹 목록작성	계획서 작성
슬라이드 쇼 방식 강사 강의	견학 대상지 찾기 (1주)	견학지 사전조사와 준비	사전조사 (교통, 숙박 등)
	토론과 투표로 결정		선행학습 (예정지 자료)
			세부 추진일정 계획

그림) 실무형 역량강화 교육 ②

3. 공간

〈기존 공간의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이응노마을, '고암 이응노 화백' 태어난 상징 거점 공간 구성 필요

이응노마을은 문화 · 예술적 기반 위에 새로운 형식 통해 마을다움을 가져야 할 필요 있어

새로운 공간 – '거점 만들기' 관점에서 이응노마을의 공간 이해

'거점' 이 이응노마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마을의 문화 · 예술적 통합 이뤄내야

이응노마을은 현재 3개 마을 단위가 산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응노마을이라는 명칭은 주민들의 생활 거점으로서 자연부락–마을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지만, 이곳은 한국 근 · 현대 회화사에 기억될 만한 고암 이응노의 출생지라는 한국문화예술사에서 중요한 상징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 상징적 이름으로부터 이제 이곳은 이응노의 집과 연계된 마을의 정체성을 작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을은 새로운 형식을 통해 마을의 마을다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식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선택될 수 있으며 마을은 여전히 생활의 거점이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한국 농촌의 경제 시스템 위에서 주민 생활의 기반을 가진다.

하지만 이제 이응노마을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 예술적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마을은 새로운 거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 또한 정립되어가는 지난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형식에 도전은 새로움을 찾아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응노마을은 현재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마을 세 곳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한 마을이 된다. 생활기반으로서 주택은 개별적 삶의 거주지이자 가장 작은 거주의 형태다. 그러므로 이 거주형태를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이응노마을의 문화 · 예술적 통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거점을 통해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 연계시키고, 하나의 마을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독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거점' 이란 비선형적 연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 마을을 잇는 문화적 동선은 비선형적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동선 또한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런 특성은 중간에 어떤 거점을 통해서만 연결점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거점' 은 주민들의 쉼터와 일터 그리고 동선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거점' 은 향후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방문객–관광객–내방객)에게 마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곳' 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거점 구성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이 이응노마을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생태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거점' 구성의 제안

구분	주요기능	거버넌스의 의제
주민 쉼터 (신설)	· 일터에서 접근성이 높은 주민들의 쉼터. · 마을 곳곳의 큰 나무를 쉼터로 설정. · 나무 주변에 최소한의 쉼터 기능에 맞춤형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쉼터의 위치에 대한 의견도출과 땅 이용권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 도출. - 쉼터의 나무에 이름지어주기. -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요구를 정리하고 확정하기. -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작업.
주민 간이매점 (신설)	·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 가능한 간이매점의 실행	- 주민들의 요구 사항 접수와 의제설정 및 결과도출. - 간이매점의 실행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과 관(허가문제)의 정책 지원에 대한 협의. - 위치선정 문제 협의. - 공동구매-공동판매에 따른 사업조직의 구성(협동조합의 추진)과 마을조례 추진. **- 판매용품의 목록작성과 협의.** **- 마을 특작물-특산품 판매공간.** - 책임자, 책임조직의 결성.
숙박시설 (신설)	· 민박시설(펜션/게스트하우스)	- 개별사업자로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마을의 공동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방안 모색. - 수익구조에서 이윤의 배분문제 협의. - 위치(현 자가주택의 빈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 필요. - 허가문제에 대한 마을단위의 지원.
공동작업실 (신설)	· 공간의 목적 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 주민들의 공통된 공간사용 목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확물 건조-대형작업-공동작업 시 필요한 실내공간에 대한 의견을 모음. - 현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 임대방식, 공동구입방식, 동의 받은 특정 조건에서 사용 방안 등을 의제로 선정하여 결정함.
철학자의 오두막 (신설)	· 문서작업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독립 공간(인문학 레지던시)	- 마을사업 및 거버넌스 의제결정과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실무 협력관계. - 공가를 활용한 인문학 연구공간 제공. : 석·박사 논문 집중 집필실로 사용가능(공간 사용자를 강좌 강사로 활용).
마을지도 (신설)	· 다양한 마을 정보 안내 · 위치정보 제공.	- 안내판의 기능과 내용의 정리. - 설치 방식과 위치문제(버스정류장 벽면 이용 가능성). - 디자인과 제작문제-전문가 위탁문제.

구분	주요기능	거버넌스의 의제
마을회관 (개선)	외부 : 시인성문제	- 개선의 여부 결정. - 주민참여형 공공예술적 접근 심의. - 레지던시작가에게 과제로 해결방안.
	내부 : 편의성문제	- 주민들의 의견 수렴. - 마을단위 사용방향과 사용빈도수 확인. - 계절별 사용편의성 확인. - 외부인 숙박시설로 겸용방안. - 설비의 노후화 및 교체방안.
마을도서관 (개선)	외부 : 계단 난간	- 고령자를 위한 편의설비 적용(군과 협의 후 실행). - 출입문의 편리성 문제 해결.
	내부 : 활용성	- 도서관 기능에 대한 주민 요구 확인. - 장서의 성격에 대한 협의. : 공예, 마을만들기, 문화·예술 관련 도서와 잡지 제안. - 복합기능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준비. - 가구의 재배치와 안락한 가구배치.
도예공방 (개선)	공방 활용성	- 정례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 정기적인 프로그램운영과 공간재배치. - 작품 전시 활용 방안.
마을신문사 (개선)	인터넷 카페와 쉼터	- 와이파이-복사기-프린터-팩스(fax) 사용편의성 제고와 기기 구입문제. - 주민편의 시설로서 쉼터이용.
공용화장실 (개선)	환경과 시설 개선	- 현 마을회관 뒷편 야외 화장실 대상 환경개선과 관리문제. - 계절별 이용편이성에 따른 설비보강.
마을이정표 (개선)	마을 위치정보 안내	-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 디자인과 제작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 다양한 사례분석의 단발성 강좌개설.
마을주차장 (신설)	외부 차량접근 용이성	- 주민들의 필요성과 실효성 문제. - 위치문제, 토지문제, 규모문제 등을 거버넌스 의제로 설정. -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 군郡과 협의

표) 거점구성 제안

〈마을의 경관 개선과 미화사업에 대한 이해〉

이응노마을, 고즈넉한 농촌마을 풍경과 대숲 조성, 마을 입구 옹벽 등 거점별 미화美化 작업 필요

이응노마을 경관 이미지 만들기 위한 접근방식과 기본 아이디어

마을의 경관은 외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연경관은 천혜의 조건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조성된 이미지이다. 경관 조성에 대한 필요는 외부에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마을의 환경이 주변 환경으로서 '삶-생활환경' 과 함께 주변 경관으로서 '자연 이미지 환경' 으로 이해될 때, 두 가지 환경 모두 주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미화美化 작업의 결과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응노마을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곳-마을로 인식될 수 있기에 더욱 이러한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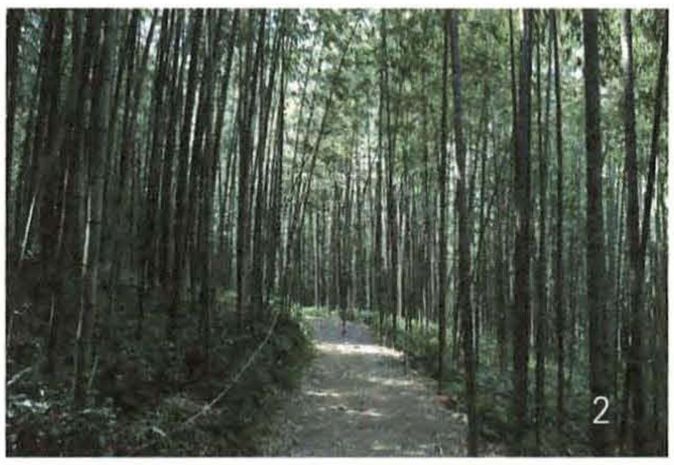
현재 이응노마을은 마을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경관이 없다. 물론 자연스러운 산-언덕과 들-논이 만들어주는 아늑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마을이다. 하지만 고유한 이미지로 대외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행이 기존 자연환경에서 경관조성에 대한 몇 가지 동기부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연지蓮池이다. 그러나 연지는 지금의 위치로 인해 이응노의 집의 정원 같은 인상을 먼저 주고 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이응노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에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작은 규모의 대竹숲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숲을 이응노마을 경관 이미지의 중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대나무가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다.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일차 조성 이후 대나무의 생장에 큰 관리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생장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조성하고자 하는 숲의 규모가 단기간 내에 모양새를 잡을 것이다.

또한 대숲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적 교감과 선호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 바대로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대숲을 이동 동선에 입구부에 집중하여 마을 전체를 뒤덮는 인상을 피하고 시인성을 통해 거점을 연결하고 각 부문별 시설-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하는 사인물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대나무의 부산물들을 마을 미화작업 혹은 소득사업을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을의 시각적 정체성(Visual Identity)을 만들기









1. 이응노의 집 대숲
2. 예시 대나무 숲길(담양)
3. 이응노마을 둑방길
4. 예시 천변 대나무 숲길(담양)
5. 이응노마을 언덕
6. 예시 대나무 숲(익산)
7. 예시 대나무 담장
8. 예시 대나무 담장
9. 예시 대나무 담장
10. 예시 대나무 담장

야외 휴게 공간의 제공과 미화작업의 연결

동선 상 입 · 출입부와 적합한 지점에 대숲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시각적 인상을 만든다.

거점별 주변 공간에 특용 식물–다양한 허브종류를 식재하고 가꾸어 구별된 이미지를 만든다. 이러한 친환경적 요소를 통해 마을의 고유한 인상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추천하는 특용식물은 아래의 목록을 참고)

식물 구분	식물의 생장 특성	활용-가공 가능성
박 하	- 다년생 식물. - 습기있는 땅에서 잘자람. - 여름에 보라색 꽃이 핌. - 뿌리에서 제초제 성분 분비.	- 둑방길과 농수로 주변. - 여름에 보라색 꽃이 핌. - 차와 오일로 이용가능.
구절초	- 다년생 식물. - 야생에서 잘 자람. - 9~10월에 꽃이 핌.	- 둑방길과 농수로 주변. - 연지(蓮池) 주변. - 가을철 관상용 식물. - 약재로도 이용가능.
배초향 (방아풀)	- 다년생 식물. - 야생에서 잘자람. - 7~9월에 꽃이 핌.	- 탐방로 주변. - 약재로 이용가능. - 향신료로 이용가능.

표) 식재 식물

야외 휴게 공간은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일터와 연계한 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휴게공간의 최소한으로서 기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가령 주민들이 상하수도 시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거점에 마련될 야외 휴게 공간에는 필히 수변공간 기능을 디자인하여 접목해야 한다. 또한 휴식의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야외 휴게 공간은 이차적으로 방문객–내방객–관광객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화작업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의 역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당연히 공간 디자인에 대한 풍부한 사례 연구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례 연구의 주축은 마을주민들이어야 한다. 마을주민들이 선택한 사례를 통해 전문가와 협업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미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화작업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응노마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① 친환경적 요건을 갖추면서 미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료의 선택, 가공방식에서도 친환경 요소가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큰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풍부한 아이디어로 마을 미화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호기심과 관심, 동의와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의 참여방식으로 의외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NS 이용자들의 개입 방식을 연구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마을을 미화해나가야 한다.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마을 홍보가 바로 이들 유저User들의 온라인상의 교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새롭게 이해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④ 마을 곳곳에 거점을 중심으로 계절별 꽃밭을 가꾼다. 그리고 꽃밭과 꽃을 계절별 축제의 콘텐츠로 활용한다. : 여름–봉숭아 물들이기, 가을 : 들국화차 만들기 등.

마을 진입부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제안



그림) 마을 옹벽

친환경 접근방식으로 환경미화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응노마을에서 친환경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방식의 접근이다.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식물을 이용한 미화작업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방법을 통해 마을 이미지를 특화시키도록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옹벽과 관련되어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야외용 벤치나 평상의 제작에 이 방식을 이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 마을에 레지던시 작가로 초대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이런 방식을 구현하는 작품을 과제로 제안할 것을 추천한다.

벽화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벽화가 갖는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마을과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우수한 벽화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응노마을에서는 벽화 방식의 미화작업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덩굴식물을 이용하고, 조경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시각적 특징을 만들어 낸다.

주민들이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마을에 맞춤형 덩굴식물을 이용한 미화작업의 기본 스케치를 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주민주도형으로 미화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림) 예시 덩굴식물 벽면 식재①



그림) 예시 덩굴식물 벽면 식재②

농촌마을의 기존 시설과 공간을 이용한 전시–문화행사에 대한 제안

1. 공간 활용에 대한 제안

구 분	전시-문화행사 시 활용방안	
	현실적 쓰임새	쓰임새의 극대화 방향
마을회관	- 손님 접대 공간 - 내·외부 전시벽면 이용	- 마을과 행사 안내소 역할 - 쉼터, 접대 공간으로 제공 - 간이 마을 식당으로 활용
마을도서관	- 회의 공간 - 영상전시, 판매전시 등	- 카페와 강좌를 결합한 프로그램 - 영상전시, 영화상영 공간 - 거버넌스 활동 자료 전시 공간 - 판매공간(기념품, 특산품, 기타)
도예공방	- 체험 공간 - 전시 공간 - 판매 공간	
공예작가 거주공간	- 거주 작가 작업 공간	- 소수인원의 교육강좌 및 체험 공간 - 전시공간(오픈 하우스) - 견학프로그램 활용
마을신문사	- 신문사 기능 - 마을주민 쉼터	- 웹/인터넷방송 체험공간 - 신문자료 전시 공간
마을 골목길	없음	- 조각, 입체작품 전시 공간 - 벽을 이용한 걸개그림 전시 공간 * 생활사박물관 기능으로 활용
논/밭두렁	없음	- 탐방로 조성 및 개방 - 야외 조각 공간
공가	없음	- 설치작가들의 전시 공간 - 단발성 퍼포먼스 공간

표) 거점을 활용한 전시–문화예술 행사

2. 기획 가능한 내용에 대한 제안

구 분	기획내용	준비와 협력관계
야외조각전	생활용품의 활용과 리싸이클링을 기본적인 소재로 삼아 중소형 작품을 마을 곳곳에 전시함.	- 지역 예술가와 공예가와 협업관계를 만들고 거버넌스에 참여시켜 진행함 - 지역 중학교 미술교사와 접촉 후 수업 내용을 전시물로 전환시킴.
공예전시	거주공예작가 중심의 작품을 공방과 도서관에서 전시함.	- 공예작가(거주자)의 작품을 오픈스튜디오 방식으로 전시함. -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공예체험교실을 전시 기간 내 진행함.
조경+환경미화전	산책로와 거점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식재하고 가꾼 화초를 전시대상으로 만듦. (* 국화 전시 참고할 것)	- 계절별 행사로 진행할 수 있음. (여름 봉선화를 주제로 마을 곳곳에 가득 심어 놓고 봉선화축제를 2박3일 개최함 / 가을에 코스모스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산책 프로그램	밭두렁, 논두렁을 산책로로 정비하고 기존 도로와 연계한 산책 프로그램을 제안함.	- 산책 프로그램을 위해서 야외조각전이 함께 병행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주민들이 가꾼 산책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함. - "거점"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임.
마을 간이식당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메뉴를 2가지를 개발하여 마을행사 기간 내 부녀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운영함	- 현 마을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과 식기류를 가지고 운영함. - 2가지 메뉴(야채죽, 된장비빔밥)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
영상/영화상영회	독립영화제를 개최함. 마을도서관에서 20여명 내외가 볼 수 있도록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함. 1회 20여 편의 작품을 상영하도록 하고 3박4일 기간 운영할 것.	- 독립영화협의회, 독립영화감독협의회 등과 사전에 협조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영화제를 마을단위에서 진행함. (*우수한 영화들이 많으므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밍할 것) -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필히 준비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
도예-살림장만전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릇을 참가자들이 정하고 직접 만들어 가져가는 프로그램	- 현 도예공방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켜 나갈 것. - 성형부터 굽는 과정 전체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 -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할 것. - 책임 도예가를 강사풀로 정리하고 복수의 강사를 두고 진행할 것.

표) 전시-문화예술 행사 기획 제안

*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문에 국한시켜 제안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기획방식과 섭외방식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교육에서 실무적으로 다룹니다.
*** 행사의 대외 홍보 대상은 1차적으로 내포신도시, 홍성읍 주민들로 제한한다.

4. 콘텐츠

1) 수익사업의 모델 계발啓發

이응노마을, '사람 그리고 생각의 교류 이루어지는 곳' 지향해야

마을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 모여 '항상 새로운 이야기꺼리' 만들어져야
마을 거버넌스서 일의 '선택과 집중' 결정 통해 주민 동의와 참여로 실천
마을체류 원하는 외지방문객에게 '머물고 놀고 함께 일할 자리' 마련해야

이응노마을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해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

구 분	내용과 기본형태	거버넌스의 의제
펜션사업	- 주민개별사업+공방연계 - 이용객들이 마을공방에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마지막 날에 자기가 만든 완성품을 가져 갈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 참여 시 이용객들이 마을 안에서 체류하게 된다.	- 펜션 사업자(주민)와 공방의 프로그램 공유와 이윤의 배분 문제를 조정 - 펜션의 디자인, 외관 등에 마을 전체 이미지를 고려한 자문과 조언
공방사업	- 마을공동사업으로 진행 - 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진행 - 공예공방/ 도예공방/ 목공방의 활용 - 펜션과 연계/ 공방의 독립 프로그램의 구분	- 수익 사업구조로 전환.(주체문제, 사업 투자분 대비 수익 분배문제) - 운영주체의 사업단위화 문제 - 목공(주민주체)의 예외적 사례에 대 한 배려문제 - 공방의 독립적 프로그램 운영 건
강좌교육 사업	- 마을공동사업으로 진행 - 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진행 - 〈철학자의 오두막〉(가칭)과 협력해 주민대상 강좌/ 일반 개방형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노인으로 구분된 연령층의 맞춤 인문학 강의를 실행해야 한다)	- 마을 인문학 레지던시-〈철학자의 오두막〉에 필요한 공가 이용에 대한 건. - 협력형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정기적인 거버넌스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계절별 단기 학교운영에 대한 참가자 이용서비스 문제
휴게사업	- 마을공동사업 (*현 이응노마을에서는 간단한 편의제공 시설이 없다. 자판기 사업은 마을이 공동의제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 자판기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문제 - 자판기의 종류와 품목 결정 등 - 거점과 관련해 자리 확정, 의견조율, 관리 문제 등

구 분	내용과 기본형태	거버넌스의 의제
공간임대 사업	- 마을공동사업 - 우선 마을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활용도가 있는 넓고 큰 실내공간을 만든다. 주민들이 순번과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차례에 공간을 무료로 활용한다. (*각 종 건조작업 공간사용. 김장 작업. 기존 공간이 협소해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 활용 함)	- 주민들의 공간 사용 시 필요한 작업의 적절성을 판단함 - 시간표를 작성하고 관리함 -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 시 마을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단함 (예 : 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공동매점 사업	- 마을공동 사업으로 진행 - 공동구매와 판매하는 매점의 운영 - 주민들의 생필품 중 시의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으로 구매·판매함	- 거버넌스의 의견취합을 통해 '협동조합' 사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의제 로 설정할 수 있음 - 주막은 아래의 문제점을 선해결 후 실행할 것 (1)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 (2) 마을공동사업체로 운영할 것인가? (3) 주막 운영시간의 특성 상 누가 책임을 지고, 주방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 매점의 야외공간을 활용한 주막기능 조성을 제안(평상, 테이블 구비)
마을 주막	- 마을 구성원이 어울리며 유대감을 형성할 공간	
마을식당 사업	- 마을공동 사업으로 진행 - 2~3가지의 가정식 음식으로 메뉴개발 - 평상시 주민들을 포함하여 공동체 식사공간으로 적극 활용	
떡집 사업	- 마을공동 사업으로 진행 - 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가래떡으로 가공하는 단순한 작업을 함 - 홍성읍, 내포신도시 가정 대상, 분식집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함	- 마을 공용 떡집 신축 혹은 리모델링 문제 - 사업 참여자 문제 - 공동투자에 관한 건
빵집 사업	- 주민 편의 - 음료와 동반한 판매 - 최소한의 품목 판매	- 빵가게 조성 시 고려할 사항 (1) 마을주민들 중 제빵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2) 차별화된 제빵 기술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3) 마을 안에서 빵 소비가 일정한가? - 목공 공방과 같은 사례로 제빵에 대한 관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이주하여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만 수익사업 모델로 빵가게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蓮 관련 사업	- 연蓮 관련 사업의 내실화·다양화 실행	- 연지(蓮池) 확대 : 토지임대방식, 관리책임자의 선정 - 관련 가공품의 다양화 방안 : 인테리어 소품제작, 전문공방 운영, 마을매장 운영, 공예제품을 이용한 포장재 개발. - 협동조합 선행 사업으로 추진
무인판매 사업	- 참여 희망자 대상 개별사업으로 진행 - 인터넷판매망과 현장무인판매망을 연동시켜 활용을 극대화함 - 마을 특산물을 판매함	- 인터넷-택배 시스템 구축 - 무인판매대 관리 - 연잎을 활용한 특산품 목록화 - 2017년 연잎활용 특산품 개발 집중

표) 이응노마을 사업 제안

마을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일본의 작은 산골마을 카미야마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 시〉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인들의 생각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는 일정기간 아티스트를 마을에 살게 해서 체류기간 동안 예술작품을 남겨달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50명, 18개국의 아티스트가 카미야마에 왔습니다.

이 레지던시는 초대된 예술가들이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제작 활동에 몰두하지만, 카미야마는 파티 형식을 통하거나 강의방식, 놀이방식 등을 통해 아이들, 주민들과의 교류를 꼭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카미야마의 경우 아티스트에게 아버지역할, 엄마역할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서 작품 만들기나 마을 안에서의 일상생활을 돕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재료로 나무와 돌이 필요하면 아버지역할을 맡은 주민들이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1997년 토쿠시마현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토쿠시마 국제문화마을구상' 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카미야마를 중심으로 국제 예술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 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예술마을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그린밸리의 주민끼리 하나의 제안을 생각해 현(우리나라의 군청)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 때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왜 레지던스가 좋다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벤트나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재미있는 사람이 적당히 순환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물건을 기반으로 한 구조는 언젠가 쇠퇴하지만, 사람의 순환을 기반으로 하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레지던스는 예술가들이 정기적으로 저희 마을을 방문하는 구조입니다. 그들과 카미야마 사람들이 교류하는 걸로 뭔가 혁신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워크 인 레지던시〉와 〈위성 사무실〉 같은 프로그램도 본질은 같습니다. 주민들과 다른 일에 종사하는, 마을입장에서는 조금 이질적인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들면 그런 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거나 혁신을 낳는 것이 가능하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 이 이응노마을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을 레지던시〉(가칭)의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기본적인 지향성이어야 한다.

그런 발상으로부터 마을은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 장소가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실행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아래의

세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첫째, 이응노마을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꺼리가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곳–이응노마을에 모여들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의견 중 마을주민들이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천에 옮긴다. 이 때 다양한 사람들은 그 일에 조언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건을 주민들이 갖추어 놓는다.

셋째, 이를 위해 주민들은 이응노마을에 와서 잠시라도 체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머물 자리–놀자리–함께 일할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2 · 3) 조직개발 및 투–트랙(Two–Track) 운영방식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주민 새로운 수익사업 공동 과제로 설정 실천

이응노의 집,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따른 기획전문직 운영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주민 중심 세분화한 역할 수행 필요

조직구분	조직의 기본구성	역 할	역할의 주요 내용	적정수
이응노의 집	행정 전문직	운영	- 군청과 업무협력, 분장 책임	3~4명
	기획전문직 (학예직)	기획 및 운영	- 내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수장 자료 연구와 보존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최소 2명
			- 교육 분야 - 이전 한옥 프로그램 운영관리 - 축사 컨테이너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관리	최소 2명
	시설관리자	관리	- 업무분장과 책임	3명
	기타 역할	보조	- 제한된 업무 보조	-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행정	군청과 소통	- 거버넌스 의제별 군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의견 교환	1명(이장)
	기획운영	의제개발	- 현안취재 및 의제개발 - 회의주제와 진행	2~3명
	주민홍보	주민소통	- 주민의견 취합, 설득, 의견교환	1명
	대외홍보	일반홍보	- 결정내용 외부 홍보 -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	2~3명
	기록	문서수발	- 각종 문서작업 및 수발受發 - 회의 기록과 기록물 관리	최소 2명

표) 조직구성 개요

첫째, 이응노의 집(기념관-이전 한옥-축사 컨테이너 아뜰리에 레지던시-경관활용)

이응노의 집은 현 조직을 기반으로 기획부문의 학예직(전문기획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현 기념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부문과 연구-보존 책임이 분리돼야 한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이전 한옥' 의 이용과 '축사 컨테이너 아뜰리에 레지던시' (가칭)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각 부문별 전문직이 채용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각각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기념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조직구성 개요' 에서 보여주듯이 기획 전문직을 최소 4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이응노마을의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순번제로 회의의 장(의장)에 대한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 조직구성 개요' 에서 보듯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세분화된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문서수발' 부분의 역할은 주민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응노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철학자의 오두막〉(가칭)에 레지던시로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역할을 부여하거나 '마을 레지던시' (가칭)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에게 이 역할을 시한부로 제안하고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만장일치제의 원칙적 적용이란 곧 각각의 의제에 대해 거버넌스에 참여자들이 모두 의견을 개진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인식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함께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장일치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공유하는 과정이 다소 길더라도 전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과 최종적 합의라는 방식에서 실천적 추동력을 확실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응노의 집, 전문가 중심의 기획공간 위상 정립 통해 문화예술지구의 다양성 확보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공동 수익증대 위해 다양한 주민 중심의 문화 활동 기획력 실행되어야

관(홍성군) 주도방식의 운영 대상		민(이응노마을 거버넌스) 주도방식의 운영 대상	
공간 구분	공간의 기본적 기능	공간 구분	공간의 기본적 기능
이응노의 집	전시-연구-보존-교육	마을회관	마을 복지시설 * 마을 레지던시 공간의 활용 가능성
이전할 한옥 공간	연구-강좌프로그램-교육	도서관	복합 문화 활동 공간 * 〈철학자의 오두막〉으로 확대 활용 가능성
축사 아뜨리에 레지던시	작가체류-과제해결-작품제작 활동	마을 레지던시 (현 공예공방)	현재 운영 중인 공방 시스템 유지 : 적극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접목
기념관 복원 생가	숙박시설/단기 모임공간으로 활용	마을신문사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인터넷카페 기능 강화 필요
기념관 카페	방문객 편의 시설	도예공방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

표) 투-트랙(Two-Track) 운영방식의 개요

첫째, 이응노의 집 : 관 주도방식

기존 이응노의 집을 중심으로 홍성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간을 우선 구분한다. 이응노의 집 성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파생되는 프로그램과 기능공간은 '표) 투-트랙(Two-Track) 운영방식의 개요' 에서 알 수 있듯, 전문가 중심의 전문적 기획공간이다.

이런 공간의 성격을 통해 홍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은 한국 미술계와 문화계에 '이 공간' 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전문적인 요구에 대응해야하기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응노마을에 이러한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지구 핵심자원으로 다양성을 이미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문화적 조건이 된다.

이응노마을 거버넌스 : 주민 주도방식

이응노마을에는 현재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와 이해를 통해 몇 가지 실험들은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을의 여러 문화적 단위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수익사업 측면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을 의제로 전환시켜 현실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차적 과제로 보인다.

의제정리와 제안 그리고 토론의 상설화가 거버넌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 마을에서 진행된다면, 거버넌스 주도의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마을 거버넌스 운영은,

첫째, 마을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사업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한다.

둘째, 마을 거버넌스를 통해 이응노마을은 기존 홍성군 주도의 전문적 공간의 기능과 차이를 갖는 마을 주민편의에 따른 예술가-예술행위의 레지던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을 레지던시는 수익의 증대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지리적-물리적 공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마을 중심의 문화활동이 내부 기획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른 지역들과 연계 방법을 찾아내 실천하는 활동들이 민民주도 방식으로 운영될 때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해야 한다.

4 · 5) 마을 탐방로 개발 및 경계의 확장

마을 탐방로, 기존 활용공간과 마을주민 생활동선 연계되어야

마을 외관 · 경관 좋은 이미지 만들어 … 대외적인 홍보 통해 방문객 유인효과 거둘 수 있어
마을 곳곳 대숲 많아 … 마을주민들 편의와 이정표 기능 결합한 각종 작품 함께 대숲 조성

이응노마을 탐방로 개발 필요성

마을의 외관 또는 경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해 대외적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탐방로의 제공이 내방객 유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준비단계	조성단계	시범운영단계	관리 단계
· 우선순위 동선 결정	· 거버넌스 조직 결정에 따라 작업 스케줄 작성	· 산책로 유지 및 보수	· 산책로 구간 조경 관리
· 미개척 구간 연결 결정	· 마을 공방을 활용한 필요 작품 확보	· 산책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주민과 방문객의 피드백	· 산책로 구간 시설물 관리
· 시범사업 구간 결정	· 주민이 참여한 정기적인 작업	· 추가 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 주기적인 위험요소 진단
· 가꾸기 방법 결정 (식재, 작품, 경관)	· 안내 기능 준비 (이정표, 지도)		·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시스템 작동

그림) 탐방로 개발 단계

이응노마을 탐방로 기본 노선路線

탐방로는 '거점'을 품어야 하고, 기존 활용공간과 마을주민들의 생활동선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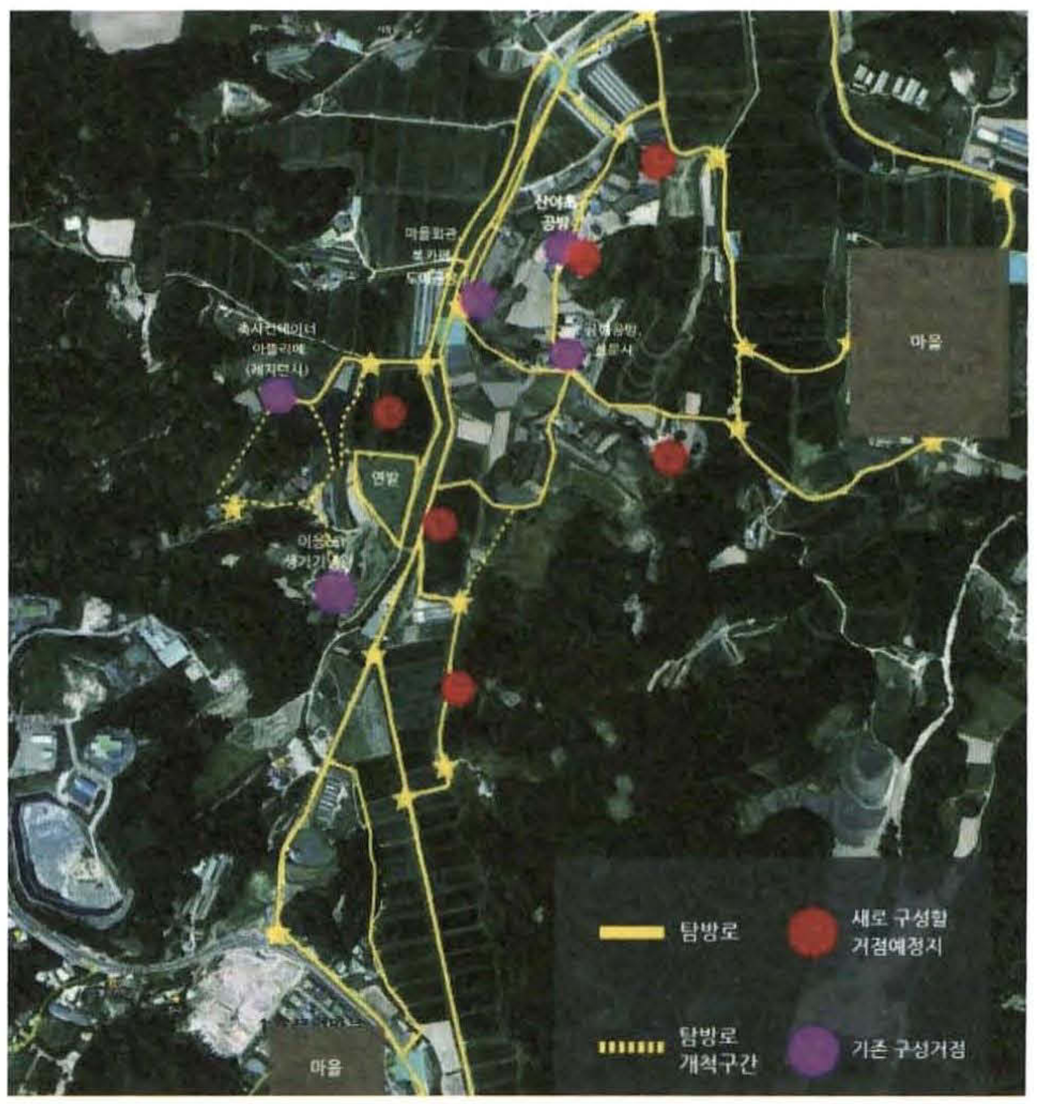


그림) 탐방로 조성

이응노마을 탐방로 경관조성을 위한 제안

1. 수종樹種은 대나무를 제안한다.(현재 마을 곳곳에 자생하고 있고, 이하 이응노의 집에 일부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고 관상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대나무숲 조성을 적극 제안한다.
2. 가능한 인공적인 조작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조성한다.
3. 마을주민들의 편의와 이정표 기능을 결합한 각종 작품들을 주민들이 제작해 동선의 소小거점들을 구성해 나간다.

본 연구는 이응노마을이 현 생활 터전으로서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공간을 구성할 때 주변의 내포신도시와 홍성군의 읍내를 연계하는 동선을 미리 그려보고자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응노마을의 공간은 중심축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연결 동선을 완성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그 방안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응노마을 공간,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의미

1. 이응노마을의 향후 사업 권역을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사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의식해야 한다.
2. 이응노마을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확장된 경계에서 연계점을 제시하고 서로 넘어서기 쉽도록 공간의 공용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응노마을 공간, 문화 · 예술 · 생태적 공간 확장 필요성

1. 이응노마을은 도시화를 지향하는 두 공간 사이에 있음으로 '친환경-리싸이클링' 등의 새로운 생활문화를 생태계적으로 제안하고 완성시켜 복합공간의 중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2. 스팩터클의 경관이나 환경을 내세우지 않고, 야트막한 동산과 능선, 평평한 산책로 등의 평이함을 내세워 문화생태의 한 고리로서 이응노마을의 이미지를 정립시켜야 한다.

이응노마을 공간,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으로써 심인心因적 공간의 확장과 연계

1. 작은 규모의 적절성을 찾아 '쉼-휴식' 의 공간으로 이응노마을을 이해시켜야 한다.
2. 문화예술행사의 적절한 규모문제가 이응노마을에서는 중요한 기획의 핵심이 된다.
3.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과 방문자에게 생산적 문화체험 공간으로서 이응노마을을 이해시켜야 한다.

5. 협동조합

1) 필요성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공동투자 · 수익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1.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응노마을에서 사업단위, 사업아이템에 대한 공동의견이 도출될 경우 이를 실행하는데 적합한 실무차원에서 '협동조합' 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협동조합 구성방식과 단계별 과제

협동조합, 마을의 공동 발전과 마을주민의 화합 위한 첫걸음

협동조합,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활동 촉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
협동조합, 간단한 설립절차 통해 민주적 절차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격 단체 구성가능

협동조합 기본법[1]의 개요

1. 협동조합은 비교적 간단한 설립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2. 초기 사업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시작해 추후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협동조합을 분할하거나 별개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이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과 비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마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개의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하다.

핵심 내용	상세 내용	의의
의결권 :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개의 법인격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 수요 모두 반영
최소 설립 조합수 3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 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최소 설립 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 ~ 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표)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요

1)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546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2562#

협동조합 설립 절차

설립 단계	내 용	세부 절차 및 내용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0조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0조 참조.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이력서 및 사진 첨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 56조에 해당할 경우)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설립 단계	내　　용	세부 절차 및 내용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표)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정관의 사례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별첨 별첨[2)]



2) http://www.coop.go.kr/COOP/bbs/archiveDetail.do?BOARD_SEQ=28, 혹은 USB 첨부자료 참조.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역시 위의 출처나 첨부자료를 참조.

사업내용과 목표[3)]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목 표
수익사업	- 간이식당사업 - 펜션 사업 - 특산물 관련 사업	- 농산물 생산의 1차 산업형태에서 3차 산업 형태로 전환
수익 보조사업	- 마을 신문사 - 마을 도서관 - 서점	- 추후 6차 산업 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 작업으로 이해
마케팅 사업	- 거점 확보와 정리 - 산책로 개발과 정비 -문화예술 기반 마을잔치 (축제)	- 6차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일로써 주민들이 공동이해 안에서 진행
투자 사업	- 플리마켓 - 작가 거주 프로그램	- 마을의 인력풀 관계 형성 마련

표) 사업내용과 목표

※ 협동조합의 형태로 진행할 사업에 한하여 제안한다.

※ 협동조합의 사업은 곧 마을공동사업이기도 하다.
모든 주민이 조합원이 아닐 경우일지라도 협동조합 사업의 수익과 이윤 부분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 배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조합원들의 실재적인 업무분장, 역할분장이 본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따른다.

3) Ⅲ. 4.4.1. 〈마을탐방로 개발의 필요성〉 내용과 연계

특별부록

1. 이응노마을 '2016 문화예술잔치' 이모저모
2. 이응노마을 '2017 문화예술잔치'
3. 사진과 함께 하는 이응노마을 10대 뉴스



1. 이응노마을 '2016 문화예술잔치' 이모저모





이응노마을서 또 다시 주민들의 흥겨운 '잔치' 펼쳐졌다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전시 … 주민 생산 농 · 특산물 · 관광아트상품 판매
1년여 성과 담은 별의별 이야기, 마을신문 등 전시배포 및 주민다큐 제작상영

이응노마을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흥겨운 잔치가 펼쳐졌다.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1년여 간 주민 역량강화 및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를 모아 놓은 '2016 문화예술잔치'가 11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이응노마을 복지회관을 비롯해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주민들을 비롯해 홍성지역 주민, 외지방문객, 군내 각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겹게 펼쳐졌다.

이날 잔치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및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1년여 간의 결실을 잔치로 개최한 것.

이날 회관 1층에서는 산야초 명품효소, 회관 2층은 마을영화관으로 꾸며져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시리즈 2편인 주민 5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도 제작, 상영됐다. 또 별의별 도자기공방에서는 생활도자기,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가죽공예, 유리공예, 목공예 작품이 전시되는 등 주민들이 1년여 간 땀 흘리며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또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1년여 간의 사업성과를 담은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와 마을신문(1~17호), 주민 5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책자, 주민 캐리커처 명함 등이 전시 배포됐다. 아울러 2000여 권에 이르는 주민과 거버넌스 위원, 홍성지역 각 기관단체장 등의 기증 및 구입 도서를 전시, 도서 기증을 통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 · 특산물과 관광아트 상품으로 제작한 가죽 · 유리공예, 목공예, 천연염색 제품의 홍보 판매를 위한 판매대를 설치, 60여 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2016년 1년여 간 성과 담은 다큐 상영 … 주민 주축 된 풍물패 연습 결과 발표

이날 잔치의 마무리는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펼쳐졌다. 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잔치국수를 비롯해 음식과 다과를 주민과 홍성군민, 외지방문객 등이 함께 나눴으며, 1년여 간의 이응노마을 사업 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

공연 행사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으로 지난해 구성된 마을 풍물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공연의 마무리는 안회당 음악극 '지금곡只今曲' 이 장식했다. '지금은 금지되지 않은 저항의 노래' 라는 '지금곡' 공연에서는 '새야 새야', '봉선화', '눈물 젖은 두만강', '애수의 소야곡', '고향의 봄', '산토끼', '광야에서', '바위처럼', '독립군 아리랑' 등 일제강점기의 금지곡을 맛깔나게 꾸민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응노마을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속 펼쳐진 특별한 기억들

〈이응노마을 2016 문화예술잔치, 지상 갤러리〉

이응노마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년 차를 맞는 2016년에도 1년여 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올해 주민 역량강화에 집중된 조성사업은 먼저, '힐링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소중한 감각을 일깨웠고, 마을 관광 아트 상품 개발을 통한 공동 소득창출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했다.

아울러 아산 공세리마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홍성 홍동 문당환경농업마을, 청양군 관광지, 양구 박수근미술관, 프랑스 파리 · 영국 런던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예술마을 조성과 공동 소득창출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신문(6~17호)과 마을영상 등의 제작으로 홍보 효과는 물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구축된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별의별 도예공방'과 '별의별 작은 도서관'은 마을의 중요거점으로 주민 참여 공간과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16년 11월 12일, 이와 같은 성과를 종합한 두 번째 흥겨운 마을 문화예술 잔치가 펼쳐졌다. 회관 2층은 주민 어르신 5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마을영화관으로 구성했고, 회관 1층은 산야초 명품효소 작품이 전시됐다. 별의별 도예공방에는 주민 생활도자기와 이기선 도예가의 도예 작품이,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는 가죽 · 유리공예, 목공예 등이 전시됐다.

이제 2016년 1년여 사업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한 주민 참여 생활예술 작품과 마을신문, 마을 및 주민 인터뷰 다큐,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책자 등 성과물을 지상갤러리를 통해 전시한다.





지상 갤러리 (사진 설명)

1. 이응노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응노마을 'BI(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예술과 마을을 사랑하는 '응이'와 용봉산의 정기를 이어 받은 요정 '용이', 백월산 맑은 물의 요정 '월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캐릭터가 조화롭게 새겨져 있다.

2. 이응노마을의 11월 초는 무척이나 바빴다. 11월 12일 마을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김숙자 부녀화장을 비롯해 부녀회원들이 김치 담그기에 바쁘다. 그밖에 잔치에 쓰일 음식 장만에 11월은 마냥 바쁘기만 하다. 그리고 주민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작품과 마을신문, 마을책자 등 전시를 위해 바빴고, 새롭게 구성된 마을 풍물패는 이번 잔치에서 첫 선을 보이고자 설렘을 안고 괜히 바빴다.

3. 회관 2층에는 마을 주민 5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최민갑 · 김상오 씨를 비롯해 윤소수 · 이옥선 씨, 신영학 · 김영순 씨, 한충식 · 김봉자 씨, 정동규 · 장순희 씨 등 5쌍의 부부가 들려주는 부부의 삶과 가족에 대한 사랑, 마을에서의 소소한 일상, 마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들어볼 수 있다.

4. 회관 1층 거실에는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산야초, 달지 않은 명품효소'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담근 효소가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다.

5. 별의별 도예공방에는 전기 가마와 흙(백자토 · 청자토 · 옹기토)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놓여 있고,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빚은 다양한 그릇과 접시, 머그컵과 이기선 도예가가 빚은 도예작품이 전시됐다.


1


2



3


이웅노마을
'달지 않은 명품효소'
산야초

4


이웅노마을
도자기 프로그램
내가 만든 밥그릇
일시 2016. 5. 12(목) ~ 8. 4(목) 14:00~16:00 [12회
장소

5

6.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는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등받이의자, 선반, 좌등 등 작품을 비롯해 카드 · 명함지갑, 안경케이스 등 '손 안의 명품 만들기' 강좌를 통해 만든 가죽공예 작품, 유리공예 작품 등이 전시됐다.

7. 또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에는 1년여 간의 이응노마을 사업성과를 담은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와 주민 5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책자, 마을 신문(6~17호), 주민 캐리커처 명함 등이 전시됐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안의 목공예 작품과 책자 등은 전시회가 끝나도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전시된다.

8. 별의별 작은 도서관 책꽂이에는 지난해부터 마을 거버넌스와 주민, 지역민, 외지방문객 등 다수가 기증한 도서 2000여 권이 꽂혀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민, 외지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서 기증을 통한 마을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9.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는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펼쳐졌다. 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잔치국수를 비롯해 음식과 다과를 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외지방문객 등이 함께 나눴으며, 1년여 간의 이응노마을 사업 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 공연 행사는 마을 풍물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안회당 음악극 일제강점기 저항의 노래를 공연한 '지금곡只今曲'이 마무리를 장식했다.

10. 마을잔치와 연계해 이응노의 집에서는 개관 5주년 특별기획전 〈새로운 세계와 리얼리즘: 이응노, 해방공간~1950년대〉 전시회가 개막했다. 고암 이응노 화백이 식민지적 근대성을 극복하고 리얼리즘을 통과, '추상'의 현대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6


7


8



9



10

2. 이응노마을 '2017 문화예술잔치'





이응노마을 주민들의 흥겨운 '문화예술잔치' 펼쳐진다

마을 1년여 간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성과물 전시 상영

이응노마을에서 2017년 올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며,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이 한데 어우러진 흥겨운 '문화예술잔치'가 펼쳐진다.

주민들이 1년여 간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를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마을 복지회관 별의별 공간을 비롯해 이응노의 집 일원에서 '2017 문화예술잔치'로 펼쳐놓는다.

'2017 문화예술잔치'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1년여 간의 결실을 문화예술잔치로 개최하는 것. 문화예술잔치에는 마을주민들을 비롯해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홍성지역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다.

마을의 3년여 간 성과 담은 마을 변화 발전상 및 주민 인터뷰 다큐멘터리 상영
도자기 · 목공 · 가죽 · 유리 등 1년여 간 땀 흘린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전시

이날 먼저, 마을 복지회관 신 회관 1층은 영화관으로 꾸며, 3년간 진행한 마을 및 주민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1~3편 시리즈'로 구성된 주민어르신과 주민리더 인터뷰 영상 상영뿐만 아니라, 마을의 변화 발전상을 담은 영상도 상영한다.

또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신구 회관 2층)'과 '별의별 도자기공방'에는 주민들이 땀 흘리며 1년여 간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생활도예품을 비롯해 목공예품, 가죽제품, 유리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그리고 1년여 간의 사업성과를 담은 결과물인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책자와 마을신문(18~29호) 등이 전시된다. 특히, 2500여 권에 이르는 주민들과 거버넌스 운영위원, 홍성지역 기관단체장, 외지방문객 등의 기증도서와 구입도서 등이 전시돼 도서기증을 통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방향도 제시한다.





마을부녀회, 정성껏 마련한 음식 대접해 … 마을청년회, 주차안전 및 안내 등 행사 빛내
홍성예총 찾아가는 예술제 공연행사 펼쳐져 … 마을주민들,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뒤풀이

이날 문화예술잔치의 주 행사는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펼쳐진다. 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국수를 비롯해 수육, 묵, 떡 등 음식과 다과를 마을주민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이 함께 나누는 점심식사가 이어진다. 마을청년회에서는 주차 및 안전관리, 행사안내 등을 맡아 행사를 빛낸다.

공연 행사는 마을 풍물패 '고암풍물회'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된 고암풍물회는 올해 1년여의 연습 과정을 '전국이응노미술대회'와 이날 '문화예술잔치'를 통해 발표한다. 이어 노보성 감독이 제작한 1년여의 사업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본 공연은 한국예총 홍성지회의 '찾아가는 거리예술제'가 장식한다. 홍성여자중학교(지도교사 우만식) 학생들의 가야금 합주로 문을 연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는 소담소리(김진석 지도교사)의 '통기타 포크송', 가수 정수아 · 송요선 씨의 가요 공연, 길병권 외 1인의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협연, 행복지기(김란경 · 권승원)의 '통기타 가요' 공연, 달빛색소폰(장익성 외)의 '색소폰' 연주로 이어진다.

공연 행사의 대미는 마을주민들의 노래자랑이다. 올해 '문화예술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마을부녀회 · 청년회 · 노인회 회원 등이 잔치 뒤풀이로 흥겨운 노래자랑을 펼친다.

한편 이응노마을 '2017 문화예술잔치'는 11월 4일 토요일 문을 열어, 다양한 전시 · 상영 행사와 공연행사를 진행한다. 마을 '문화예술잔치'와 함께 이응노의 집에서는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박은태의 '사람들' 전을 개막한다. 마을 전시 · 상영 행사는 11월 12일 일요일까지 마을 복지회관 일원 별의별 공간에서 이어진다.

3. 사진과 함께 하는 이응노마을 10대 뉴스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속 무한한 가능성 보여줘

주민 스스로 참여해 자치 역량강화 … 예술마을 가치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응노마을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 2014년 10월 선정되면서, 2015년 6월부터 3년 간 예술마을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먼저, 이응노마을 조성사업은 시설 투자보다 주민 역량강화에 집중했으며, 먼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힐링 반상회' 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이뤄냈고,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예술에 대한 소중한 감각을 일깨웠다.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공동소득 창출도 고민했다.

또한 이응노마을신문과 영상다큐멘터리 등의 제작 상영해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홍천마을 복지회관 구 회관을 '도자기공방' 과 '작은 도서관' 으로 재생해 예술마을 사업의 거점을 만드는 데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3년 간 매해 11월 초순께,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마을 '문화예술잔치' 로 펼쳐졌다. 문화예술잔치는 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1년여의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맺은 결실을 마을잔치로 개최한 것.

이에 올해 '문화지역 조성사업' 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3년 간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희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주민들과 거버넌스 운영위원들의 활동상을 사진과 함께 10대 뉴스를 묶어보았다. 해가 바뀌어도 '예술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예술마을 재생사업' 은 더욱 깊고 넓어져,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1



2

① 홍천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 공모사업' 문화마을 선정

2017년까지 6억 원 투입 … 예술마을 재생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이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공모사업' 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 충청남도 ·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2015~2017년 3년간 6억 원을 투입, 이응노의 집과 연계한 예술가치 프로그램 개발' 을 주요 추진과제로 해 예술마을 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펼친다.

이밖에도 마을 유 · 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창의인재 육성 등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② 민 · 관 · 연 거버넌스 회의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기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0여 차례, 마을 주민리더 중심 거버넌스 회의 체제 구축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홍천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 주체인 '마을 주민리더와 지역 문화예술전문가, 지자체 행정인력' 이 중심이 돼 운영 조직인 거버넌스 회의 체제를 갖췄다.

거버넌스는 2014년 12월 23일 첫 예비회의 이후, 2017년 10월 현재 6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조성사업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거버넌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에 대한 핵심 역량을 집중, 마을의 미래 비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마을명칭인 '홍천마을' 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의 마을로의 확산이라는 의미로 '이응노마을' 로 명명하고, 홍천마을과 이응노마을을 병행 사용한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힐링 반상회' 와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비롯해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선진지 견학' 과 '마을 BI(브랜드 가치)와 캐릭터' 개발해 마을 농 · 특산품을 홍보 판매한다.

이밖에도 '마을신문 및 영상' 제작, '마을상징물' 설치, '마을 도자기공방' 과 '작은 도서관' 등 설치로 구 회관을 재생하고, 마을 내 빈 집을 활용해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전국이응노미술대회' 와 '한여름 밤의 예술마실' , '마을 문화예술잔치' 개최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예술마을의 품격을 높인다.

③ '힐링 반상회' , 예술마을 조성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와 발전 관심 갖고 참여하는 계기 마련

이응노마을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을 통해 '농촌재생과 희망마을 만들기' 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홍성생태학교 나무(이사장 모영선)가 마을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행단체로 선정되고 민 · 관 · 연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이응노마을' 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힐링 반상회' 자리를 마련했다.

2015년 힐링 반상회 1차 마을은 6월 6일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은 6월 15일 마을노인회관에서, 주민 30여 명 이상이 참석해 11월까지 꾸준히 열렸으며, 주민들 간 화합하고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힐링 반상회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년차 주민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참가 독려, 주민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김덕자 강사의 힐링 건강체조와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2016년 힐링 반상회 1차 마을은 4월 4일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은 4월 15일 마을노인회관에서, 주민 30여 명 이상이 참석해 11월까지(농번기 제외) 꾸준히 열렸으며, 주민들 간 화합하고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힐링 반상회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년차 주민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참가 독려, 주민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김덕자 강사의 힐링 건강체조와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2017년 힐링 반상회 1차 마을은 3월 6일 마을회관에서, 2차 마을은 3월 15일 마을노인회관에서, 주민 30여 명 이상이 참석해 11월까지(농번기 제외) 꾸준히 열렸으며, 주민들 간 화합하고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힐링 반상회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년차 마지막 해 주민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참가 독려, 서지명 강사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인 비누 만들기, 향초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한편 힐링 반상회는 3년 간 1차 문화마을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2차 문화마을은 매월 15일 열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강화, 주민 역량강화 등 이응노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3


4

④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위한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민 의견과 수요 조사 반영, 공동소득 창출 · 마을장터 도움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5년 주민 생활예술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홈패션-손바느질과 재봉틀 △목공예-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DIY · 정크아트 작품 만들기 △미디어 교육-우리 동네 사진사 △산야초, 달지 않는 명품효소 △도예-내가 만든 밥그릇 등으로 주민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 강좌가 이뤄졌으며, 11월 14일 토요일 마을 '문화예술잔치'에 첫 선을 보였다.

2016년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 조사를 반영, 대폭 수정 보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목공예-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산야초, 달지 않는 명품효소 △도예-내가 만든 밥그릇 등만 유지하고, 대신 관광아트 상품으로 제작 판매에 유리한 '가죽공예'와 '유리공예'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주민 공동소득 창출과 마을장터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5년 10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마을' 컨설팅이 시작되면서 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패'를 조직, 매주 2~3회의 풍물 연습을 통해 마을 화합행사나 문화예술잔치 등 각종 공연에 참여,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7년 주민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수요조사를 반영, 지난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과 △목공예, 우리 동네 목수 양성과정, 관광아트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가죽공예, 손 안의 명품 만들기', △유리공예, 함께 만들어요' 등을,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 지원했다.

특히, 2017년에는 마을 풍물패인 '고암풍물회' 지원 육성을 비롯해 마을 '별의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마을 브랜드 농 · 특산품 홍보 판매에 대한 지원 육성을 통해 마을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⑤ 주민 화합과 공동소득 창출 위해 선진지 견학 다녀와

주민리더, 국내외 '마을 만들기' 배우고,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 위해 선진지 연수 다녀와
주민들, 주민 화합과 공동 소득창출, 예술마을 조성 위해 국내 선진지 마을 차례로 방문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에는 마을 주민리더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제주도 '가시리권역 · 녹고뫼권역 · 낙천리 아홉굿마을 ·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및 이중섭거리' 등을 돌아보며 3년간 마을에서 진행되는 예술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릴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 화합과 공동 소득창출을 위해 전남 무안 '백련지마을'과 경기 남양주 '능내연꽃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고암 이응노 화백 선양사업과 예술마을 조성의 선진 사례인 대전 '이응노미술관'과 경기 파주 '헤이리마을' 등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

2016년에는 마을 주민리더들을 중심으로, 고암 이응노 화백의 '프랑스에서의 예술적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예술적 흔적을 찾아 자료화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특히, 프랑스 파리 고암서방과 고암아뜨리에를 방문, 미망인 박인경 여사와의 면담을 통해 홍성군과 이응노마을에서 '고암이응노화백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박 여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

이밖에 주민리더들은 고암의 예술적 자취가 남아 있는 파리 고암서방을 비롯해 동양미술학교, 고암이 잠들어 있는

페르라세즈 공원묘지 등과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트 사원, 대영박물관, 옥스퍼드마을 등 선진 문화시설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주민들은 주민 화합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과 충남 '홍성 홍동 일원과 청양 천장호, 고운식물원'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예술마을 조성의 결실을 알차게 맺기 위해 강원 양구 '박수근미술관' 등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

2017년에는 마을 주민리더들을 중심으로, 일본 나가노현 키소마치(키소 후쿠시마)로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다.

주민리더들은 키소 후쿠시마의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에 대해, 이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마을 만들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키소 후쿠시마의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방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마을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식회사' 등 조직 운영 시 접목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또 키소 후쿠시마가 지니고 있는 역사 · 생태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마을의 '예술마을化'를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민 화합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경북 청도 '성수월마을'을 비롯해 충남 부여 '부여서동연꽃축제장'와 예산 삽교 초막골마을 '마을박물관' 등을 다녀왔고, 예술마을 조성의 결실을 알차게 맺기 위해 경기 안양 '안양예술공원',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서산 '유기방 가옥' 등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

⑥ 마을 복지회관 구 회관 2층 '별의별 작은 도서관' 재생 구축

1층 도자기공방도 재생 …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도 진행

이응노마을 복지회관 구 회관 2층이 마을 도서관과 주민 쉼터를 겸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별의별 작은 도서관은, 거버넌스 운영위원들의 도서기증으로 시작해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의 도서기증이 줄을 이었다. 현재는 도서 25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기증 운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별의별 작은 도서관은 마을 거버넌스 회의를 비롯해 독서모임, 어린이 책 공부방, 주민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


5



6

되며, 상시 개방하고 있어 주민이나 외지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서기증을 원하면 누구나 방명록 또는 메모를 통해 도서기증 의사를 밝히면 된다.

올해 들어 구 회관 별의별 작은 도서관이 신 회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래 구 회관 2층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전시장 공간으로 더 활용되며, 신 회관 2층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를 비치, 마을 '별의별 어린이 작은 도서관' 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1층 도자기공방도 재생 구축을 마치고 '도예, 내가 만든 밥그릇'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흙으로 만든 도예품에 유약을 입혀 구워내는 전기 가마도 설치 완료됐다. 현재는 김종석 강사가 마을 내 빈 집에 이사와 거주하면서, 도자기공방 주인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⑦ 마을 '별의별' 공간과 이응노의 집서 주민들 흥겨운 '문화예술잔치' 펼쳐져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 전시 … 별의별 공간서 '별의별' 이야기 펼쳐져

이응노마을에서 흥겨운 잔치가 펼쳐졌다. 별의별 공간서 '별의별' 이야기 펼쳐진 것.

주민들이 1년여 간 생활예술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모아 놓은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가 2015년에는 11월 14일 토요일, 2016년에는 11월 12일 토요일에 마을 복지회관을 비롯해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흥겹게 펼쳐졌다.

마을 신 회관 1,2층과 구 회관 1,2층에는 주민들이 땀 흘리며 1년여 간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작품이 전시됐으며, 신 회관 1층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마을을 이끄는 주민리더 5쌍 부부의 인터부 다큐멘터리와 주민어르신 5쌍의 부부 인터뷰 다큐멘터리도 제작, 상영됐다.

또한 구 회관 1층은 도자기공방으로, 2층은 별의별 작은 도서관로 새롭게 꾸며져, 주민들과 외지방문객을 맞았다. 특히, 구 회관 2층은 마을 작은 도서관과 주민 쉼터로 탄생, 주민들이 함께 만든 생활예술교육 프로그램 목공, 가죽, 유리공예 작품을 비롯해 1년여 간의 사업성과를 담은 '별의별 이야기' 와 주민리더 인터뷰 다큐멘터리 책자, 마을신문, 거버넌스 운영위원들의 캐리커처 명함 등이 전시됐다.

마을 '문화예술잔치' 는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펼쳐졌다.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국수를 비롯해 수육, 술, 떡, 전, 광일 등을 주민들과 홍성지역 주민, 내포신도시 주민, 외지방문객 등이 함께 나눴으며, 1년여 간의 마을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상영됐다.

한편 2017년 마을 '문화예술잔치' 는 11월 4일 토요일 마을 복지회관 별의별 공간을 비롯해 이응노의 집 생가 앞에서 흥겹게 펼쳐진다. 올해 문화예술잔치는 특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마지막 해로, 이날 행사에서는 3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빈전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⑧ 마을리더 상징화한 〈종 치는 사람〉 마을회관 옥상 위 설치

마을 사업 마무리 위한 상징물 설치, 별의별 공간 '더 특별한 공간' 으로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 〈종 치는 사람〉이 2015년에 사업 첫 해를 기념하며, 8월 2일 마을 복지회

관 신 회관 옥상 위에 설치됐다.

〈종 치는 사람〉은 조각가 홍상식 작가의 작품으로, 순조로운 조성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마을주민 모두의 기원을 담아 이응노마을은 물론 홍성을 넘어 타 지역까지 깊게 울려 퍼짐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주민리더를 형상화한 〈종 치는 사람〉은 핑크색으로, 색의 주안점을 두어 관습적인 색의 편견보다는 주시적이고 심미적인 강렬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물은 마을주민 모두의 배려와 격려 속에 마을 사업의 또 다른 시작과 변화, 발전을 핑크빛 열애 속에 꿈꿀 수 있게 형상화 했다.

2017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제작 설치된다. 홍성미술협회 회장인 주남수 작가의 제안공모서가 선정된 것.

주남수 작가는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 살리고, 예술마을 조성에 걸맞는 예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조형물을 설치, 전국 명소화를 구축하겠다는 제작 방향을 제시했다. 또 마을 상징조형물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다. 마을 예술마을 조성 중심인 마을 복지회관 별의별 작은 도서관과 도자기공방,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한다.

2015년 예술마을 조성에 따라 마을의 작은 도서관과 도자기공방을 설치한 마을 복지회관 구 회관 건물 외벽에는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는 푸른 별이 상징조형물로 제작된다. 페트병을 재생해 활용, 페트병 안에 전구를 넣어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는 푸른 별을 표현하고, 이에 따른 포토존을 조성한다.

이어 버스정류장은 마을 지도를 그려, 언제나 마을에 있는 듯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을 구성한다. 천장은 마을의 맑고 푸른 하늘, 벽면은 마을 지도, 간판과 바닥은 이응노마을과 이응노의 집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마을주민과 함께 도자기점토를 제작, 마을회관과 주택, 길 등에 붙이면서, '우리 집 만들기'의 재생 및 공동제작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을 상징물은 마을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고,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1월 4일 마을 '문화예술잔치'에 맞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7



8

⑨ 이응노마을, 시군창의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본격 추진

지속가능한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세부계획 만들어져

이응노마을에서 2017~2020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의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시군창의사업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 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연구용역을 맡아,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약 3개월여 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종보고에 앞서 마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것.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크게 나눴고, 아트프리마켓과 아트스페이스 조성, 마을 조형물과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상징거리 및 광장, 둑방길 산책로, 대나무 숲 조성, 별의별 마을 창작공방 활성화, 마을 농 · 특산물 개발, 주민리더 양성, 마을 문화예술잔치, 시군창의사업 기록화 등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해 나눴다.

연구용역 결과, 2015~2017년 3년 간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의 잘된 점은 더 확대하고,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 생활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예술상품화를 통한 특산품 패키지 개발을 목적하고 있다.

또한 연잎 · 표고버섯 · 고사리 · 농산물 효소 제품 등 농 · 특산물 개발을 통해 마을 공동 판매장을 구성 설치하고, 마을 공동수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⑩ 이응노마을서 처음 시도한 '마을과 예술' 접목한 신문 창간

예술마을 조성과 '사람' 중심 마을의 소소한 일상, 건강한 삶 담아내고자

'고암 이응노, 고향마을에 말을 걸다' 로 시작한 이응노마을신문이 6월 첫 호를 창간 발행했다. 이후 2017년 10월까지 총 29호의 신문을 발간했다.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은 이응노의 집과 연계, 예술마을 조성이 핵심내용인 만큼 마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건강한 삶을 담아내고자 현재까지 총 29호의 마을신문을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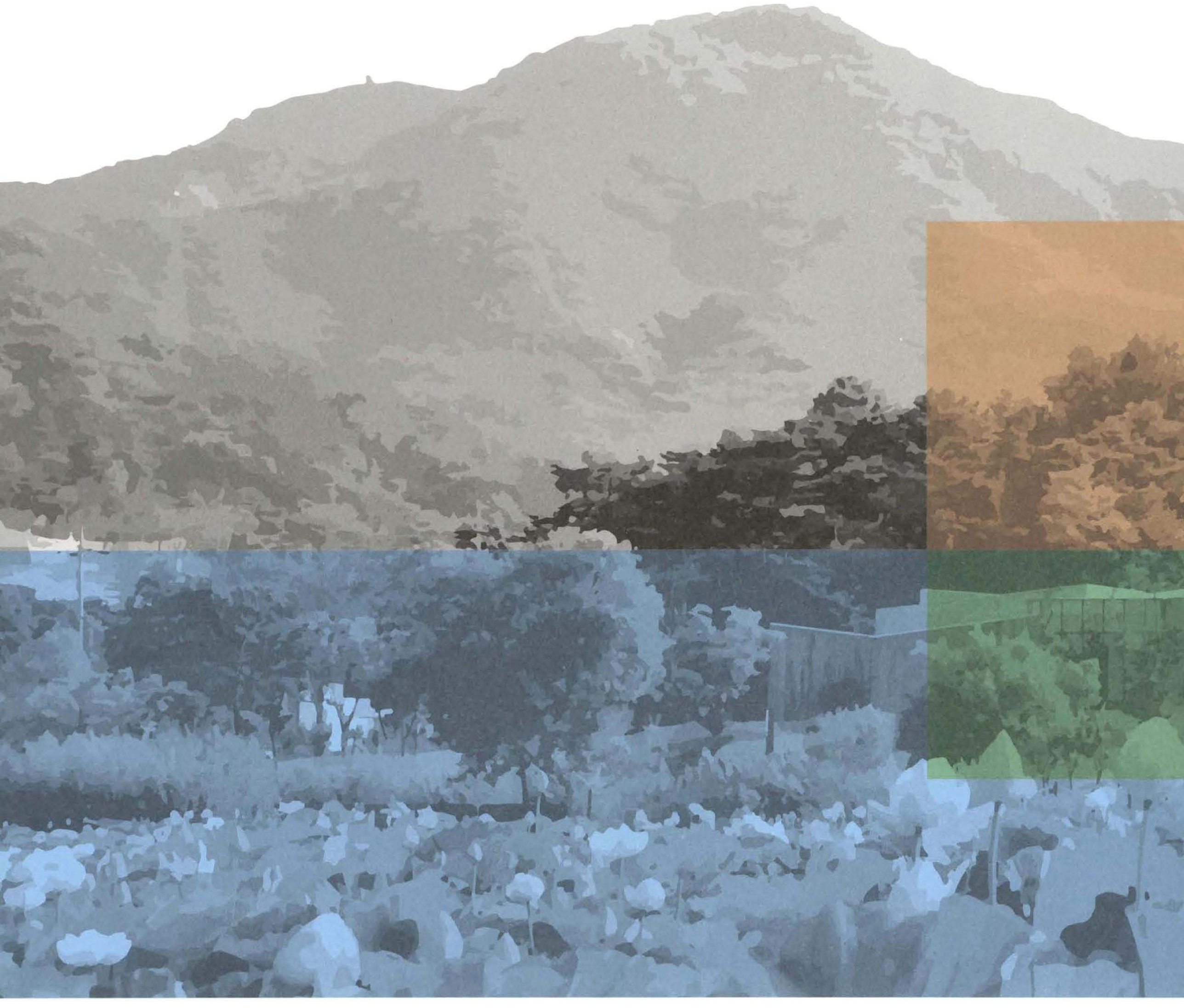
마을의 중심은 '사람' 이고, 모두가 주인이자 변화의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마을신문은 예술성과 생태성의 건강한 회복을 목표로, 한 호 한 호씩 마을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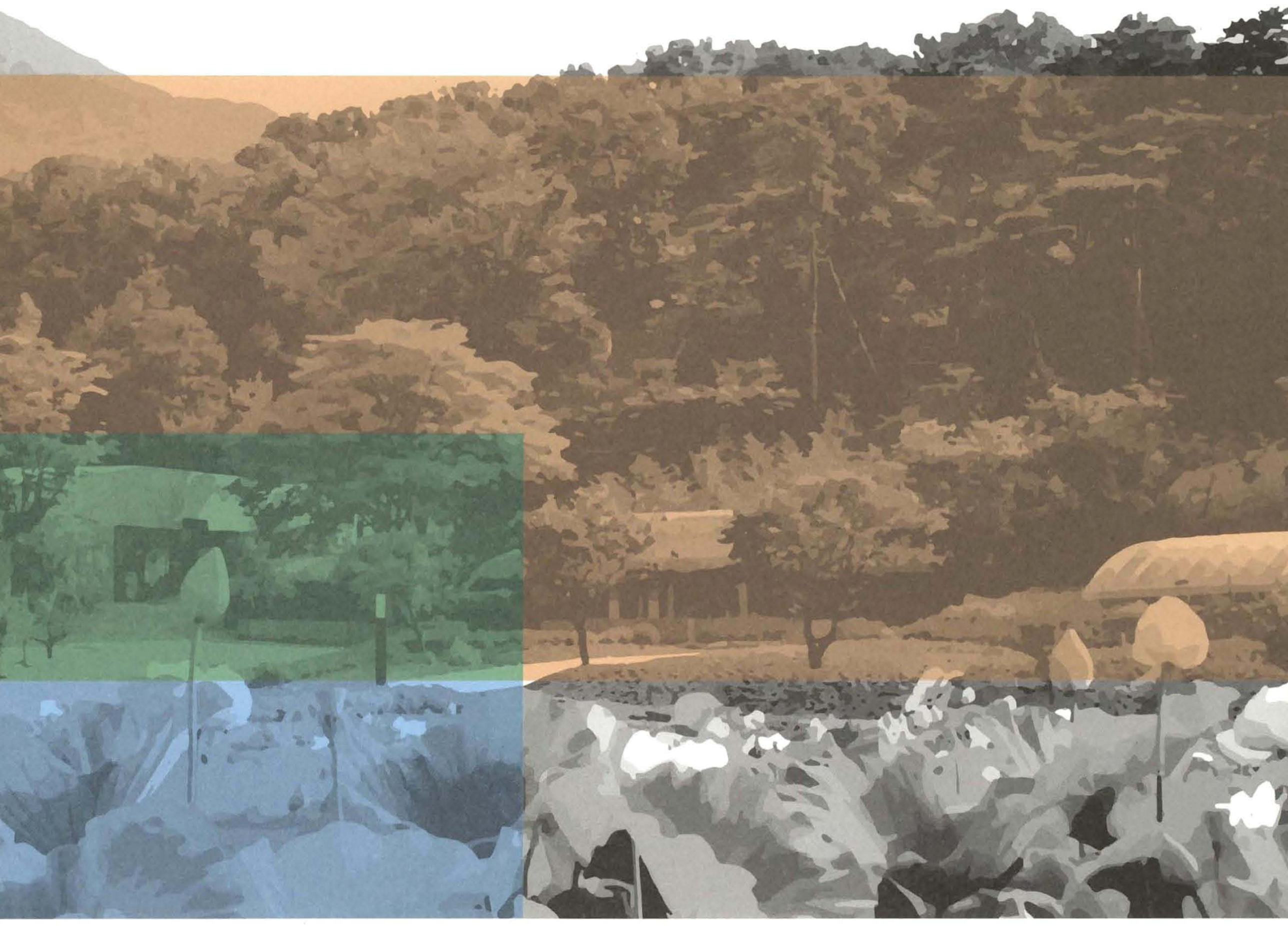
마을의 주체인 주민이 아직 마을과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보따리' 로 풀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2018년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건강한 삶 속으로 더욱 깊이 있게 다가가는 마을신문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년 마을신문은 현재의 신문 형태에서 벗어나, 웹진 형태의 잡지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마을 소식 위주에서 더 확장해 용봉산권역과 홍성지역을 포괄하는 신문으로 제작되고, 미처 건드리지 못한 분야도 담아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본 도서는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 충청남도 · 홍성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주관처에 있습니다.

발행인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발행일
2017. 11. 04

발행처
홍성생태학교 나무 www.econamu.com
주소 | 322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43번길 49
전화 | 041-635-9101
팩스 | 041-635-910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주관
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회, 홍성생태학교 나무

기획총괄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편집 · 취재
전상진

기획운영
김두홍

영상
총괄감독 노보성
촬영팀 고현진, 김정용, 김지환, 박지현

도록제작
(주)공감
주소 32244 충남 홍성군 대학길 25
전화 | 041-631-1997
팩스 | 041-631-199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조창희
디자인 · 편집 | 김지혜
출력 · 인쇄 | (주)대진종합인쇄

함께한 사람들 홍천마을사람들 용봉초등학교 홍성군자원봉사센터
용봉산돌바위마을한마음센터 강 섭 강연현 고현진 공필재 권재완
김석환 김덕배 김덕자 김도경 김동원 김두홍 김숙자 김영선
김일수 김정민우 김정숙 김정용 김종석 김지혜 김지환 김학량
김헌수 김혜지 노보성 모영선
박 만 박영임 박인경 박지현
박진복 방윤경 방은희 방정일
복성진 서지명 서지혜 소정식
손민광 송병숙 송재영 신금숙
신동학 안희정 양주명 오배근
유기백 윤용관 윤후영 이경숙
이기선 이병국 이상근 이상일
이선균 이 섭 이수연 이순화
이승호 이종화 이준범 이창엽
이태호 임기헌 임민숙 임영택 전상진 정승욱 조창희 주남수
최선경 최승락 최영준 한광윤 한진곤 황나경 황선욱 황현동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1년동안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고향마을로 돌아오다”

이응노의 집

LEEUNGNOVILLAGE